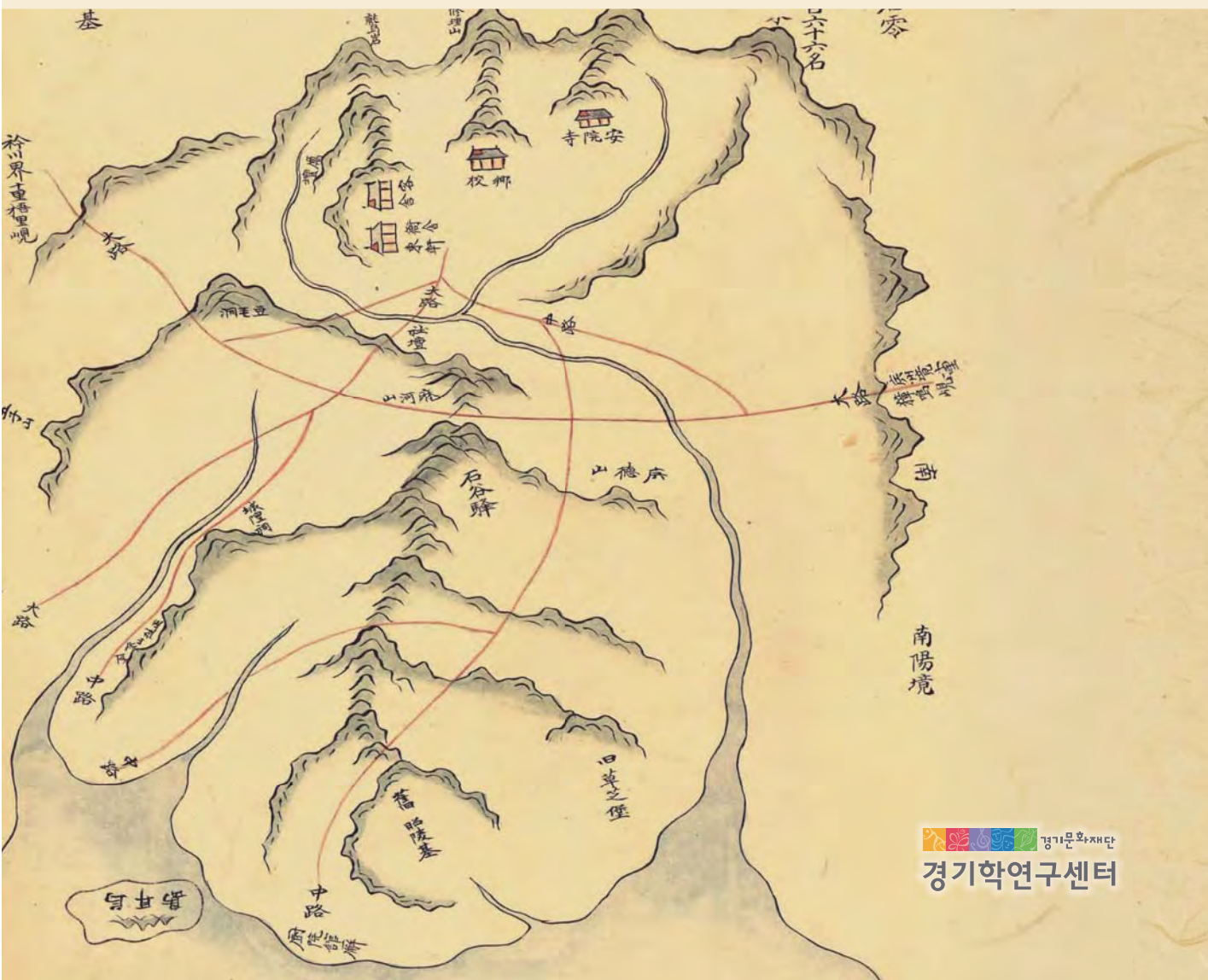


달월 열두 마을 이야기



달월 열두 마을 이야기

일러두기

- 월곶동은 1통(벌말, 독감), 2통(궁골, 새터, 상곡, 응고개, 섬산), 3통(고잔, 이호정, 우묵(무)골, 송곳, 구능뿌리, 조구나루(리)), 4통(통심, 삼밭(안삼밭, 바깥삼밭), 벌감)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마을들을 합하여 ‘달월 열두 마을’이라고 한다. 2015년 현재 일부지역(독감마을)에서 도시 개발 사업으로 공장이 늘어나고 있어 마을의 형태가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마을의 모습이 남아 있고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 마을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의 마을기록사업 대상마을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열두 마을이란 ‘12’개의 마을이란 의미보다는 ‘많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 ‘지명유래’는 I 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Ⅷ장 ‘주민들의 옛 이야기’에도 언급되고 있다. 제보자의 다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 합칠 경우 문맥상 어색하여 그대로 두었다.

‘달월 열두 마을’ 사람들 이야기

2012년에 국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골로 들어가는 물길에 월곶(달월)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월동리와 월서리를 하나로 묶은 월곶리는 고깃배가 드나들고 소금을 굽던 마을이었는데, 이후 갯벌 매립으로 월곶 포구와 신도시를 만들어 오늘의 시흥시 월곶동이 된 곳입니다. 소래 물길을 오르내리던 조기잡이 배들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월곶 고잔 언덕과 추억의 수인선이 정차하던 달월역(達月驛)이 있는 ‘달월 열두 마을’ 조사사업의 책자 발간을 축하합니다.

2015년 「경기마을기록사업」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의 상호협력의 산물로 ‘달월 열두 마을’ 이야기는 마을 주민의 삶이 어떻게 지금의 시흥시를 만들어 왔는가를 밝히는 귀중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흥문화원은 ‘지역 주민의 삶이 곧 역사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람으로 보는 우리 마을’ 조사사업과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으로, 시흥시 자연마을의 민속과 구술사를 정리하여 현재적 의미를 구명하던 차에 이번 경기학연구센터의 ‘달월 열두 마을’ 조사사업이 시흥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나아가 경기 지역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마을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구술사인데, 이는 삶의 흔적과 그 형태가 지역문화의 원형으로서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개발과 도시화로 자연 마을의 환경이 크게 변하고, 생업이 달라졌지만 구술사를 통하여 조상의 삶을 이해하고 생활문화를 계승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기도 전통문화의 원형을 재발견하고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마을 주민 여러분과, 현장을 찾아 조사하고 집필한 연구진, 편집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도움을 주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님, 경기문화재단 조창희 대표이사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시흥문화원장 정 원 철



목 차

I . 달월 열두 마을.....9

- 1. 마을의 인문환경..... 11
- 2. 마을의 역사 242
- 3. 마을의 지명유래와 변천사 247

II . 달월마을에서 삶.....257

- 1. 변한 게 없는 우리집 260
- 2.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279
- 3. 땅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 326
- 4.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준 도구들 339

III . 축제와 놀이 347

- 1. 마을에서 행해지던 축제 349
- 2. 마을에 전해오는 놀이 354

IV. 일생의례 361

- 1. 출산 363
- 2. 혼례 372
- 3. 상례 378
- 4. 제례 385

V. 민간신앙과 의료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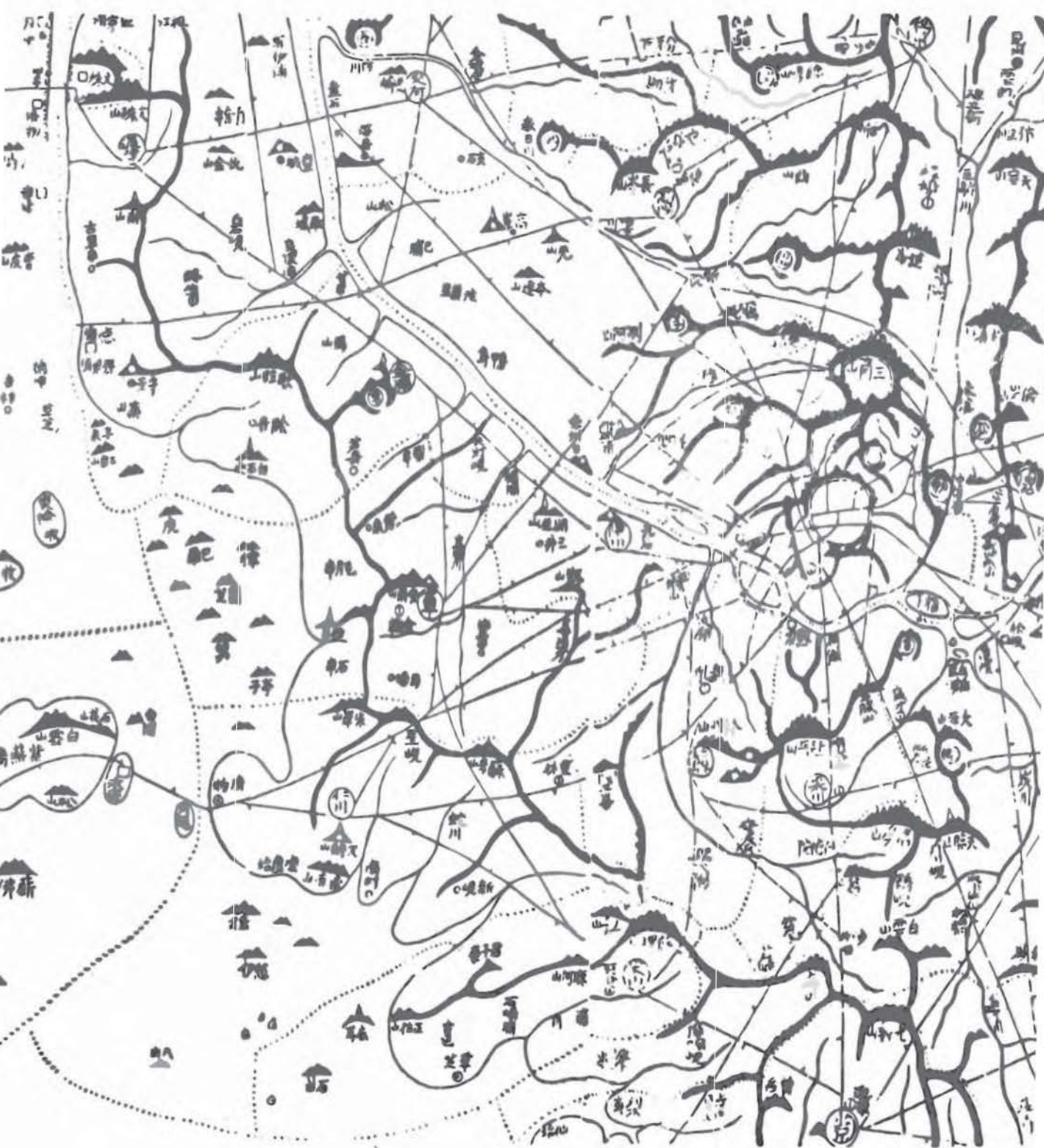
- 1. 월곶마을의 신앙 395
- 2. 민간의료와 속신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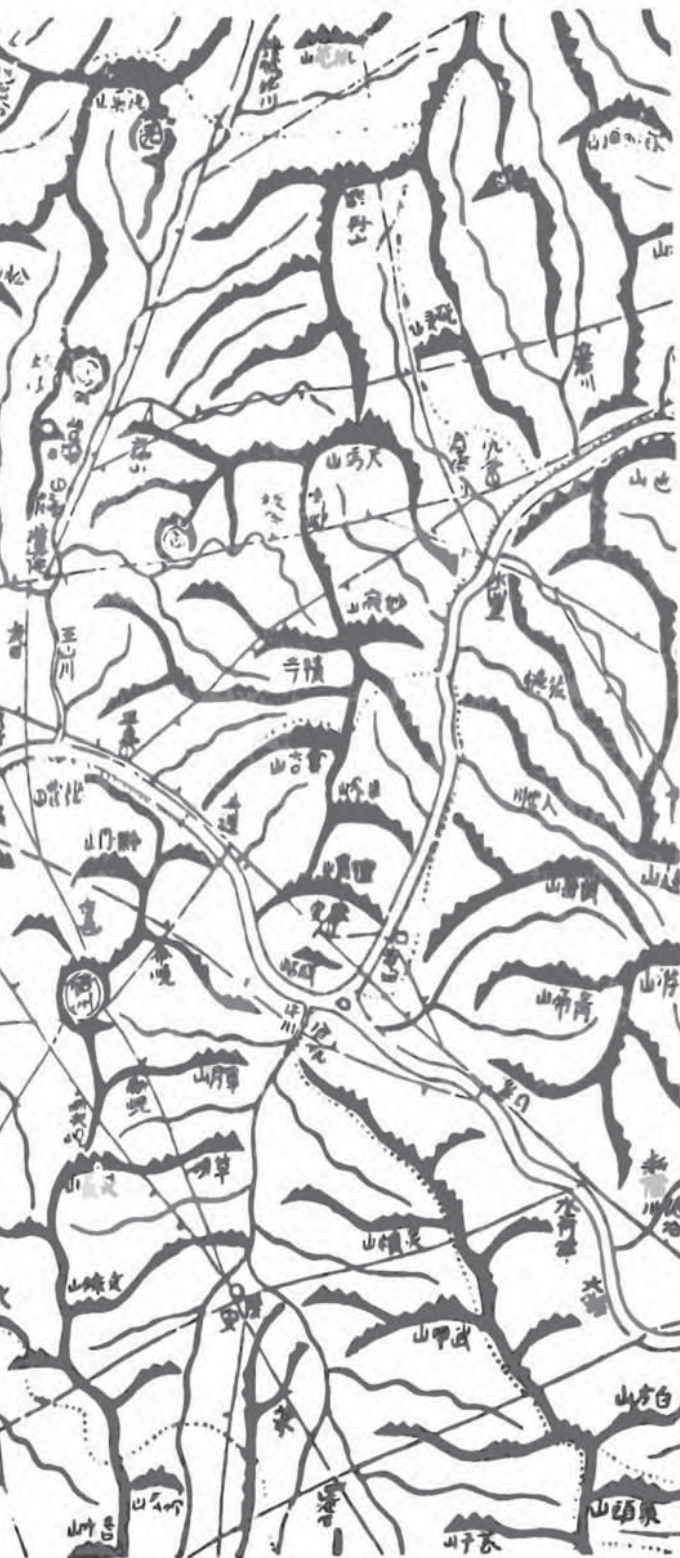
VI. 마을 사람들 이야기 403

- 1. 마을 할아버지의 살아온 이야기 406
- 2. 마을 할머니의 살아오신 이야기 445

VII.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와 노래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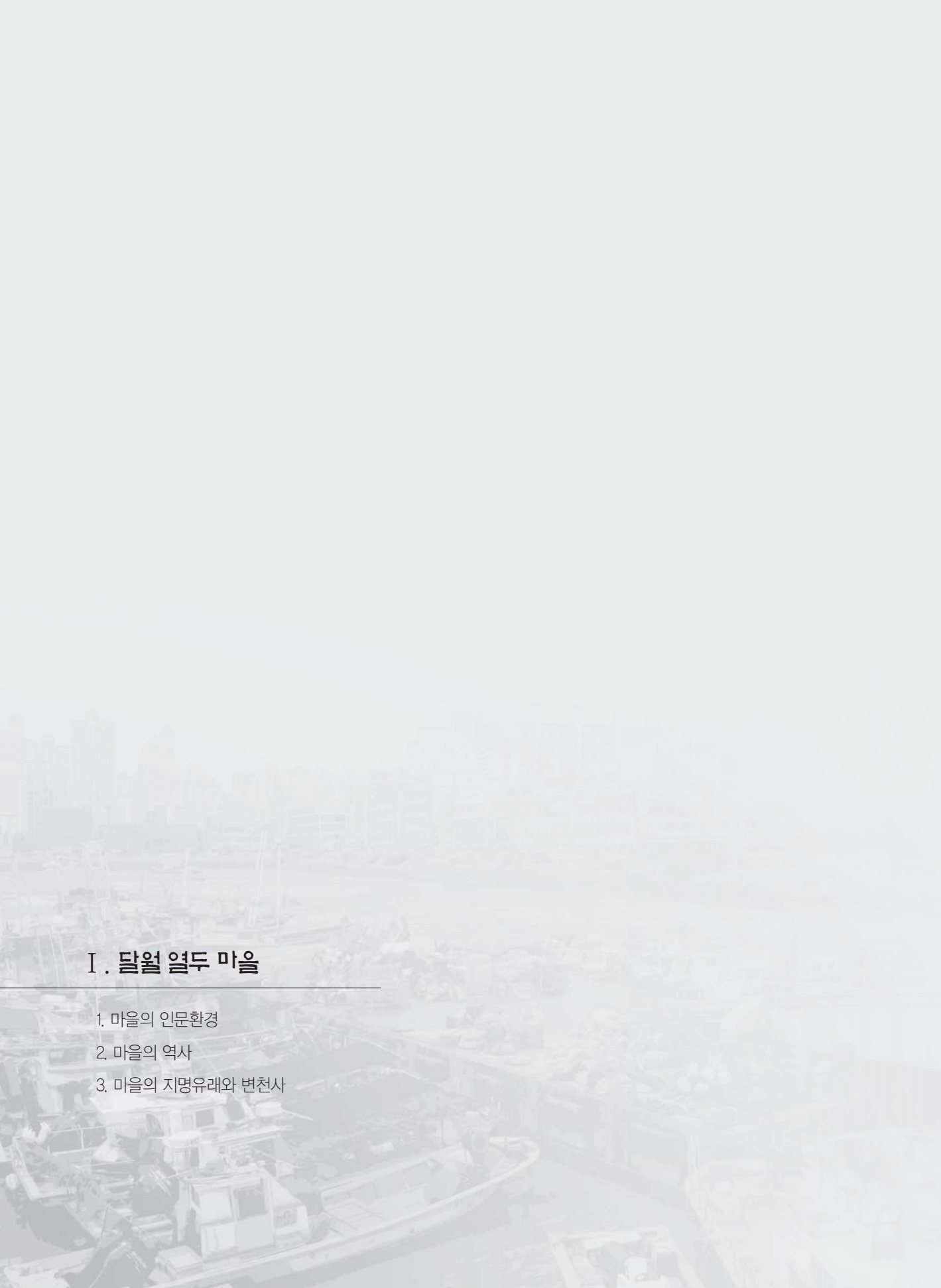
- 1. 마을 주민들의 옛 이야기 471
- 2. 마을 주민들의 노래 504
- 3. 속담 및 관용구 518





I

열두 번째 산맥



I. 달월 열두 마을

1. 마을의 인문환경
2. 마을의 역사
3. 마을의 지명유래와 변천사

I. 달월 열두 마을

1. 마을의 인문환경

1) 지리적 위치

시흥시는 경기도 중서부의 해안가에 위치하며 남서쪽은 서해에 접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의 내륙과 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부천시·광명시에 접하고, 동쪽으로는 안양시, 남쪽으로는 안산시와 접하며,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¹⁾ 조사 지역인 월곶동의 위치는 위도 37°22'32.06"N, 경도 126°45'14.77"E에 있고 북쪽으로 방산동과 포동, 동쪽으로 장곡동, 남쪽으로는 정왕동과 거모동에 접해 있다. 월곶동의 서쪽으로는 서해와 접해 있으며 가까운 섬으로 외암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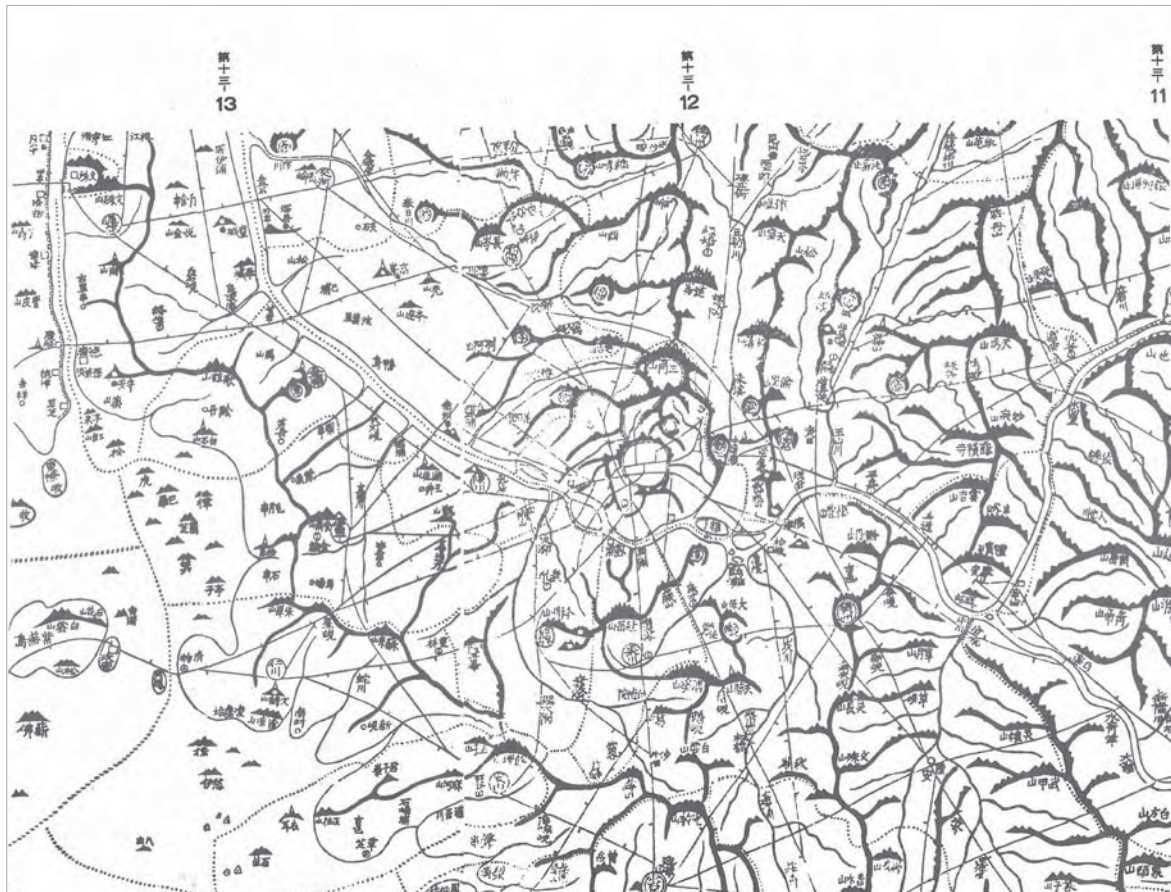
1861년에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 제13²⁾에는 지금의 월곶동이 “월곶(月狹)”으로 표기되어 있다. 18세기 중엽에 편집된 『해동지도』³⁾에는 안산군에는 조사 인근지역인 오이도가 표시되어 있다.

시흥시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광주산맥의 남서 단에 150~200m 내외의 낮은 구릉성(丘陵性) 산지들이 분포하며, 그 사이를 흐르는 소하천들에 의해 형성된 곡저평야(谷底平野)

1) 이광률, 자연지리, 시흥시사 1,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pp.22~23.

2) 경희대학교부설 전통문화연구소, 대동여지도원본, 백산자료원, 1991, p.13.

3) 韓永愚, 海東地圖 上,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5, p.55.



대동여지도 제13 월곶과 군자봉 표기 부분

와 하천의 하구 및 경기만의 소규모 내만을 이루는 해안에 발달한 넓은 간석지(干潟地)로 이루어져 있다. 시흥시의 지형은 삼각형의 형태로 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구릉성 산지와 그 내부의 곡저평야 및 간석지성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시흥시의 동쪽에는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는 수리산(修理山, 475m) 및 수암봉(秀岩峯, 395m)으로부터 남쪽으로 이어진 마산(麻山, 246m), 군자봉(君子峯, 196m), 범배산(141m) 등 150~200m 정도의 산지들이 분포하고 있다.⁴⁾ 북부 경계지역에는 소래산(蘇萊山, 299m), 성주산 등 200m 이상의 구릉성 산지들이 분포한다. 시흥시의 서부에는 단층(斷層) 작용에 의한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구릉 산지가 길이 약 9km의 긴 능선을 이루며

4) 앞의 책, pp.24~27.

발달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⁵⁾에서 소장(고4709-61)하고 있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정향기(鄭尙驥)의 『동국지도(東國地圖)』에 의하면 시흥(始興)이라는 지명과 함께 수리산(修理山), 소래산(蘇萊山)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양지산(陽支山, 140m)을 지나 운흥산(雲興山, 205m)으로 이어지는 이 산줄기의 해발 고도는 150m 내외이다. 시흥시의 남부에는 동서 방향의 산지가 발달되어 있는데, 월곶동 인근의 산은 북쪽으로 학미산(鶴眉山, 96.0m), 동쪽으로 범배산, 남쪽으로 봉화산(烽火山)이 위치해 있다. 지질은 화강암·화강편마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캄브리아기 이후의 오랜 침식으로 평탄화되었지만 화강편마암지역과 편암지역은 비교적 높은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⁶⁾

시흥시에는 목감천(牧甘川), 보통천, 은행천(銀杏川), 신천천(新川川), 장현천(長峴川) 등 5개의 주요 하천이 있다. 이 중에 은행천, 신천천, 보통천은 황해로 흘러든다. 시흥시 내부를 흐르는 하천 중 가장 큰 것은 보통천이다. 보통천은 시흥시의 남동부 목감동과 안산시의 경계가 되는 산지 능선부에서 발원하여 북서류하다가 매화동에서 은행천과 합류하여 월곶동 북쪽에서 서해로 유입된다. 보통천의 유로 길이는 11.9km이며 유역분지의 면적은 23.75km²로 하천 유로의 시점과 종점이 시흥시에 속하는 하천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⁷⁾

시흥시에 발달한 평야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소하천의 하곡에 좁고 길게 발달한 곡저평야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해안의 간석지였던 지역이 매립(埋立) 또는 개간(開墾)되면서 형성된 간척평야이다. 곡저평야는 보통천과 은행천의 하곡이 가장 전형적이며, 간척평야는 시흥시 중서부에 위치한 보통천과 은행천의 하구인 월곶동 및 포동 일대와 시화산업단지가 위치한 정왕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행정구역상 매화동 및 은행동에 속하는 보통천과 은행천의 중·하류에 발달한 곡저평야는 두 하천의 유로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비변사등록』⁸⁾에는 1711년에 경기만 중부 연안의 간석지 및 해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도대장 이우항(李宇恒)이 말하기를, 부평(富平)의 석곶포(石串浦)는 조수가 빠진 뒤에나 물이 줄어든 때 갯벌이 평원(平原)을 이루어 적의 배가 결코

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향기의 『동국지도』-원본계통의 필사본-, 경기·충청도, 목차 17.

6) 최진식, 시흥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585.

7) 주5) 앞의 책, pp.27~29.

8) 『비변사등록』 숙종37년 3월 17일조.

정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따로 군사시설[鎭堡]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원(水原)의 삼부포(三阜浦)에도 흥천산(興天山)의 봉수(烽燧)가 있으니 중복해서 요망대(瞭望臺)를 만들 필요가 없을뿐더러, 포로(浦路)가 구불구불 돌고 물도 얇고 그 거리가 멀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양(南陽)의 화량진(花梁鎭)이 있는 곳은 바로 요해처입니다. 이곳은 대부(大阜)와 물을 사이에 두고 함께 우뚝 솟아 하나의 문호(門戶)를 이룬 형세입니다. 때문에 굳이 그곳을 철폐하고 대부에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를 둘 곳이 없는 것은 흠이라 하겠습니다.”

뱀내천과 은행천, 보통천, 장현천 등이 유입되어 민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시흥시 연안해역의 간석지에는 염습지(salt marsh)가 발달했다. 이 염습지에는 조석의 주기에 따라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기수(汽水, brackish water)나 바닷물이 갯골을 따라 들고 난다. 그중에서도 육지와 경계를 이루는 상부지역에는 갈대가 서식한다. 해수의 영향을 받는 하구역의 습지에서는 갈대가 군락을 형성하며, 해홍나물, 통통마디, 칠면초 등의 염생식물 군락이 바다를 향하여 나타난다. 갈대는 담수에서 기수역에 이르기까지 염분농도가 넓은 범위에 걸쳐 자라며 내염성이 강하다. 갈대는 일단 군락으로 정착하면 조건이 좋은 장소에서는 최고 2m까지 높이 자라며 밀도 역시 1㎡당 400개체 이상이 된다. 갈대의 지하줄기는 수직으로 성장하는 것과 수평으로 성장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염습지는 간척대상으로 인기가 높다.

『조선왕조실록』⁹⁾에는 오늘날의 시흥시 연안 해역에서 있었던 해일 피해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보인다. 경기관찰사 김사목(金思穆)이 보고하기를, “교동(喬桐), 부평(富平), 김포(金浦), 인천(仁川), 안산(安山), 통진(通津), 풍덕(豐德), 영종(永宗) 등 8개 고을과 진(鎭)은 이 달 17일 조수가 불어났을 때 동풍이 갑자기 불며 파도가 높이 밀려오는 통에 바닷가의 제방이 충격을 받아 파손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짚물이 넘쳐 모든 곡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 안산, 통진, 풍덕, 영종 등 5개 고을과 진의 바다를 낀 여러 면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터져 토지가 피해를 입은 곳이 형언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해일은 근래에 없었던 일로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실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기록은 1790년(정조 14) 7월 10일에 발생한 해일 피해 상황을 담은 것이다. 피해 내용으로 보아 18세기 후반에 경기만 일대에는 간척사업으로 일군 농경지가 곳곳에 있었음을 알 수

9) 『세종실록』 세종6년 11월 20일 신묘조; 『명종실록』 명종6년 8월 3일 무오조;

『인조실록』 인조5년 7월 14일 무인조; 『정조실록』 정조14년 7월 10일 무자조

있다.

보통천과 은행천 하구에 해당되는 포동 일대는 1980년대까지 만조 시에 서해의 바닷물이 드나드는 간석지로서 주로 염전(鹽田)으로 이용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하천 하구의 간석지 및 염전에 대한 매립 및 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재는 8.01km²의 면적에 달하는 넓은 간척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이들 간척평야에서는 대부분 논농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구릉과 접하는 평야의 가장자리 부분과 월곶동 일대에는 택지가 조성되어 있다. 시화공단 및 월곶동 일대의 간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흥시 해안지역 대부분은 간석지와 염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¹⁰⁾ 조사지역 인근의 오이도에는 어촌을 낀 관광단지가 조성 중인데 어촌관광단지는 월곶동 월곶포구에도 조성되어 있다. 월곶포구와 오이도가 어촌관광단지로 개발되면서 수산업이 활기를 띠 것을 기대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시흥의 연평균 기온은 11~12℃이며, 최고극점이 35.1℃, 최저극점이 14.4℃, 1월 평균 기온은 -2~-3℃, 8월 평균 기온은 25~26℃이다. 2005년도 기준으로 강수량은 1,418mm이다.¹¹⁾

2) 월곶동 주변의 문화유적

시흥 월곶동과 그 주변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2015년 6월에 결정됨에 따라 여름철인 7월에서 8월까지 현지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는 이미 풀이 자라서 유물산포지 등 고고학 유적조사는 불가능하여 조선시대와 근현대의 묘제를 중심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목적이 월곶동 마을의 민속지이기 때문에 근현대에 진행되고 있는 묘제의 양상도 조사한 것이다. 조사 순서는 월곶동 동쪽 지역의 장곡동 연성레미안 아파트 산돌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전저수지의 달월낚시터를 지나 장곡교차로 방향으로 실시하였다. 분향산 주변의 조사는 동쪽에 상곡교차로 부근의 달월교회에서 시작하여 궁골을 지나 달월역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를 마치고 난 후 월곶동 주변지역인 뒷방울 저수지 북쪽지역과 거모동의 뒷방울 마을 지역의 경주최씨 묘역을 조사하였다. 이 유적의 번호 순서는 조사순서와 같다.

10) 앞의 책, pp.29~35.

11)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 시흥시, 2007, p.23.

묘역1 원주원씨용임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29.49"N, 경도 126°46'47.54"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원주원씨용임묘역은 1912년에 창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H31060028) 소속의 산돌교회에서 10m정도 떨어진 서쪽 산 능선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 주변을 방형으로 화강암 석질을 활용하여 둘러쌓았고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화병, 묘갈, 계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東)

原州元氏容姪

之墓

全州李氏鎮鎬

側面(南)

庚申一九二〇陰三月二十八日生(陽五月十六日)

癸酉一九九三年陰七月十五日卒(陽九月一日)

後面(西)

長子 泰鳳 長孫 成根

泰喆 永根

泰星 弘根

女 亨順 孫女 秀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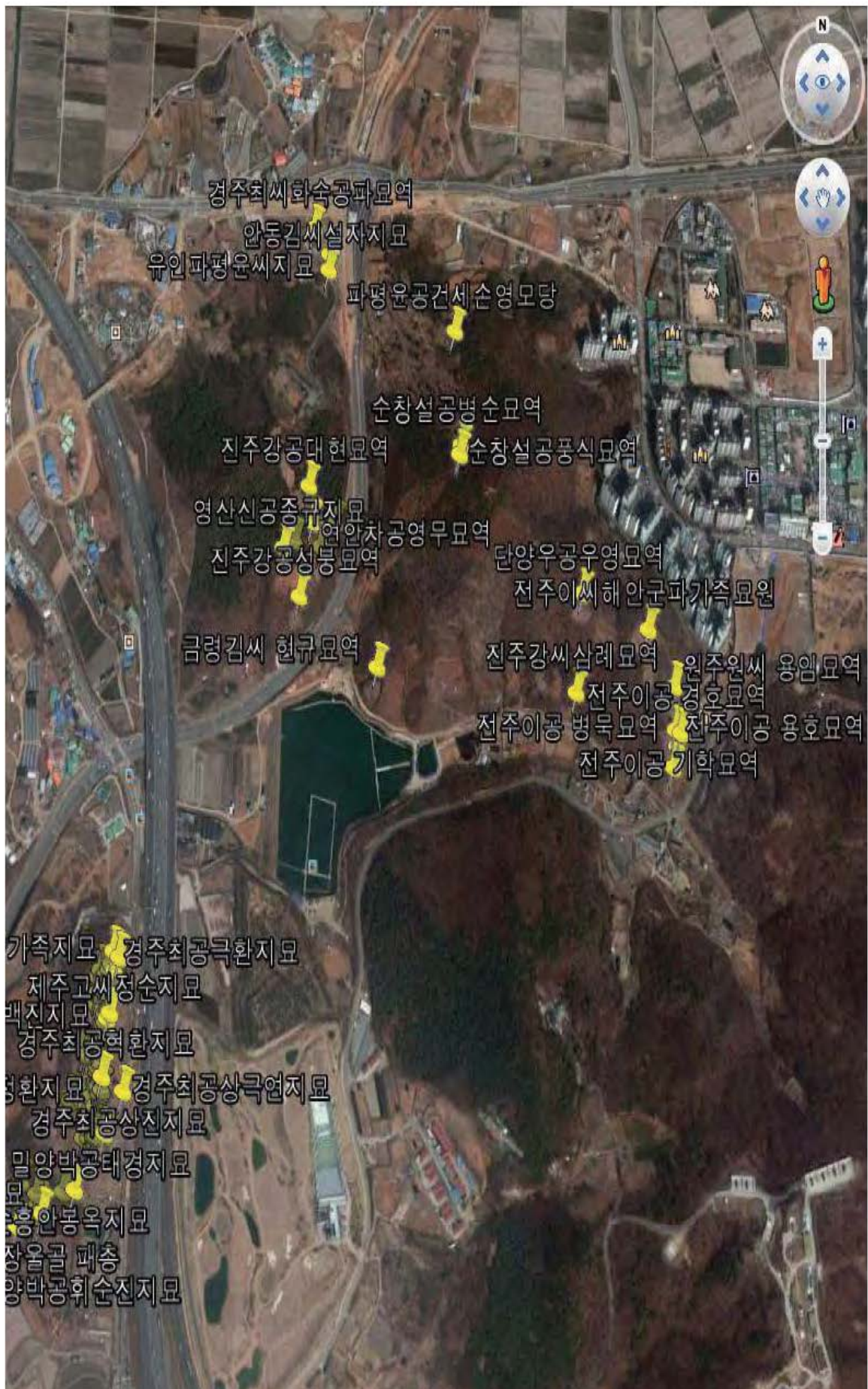
賢順 美賢

側面(北)

丁丑一九九七年陰十二月二十一日卒(陽一九九八年一月十九日)

壬戌一九二二年陰七月二十五日生(陽九月十六日)







원주원씨용임묘역

묘역2 금령김공현규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30.88"N, 경도 126°46'21.26"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금령김공현규묘역은 원주원씨용임묘역에서 남서쪽으로 약2km 정도 떨어져 있고 동남 쪽으로 난 도로를 타고 가면 마전저수지를 만나는데 그 저수지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 묘갈,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화병, 석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金寧金公顯圭之墓

孺人南平文氏附左

側面(南)

一八九七年十二月九日 生

一九六六年六月二十五日 卒



금령김공현묘역

配 一九〇八年六月六日 生
一九七六年六月十五日 卒

後面(西)

바른 生覺

바른 行動

祈禱하는 마음으로

님의 뜻 기리니

하늘이 내린 福에

안아 키운 어린 子孫

크게 자라 巨木되니

到處에 뻗은 가지

어느 바람 흔들을 가

그 열매 豐盛하여

萬人에 養食되니

串串에 자진 稱頌

남들이 우르러라

1993年 4月

金榮基 謹作書

側面(北)

公은 金寧金氏 忠毅公의 二十六代孫으로 京畿道 始興郡 君子面 木內里에서 父 金炯羽
公과 母 慶州崔氏 사이에 長男으로 태어나 晉州姜氏와 혼인하여 鎭伊 鎭連 鎭男 三女를
두고 死別後 南平文氏와 再婚하여 女 鎭賢과 鎭澤 鎭云 二男을 두었다.

子 鎭澤 孫 孝淵 昌淵

鎭云 淵

묘역3 전주이공기학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25.74"N, 경도 126°46'47.3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원주원씨 묘역에서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500m정도 내려오면 달월저수지로 들어
가는 입구의 우측 산 능선 하단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 묘갈,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계체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봉분은 화강암으로 둘러싸여 있다.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南)

孺人新坪李氏漢子

之墓

全州李公基學

側面(西)

一八九一年十二月十九日生

一九六一年六月二十三日卒

後面(北)



전주이공기학묘역 전경



전주이공용호묘역 전경

子 相鎬 子婦 甲 令順 孫 泰龍

在鎬 林 貞任 泰翰

泰石

女 吉鎬 吳 夏子 泰元

貞鎬

連鎬

知鎬

側面(東)

配 一八九九年十月四日 生

一九九〇年九月十日 卒

묘역4 전주이공용호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26.76"N, 경도 126°46'47.7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전주이공기학묘역에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10m정도 올라가면 길 서쪽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갈로 구성되어 있고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전주이공용호묘역의 서남쪽으로는 全州李氏基萬之墓와 孺人密陽朴氏之墓가 위치해 있다. 全州李氏基萬之墓는 1979년 5월 16일 건립했고 孫子는 讚鎬, 泰熙, 泰遠이 묘비 후면에 기록되어 있다. 孺人密陽朴氏之墓는 1979년 5월 16일에 건립되었고 孫子는 李 讚鎬, 泰熙, 泰遠으로 부부의 묘이지만 분리하여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前面(南)

學生全州李公容鎬

之墓

配孺人尙州李氏

後面(北)

一九〇四年八月十日 生

一九五〇年五月二十二日 卒
 一九一一年一月四日 生
 一九八九年五月二十二日 卒
 녀 이태분 서 홍재순
 태인 이필송
 태순 이용천

묘역5 전주이공경호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27.41"N, 경도 126°46'48.05"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전주이공경호묘역에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5m정도 올라가면 길 서쪽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갈로 구성되어 있고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南)

學生全州李公慶鎬

之墓

配孀人慶州金氏祔左

側面(西)

一九二二年十一月十六日 生

二〇〇八年一月六日 卒

後面(北)

子 泰永 孫 宅根 曾孫 熙俊

子婦 廉順福 孫婦 金松美 熙俊

孫 赫根 曾孫女 藝那

孫婦 鄭恩朱

子 泰秀 孫 鳳根 曾孫女 承衍

子婦 康敬玉 孫婦 趙美珍

孫女 垠姝



전주이공경호묘역 전경

側面(東)

一九一五年十二月十六日 生

公

一九八八年 十月二十日 卒

묘역6 전주이공병묵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27.50"N, 경도 126°46'47.5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전주이공경호묘역에서 서쪽으로 약 5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화강암으로 호석을 두른 봉분, 상석, 향로석, 묘갈로 구성되어 있다.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南)

配孺人原州元氏附左

學生全州李公炳默之墓



전주이공병목요역 전경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

後面(北)

考和植公의 長子 子基 定孫 周鎬 曾孫 泰英 玄孫 珉根

辛丑八月初三日生 鎭鎬 泰玉 豪根

己亥三月初六日卒 昌鎬 泰鳳 慶根

配原州元氏 父 永佑 泰喆 亨根

壬戌十一月二十八日生 泰星 成根

庚戌三月初三日卒 泰翰 永根

弘根

側面(東)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建立

묘역7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

□ 소재지 : 위도 37°22'32.50"N, 경도 126°46'45.36"E

□ 시 대 : 조선~근대

□ 현 황 :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은 전주이공병목지묘에서 서쪽으로 15m쯤 가면 산의 북사면에 위치해 있다.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7기가 있고 그중에 4기에 비석이 세워져 있고 북쪽으로 상단 5기, 중하단에 각각 10기가 분포되어 있다. 묘역은 각 묘마다 봉분, 상석, 향로석, 묘갈로 구성되어 있고 봉분은 화강암으로 호석을 둘러놓았다. 각 단마다 망주석이 2기씩 6개가 세워져 있다. 묘역의 동쪽부터 북쪽으로 번호를 부여하였고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全州李氏海安君派家族墓苑

後面(西)

이 墓域은 中宗大王 第三王子 海岸君 嶠公의 第三子 烏川君 鈞公의 第二子 安城君 仁忠公의 第四子 明善大夫 銀陽都正府君 哲保公을 始祖로 한 海安君의 后孫인 累代祖를 모신 성스러운 墓域으로서 七代祖 希德公이 이곳에 落鄉하셔서 現始興市 長谷洞 山 52-2 一帶에 始祖 銀陽都正公을 爲始 累代祖의 移葬을 모셔 今日에 이르렀으나 一九九五年 住居地

域으로 政府에서 開發하게 되어 宗孫 泰雄이 長谷洞 山 52-3 이곳 所有林野 四六二六坪을 宗中에 喜捨함을 契機로 不得已 여러 宗賢들이 宗議로 뜻을 모아 一九九五年 五月九日 一次移葬을 마치고 다시 同年閏八月 日 漏落된 碑石石長石을 갖추게 됨에 여러 宗賢들이 努苦를 致賀하면서 先祖들의 靈魂이 平安 幽宅하시면서 후손들의 앞날을 보살펴 주시기를 祈願하옵고 우리 海安君派後孫들이 더욱 崇祖 惇宗의 遺訓을 받들어 이 墓域을 잘 維持 繼承하며 子孫萬代 永遠 無窮한 繁榮과 發展이 있기를 빕니다. 墓位坤坐

側面(東)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中宗大王 海安公君 始興市 長谷洞 宗中

銀陽都正 宗孫 十一代 孫 泰雄 謹識

十代孫 元鎬 点鎬 吉鎬 重鎬 潤鎬 江鎬

十一代 泰英 泰永 泰賢 泰玉 泰鳳 泰秀 泰成 泰燮

(1) 전주이공기수지묘

전주이공기수지묘는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비로 구성되어 있고 봉분에 방형으로 화강암 호석을 둘렀다.

前面(東)

全州李公基守之墓

側面(西)

제 이기덕

질 철호

(2) 전주이공순호지묘

전주이공순호지묘는 전주이공기수지묘의 북쪽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비로 구성되어 있고 봉분에 방형으로 화강암 호석을 둘렀다.

前面(東)

全州李公順鎬之墓

清州韓氏景姬祔左

側面(南)

一九三四年 九月十七日生

二〇〇六年陰十日月六日卒

後面(西)

자 태진 손 정근

자부 손태식 손녀 현정

자 태경 손 현근

자부 고영미 종근

자 태겸 재근

자부 김경선 동근

녀 민숙 외손 문성철

성식

(3) 전주이공광호지묘

전주이공광호지묘는 전주이공순호지묘의 북쪽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비로 구성되어 있고 봉분에 방형으로 화강암 호석을 둘렀다.

前面(東)

學生全州李公光鎬

之墓

孺人坡平尹氏

側面(南)

一九二六年 八月十五日生

配

一九九九年陰八月三日卒

後面(西)

長子 泰權 孫 德根

次子 泰院 大根

(4) 전주이공병기지묘

전주이공병기지묘는 전주이공광호지묘의 북쪽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비로 구성되어 있고 봉분에 방형으로 화강암 호석을 둘렀다.

前面(東)

學生全州李公諱炳箕

之墓

配孺人金海金氏祔左

後面(西)

海安君二十世孫

壬子十月一日生戊辰六月十七日卒

配乙甲寅十二月二十三日生乙亥七月七日卒

孫 相鎬

在鎬

吉鎬

春鎬

三 月 日 謹 豎

(5) 전주이공희덕지묘

전주이공희덕지묘는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 상단 5기의 묘 중 동쪽 첫 번째에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學生全州李公諱希德之墓

配孺人德水張金氏祔左

後面(南)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동쪽 묘역 전경

海安君八世孫

英祖乙卯十二月七日生 十二月二日卒 子 時英 時雄 時俊

配德水張大恒女丁丑二月二十六日 庚坐

六代 孫 永鎬

(6) 전주이공유형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 상단 5기의 묘 중 동쪽에서 두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贈嘉善大夫戶曹參判同知義禁府事兼

五衛都總府副總管李公有亨之墓

配貞夫人星州李氏祔左

後面(南)

海安君五世孫

四月一日生十二月二十七日卒配星州李氏
父進士喜聘女庚寅八月八日生七月十日 卒 庚坐
九代 孫 永鎬

(7) 전주이공철보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 상단의 5기묘 중 동쪽에서 세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贈愼夫人德水張氏附左

全州李公哲保之墓

贈明善大夫銀陽都正

後面(南)

中宗大王 第二王子 海安君嶠公의 第三子 烏川君鎬公의 第二子
安城君仁忠公의 第四子로서 始興市 長谷洞 海安君派 始祖이시니
官職이 彰善大夫行銀陽守(銀陽副令)에 이르심

二月初六日生 忌正月十三日

配贈愼夫人德水張氏 父 縣監雲翔

二月初一日生 忌三月二十日

子 有亨 宗孫 十一代孫 泰雄

十二代孫 廷根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再建立

(8) 전주이공수일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 상단 5기의 묘 중 동쪽에서 네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貞夫人海南尹氏祔左

康津縣監全州李公壽一之墓

長興鎮管兵馬節制都尉江

嘉善大夫同知中樞府使行

後面(南)

考贈嘉善大夫戶曹參判同知義禁府事兼五衛都摠府副摠管有亨

公의 子로서 康津縣監에 이르심

肅宗 二年(一六七六) 丙辰十月二十八日生

英祖 三十三年(一七五七) 丁丑十一月十八日卒

配貞夫人海南尹氏 父 土遇官天厚

肅宗 五年(一六七九) 乙未十二月二十八日生

英祖 二十四年(一七四八) 戊辰五月三十日卒

子 光璫 宗孫 九代孫 泰雄

十二代孫 廷根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再建立

(9) 전주이공광진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 상단 5기의 묘 중 동쪽에서 다섯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通德郎全州李公諱光璫之墓

配恭人廣州李氏祔左

後面(南)

海安君七世孫

肅宗 三十一年(一七〇五) 乙酉三月十四日生

英祖 二十五年(一七四九) 乙巳四月十一日卒

配恭人廣州李氏父成均進士 肅宗三十二年(一七〇六) 丙戌十一月十四日生

英祖二十六年(一七〇六) 丙戌十一月十四日生

英祖二十六年(一七五〇) 庚午二月二十六日卒 庚坐

子 希德 宗孫 七代孫 永鎬

(10) 전주이공시영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첫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孀人淸州韓氏附左

配孀人晉州河氏

學生全州李公時英之墓

後面(南)

考希德公의 子 英祖丁亥十二月二十四日生

正祖丙申十二月初六日卒

配晉州姜氏 父 泰欽 英祖戊子六月十八日生

正祖壬子二月三十日卒

配淸州韓氏 父 垸 純祖辛丑九月十六日生

丙申十一月初一日卒

宗孫 六代孫 泰雄

七代孫 廷根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再建立

(11) 전주이공시웅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두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孺人草溪鄭氏附左

學生全州李公時雄之墓

後面(南)

考希德公의 二子 辛卯二月十八日生

辛巳十月二十七日卒

配草溪鄭氏 父 僖周 戊戌六月 三十日生

戊戌十月初一日卒

五代孫 在鎬 六代孫 泰龍

泰翰

泰石

泰元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再建立

(12) 전주이공시준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세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學生全州李公諱時俊之墓

配孺人安東李氏附左

後面(南)

海安君九世孫

戊戌十月十三日生戊午十月十一日卒

丙午三月二十八日生己亥正月二十二日卒

子 錫禹

錫益

(13) 전주이공석범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네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全州李公諱錫範之墓

配淑夫人晉州河氏祔左

後面(南)

海安君十世孫

初名岐沼純祖丙寅丁月八日生高宗丙戌七月九日卒

子義植憲植出系錫周后

配晉州河聖珩女純祖壬戌十一月二十八日生

哲宗壬戌十一月十九日 卒 艮坐

玄孫 永鎬

(14) 전주이공석우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다섯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副護軍李公諱錫禹

之墓

配孺人豐川任氏祔左

後面(南)

海安君十世孫

癸酉年十月十五日生

二月三十日卒 子鵬植子鳳植

配豐川任希德女甲子年六月六日生
九月十七日卒
高孫 瓚鎬

(15) 전주이공석익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여섯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孺人安東權氏附左
學生全州李公錫益之墓
後面(南)
考時俊公의 二子 甲申二月十四日生
乙巳六月二十六日卒
配安東權氏 父 學祚 丁丑十月 十四日生
己巳五月十八日卒
子 和植 五代孫 泰英 六代孫 玟根
泰玉 豪根
泰翰 慶根
亨根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再建立

(16) 전주이공의식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일곱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孺人固城李氏附左

配孺人清州韓氏

之墓

學生全州李公義植

後面(南)

考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錫範公의 長子

憲宗乙酉十月四日生

高宗戊辰四月初五日卒

配清州韓氏 父 導洪

純宗壬辰九月初九日生

高宗乙丑一月初七日卒

配固城李氏 父 行信

憲宗壬寅五月初十日生

光武三年己亥十一月二十二日卒

玄孫 泰雄 五代孫 廷根

泰鶴 宅根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建立

(17) 전주이공헌식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단 10기의 묘중 동쪽에서 여덟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孺人鎭川宋氏附左

學生全州李公憲植之墓

後面(南)

考錫周公의 系子生 錫範公의 二子 戊子十二月初十日生

庚戌九月初八日卒

配鎭川宋氏 父 燾

戊子五月初十日生

壬申五月初十日卒

曾孫 昌鎬 玄孫 泰龍

在鎬 泰翰

相鎬 야목 泰石

元鎬 광명 泰元

吉鎬

有鎬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建立

(18) 전주이공식봉식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아홉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學生全州李公鵬植

之墓

配孺人河東鄭氏附左

後面(南)

海安君十一世孫

庚寅年十二月二十四日生辛卯年九月十七日卒

子 炳禮 子 炳悌 子 炳義 子 炳智 子 炳仁

子 炳喆 子 炳孝 配河東鄭志煥女

庚坐

曾孫 瓚鎬

(19) 전주이공화식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중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열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孺人晉州河氏附左

配孺人彦陽金氏

之墓

學生全州李公和植

後面(南)

考錫益公의 長子 壬寅一月十一日生

壬寅五月二十一日卒

配彦陽金氏 父 觀永 辛丑十一月十三日生

己巳五月十八日卒

配晉州河氏 父 浹 甲寅十月十八日生

丙戌八月初六日卒

子 炳默 玄孫 泰英 五代孫 玟根

炳薰 泰玉 豪根

泰翰 慶根

亨根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建立

(20) 전주이공명식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하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첫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孺人昌原黃氏附左

配孺人咸陽朴氏

之墓

學生全州李公明植

後面(南)

考錫龜公의 長子 憲宗丙午十月二十二日生

丙辰四月初一日卒

配咸陽朴氏 父 鍾五 憲宗丁未六月三十日生

八月初五日卒

配昌原黃氏 父 鍾仁 月 日卒

子 炳世 孫 基守 曾孫 哲鎬 玄孫 泰京

基德 泰煥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建立

(21) 전주이공병규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하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두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孺人曲阜孔氏附左

學生全州李公炳奎之墓

後面(南)

考義植公의 長子

哲宗癸丑十一月九日生

丙子閏三月二十四日卒

配曲阜孔氏 父 在化

哲宗辛亥十一月初五日生

甲辰四月初十日卒

曾孫 泰雄 玄孫 廷根

泰鶴 宅根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再建立

(22) 전주이공병훈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하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세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孺人驪興閔氏附左

學生全州李公炳薰之墓

後面(南)

考和植公의 二子 高宗十四年丁丑一月十五日生

一九六四年甲辰八月十六日卒

配驪興閔氏 父 建鎬 甲戌四月初四日生

辛卯二月十四日卒

子 基永 孫 潤鎬 曾孫 泰薰

江鎬 泰俊

淵鎬 泰鎭

泰應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建立

(23) 전주이공병세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하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네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孺人綾城具氏附左

學生全州李公炳世之墓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建立

後面(南)

考明植公의 長子

高宗庚寅三月初六日生

辛卯二月初五日卒

配綾城具氏 父 禹植

乙丑九月二十二日生

一九八一年十二月二十九日卒

子 基守 孫 哲鎬 曾孫 泰京

基德 江鎬 泰煥

側面(西)

一九九五年閏八月 日 建立

(24) 전주이공병춘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하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다섯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學生全州李公炳春之墓

側面(東)

一九〇二年四月 十日生

一九六七年 一月 二十八日卒

後面(南)

初名 炳翼 長女 基泰

炳春할아버님께서는 全財産인 田畝千餘坪을 宗中에 喜捨하셔서 고맙게 여기시고 無後 絶孫케 됨을 안타깝게 여겨 이에 諸孫들이 宗議로 뜻을 모아 墓表를 謹豎하오니 尊 靈께서는 永安幽宅하시고 後孫들의 앞날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一九九三年 三月二日

側面(西)

始興市 長谷洞

海安君派宗中 謹豎

(25) 전주이공기택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하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여섯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學生全州李公諱基澤之墓

配孺人漢陽趙氏附左

後面(南)

海安君十四世孫

高宗戊寅十一月五日生 甲子十二月二十六日 卒

配漢陽趙鼎呂女高宗戊寅十一月十五日生

辛亥六月十一日 卒

庚坐

子 永鎬 曾孫 廷根

孫 泰雄 宅根

泰鶴

(26) 전주이공기정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하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일곱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孺人全義李氏附左

學生全州李公基定之墓

後面(南)

考炳默公의 長子 子 周鎬 孫 泰英 曾孫 玟根

高宗甲申十月十六日生 鎭鎬 泰玉 豪根

前面(北)

高陽郡守全州李公永鎬之墓

配恭人驪興閔氏附左

後面(南)

始祖銀陽都正府君의 十代宗孫

考 基漢公의 長子

一九一一年 新亥十一月十九日生

八十一歲

一九九一年 辛未 六月二十日卒

配驪興閔泳壽女

一九〇七年 丁未 八月 二十三日生

九十六歲

二〇〇二年 壬午 六月 十九日卒

子 泰雄

泰鶴

孫 廷根

宅根

側面(西)

二〇〇四年 甲申 閏二月 日 建立

(29) 전주이공주호지묘

이 묘역은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비석에서 북쪽에 위치한 묘역 하단 10기의 묘 중 동쪽에서 열 번째 위치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配孺人鎭川宋氏附左

學生全州李公周鎬之墓

側面(東)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북측 상단묘역 전경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북측 중단 묘역 전경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 북측 하단 묘역 전경

一九一五年十二月 二十四日生

考 基定長子

一九八四年 十月 七日卒

後面(南)

子 泰英 孫 玟根

泰玉 豪根

泰翰 慶根

亨根

側面(西)

一九一三年三月 二十三日生

配

二〇一三年 五月 十八日卒



단양우공우영묘역 전경

묘역8 단양우공우영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34.29"N, 경도 126°46'39.53"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전주이씨해안군파가족묘원에서 서쪽 산 능선으로 난 길을 따라 100m 정도 가면 길의 남쪽에 단양우공우영묘역이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은 봉분과 호석, 상석, 향로석, 고석, 화병, 묘갈로 구성되어 있고 동쪽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묘역의 서쪽에는 십자가와 함께 “항상 기뻐하라, 늘 기도하라.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데살로니카1서 5:16-18)라는 성경 구절의 방형비문이 있다.

前面(南)

長水黃氏葉紛(엘리사벳)

†

之墓

丹陽禹公禹榮(안드레아)

側面(西)

一九一四年三月 二十六日生
公

一九九〇年 陰七月 一日卒
後面(北)

자	우기호	자부	손	손부	증손
	동호	박정자	근명	김유진	재혁
녀	영순	사위	전희수	종명	재운
	금순	박호연	손녀	미명	
				미희	

側面(東)
一九一七年一月 十五日生

配
二〇〇二年 陰十二月 二十一日卒

묘역9 순창설공풍식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41.32"N, 경도 126°46'28.82"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단양우공우영묘역에서 산 능선으로 난 솔빛 길을 따라 정자를 지나 100m 정도 가면 길의 서사면에 순창설공풍식묘역이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은 봉분과 호석, 상석, 향로석, 고석, 꽃병, 묘갈, 망주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주석에는 세호가 없다. 남쪽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西)
淳昌薛公豐植

之墓

孺人安東金氏

後面(東)

考四二二二年二月二十日生 四二九二年十二月 一日卒

妣四二三二年正月 三日生 四三一七年十一月 四日卒
 始祖薛居伯之五十八世孫豐植 四三二五年三月 炳淳 建立
 子 炳秀 孫子 奎元 孫女 奎芬 曾孫女 智慧
 子婦 金正煥 奎亨 奎淑 曾孫子 白鎭
 子 炳淳 備奎 奎貞
 子婦 李仙禮 日出
 女 榮子 婿方萬容 月出
 富海 徐金煥 天地
 昌順 金明煥 繁介
 吉再
 中花
 月成

묘역10 순창설공병순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41.80"N, 경도 126°46'29.0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창설공풍식묘역에서 북쪽으로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은 봉분과 호석, 상석, 향로석, 고석, 화병, 묘갈로 구성되어 있고 석등은 이 묘역과 순창설공풍식묘역의 중간에 1기가 서 있으며 망주석은 두 묘역에 1기가 서 있다.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西)

淳昌薛公炳淳之墓

孺人全州李氏附右

側面(北)

資性溫厚 尊崇儒佛 夫婦一身 先公後私

德義俱深 慈悲施行 苦樂同道 愛鄉愛族

修身齊家 晝耕夜讀 積善累仁 君子峰麓

心血傾注 四十有年 訟聲籍籍 與配入寂

後面(東)

公의諱는炳淳이시고號는松亭이시니淳昌人也라公은原是族籍이慶州始祖聰의後裔로累代繼承되어오신中仁孫尙書께서分籍淳昌으로分離함과同時에中始祖奉祖寶文大提學을爲始하여繼繼承承累代를이어號諱胤溶考諱豐植의차남으로山紫水明한京畿道廣州郡樂生面雲中里에서檀紀四二六一年戊辰八月二十五日貧寒한農村에서出生하시었다할지라도本性이原來溫順仁慈하시고聰明叡智의氣風을享有하사忠孝思想을爲始하여親族間에情誼를敦篤히함은勿論義務教育을畢한後傳來된天職인營農事業을固守하며晝耕夜讀으로四書を 거의讀破하시고年既長成하야當時二十歲이신全州李氏와結婚하시고夫婦同伴陞近淸溪寺拂子로入敎하신後膝下에一男七女를두시고四十星霜을農務에從事하시며子女들을高卒을修了漸次的으로成婚시키는反面에孫男孫女들의養生을遙望하시며閑變한霧圍氣속에서窈窕淑女의供養方式으로訓育하사近村에서稱頌이籍籍하시던中哀惜하게도配位께서五十八歲를一期로檀紀四三二四年八月一日永眠하심에公은琴瑟之樂을面相하시며愴然한表現으로家率과 더불어淸淨無垢한生活繼續하시던中不意에檀紀四三年月日享年歲를終生으로入寂하심에京畿道始興郡君子面君子峰先塋下에宅配와合窆하시다於斯에公에對한事歷을以此省略하고此旨를後孫에게永遠토록役케하여茲以囑記하는바입니다.

淳昌薛公炳淳墓碣銘 檀紀 四三二六年 四月 日

金海后人 靑牧 金榮在 撰并書 薛白鎮 謹豎

後面(東)

子	備奎	子婦	金鎮良	孫	白鎮	孫女	智慧
子	日出	婿	池載童				
	月出		尹正默				
	天地		劉永春				
	繁介			女	中花		
	吉再		尹仁相		月成		



순창설공 풍식과 병식 묘역 전경

묘역11 진주강씨삼례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29.48"N, 경도126°46'38.93"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진주강씨 삼례묘역은 순창설공병순묘역에서 마전저수지로 내려와 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200m 올라가면 산능선으로 남사면에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은 봉분과 상석, 향로석, 고석, 꽃병, 묘갈로 구성되어 있고 동쪽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南)

晉州姜氏三禮

† 之墓

海州鄭公舜錫

側面(西)

一九〇五年 六月 十九日生

一九八七年 五月 十日卒



진주강씨삼례묘역 전경

後面(北)

子 泰淵 子婦 金貞子 孫 洪根 美仙 美蘭

泰復 李貞愛 東根 孝根

泰一 姜伈愛 多連

女 泰順 婿 具点書

泰芬 李範山

泰淑 李仁中

側面(東)

一九一六年 四月 十三日生

一九八九年 八月 二十四日卒

묘역12 진주강공성봉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34.31"N, 경도 126°46'14.15"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진주강공성봉묘역은 진주강씨 삼례묘역에서 마전저수지로 내려와 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 가다가 도로를 지나 200m정도 올라가면 산 능선 남사면에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은 봉분과 호석, 상석, 향로석, 고석, 묘갈로 구성되어 있고 동쪽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진주강공성봉묘역 전경

되어 있다.

前面(南)

晉州姜公性鳳

之墓

孺人全州李氏

側面(西)

一九十四年 陰八月 十三日生

配

一九八四年 一月 二十一日卒

後面(北)

자 용석 자부 조순자 손 은실

용수 김재국 정실

녀 춘자 서 전경오 연실

순자 박용호 대영

인혜

側面(東)

一九〇四年 陰十二月 二十六日生

公

一九八一年 三月 十四日卒

묘역13 경주최공언휴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38.06"N, 경도 126°46'17.61"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언휴묘역은 진주강공성봉묘역에서 동쪽으로 난 솔빛길을 따라 상양봉 방향으로 약 100m 올라가면 능선 남사면에 聖徒崔桂煥(1911년 10월 18일생~2004년 3월 12일 졸)과 勸士金順伊(1917년 4월 24일생~1987년 7월 10일 졸)의 묘 뒤에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은 봉분, 상석, 향로석, 고석, 묘갈로 구성되어 있고 동쪽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南)

慶州崔公彦休(字相薰)

配孺人慶州李氏 之墓

配全州李氏

側面(西)

一九〇五年 十月 六日生

一九七九年 十月 六日卒

後面(北)

子 桂煥 孫 載昞 曾 準鎭

聖煥 載彬 洞鎭

壽煥 載範 賢鎭

明煥 載瑞 裕鎭

載澤

載英

側面(東)

一九六六年 九月 二十日



경주최공언휴묘역 전경



밀양박씨규정공파가족묘원 전경

묘역14 밀양박씨규정공파가족묘원

□ 소재지 : 위도 37°22'36.85"N, 경도 126°46'16.21"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씨규정공파가족묘원은 경주최공언휴묘역에서 서남쪽으로 100m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은 봉분과 호석, 상석, 향로석, 고석, 화병, 석등, 망주석, 묘갈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 비문에는 1.박동선, 2.박치도, 3.박치상, 4.박치팔, 5.박치필, 6.박치필의 배, 7.박치국, 8.박치국의 배, 9.박치중, 10.박용묵, 11.박한로, 12.박한로의 배, 13.박한창, 14.박한근, 15.박한흥, 16.박한흥의 배, 17.박한고, 18.박한빈, 19.박한계, 20.박한학, 21.박산진, 22.박관효, 23.박관형, 24.박광묵, 25.박광성, 26.박광습, 27.박광습의 배, 28.박광영, 29.박광영의 배, 30.박광선, 31.박광선의 배, 32.박광인, 33.박광준, 34.박운창, 35.박운창의 배, 36.박양환, 37.박광찬, 38.박건신, 39.박운경, 40.최산동이 기록되어 있다. 동쪽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南)

密陽朴公糾正公派家族墓園

後面(北)

崇祖 淳親의 뜻을 모아 幽宅을 새롭게 세워

先祖, 遺德을 追慕하오니 萬歲永樂 누리소서
(북측 연결도로로 인해 2006.10.18.이장)
密陽朴公糾正公派月串宗親會一同

묘역15 밀양박공창성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37.04"N, 경도 126°46'13.74"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씨규정공파가족묘원의 상단에는 執事密陽朴公弘來, 執事光山金氏正杓의 묘와 密陽朴公弘烈과 配咸安李氏銀淑의 묘가 위치해 있고 그 위에 밀양박공창성지묘가 있다. 이 묘역은 봉분과 호석, 상석, 향로석, 고석, 화병, 석등, 망주석, 묘갈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南)

配安東秋氏福順

之墓

密陽朴公昌成

側面(西)



밀양박공홍래와 홍렬의 묘 전경



밀양박공창성지묘 전경

一八九九年 七月 十五日 生
公

一九七六年 七月 二十五日 卒
後面(北)

자 홍래 자부 김정표 손 종운 손부 황종엽 손녀 순애
순식
필낙
선의
홍규 이임숙 주옥
이숙
연숙
은숙

홍렬 이은숙 종국 김영자
종만 정옥라
종철 이선이
종일 홍순
종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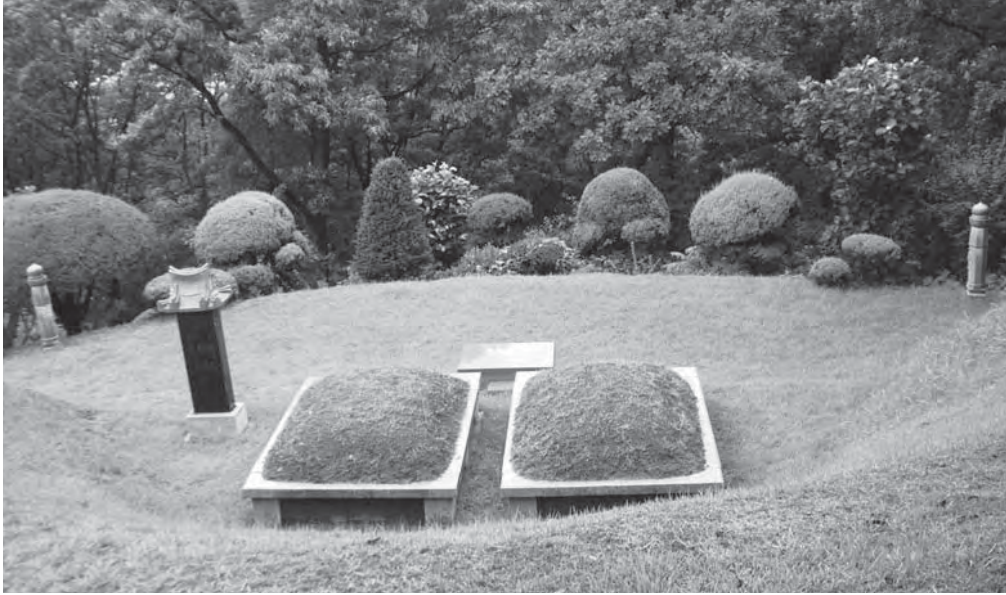
녀 홍분 사위 최승렬 인식 외손부 김영임 외손녀 선이
側面(東)

一九〇四年 八月 十三日生
一九八二年 十月 二十六日卒

묘역16 영산신공종규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36.65"N, 경도 126°46'12.69"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영산신공종규묘역은 밀양박공창성지묘에서 서남쪽 상단에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은 2기의 봉분과 방형의 호석, 상석, 향로석, 고석, 망주석, 묘갈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영산신궁종규묘역 전경

前面(南)

處士靈山辛公鍾圭

之墓

配孺人迎日鄭氏

側面(西)

一九〇七年 丁未 二月初七日生

處士辛公

一九六六年 丙午 七月初八日卒

後面(北)

子 鎮宇 孫 承源

 鎮文 河東

 鎮太 承柱

女 惠姬 承炫

婿 金洪烈 京和

側面(東)

一九一五年 乙卯 正月 二十五日生

配

一 九八九年 己巳 二月 十六日卒

묘역17 연안차공영무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38.07"N, 경도 126°46'15.4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연안차공영무묘역은 영산신공종규묘역에서 동북쪽 동단에 위치해 있다. 이 묘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봉분과 묘비만 존재하는 소규모 묘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 묘의 비석에는 권사 오야십의 묘, 화성박공덕봉지묘, 문화유공명학지묘, 전주임씨선호지묘, 진양하씨임순 밀양박공경령지묘, 경주김공광렬 권사이씨봉여지묘, 온양방공봉희지묘, 김해김공봉섭지묘 진주강씨관영 청주한공인교지묘, 전주이씨선영지묘, 권사 현풍곽씨등녀지묘, 의성김공철정지묘, 권사 중화양씨말송지묘, 성도밀양박씨지묘, 권사 우봉이씨인남지묘, 백전조씨매자 해주정공해근지묘, 권사 성주김씨성진지묘, 밀양박공상문지묘, 유인남평문씨 김해김공종섭지묘, 유인 영천이씨 김해김공유성지묘 등이 기록되어 있다. 김해김공종섭지묘와 김해김공유성지묘의 망주석 남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북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연안차공영무묘역의 동쪽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南)

旌善金氏順子

之墓

延安車公永武

側面(西)

子 春植 鐘植 千植 五植

女 福順 鎬順

後面(北)

一九二二(舊)二四 慶北 尙州郡 外南面 芝沙 104 出生(夫)

一九二五(舊)七.一五 右令 尙州邑 開雲一一 出生(婦)

自六六 至七三 韓國 천부교 전도관 전도사 慶北道전도관장



연안차공영무묘역 전경



연안차공영무묘역과 그 주변의 소규모로 분포된 묘역



김해김공종섭지묘 전경



김해김공유성지묘 전경

自七六 至八二 韓國老壯 마라톤 協會 選手로 日本·臺灣 等地 參加
 八二, 10 第一回 서울 國際 마라톤 大會(四二, 一九五籽) 完走
 八二, 富川市 老壯 마라톤 協會創設, 副會長
 八二, 日本 岡山市 第六回 高齡者 世界 마라톤 大會 參加中
 八三, 二四(舊一二, 二二) 岐阜縣 可縣市에서 交通事故로 同時死亡

묘역18 진주강공대현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39.88"N, 경도126°46'15.19"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진주강공대현묘역은 연안차공영무묘역에서 밭 건너편 남쪽 능선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유인영일정씨경자지묘, 남양전씨길분지묘, 유인파평윤씨 반남박공제호지묘가 존재한다. 묘역은 봉분, 호석,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계체석, 망주석, 묘갈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동쪽의 세호는 내려가고 서쪽의 세호는 올라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이 묘역의 북쪽상단에는 全州李氏容杭之墓가 있고 그 위에 諱彦聖 1753.6.27.~1808.4.2. 配石城吳氏 1754.4.13.~1816.6.19.라는 가족묘가 조성되어 있다. 全州李氏容杭之墓 망주석 서쪽의 세호는 내려가고 동쪽의 세호는 올라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南)

晉州姜公諱大賢之墓

孺人韓山李氏附左

側面(西)

年 纔十二別嚴親 動亂當時 千萬事

獻詩 나이 겨우 열두 살에 아버님을 여의니 동란중 그 당시의 천만가지 모든 일

嗣子 勝遠

痛哭江山孤獨身 貞珉刻字至今新

통곡하는 이 강산에 고독한 이 몸이여 비석위에 새긴글자 지금와서 새로워

後面(北)

公의 諱는 大賢이시고 字는 順同이시며 姓은 姜이시니 晉州人이시라 謹按其先則始祖는 諱以式이시니 高句麗 嬰陽王 八年에 隋文帝의 侮辱的인 國書를 責하고 以劍膺懲을 主張하시어 兵馬都元帥로 直拜되시니 臨榆關을 先制 攻擊하시어 大破隋兵하신 救國의 勇將으로서 鳳山祠에 奉享되시고 中祖에 諱 啓庸은 高麗元宗朝文科 國子博士로서 通信使 書狀官으로 子殿中內給事諱引文과 赴日本하셨다. 還封晉山府院尹이시다. 三世 諱 師瞻은



진주강공대현묘역 전경



전주이씨옹원지묘 묘역



언성의 가족묘역 전경

監察御使시고 四世 諱 昌貴는 晉原府院君이시고 五世 諱 君寶는 門下侍中諡文敬公이시며 六世 諱 著는 門下贊成事 晉山府院君 諡는 恭穆公이시다 七世 諱 淮白은 號通亭이시니 政堂文學 東北面都巡問使 世子貳師로서 派祖시다. 八世 諱 碩德은 知敦寧府事로서 贈 議政府左議政 晉陽府院君 諡은 戴愍公이시다. 九世 諱 希孟은 世宗朝 親試壯元으로 議政府左贊成 晉山君이시며 翊戴佐理功臣이시고 諡文良公이시니 公의 十六代祖시다. 後孫이 蕃衍하여 世居 始興君子하니 高祖 諱 左漢은 官 戶曹正郎이오 曾祖 諱 允會요 祖諱는 泳吉이니 文行과 德望이 稱于世라 公은 考諱德秀와 妣密陽朴氏의 長男으로 高宗三十八年 辛丑 十月二日 誕生하니 天稟이 溫良하고 才氣過人하여 新舊의 學問을 兼通하시고 新進世代에 諸般 物情에 洞察하시어 勤儉治家하시고 潤身潤屋하시던 中 一九五〇年 庚寅八月二十日 戰禍로 急逝하시니 哀痛何極고 亂中葬禮 疏忽하셨음을 痛恨하고 長男 勝遠이 治山 封塋하고 建立豐碑于 墓道하며 請余碑文이라 謹記序文고 作想詩一百하여 以表 長男孝心이라 配韓山李氏는 信珪女이니 乙卯正月十三日生이시니 永逝後附左하여 以爲安堵之地라

側面(東)

檀君紀元四千三百十六年 癸亥 月 日

前 龍 山 區 廳 長成均館典學文學碩士 正熙 謹撰并書

子婦 密陽朴氏女順蘭 順姬 順禮 孫 聲根 孫女 聲順 聲淑 聲明 協贊奉助

女婿 唐興相密陽人 俞炳雲杞溪人 鄭仁烈 河東人 望 錫遠 水遠

묘역19 파평윤공건세손영모당

□ 소재지 : 위도 37°22'48.34"N, 경도 126°46'29.38"E

□ 시 대 : 조선~근대

□ 현 황 :

파평윤공건세손영모당은 마전저수지에서 북쪽으로 난 도로를 타고 1km 정도 가면 천부교(신양촌) 군자 공동묘지가 나오는데 이 묘지의 북측 상단에 위치해 있다. 영모당에는 비석과 함께 석등과 그 뒤에 화강암으로 만든 납골당이 있다. 영모당 북측에는 윤공민일묘역이 있고 묘역은 봉분 주변을 원형으로 화강암 석질을 활용하여 둘러쌓았고 혼유석, 상석, 고석, 향로석, 묘갈, 계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쪽 신묘갈의 내용은 북측 구묘갈의 내용을 모델로 기록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영모당

前面(西)

承議郎成均館典籍

坡平尹公騫世孫永慕堂

側面(北)

二〇〇四年十一月十五日 竣工

側面(東)

七代孫 鍾聲

鍾錫

鍾五

(2) 윤공민일묘역

前面(西)

貞夫人 豐川任氏

贈貞夫人 昌原黃氏

贈貞夫人 平山申氏

贈嘉善大夫吏曹參判行通政

大夫敦寧府都正尹公諱民逸之墓

側面(北)

有明 朝鮮國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藝文館提學 世子左副賓客五衛都摠府副總管行通政大夫敦寧府都正尹公墓表外孫婿尹宣舉撰外曾孫尹推書 萬曆辛丑默菴成先生受誣子仁弘黨事大起遊先生之門者黃秋浦愼以下皆被斥遂坡平尹公即其一也公諱民逸字顯世號芝山我初祖高麗太師諱筆遺之後十四世而至昭靖公諱坤始入我朝四世而諱師路鈴川府院君又四世而諱燮鈴平尉無子以第諱燁之字生員 贈吏曹參判諱之誠爲後之誠娶參判南世雄女生子諱儼佐郎 贈吏曹判書號松巖是公之考也妣安東金氏判書澍之女松巖有史行而不幸早世公之伯仲奉祖母南氏以居家本重世綺紈公既長奮然自援與叔氏參議公民獻刻意讀書未數年而學大

後面(東)

進遂與之并逝年溪之上得聞其僕宗用功忠信不欺之旨以爲終身受用之資戊子中生進兩試丙申釋禍分隸成均館例 陞典籍直講丙子始拜禮兵兩曹佐郎正郎入春坊爲文學適當陽復之幾而仁弘之禍遽作公以持平啓曰臣是成某門生也請遞臣職時邪議汹汹善類無不氣懾而當其鋒能毅然不撓土論譴之出補水原判官自是不復居內除開城經歷朱赴以遞連守舒川价川所至民皆歌誦谷後立石追思都事全羅京畿陝川不赴則避奸弘也督郵大同僉正太常司樂戊午以收稅官赴東萊旌除府使未幾自免歸拜分院承旨癸亥除公州牧使見遞仍退居圻壓爲從焉之計知公者深惜之尋除寧海府使黽勉赴任踰年而歸再除豐基皆不赴丁卯奔問江都秋拜敦寧府都正已而解職還鄉牢關養閑數歲而終噫公質醇學蘊志恬行謹平生自信以忠僕之性不喜爲巧令以銜於當世故文足以踰人而人不職才足以致位不躋隙疇清明君子道長同門儕友如吳楸灘允謙諸公皆秉國論爲公稱屈而終於淹滯不振坎壈以沒世豈非所謂命歟公生於甲子閏二月二十日卒於乙亥四月二十五日享年七十二公凡三娶平山申氏平川府院君礪之女昌原黃氏副護軍大任之女豐川任氏學生慶雲之女公用平川從勳 贈職參判故三夫人皆由淑進貞申出一女黃出一男二女長女婿金弘翼鼎監次女婿李長白生員季女婿任鞏男日糾側室子二緱縣監綽權管糾娶虞候楊秀津女生二再娶朴敷女生二男四女鄭構李鼎賢李澮洪有煌李公幹李正齋其婿也男日趾遠趾厚金無子李有一女歸于我任有二男慶昌縣監壽昌倣四男一女日趾茂武科綽一男六女日趾瑞餘幼趾遠生四男長日憲公始葬于安山無等谷舊里前麓從者尙書絳爲改卜于其東唐井里已坐亥向之原乙丑十二月日竊而遷之申夫人別葬墓在衿川獅子岩平川墓側故只以黃任二夫人同附焉胤子伐



파평윤공건세손영모당 전경



윤공민일묘역 전경

側面(南)

石將表墓前俾宣舉記其陰謹略叙其家世德之所嘗耳目者刻焉庶後久人有所考

芝山公諱民逸 - 子務工郎諱糾 - 子監役趾遠 - 子諱憲(務子郎諱糾趾厚諱趾厚)

庚申年西紀一九八〇年 六月半月工團建設工사로 因하여 唐井里에서 長谷里 鷹岩谷으로
遷葬·舊碑는 立建歲達하여 風磨雨洗로 滅字損刻되어 判文難解임으로 改豎建立

始祖降生一〇九六년(西紀 一九八九年 己巳 二月十六日 十三代 宗孫 光烈

十二代 孫 秉星(大根)

十二代 孫 明善

十三代 孫 廷根(正烈)

묘역20 경주최씨화숙공파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54.43"N, 경도 126°46'16.91"E

□ 시 대 : 조선~근대

□ 현 황 :

경주최씨화숙공파묘역은 윤공민일묘역에서 마전저수지로 나 있는 도로를 지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 묘역 중에 대부분은 최근의 무덤이지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무덤도 있고 동자상과 상석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 경주최씨묘역에서 동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상수원관리시설쪽으로 올라가면 길의 서사면에 유인파평윤씨지묘 부경주최공동환과 안동 김씨설자 경주최공관휴지묘가 위치해 있다.

경주최씨화숙공파묘역 앞에는 月村齋라는 사당이 있고 그 앞에 “慶州崔氏和淑公派十六世盍齋公派傘下司成公宗親會祭閣 西紀 一九九八年 九月 二十日 竣工”이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月村齋에 대한 내용의 비석이 마당 한편에 놓여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月村齋(월촌재)란 月串村(월곶마을)의 제실을 뜻하며 慶州崔氏(경주최씨) 和淑公侯(화숙공후) 盍齋公派(충재공파) 萬齡花樹會(만령화수회) 회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면서 우리 문증을 널리 알리고저 뜻을 모아 1997년 준공하게 되었고 시조이신 孤雲(고운)(致字 遠字) 19세 萬字齡字公께서 임진왜란 당시 경기도 파주에서 난을 피하여 이곳 월곶마을에 정착하였으며, 후손이 15대에 이르러 삼백여 세대에 1천여 명으로 번성하였다. 1990년 대부터 많은 자손들이 급격한 산업화시대의 변화로 생업을 따라 도시로 나아가 생활하고

있으며 몇몇 세대가 고향을 지키고 있다. 孤雲(고운)시조로부터 29세 休(휴), 30세 煥(환), 31세 載(재), 32세 鎭(진), 33세 承(승), 34세 植(식), 35세 炳(병) 字 行列(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자손들은 빛나는 선조님의 업적에 부끄럽지 않도록 본향을 떠나 살더라도 항상 일가친척으로서의 예와 성을 다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조상님들께 온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으로 우리 후손 모두의 뜻을 담아 건립함을 기록으로 남기는 바이다.

西紀 2009년 10월 1일 建立
慶州崔氏盛齊公派萬齡花樹會

이 경주최씨화숙공파묘역에는 여러 묘가 분포되어 있는데 하단의 동쪽부터 다음과 같은 묘역이 있다.

(1) 경주최공휘복휴 배유인남원방씨 가족묘

경주최공휘복휴 배유인남원방씨가족묘는 월촌재에서 남쪽으로 10m정도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석관묘, 상석, 고석, 향로석, 석등,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상석의 정면에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13.34)”라는 성경 말씀이 쓰여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慶州崔公諱福休

配孀人南原方氏家族墓

側面(東)

一八七一年 八月二十日生

忌 十二月 十一日

後面(南)

子 世煥 舜煥

鍾煥

孫 載植 載植 載弼 載謙 載春 載均 載憲

載甲

曾孫 國鎭 仁鎭 赫鎭 範鎭 盛鎭 康鎭 亨鎭 平鎭 斗鎭 東鎭 南鎭



경주최공휘복휴 배우인남원방씨 가족묘 전경



경주최공재식(바오로) 묘표

高孫 承元 承娟 承均 楠經 承敏 承範 承芝 詠絡 銀杞 現宇 한솔
 側面(西)
 一八七三年 十二月二十四日生
 忌 十月 十日

(2) 경주최공재식(바오로)묘

경주최공재식(바오로)묘는 경주최공휘복휴 배우인남원방씨 가족묘에서 서쪽에 위치해 있으나 봉분과 석물은 없고 다음과 같은 표석만 남아 있다.

慶州崔公載植(바오로)

1932. 7. 21.(음)생~2013. 4. 28.(양)죽

자	국진	자부	손순자	녀	연순	서	김기한	손	승연
	인진		장복희						승원
	혁진		윤문정						승균
									남경
									승지
									승민
									승범
									영원

(3) 경주최공휘몽규납골분묘

경주최공휘몽규납골분묘는 경주최공재식(바오로)묘 서쪽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돌린 봉분과 상석, 고석, 망주석, 두 기의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方形墓表 前面(北)

雲川

慶州崔公諱夢奎納骨

墳墓

配孺人金海金氏祔左

側面(東)

配 西紀 一八四九年 五月二十二日

西紀 一八四八年 四月 二 日

後面(南)

獻誠碑

子婦

仁金墳

錫氏墓

孫孫 婦 澗金墳

俊氏墓

曾孫 寧丁金翊出

休氏氏休系

全密

高

州陽

孫

李朴

競菱

吉甲

敦億

喆元 愼金容義

煥姬

煥姬

煥順

煥金 煥氏九根

五

全 出 南 慶 金

慶

代		州	系	原	州	海		州
孫		李		尹	薛	金		金
載福	載妙	載社	載元	載喆	載重	載鎮	載光	鍾載玉
豐金	南粉	順星	瑄順	義煥	女燮	淑載	義淑	哲鶴粉

六	順	德		原	全	羅		平	全	光
代	天	水		州	州	州		山	州	山
孫	金	張		元	李	丁		申	李	金

夷四 珖昌 動貞金商令榮洪和 昭仁章南廷明任天立俊文美文海 天秀星裕善義英乙茂丙
正銀敬

鎮燮 鎮任 鎮子鎮申淑鎮鎮子 鎮順鎮順鎮實順常分雨鎮煥順旭 鎮鎮鎮鎮順鎮淑淑彥淑
龍淑振

七	密							
代	陽							
孫	人							
	朴	尹	李	金	沈	尹		女

承明承貞承淑承敏承東承九承紋承炳承鉉承炳承媛 承承景承起承承勝允承惠 承承承 淑 承
麟姬柱淑吉姬愛在杓右淑容子宰美德任林實權彥瑛 伯述淑弼姬容耿現姬俊善 範憲利 英 原

女女
龍守恩
植正社

側面(西)

西紀二〇〇九年 陽五月 日 建豎

屋蓋石墓表 前面(北)

配孺人溫陽方氏祔左

墳墓

竹史慶州崔公諱載豐納骨

側面(東)

忌 西紀 一九七八年 十一月 二十九日

配 西紀 一九七一年 十一月 十四日

後面(南)

	子	奭鎮	曾孫	二子	珖鎮	曾孫	三子	勳鎮
號竹史	婦	四燮		婦	昌任		婦	貞子
幼年漢學修學再從	孫	承麟	暎植	孫	承杓	允植	孫	承彦
祖父諱性字休字進士稱	孫婦	明姬	慈英		東右			嫺瑛
道門中神童誕生倭		承株	珉植		承淑			
政治下戶籍改革隣里印		貞淑	成姬	坡平尹	九容			金鎮
		承吉	奎植		承子		順天金商申	
章無料刻印門中新生兒		淑姬	美現	全州李紋宰				令淑
多數作名儒道情神勵		承愛			承美		德水張榮鎮	
獎卿里及門長嘉績寶	密陽朴敏在			金海金炳德				
具野에					承任			
문혀사는 선비 尊高丈				平山沈鉉林				
					承實			
				坡平尹炳權				

(4) 경주최공신환지묘

경주최공신환지묘는 죽사경주최공휘재풍납골분묘에서 서쪽으로 10m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 상석, 고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慶州崔公愼煥

之墓

孺人金海金氏

側面(東)

一九〇四年 四月二十六日生

陰

一九三二年 十一月十九日卒

後面



경주최공휘몽규납골분묘 전경



경주최공신환지묘 전경

子 載鶴 孫 裕鎮 孫婦 金善順 曾孫女 淑英
 女 載銀 義鎮 申英淑 曾孫 承原
 子婦 李玉分 孫女 乙淑 孫婿 申茂元
 婿 金一煥 丙淑 李正龍
 銀淑 金敬振

側面(西)

一八八九年 十二月 四日生

陰

一九五四年 十 月 三日卒

(5) 경주최공재학지묘

경주최공재학지묘는 경주최공신환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 상석, 고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慶州崔公載鶴

之墓

孺人全州李氏

側面(東)

一九二七年 八月 四日生

陰

一九九六年 三月十六日卒

後面

子 裕鎭 子婦 金善順 孫女 淑英 孫婿 宋權宰

義鎭 申英淑 孫 承原

女 乙淑 婿 申茂元

丙淑 李正龍

銀淑 金敬振

(6) 경주최씨화숙공파가족묘

경주최씨화숙공파가족묘는 경주최공재학지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m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둘러 봉분, 상석, 고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慶州崔氏和淑公派家族墓

側面(東)



경주최공재학지묘 전경



경주최씨화숙공파가족묘 전경

二十六代 範奎

二十七代 昌錫

二十八代 潤七

二十九代 文休

三十代 俊煥

三十一代 載允

三十二代 成鎭 鳳鎭 文鎭 王鎭 敬玉

三十三代 承元 承順 承東 榮眞 承眞

後面(西)

始祖 孤雲 崔致遠先生

瑞煥

興煥

元煥

載福 愛蘭 美子 榮子 順子 良順 仁順 福順

載鳳 順俊 龍分 載敏 載錫

惠美 間英 順伊 先伊 明喜 龍國

泰玉 泰姬 泰正 玉順

側面(南)

正姬 蓮花 順熙 淑姬 壬蘭 載術

旻字 鎭字 惠俊

(7) 경주최공휘중규지묘

경주최공휘중규지묘는 경주최씨화숙공파가족묘에서 서남쪽으로 약 10m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돌린 봉분, 상석, 고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慶州崔公諱重奎之墓

配貞夫人全州崔氏祔左

側面(東)

諱重奎以後世譜

二十六代



경주최공휘중규지묘 전경

重奎 克錫 潤衡 鼎休	昌煥 載亨 孝鎭 承模	
出系潤普后		
性休	敬煥 載綠 重鎭 承斗	
	正鎭 承協	
	向鎭 承元	
潤璇 慶休	斗煥 載哲 宇鎭·硯鎭	
	載元 泰鎭	承宇
	斗鎭	
後面(南)	載珖 旭鎭	
	翊煥 載勳 寬鎭	
	載潤 成鎭·龍鎭	
	載鎬 文鎭	承明
	國鎭	
潤璣 仁休	基煥 載珏 奎鎭	承佑·承廷
	榮煥 載源 道鎭	承民
	載鳳 君鎭	

載承 描鎭·萬鎭
 造煥 載仁 吉鎭
 載秉
 載敬 鎭·裕鎭
 正休 輔煥 載萬 明鎭 承完·承俊
 泉鎭
 載燮 勝弼 承鉉
 勝皓 承煥·承旼
 泰煥 載碩
 載皓 亨鎭
 側面(南) 禮休 敦煥 載弘
 載成 鎭
 潤玉 命休 龍煥 載榮 章桓
 載連 大鉉
 載慶
 公 西紀 一七八六年 十一月 一日 生
 配 西紀 一七八七年 九月 二十八日 生
 西紀 二〇〇四年 四月 二十八日 後孫一同 建立

(8) 경주최공휘극현지묘

경주최공휘극현지묘는 경주최공휘중규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둘러 봉분, 상석, 고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慶州崔公諱克鉉之墓
 配貞夫人金海金氏
 附左

配貞夫人曲阜孔氏

側面(東)

西紀 戊辰年 三月 十九日 生

公

西紀 一八〇四年 卒

西紀 庚午年 十二月 四日 生

金海金氏

西紀 一八〇六年 卒

西紀 戊寅年 八月 二十七日生

曲阜孔氏

西紀 一八一四年 卒

後面(南)

子 潤衡 孫 鼎休

潤璇 性休

潤璣 慶休

潤玉 仁休

正休

禮休

命休

亮休

側面(西)

西紀 二〇一二年 五月 二十七日 建豎委員一同

載萬

載源

載燮

載珏

載成

向鎮

承模

(9) 경주최공휘윤기지묘

경주최공휘윤기지묘는 경주최공휘극현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2기의 봉분, 상석, 고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慶州崔公諱潤璣

之墓

配孺人順興安氏祔左

側面(東)

西紀 一八五二年 四月 十二日 生

公

西紀 一九二一年十月 十日 卒

西紀 一八五〇年 二月 十八日 生

配

西紀 一八九五年 九月 十二日 卒

後面(南)

潤璣 子 仁休 孫 基煥

榮煥

造煥



경주최공휘극현지묘 전경



경주최공휘윤기지묘 전경

正休 輔煥

泰煥

禮休 敎煥

側面(西)

西紀 二〇〇四年 四月 二十八日 後孫一同 建立

(10) 경주최공은규지납골

경주최공은규지납골은 경주최공휘윤기지묘에서 동북쪽으로 약50m 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방형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2기의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屋蓋石墓表1

前面(北)

慶州崔公銀奎之納骨

側面(東)

忠齋公派萬齡公系世譜

後面(南)

26세 은규

27세 영석

28세 윤인 윤관

29세 기휴 찬휴 석휴

30세 국환 덕환 태환 선환 상환 중환 용환

31세 재석 재열 재훈 재영 재구 재운 재옥 재명 재종 재선 재득 재금

재례 재분 재병 재한 재수 재성 재국 재화 미옥 현옥 병옥

32세 유진 용진 윤진 상진 명진 정희 성진 형진 동진 용섭 진미 결진

관진 현주 옥주 은주 문주 영주 선주 병진 효진 유진 원진 향진

혜진 강진 향숙 향자 향연 왕진 현숙 영미 유미 진미 형진 영하

은하 영진 두진 유진 경진 효진 진영

33세 용승 상미 유미 승우 승희 혜승 보승 유승 명경 명선 명숙 연우

지우 승록 승호 승원 수정 승석 승철 승동 승근 승우 승민 승준
 側面(西)
 二〇一二年 閏 三月十六日 豎立
 墓表2
 前面(北)
 孺人熊川朱氏
 之墓

慶州崔公諱弼奎
 後面(南)

2012년 5월 최은규 공과 후손 九位를 화장 납골 봉안할 때 형님이신 필규 공을 함께 화장 모두 十三位가 이곳 납골묘에 안치됨을 후손들은 명심하고 정성을 다해 봉향하기를 당부합니다.



경주최공은규지납골 전경



판관경주최공영규지묘 전경

(11) 판관경주최공영규지묘

판관경주최공영규지묘는 경주최공은규지납골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通訓大夫判官慶州崔公

之墓

淑人慶州片氏附左

後面(南)

公諱榮奎

辛酉二月日 立

子 宗錫

孫 潤璨

潤惠

潤淑

(12) 경주최공휘운형지묘

경주최공휘운형지묘는 판관경주최공영규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配孺人金海張氏

之墓

慶州崔公諱雲亨

側面(東)

建立委員

仁煥 載寬 載甲 載昱 載憲 國鎭 仁鎭 赫鎭 範鎭

2013.5.8. 建立

後面(南)

溢의 一子雲亨祖世系

24世 雲亨

25世 世成

世重

世權

26世 萬奎

丙圭

震奎



경주최공휘운형지묘 전경

27世 順鉉 日鉉 春鉉 鴻鉉	漢鉉	壽鉉
28世 潤琇 潤昌 潤昌 潤穆	潤星 潤東	潤夏
29世 敏休 旺休	顯休 普休 福休 福休 彦休 定休 仲休 季休 仲休 連休	
30世 英煥 祉煥	南煥 世煥 舜煥 鍾煥	仁煥

25世	世權
26世	壽鉉
28世	潤夏
29世 彦休	定休 仲休 季休 仲休 連休
30世 桂煥 聖煥 壽煥 明煥 景煥 在煥 鳳煥	正煥 玉煥 仁煥

側面(西)

配 英祖庚午(1750)生 忌 十一月 三日

公 英祖己巳(1749)生 忌 十 月 十日

(13) 경주최공휘세신지묘

경주최공휘세신지묘는 경주최공휘운형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



경주최공휘세신지묘 전경

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2기의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慶州崔公諱世愼

之墓

配孀人順興安氏

側面(東)

乙未 二月 二十二日 生

公

十一月 二十四日 卒

配 甲午 五月 三日 合葬

後面(南)

子 성규

孫 복현

曾孫 윤세 윤달

玄孫 원휴 대휴

五代孫 성환 유환 현환 문환 충환

六代孫 재민 재주 재명 재복 재용 재문 재동 대현 장현

재은 재일 재근 재선 재운 재옥

七代孫 재진 호진 혁진 경진 동진 영진 선웅 준원 택진

득진 유진 경진 태진 성진 호진 민진 충진 석진
八代孫 승우 승우 승한 승규 다이
側面(西)
西紀 二千三年 陰 二月 二十八日 六代 七代 八代孫 一同 謹立

(14) 경주최공휘일지묘

경주최공휘일지묘는 경주최공휘세신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處士慶州崔公諱湓之墓
孺人全州李氏附左

側面(東)

英宗 戊申 生
配英宗 乙酉 六月 二十五日 生

後面(南)
慶州崔公諱湓墓碣文

公은 文昌候 新羅人 慶州崔 諱致遠의 二十三世孫으로 諱는 湓이요 爲七代顯祖 諱淑生이니 盅齋公이시다 官至左贊成 贈大匡輔國崇錄大夫 議政府領議政 諡文貞이며 己卯名賢이시다 五代祖 諱 悅이니 通訓大夫 全州府判官이요 高祖 諱萬齡이니 中訓大夫 成均館事이며 曾祖諱克筵이다 祖諱時鉉祖妣 全州李氏이며 父는 資憲大夫 諱天敘요 妣貞夫人金海金氏이다 公은 三子諱湓이요 配全州李氏이시다 子長의 雲亨雲貞이요 孫長에 世成世重이요 長三傳萬奎 四傳順鉉 五傳潤琇 六傳敏休 七傳祉煥 八傳에 載宇 九傳에 允鎭이다 西紀一九九三年度에 先塋下合封에 碣文을 적어 碑를 세워 以備 後徵焉云爾하노라

西紀一九九三年 九月五日 萬齡宗親會一同



경주최공휘일지묘 전경



경주최공휘택지묘 전경

(15) 경주최공휘택지묘

경주최공휘택지묘는 경주최공휘일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2기의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處士慶州崔公諱澤之墓

孺人全州李氏附左

側面(東)

辛卯十月五日生 丙申八月九日卒

配戊戌四月五日生 忌十月四日

後面(南)

慶州崔公諱澤墓碣文

公은 文昌候 新羅人 慶州崔 諱致遠의 二十三世孫으로 諱는 澤이요 爲七代顯祖 諱淑生이니 忠齋公이시다 官至左贊成 贈大匡輔國崇錄大夫 議政府領議政 諡文貞이며 己卯名賢이시다 五代祖 諱悅이니 通訓大夫 全州府判官이요 高祖 諱萬齡이니 中訓大夫 成均館事이며 曾祖諱克筵이다 祖諱時鉉祖妣 全州李氏이며 父는 資憲大夫 妣貞夫人金海金氏이다 公은 四子이시며 諱澤이요 字는 壽敏이니 配 慶州李氏이시다 子는 雲義요 孫에 世容이고 長孫三傳一奎四傳鳳鉉五傳潤泰 六傳齊休 七傳宜煥 八傳 載鼎九傳伯鎮承國 孫無로 十傳承卓十一傳漢植十二傳炳怡이다 西紀一九九三年度에 先塋下午坐雙封에 碣文을 적어 碑를 세워 以備 後徵焉云爾하노라

側面(西)

西紀一九九三年 九月五日 萬齡宗親會一同

(16) 경주최공좌승지휘세향지묘

경주최공좌승지휘세향지묘는 경주최공휘택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配孺人淑夫人金海金氏祔左

改豎

慶州崔公左承旨諱世恒之墓

側面(東)

建立委員一同

載萬 載源 奭鎭 載燮 載珏 載瑄 載鎬 載成 向鎭 宅鎭 承柱 承模

後面(南)

子 重奎 孫 克錫 曾孫 潤衡

哲奎 文鉉 潤璇

夢奎 仁錫 潤璣

範奎 昌錫 潤玉

潤吉

潤峻

潤七

側面(西)

二〇一二年 四月一日 建豎

(17) 경주최공처사휘운필지묘

경주최공처사휘운필지묘는 경주최공좌승지휘세향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2기의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配孺人濟州梁氏祔左

改豎

慶州崔公處士諱雲弼之墓

側面(東)

建立委員一同



경주최공좌승지휘세향지묘 전경



경주최공처사휘운필지묘 전경

載萬 載源 爽鎭 載燮 載珏 載瑄 載鎬 載成 向鎭 宅鎭 承柱 承模

後面(南)

子 世恒 孫 重奎 曾孫 克錫

世愼 哲奎 文鉉

夢奎 仁錫

範奎 昌錫

星奎 福鉉

惠鉉

側面(西)

二〇一二年 四月一日 建豎

(18) 경주최공휘담지묘

경주최공휘담지묘는 경주최공처사휘운필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配孺人金海金氏附左

改豎

月庵慶州崔公諱湛之墓

側面(東)

建立委員一同

載萬 載源 奭鎮 載燮 載珏 載瑄 載鎬 載成 向鎮 宅鎮 承柱 承模

後面(南)

子 雲弼 孫 世恒 曾孫 重奎

世愼 哲奎

夢奎

範奎

星奎

側面(西)

二〇一二年 四月一日 建豎



경주최공휘담지묘 전경



경주최공휘천서지묘 전경

(19) 경주최공휘천서지묘

경주최공휘천서지묘는 경주최공휘담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계제석, 문인석, 3기의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墓表1 前面(北)

資憲大夫行中樞府事府君

之墓

配貞夫人金海金氏祔左

後面(南)

忠齋公慶州崔公淑生六代孫天紱

崇禎甲申生 忌日乙酉五月七日

配乙酉生 忌日丙戌九月十五日

嗣子 湛
浚
溢
澤

側面(西)

西紀一九六七年陰二月二十七日 建立

墓表2 前面(北)

資憲大夫慶州崔公諱天紱之墓

配貞夫人金海金氏祔左

後面(南)

慶州崔公諱天紱墓碣文

公은 資憲大夫 諱天紱요 慶州崔氏이다 新羅 文昌候 諱致遠 號孤雲聖賢으로 爲二十一
代上祖이며 始祖이시다 傳至六代祖 諱淑生 忠齋公이시니 官至左贊成 贈大匡輔國崇錄大
夫 議政府領議政 諡文貞이며 己卯名賢이시다 五代祖 諱景弘贈通政大夫 承政院 都承旨 兼
經筵參贊官 春秋館 修撰官이시고 高祖諱悅이니 通訓大夫 全州府判官이요 曾祖 諱萬齡 中
訓大夫 成均館事이며 祖는 諱克筵이고 考諱時鉉字元叔妣 全州李氏이다 配貞夫人金海金
氏이며 子 長에 湛 次에 浚 三에 溢 四에 澤이고 長孫 雲弼 曾孫 世愼 玄孫 星奎 五傳福鉉
六傳潤世 七傳元休 八 傳聖煥 九傳載敏十傳 在鎭이다 西紀一九九二年度에 碣文을 새겨 京
畿道 始興市 月串 修理山 北麓 午坐雙墳에 碑를 세워 以備徵焉爾하노라

西紀一九九二年四月五日

傍后孫 玆雲 奭煥 謹撰

側面(西)

推進委員長 載萬

副委員長 載烈 載銀 載植 永鎮 奭鎮 承主 總務承卓 財務承賢 監查承一

委員 德休 道煥 載源 載錫 載元 載瑄 載敏 載炳 載甲 孝鎮 永烈 熙鎮

墓表3 前面(北)

配貞夫人金海金氏

之墓

資憲大夫慶州崔公諱天紱

側面(東)

卒年 未詳 忌 十月 九日

配

生一六八六年 三月 五日

卒年未詳 忌 十月 十一日

公

生一六八四年 九月 七日

後面(南)

子 湛 孫 雲弼 曾孫 世恒

世愼

浚 雲彬 世和

世穆

雲昌 世璜

雲瓚 世完

世崇

雲斗 世英

溢 雲亨 世成

世重

世權

雲貞 世基

世官

世德

澤 雲義 世容

側面(西)

改豎日

2012.9.1.

十四代宗孫 承模

建收委員

顧 問 載成 德休

會 長 承一

副 會 長 載成 秀煥 載甲 承癸

總 務 五吉

財 務 敏煥

監 查 鐘鎮 承柱

理 事 向鎮 澤鎮 載銀 彰鎮 仁煥 載寬 漢植 承烈

(20) 경주최공휘시현지묘

경주최공휘시현지묘는 경주최공휘천서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계체석, 문인석, 망주석, 2기의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墓表1 前面(北)

處士慶州崔公諱時鉉之墓

配孺人全州李氏附左

側面(西)

推進委員長 載萬

副委員長 載烈 載銀 載植 永鎮 奭鎮 承圭 總務承卓 財務承賢 監查承一

委員 德休 道煥 載源 載錫 載元 載瑄 載敏 載炳 載甲 孝鎮 永烈

後面(南)

慶州崔公諱時鉉墓碣文

公은 字元叔으로 新羅 文昌候 諱致遠 號孤雲聖賢의 二十代孫이라 傳至五代祖 諱淑生이니 官至左贊成 贈大匡輔國崇錄大夫 議政府領議政 諡文貞 己卯名賢이시다 曾祖는 諱悅이시니 通訓大夫 行 全州府判官 兼 全州鎮管兵馬節制都尉

贈正憲大夫 吏曹判書 兼 義禁府使五衛都總府都總管이요 祖諱萬齡 中訓大夫 成均館事
 요 考諱克筵이요 配全州李氏이다 子天紱 資憲大夫요 長孫에 湛 次에 浚 三에 溢 四에 澤
 이다. 曾長孫 雲弼 玄孫 世鎭 五傳 星奎 六傳福鉉 七傳潤世 八傳元休 九傳聖煥 十傳載敏
 十一傳在鎭이다 西紀一九九二年度에 京畿道 始興市 月串 修理山 北麓 午坐雙墳에 碣文을
 적어 碑를 세워 以備徵焉爾하노라

西紀一九九二年四月五日

墓表2 前面(北)

配孺人全州李氏

之墓

慶州崔公諱時鉉

側面(東)

卒年 未詳 忌 十一月 十五日

配

生一六五二年 九月 十五日

卒年未詳 忌 三月 九日

公

生一六四九年 七月 三日

後面(南)

子 天紱 孫 湛 曾孫 雲弼

浚 雲彬

雲昌

雲瓚

雲斗

溢 雲亨

雲貞

澤 雲義

側面(西)

改豎日

2012.9.1.

十四代宗孫 承模



경주최공휘시현지묘 전경

建收委員

顧問 載萬 德休

會長 承一

副會長 載成 秀煥 載甲 承癸

總務 五吉

財務 敏煥

監查 鐘鎭 承柱

理事 向鎭 澤鎭 載銀 彰鎭 仁煥 載寬 漢植 承烈

(21) 경주최공휘준지묘

경주최공휘준지묘는 경주최공휘시현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두 기의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處士慶州崔公諱浚之墓

孺人慶州李氏附左

側面(西)

景宗丙午生

配 景宗丙午生

後面(南)

慶州崔公諱浚墓碣文

公은 文昌候 新羅人 慶州崔 諱致遠의 二十三孫으로 諱 浚이요 爲七代顯祖諱

淑生이니 忠齋公이시다 官至左贊成 贈大匡輔國崇錄大夫 議政府領議政 諡文貞이며 己卯名賢이시다 五代祖 諱悅이니 通訓大夫 行 全州府判官이요 高祖 諱萬齡이니 中訓大夫 成均館事이며 曾祖諱克筵이다 祖諱時鉉 祖妣全州李氏이며

父는 資憲大夫 諱天紱요 妣貞夫人金海金氏이다 公諱浚이요 字는 壽徵이니 配

慶州李氏이시다 子長의 雲彬 雲昌 雲瓚 雲斗요 孫長에 世和 世穆 次에 世璜 三에 世完 世崇 四에 世英이고 長系 三傳弘奎 四傳琮錫 五傳潤榮 六傳湘休 七傳翊煥 八傳載弘 九傳



경주최공휘준지묘 전경



경주최공휘운창지묘 전경

成鎮이다 西紀一九九二年度에 先塋下干坐雙封에 喝文을 적어 碑를 세워 以備徵焉云爾하
노라

側面(西)

西紀一九九三年九月五日

萬齡 宗親會一同

(22) 경주최공휘운창지묘

경주최공휘운창지묘는 경주최공휘준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두 기의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
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處士慶州崔公諱雲昌之墓

孺人金海金氏附左

側面(西)

英祖丙寅一七四六年生 忌五月十三日

配 戊辰一七四八年生 忌十二月二十日

(南)

慶州崔公諱雲昌墓碣文

公은 文昌候 新羅人 慶州崔 諱致遠의 二十四孫으로 諱雲昌이요 爲八代顯祖諱
 淑生이시니 忠齋公이시다 官至左贊成 贈大匡輔國崇錄大夫 議政府領議政 諡文貞이며
 己卯名賢이시다 七代祖 諱景弘이니 文科弘文館正字贈都承旨요 六代祖諱悅이니 通訓大夫
 全州府判官贈吏曹判書요 五代祖 諱萬齡이니 中訓大夫 成均館事이며 高祖諱克筵 曾祖諱
 時鉉 祖資憲大夫諱天敘요 祖妣貞夫人金海金氏요 父諱浚이요 母慶州李氏이시다 公諱雲昌
 이요 字는 聖昌이니 配金海金氏이시다 子世瑱 孫章奎 三傳 長에 周鉉 次에 銀鉉 四傳潤潤
 潤彬으로 以後無하시므로 五傳에 潤身의 子道休로 養立하고 六傳允煥 七傳載烈 八傳鳳鎭
 九傳承雄이다 西紀一九九五年度에 先塋下午坐에 喝文을 적어 碑를 세워 以備後徵焉云爾
 하노라

側面(西)

西紀一九九五年四月二日

忠齋公派浚宗中會一同

(23) 경주최공휘운찬지묘

경주최공휘운찬지묘는 경주최공휘운찬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
 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嘉善大夫慶州崔公諱雲瓚之墓

配貞夫人密陽朴氏附左

側面(西)

正宗丙辰四月十五日卒

正宗丙辰八月十九日卒

子世完

世崇

後面(南)

慶州崔公諱雲瓚墓碣文

公은 字弼敬 初名 聖載 英宗戊辰生이며 嘉善大夫行中樞府事 諱雲瓚이시며 配는 貞夫人



경주최공휘운찬지묘 전경



경주최공휘운빈지묘 전경

密陽朴氏이시다 新羅文昌候 諱致遠 號孤雲 聖賢으로 二十三祖이니 바로 慶州爲實始祖이
시며 八代顯祖諱淑生이니 官至左贊成 贈大匡輔國 崇錄大夫 議政府領議政 諡文貞이니 崑
齋公이시다 己卯名賢이시며 中始祖이시다 七代祖 諱景弘 字毅翁弘文館正子贈通政大夫承
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館 配淑夫人 淸州韓氏이시며 六代祖 諱悅字悅卿 通訓
大夫 全州府判官이요 五代祖 諱萬齡 中訓大夫 成均館事이요 高祖諱克筵 曾祖諱時鉉 祖
諱天敍 資憲大夫配貞夫人金海金氏이시다 父諱凌妣慶州李氏이고 子長에 世完 次에 世宗

孫에 弼奎 銀奎 得奎 曾孫 永鉉 永錫 玄孫 潤承 潤在 五傳 瑛休 琮休 瑾休 六傳 勉煥 源
煥 近煥 七傳 載益 載學 八傳 榮鎮 鎮 九傳 承圭 十傳 正植이다 西紀一九九五年度에 喝文
을 새겨 先塋下午坐 合窆에 碑를 세워 以備後徵焉云爾하노라

西紀一九九五年 月 日

後孫一同 豎立

側面(西)

位土 始興市 月串洞 一一一番地 一七二坪 垡地

(24) 경주최공휘운빈지묘

경주최공휘운빈지묘는 경주최공휘운찬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
의 화강암 호석을 두른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處士慶州崔公諱雲彬之墓

孺人密陽朴氏附左

側面(西)

二十四代 雲彬 世和 弘奎 琮錫 潤榮 相休 翊煥 載弘 載興 誠鎮 石鎮

章煥 載旭 斗煥 鎬鎮

良休 錫煥 載基 南鎮 漢鎮 弘鎮 榮鎮 尙鎮

世穆 度奎 允錫 潤厚 成休 南煥 載教 載庚 熙鎮 福鎮 庚鎮 學鎮 東鎮

增休 德煥 五信 一永 城勳

後面(南)

蓋休 正煥 載榮 性鎮 石鎮 龍鎮 光鎮

潤免 震休 義煥 載玉 有鎮

志煥 載慶 連萬 革鎮 旭鎮

性煥 載福 載壽 相鎮

載敬 喆燮 大鎮 昇鎮

幾煥 載東 賓奉 東鎮

諱雲彬以後世譜 冕奎 三鉉 潤身 彰休

弘休 庚煥 載寬 鎮

(出係潤彬居)

道休 允煥 載烈 鳳鎮 鍾鎮 元鎮

(出係潤彫后)

克煥 載天 載宗 雲鎮

載鍾 載洙 大鎮 成鎮 明鎮

側面(西)

英祖 癸亥 一七四三年生

成煥 載奎 宇鎮 彰鎮 城鎮 範鎮

配 辛酉 一七四一年生

進休 有煥 載國 召洙 昌鎮 昌言

一九九五年四月 二日

完休 降煥 載常 載弘 許鎮 洪鎮 和鎮

浚 宗中會員一同

載漢 載雄

益煥 載元 載英

(25) 경주최씨충재공파만령화수회봉안당

경주최씨충재공파만령화수회봉안당은 경주최공휘운빈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방형의 화강암 석관묘, 상석, 고석, 향로석, 화병, 석등,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北)

慶州崔氏盅齋公派

萬齡花樹會奉安堂

後面(南)

봉안당 건립 취지

경주최씨 화숙공후 충재공파 만령공은 시조 문창후 고운 최치원 선생님의 19세손으로 임진란 당시 소년시절 월곳에 정착한 이래 16대가 이어져 많은 후손이 번창하여 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선조님들의 유택을 정성껏 받들지 못함을 항상 안타깝게 여기던 중 2010년 종중 총회 결의로 길지를 택하여 봉안당 2기를 건립키로 합의하고 절차상의 문제로 2년 만에 준공하여 앞으로 타계하시는 영령님들을 편안히 모시기 위함이다. 이를 계기로 후손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모이고 뭉쳐서 대소 문중 간에 서로 존경하며 상부상조하는 종중 분위기를 조성 자손만대에 부끄럼 없는 후손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문중의 영원한 성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향화가 꺼지지 않도록 합시다.

西紀 2012年 4月 1日



경주최씨충재공파만령화수회봉안당 전경



경주최씨화숙공파묘역 전경



북에서 본 월촌재 전경



남에서 본 월촌재 전경

묘역2 유인파평윤씨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52.91"N, 경도 126°46'18.21"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씨 월촌재에서 동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100m정도 돌아가면 길 서쪽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갈로 구성되어 있고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孺人坡平尹氏之墓

夫慶州崔尙東公煥州

側面(北)

一八八四年 十一月 二十五日生

一九五一年 四月 二日卒

後面(西)

子 載淳 孫 昌鎭 曾孫 承元 高孫 榮植

女 載成



유인파평윤씨지묘 전경

묘역22 안동김씨설자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52.01"N, 경도 126°46'18.0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유인파평윤씨지묘에서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5m 돌아가면 길 서쪽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갈로 구성되어 있고 묘갈에는 다 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묘역에서 남쪽으로 10m 정도 올라가면 “處士慶州崔公諱雲斗墓 孺人昌原黃氏附左”라고 쓴 묘비명과 망주석이 있는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이 경주최씨 묘역에서 서쪽으로 약 50m 돌아가면 學生慶州崔公禮休之墓, 德水李公仁秀之墓, 慶州崔公載先之墓, 慶州崔公石鎮之墓, 慶州崔公載天之墓, 慶州崔公在明之墓, 慶州崔公文昌候三十世(盅齋公派)諱聖煥配金海金氏家族墓, 慶州崔公載南之墓 등이 분포되어 있다.



안동김씨설자지묘 전경

前面(東)

安東金氏雪子

之墓

慶州崔公寬休

側面(南)

一九〇九年 六月二十日 生

公 陰

一九七二年 三月十七日 忌

後面(西)

子 崔陣煥 子婦 尹炳煥 孫 載熙 孫婿 梁國正 外孫 金鍾任

豐煥 金二善 載順

鍾究



경주최공휘운두묘 전경



학생경주최공예휴지묘 전경

德煥 金貞順 規恩
 義煥 金正子 寶敬
 亨煥 安英淑 浩敬
 載哲
 敏煥 尹棲淵 載光
 姬淑 婿 金亨培 載賢
 金順 李弘榮 美善
 辰淑 金鴻來 源亨
 花淑 朴成大 允禎

朴智動

鍾願
 鍾明
 李善彬
 京願
 金賢貞
 賢玉
 賢子
 朴鏡靜
 聖主
 相彰

側面(北)

一九一九年 三月二日 坐

配 陰

一九七一年 九月二日 忌

묘역23 순흥안공휘성옥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56.63"N, 경도 126°45'33.88"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성옥묘역은 달월교회와 월곶동 마을회관에서 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100m정도 가면 북쪽으로 다리를 건너 약 5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묘역에는 2기의 봉분,

상석, 향로석, 묘갈로 구성되어
있고 봉분은 화강암으로 호석을
둘러놓았다.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南)

配孺人全州李氏

之墓

順興安公諱盛玉



순흥안공휘성옥묘역 전경

側面(西)

西紀一九一六年陰十二月二日生

父

西紀一九八三年陰十一月二十二日卒

後面(北)

子 鍾漢 孫 正濠

鍾瑞 健濠

子婦 崔英順 星濠

卓琮姬 孫女 正玟

正愛

正仁

西紀二〇〇二年四月六日建立

側面(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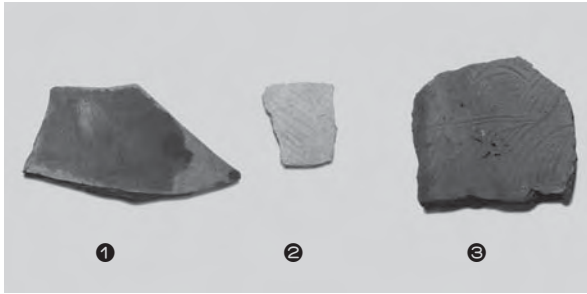
西紀一九二三年陰九月二日十五日生

母

西紀二〇〇二年陰十一月二十四日卒

묘역24 안동김씨전서공파묘역

- 소재지 : 위도 경도
- 시 대 : 근대
- 현 황 :



안동김씨전서공파묘역 출토 토기와 기와편

안동김씨전서공파묘역은 순흥안씨의 은곡재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m지점의 산의 북쪽 능선에 위치해 있다. 묘역의 입구에는 安東金氏典書公派墓域이라는 표지를 화강암에 새겨 세워 놓았다. 이 표지의 뒷면에는 준공 연대를 기록하였다. 묘역은 모두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 1단에는 6개의 비석이 있고 비석 앞에 고석위

에 올려놓은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이 묘역 부근에는 조선시대 기와와 토기 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이 묘역의 북쪽 상단에는 안동김씨대기지묘와 안동김씨언휴지묘가 있고 서쪽으로 100m 정도 돌아가면 安東金氏憲根之墓, 安東金氏在撤之墓, 安東金氏三用之墓, 安東金氏南植之墓가 분포되어 있다. 안동김씨대기지묘 망주석 동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서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반면에 안동김씨언휴지묘 망주석 동쪽의 세호는 내려가고 서쪽의 세호는 올라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 유 물

1. 토 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1	회청	회	회청	정질	경질	0.6 ~ 0.7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내·외면에 표면은 물레와 빗질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내면에는 타날을 한 후 정선하였고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가 섞여 있으며 잘 정선되었다.
2	회청	회	회청	정질	경질	0.5 ~ 0.7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내면에 표면은 격자타날문이 찍혀 있고 외면에는 승문과 격자타날문이 새겨져 있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가 섞여 있으며 잘 정선되었다.

2. 기와

유물 번호	색 조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3	회청	회	회청	경질	1.5 ~ 1.9	회청색경질능형문암기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 능형문이 있고 내면에는 포목으로 누른 후 물손질하였다. 단면에는 와도 흔적이 있다.



안동김씨전서공파묘역 전경

(1) 안동김씨전서공파묘역 표지석

前面(北)

安東金氏典書公派墓域

後面(南)

二〇〇九年 六月 二十九日 建立

宗孫 相敎

龍敎

鍾兢

龍雨

(2) 안동김공태덕지단

前面(北)

孺人金海金氏

之壇

安東金公泰德

側面(東)

配 一八六二年生

公 一八五二年生 一九一六年卒

後面(南)

曾宗孫 相教

龍教

五代孫 龍雨

側面(西)

二〇十四年 月 日立

(3) 안동김공재선지단

前面(北)

孺人全州李氏

之壇

安東金公在善

側面(東)

配 一七九〇年生

公 一七七七年生 一八四六年卒

後面(南)

五代宗孫 相教

龍教

七代孫 龍雨

側面(西)

二〇十四年 月 日立

(4) 안동김공보상지단

前面(北)

孺人全義李氏

之壇

安東金公輔相

側面(東)

配 一七二四年生

公 一七二年一生 一七六〇年卒

後面(南)

七代宗孫 相教

龍教

九代孫 龍雨

側面(西)

二〇十四年 月 日立

(5) 안동김공항지단

前面(北)

孺人漆原尹氏

孺人昌寧曹氏之壇

安東金公沆

側面(東)

配 一六八三年生

配未育

公 一六七五年生 一七四三年六月卒

後面(南)

八代宗孫 相教

龍教

十代孫 龍雨

側面(西)

二〇十四年 月 日立

(6) 안동김공숙지단

前面(北)

孺人光山金氏

之壇

安東金公 燾

側面(東)

配 一七六三年生

公 一七五〇年生 一七九一年卒

後面(南)

六代宗孫 相教

龍教

八代孫 龍雨

側面(西)

二〇十四年 月 日立

(7) 안동김공석진지단

前面(北)

孺人南原梁氏

之壇

安東金公錫振

側面(東)

公 一八〇五年生 一八八六年卒

後面(南)

玄孫 相教

龍教

六代孫 龍雨

側面(西)

二〇十四年 月 日立

(8) 안동김공휘만익지묘

前面(北)

安東金公諱萬謚

之墓

貞夫人東萊鄭氏

側面(東)

配壬辰生 乙巳年四月十日卒

後面(南)

九代宗孫 相教

龍教

東教

二〇〇九年 六月二十九日 建立

側面(西)

公丁酉生 戊戌年五月十日卒

(9) 안동김정취지묘

前面(北)

配貞夫人牛峰李氏

安東金公最之墓

嘉善大夫贈左承旨

後面(南)

宗 孫 憲澈

八代孫 明植

十代孫 晉教

龍教

西紀一九九七年 十月 日

은곡재

□ 소재지 : 위도 37°22'42.46"N, 경도 126°45'25.09"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은곡재는 월곶마을에서 월곶역 쪽으로 나있는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마을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다. 은곡재는 1층은 양옥의 시멘트로 건축하였고 2층은 한옥으로 조성하였다. 은곡재의 북쪽 옆에는 은곡재준공기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은곡재에는 고서인 맹자, 족보, 승경도 등이 보관되어 있다.

穩谷齋竣工記

權利者：淳昌趙氏 始興宗中會

所在地：京畿道 始興市 月串洞 四四二番地

地 積：垡地 138坪 建坪 54.9坪

竣工日：西紀二千十四年十月二十四日

淳昌趙氏는 淳昌戶長 諱子長을 最先祖로 始興宗은 高麗 光祿大夫 檢校大將軍守門下侍中 諱璋을 世祖로 모시고 四世 忠獻公 諱元吉께서 麗末에 一等功臣으로 玉川府院君에 捧해졌으며 五世 諱瑜께서는 高麗가 亡함에 杜門洞七十二賢과 함께 不事二君의 精神을 지키며 後에 李朝에서 여러 번 부름을 받고도 不就하셨다. 六世 諱斯文 崇文 兄弟분은 端宗復位死六臣事件에 成三問과 内外戚으로 端宗復位를 돕다가 慘禍 當하셨다. 八世 諱穩께서 尙瑞院直長公으로 世宗大王의 八王子永膺大君의 따님과 婚姻하시어 後事を 이으셨

다. 始興祖는 十四世 進士公 諱維四신대 果川에서 及第後 教子하시는 歲月에 僉知中樞府事 諱弼殷公을 出産하시고 弼殷公은 順興安氏와 婚姻하시어 妻家附近인 이 곳 月串으로 移居하시니 지금의 後孫으로 蕃盛하였다. 先祖任이 마련하신 位土를 後孫은 合心하여 増殖 一九九八年에 宿願事業인 宗中墓苑을 마련하여 여러 山野에 固墳으로 계신 先祖任을 譜牒에 準하여 示範墓苑을 造成하고 幽宅이 果川飛山이신 始興祖進士公을 二千四年 宗山上崗에 모시고 二千二百餘刻字 世碑를 二千六年에 豎立 鄉地를 다지다 晩時之歎이나 日出光明 東方水利前景으로 慈善屋土에 先祖任奉安室堂 穩谷齋를 有司仁奎의 監理로 竣工하였으니 後孫은 再拜하라. 齋號와 柱聯의 글은 吾門의 書藝家인 竹圃 得升氏가 썼다. 文章家도 아닌 考證人으로 譜牒의 文件을 手記로 精부쳐 四十餘年整理하는 歲月에 八十中半이라 모든 것이 무디다. 온 宗員의 合心으로 오늘의 發展을 이룬 感謝에 情을 담아 選書를 쓰다 先祖任의 遺業을 기려 崇祖 孝敬하고 修身齊家 愛國愛族하기를 바라며 忠獻公의 遺訓인 生死進退 無愧義字하라

二千十四年 晩秋 宮谷 秉甲 撰



은곡재 전경

묘역25 순창조공필은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8.28"N, 경도 126°45'3.9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창조공필은지묘는 은곡재에서 서쪽의 달월역으로 가는 길을 따라 약 500m 정도 가면 남쪽으로 철탑이 보이는데 이 철탑 부근에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은곡재에서 순창 조공필은지묘로 가는 도중에 고개를 넘자마자 원각사가 있는데 이 사찰 뒤편에 全州李公確成, 仁川蔡氏載旼, 金海金氏一女之墓가 있고 여기에서 달월역 쪽으로 100m 정도 가면 월곡 블루베리 농장 북측에 淳昌趙公光烈之墓, 淳昌趙公濟之墓, 淳昌趙公秉穆之墓가 있다. 묘역은 봉분과 호석, 상석, 고석, 계체석, 묘표와 망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西)

嘉善大夫淳昌趙公弼殷之墓

配貞夫人順興安氏合祔兩坐

側面(北)

安山 馬遊面 月伊洞 丙坐原은 곧 僉知中樞府事 趙公의 幽宅이다. 公의 諱는 弼殷이요 字는 說卿이며 淳昌人인데 上世에 高麗 檢校門下侍中諱璋字를 初譜에 모시고 生諱洪珪는 奉翊大夫版圖判書요 生諱奎은 文科로 追封府院君이며 生 諱元吉의 號는 農隱이요 勳功으로 府院君을 封했으며 諡號는 忠獻인데 淳昌武夷書院에 配享하였다. 生諱瑜의 號는 度谷이요 벼슬은 副正인데 高麗國運이다 하니 罔僕義를 지켜 杜門洞에 숨고 李朝에서 資憲大夫 漢城判尹으로 불려도 不就하니 世宗께서 嘉尙

後面(東)

하여 孝子前副正이라 旌表한 것은 그 忠誠을 아울러 褒揚하신 것이다. 再傳하여 諱智崙은 相好亭을 세우고 四兄弟가 長枕과 大衾으로 晝夜同處하며 和樂且湛하셨으니 公의 七祖이시다. 曾祖諱璟은 生員이요 祖諱時述은 進士시며 考諱維四는 進士신데 妣는 豐山沈氏監察詹의 따님이시다. 公은 顯宗癸卯(一六六三)生이신데 어려서부터 形容이 端雅하고 性度가 莊重하며 父母를 孝敬으로 섬기면서 病患에 근심을 다하고 喪事에 哀痛을 다하며 奉先에 誠敬을 다하고 宗族에는 和睦으로써 應對하였다. 明衣를 信義로써 사귀며 그 急難

을 自身이 當한 것 같이 보아 自家의 有無를 不顧하고 極力救助하니 古代賢人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後生을 訓誨하되 孝行을 먼저 하고 文藝를 뒤에 하니 子孫이다 溫厚하고 敬謹하여 家庭見聞의 實效를 가히 알겠도다. 壽職으로 嘉善에 오르고 忌는 十一月 三十日이며 配는 貞夫人 順興安氏로 植의 따님인데 庚子生으로 忌는 五月四日인데 公의 墓所에 附葬하였다. 一男은 耘畦요 孫은 之大之聖之德이며 曾孫은 泰光泰華요. 以下는 列舉하지 아니한다. 아- 슬프다. 公의 美德과 善行으로 무엇이 모자라 抱負를 펴지 못하고 마침내 林泉에서 늙었으니 甚히 慨恨할 뿐이다. 後孫이 장차 墓道에 石儀를 갖추고저 하는데 族叔東濬氏가 寒程에 멀리 瑞石洞 寓舍로 來訪하여 表墜할 文字를 要請하니 감히 文字가 遇拙라 辭絶 못하고 大略事行을 右와 같이 敘述함

檀紀四千三百二十二年己巳正月 日 傍裔東貴 謹撰 陽川許永裁 謹書

側面(南)

乙巳四月 日 九代宗孫 承勳

孫 宗勳

有司 同甲

묘역26 순창조공유사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8.06"N, 경도 126°45'4.3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창조공유사지묘는 순창조공필은지묘에서 동쪽에 인접하여 묘역이 구성되어 있다. 묘역은 봉분과 호석, 상석, 고석, 향로석, 계체석, 석등, 묘표와 망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西)

成均進士淳昌趙公維四之墓

配宜人豐山沈氏 合祔西坐

側面(北)

淳昌趙氏는 麗鮮兩朝에서 聲望이 있는 名族으로 節義와 忠孝를 行한 선비를 輩出하셨다. 高麗檢校門下侍中 諱璋을 始祖로 모시고 曾孫諱元吉은 添讓王을 策立한 功으로 府院



순창조공필은지묘



순창조공유사지묘

君을 封했으며 시호는 忠獻이요 武夷祠에 配享하였다. 生諱瑜의 號는 虔谷이요 文科에 올라 벼슬은 副正인데 高麗가 亡하니 杜門洞에 들어가 罔僕義를 지키고 李朝에서 漢城判尹으로 불려도 不就하니 世宗朝에서

그 忠孝를 嘉尙하여 특별히 前朝職名으로 旌褒하고 謙川祠에 奉享하니 公의 九世祖이 시다. 曾祖諱原은 從

後面(東)

仕郎이요 祖諱暉은 生員이며 考諱時述은 進士인데 妣는 南陽洪氏佐郎宗海의 따님이시다. 公의 諱는 維四요 字는 子張이며 仁祖癸酉(一六三三)년에 謫고 狀貌가 秀麗하여 入孝出第하고 治家有度하며 十歲에 外艱을 當하여도 老成人같이 執禮하고 才質이 뛰어나 文學을 힘써 經傳과 史記를 두루 涉獵하였으며 壯年에 兄維馨弟維元과 함께 漢城에 올라가 進士試에 應하여 급제하였다. 其後에 伯季二公은 歸鄉하고 公은 홀로 大志를 품고 계속 太學에 남아 篤工했으나 所望을 이루지 못하고 漢城近處 땅을 가려 定着하니 곧 始興郡 君子面이요 子孫이 世居하다 이후로 초야에 숨어 지조를 지키며 躬耕孝子하니 近方에 사는 學徒들이 風聲을 듣고 盆集하여 배우기를 請했다. 비록 師道로써 自處하지 않았으나 諄諄이 이끌어 教導하며 덕행을 닦고 聲譽를 不求하니 鄉邦에 稱頌이 籍籍하였다. 仁祖癸酉에 謫고 肅宗癸酉(一六九三)十一月一日에 享年六十歲로 告終하니 果川 西面 飛山 酉坐原에 安葬하였다. 配豐山沈氏는 監察詹의 따님으로 公보다 三年뒤에 出生하여 忌는 正月十日인데 公墓에 附葬하였다. 一男弼殷은 벼슬이 僉中樞요 孫은 耘畦며 曾孫은 之大之聖

之德이요 以下는 다 기록하지 아니한다. 아- 公의 純美한 資質과 深奧한 抱負로 만드시
顯揚後世할 것인데 마침내 失志投世하니 甚爲痛恨하도다. 後孫이 장차 墓道에 石儀를 갖
추고 저 내게 請文하니 同根의 義誼로 敢이 固辭하지 못하고 대략 右와 같이 敍述하며 知
德者의 考察을 바랍

檀紀四千三百二十二年己巳正月 日 旁裔東貴 謹撰 陽川 許永栽 謹書
側面(南)

己巳三月 日 十代宗孫 承勳
孫 宗勳
有司 東甲

묘역27 순창조공탁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8.64"N, 경도 126°45'3.6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창조공탁지묘는 순창조공사은지묘에서 서쪽으로 50m정도 내려오면 인근에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묘역은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계체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묘표에
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西)

淳昌趙公鐸

之墓

配 全州李氏

側面(北)

一八四八年一月二十三日 生

西紀陰

一九三〇年八月四日 卒

後面(東)

二十一世



순창조공탁지묘 전경

子 瀾	孫 秉碩	秉璇
濟	秉穆	秉惠
澈	秉先	秉甲
洪	秉俊	
演	秉圭	
浣	秉烈	

묘역28 순창조씨 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37.14"N, 경도 126°44'57.3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창조씨 묘역은 은곡재에서 서쪽으로 난 논길을 따라 약 2km 서남쪽으로 가면 산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의 앞에는 묘도비가 세워져 있고 묘역의 중간에는 추모비가 있는데 순창조씨가 이곳에 묘를 이장해 와 한 장소에 모아 놓은 것이다. 이 묘역의 하단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배열하면, (1)순창조공준지묘 (2)순창조공윤지묘 (3)순창조공익지묘 (4)순창조공철지묘 (5)순창조공홍지묘 (6)순창조공인지묘 (7)순창조공완지묘 (8)순창조공병석지묘 (9)순창조공병수지묘 (10)순창조공병선지묘 (11)순창조공병균지묘 (12)순창조공병준지묘 (13)순창조공준지묘 (14)순창조공병규지묘 (15)의원순창조공병덕지묘 (16)순창조공병열지묘의 16기가 있다. 상단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열하면, (1)참봉순창조공용지묘 (2)순창조공성지묘 (3)순창조공영지묘 (4)순창조공병규지묘 (5)순창조공효효지묘 (6)순창조공익효지묘 (7)순창조공만효지묘 (8)순창조공효겸지묘 (9)순창조공겸지묘 (10)순창조공형겸지묘 (11)순창조공태화지묘 (12)순창조공태광지묘 (13)순창조공대지묘 (14)순창조공운휴지묘의 14기가 있고 그 상단에는 土地之神의 위와 상석이 놓여있다.

1) 묘도비(墓道碑)

前面(東)

淳昌趙氏始興祖十四世 進士公維四系墓道碑

側面(南)



순창조씨 묘역 전경

淳昌趙氏始祖는 高麗國 光祿大夫 檢校 大將軍 門下侍中 公諱璋이시다 後孫도 高麗때 入朝南方까지 世居하시고 三世太師公諱瑱와 四世 忠獻公 諱元吉 五世 樂齋公諱瑛 度谷公 諱瑜五祖께서 高麗의 忠節臣으로 崇義殿에 配享되신 八大姓氏 名門巨族이다. 一三七〇年 恭愍王때 上疏로 圃隱 鄭夢周 牧隱 李穡 陶隱 李崇仁 冶隱 吉再선생과 五隱의 農隱公으로 名聲하시고 一三九〇年 恭讓王 擁立으로 推忠奮義翼哉弼成克服 三重壁上功臣의 號와 大匡輔國光祿大夫檢校門下侍中 兼 典工判書 玉川府院君에 冊封되신 一等功臣 四世諱元吉께서 麗亡때 淳昌金堀里에서 一三九〇年 八月 被禍로 殉節하셔 忠獻謚號로 淳昌郡 柳等面 度谷里 度芝山子坐에 禮葬되셨는데 아들 五世 度谷公 諱瑜이 中顯大夫 典農副正때 麗亡으로 七二賢이 不事二君으로 杜門洞에서 不朝覲할 때 父親의 悲報에 順天으로 내려가 흠집을 지며 禮葬하고 父母喪에 六年侍墓한 孝子라 都先山 忠獻公局內에 始祖와 二世 判書公 諱洪珪 三世贈玉川府院君 諱佺 忠獻供의 孫子 六世 司正公 諱 龜山이 계서 陰十月三日 芝南齋時祭를 지낸다. 五世 度谷公 諱瑜께서 父母喪으로 侍墓할 때 太宗이 檢校漢城判尹等 많은 벼슬로 불러도 불취하시고 住岩林泉에서 修身敎子하시다가 一三四六年 開城私邸에서 出生八三壽인 一四二八年 五月六日 告從하신다. 悲報를 接한 世宗大王이 크게 슬퍼하며 御製詩와 孝子前副正趙瑜之閭의 旌閭와 守塚舍三棟을 下賜 住岩蜈蚣穴에 禮葬하고 十月七日 靖獻齋로 지낸다 六世 參議公斯文은 季節愍公諱崇文과 姪敎官公諱哲山等이 一四五六年 丙子端宗復位에 死六臣과 連累되

後面(西)

어 殉節考證과 墓가 失傳되어 後孫이 白也山에 계신 配淑夫人靑山鄭氏墓에 招魂葬하고 陰十月九日白雲齋로 지낸다 義舉被禍의 巨族은 朝廷 杜門으로 벼슬이 멈춰 가난한 선비 여러 七世四兄弟 僉樞公諱智山 井邑公諱智崑 察訪公智崙 參判公諱智崗인데 竹林泉에 亭子를 짓고 長枕을 함께 베고 큰 이불을 함께 덮고 풀벌레 詩曲을 읊으며 榮辱을 排斥 修身齊家하여 相好亭으로 名聲하다 系祖는 察訪公配令人 晉州河氏로 昇州九江 연동에 各塋으로 陰十月十三日履露齋로 지낸다 八世尙瑞院副直長公諱穩은 世宗大王의 八男王子 永膺大君(敬孝公諱琰墓君子洞)의 사위로 短命하여 中年에 서울 私邸에서 告終配令人李氏와 白也山에 合塋 九世從仕郎公諱淑琦 十世秉節敎尉公諱大楠은 住岩땀 展望臺 飛謙山에 陰十月十七日 飛謙齋로 지낸다 十一世 從仕郎諱愿 十二世生員公諱暻은 住岩上沙땀 角氏峰아래 계시다 十三世 忠義公 諱時述은 丙子胡亂때 功勳墓는 順天黃田面內九馬峰이며 陰十月六日敦舒齋로 지낸다 各系上世祖가 坡州에서 湖南까지 계시다 忠義公의 둘째 十四世 進士諱維四公一六三三年 生配宜人 豐山沈氏가 始興祖인데 先親을 早失한 三兄弟(諱維馨維四維元)는 萬波忍苦로 成長하여 科試次 함께 上京安養(果川)地方에 移居하시며 모두 及第하신 後 伯季는 歸鄉하시다 始興祖는 大望으로 외로히 남아 一六六三年 아들 弼殷을 출산하시고 窮耕宣敎로 稱頌이 籍籍하다 一六九三年 陰十一月 一日六一壽로 告終安養 飛山合塋으로 계셨는데 二〇〇四年陰閏二月十六日 始興系 顯苑인 月串 安山 八九一一上崗 丙坐壬向에 移葬 治山하다 十五世壽僉知中樞府事諱弼殷公配는 貞夫人順興安氏 一六九五 年子耘畦를 出産하셨는데 父母喪을 마치신 後 妻家近處인 始興市 月串洞 宮谷(馬遊面 月伊洞)으로 移居後學宣敎農耕하시며 首階로 僉知中樞府事하시다 一七二三年 陰十二月 一日 六十一壽로 告終考墓下에 모시다 始興世祖系 三七〇餘星霜에 六〇餘星箱에 六〇餘古封이 長久한 歲月에 더러 가 숲에 古塚모습과 不敬의 逆葬 念慮에 後孫이 孝誠을 發議하여 時變의 政策에 副應하는 墓域浪費를 잡고 後代의 認識을 圖謀 一九九八年 安山八九一三戊 坐에 始興 世祖系 顯苑을 造成 南쪽을 先代로 二十二世까지는 行列生年兄弟順으로 離散 家族相逢의 뜻에서 安葬했다 一段의 1은 十六世 耘畦公 2는 十七世之大公 3은 十七世之德公을 如午에서 八世泰光公 5는 十八世 泰華公을 如午에서 6은 十九世 瑩謙公 7은 十九世 謙公을 如午에서 8은 十九世 敎謙公을 如午에서 9는 二十世 勉孝公 10은 二十世 翼孝公을 設如午에서 11은 二十世 赫孝公을 宮谷에서 12는 二一世 鑠公을 設島山에서 13은 二一世 鋹公을 洪谷宮谷에서 二一世鐸公은 安山八九一一六代祖考下 14는 二二世 參奉溶公을 設 二段1은 二二世濬公을 洪谷

側面(北)

宮谷에서 二-2는 二二世潤公을 如午에서 二-3은 二二世瀾公을 如午에서 二-4는 二二世濟公을 如午橋谷에서 二-5는 二二世秉澈公 二-6은 二二世洪公을 渡山設甘間에서 二-7은 二二世演公을 局內에서 二-8은 二二世浣公을 如午에서 二下1은 二三世秉懿公을 如午에서 二下2는 二三世秉龜公을 新垆에서 二下3은 二三世秉麟公을 新垆에서 二下4는 二三世秉碩公 二下5는 二三世秉穆公을 橋谷에서 二下6은 二三世秉



순흥안씨 묘도비 전경

壽公을 新垆에서 二下7은 二三世秉璇公을 祥谷에서 二下8은 二三世秉均公을 新垆에서 二下9는 二三世秉俊公을 如午에서 二下10은 二三世秉圭公을 如午에서 二下11은 二三世議員 秉憲公을 假陵谷에서 二下12는 二三世秉烈公을 渡山에서 二三世秉先公 二四世承烈公 二四世光烈公 二四世鍾烈公 二四世擘烈公 二四世世勳公 二四世大烈公 諸位를 幽宅에 安葬하고 墓表를 세워 治山하다 先靈께옵서 昊天에 安息하사 蔭德을 降福하옵소서 祖道는 天理이며 慈愛十倍라 崇慕孝敬愛族의 史蹟教育顯苑을 대견하게 繁榮하는 永世로 承繼하여 子孫萬代 悠久히 敦睦榮光이 無窮하기를 祈願하고 後事の 考證을 譜牒에 담아 後孫이 認知하도록 부탁하고 무딘 文筆을 自責하며 敢히 世系墓道誌를 쓰다

丙戌 二00六年 九月 宗員一同 建立

二十三世 宮谷秉甲 謹書

2) 추모비(追慕碑)

前面(東)

이 墓는 父母님 淳昌人二十二世諱趙浣(戊子西紀一八八八年十二月七日~一九六一年三月二十日卒)과 德水李善淑(丁亥一八八七年二月二十一日~一九四十年四月二十七日卒)께서 正寢하시는 幽宅이다. 父親께서는 六兄弟中 막내로 韓末의 波瀾時代에 出生하시어 成長 어머니와 奉先孝敬과 愛族敦睦으로 善導하시고 仔詳하신 性品으로 이웃과 友誼相扶相助多情하셔서 稱頌이 孜孜하고 큰집 살림을 오랜 歲月까지 하시며 일찍 告終하신 兄님宅 어린 조카들의 살림도 늦게까지 살피주신 善德을 베푸시고 四十一歲란 늦은 年歲에 分

家を 하셔서 農耕과 製鹽等 힘든 일로 自守成家하신 父母님의 高貴하신 遺業을 받들어 永遠히 기리겠나이다. 壬申年 西紀陰一九三二年十二月十八日四十六歲에 늦둥이 不孝子를 出産하시고 悲慘한 日帝治下에 어머니께서 五十四壽를 一期로 九

後面(西)

살의 哲不知를 두고 殞命하시므로 父親께서는 萬波忍苦의 외로우신 二十餘霜間不孝子를 품어 키워 주셨나이다. 戰爭으로 小子는 六年의 軍務를 마치고 歸鄉하여 父子相逢하니 아버님은 이미 老衰하시어 西紀一九六一年三月二十日 殞命하셨는데 어머니 幽宅과 멀리 모셔있고 孝道의 機會도 잃은 恨等父母님이 그리워 흘리고 감춘 목메인 平生의 哀恨을 念願하였는데 온 先祖께서 昊天에서도 이승과 같이 이웃하시어 孝敬愛族하시고 相好 敦睦하시기를 축원하여 後孫들의 精誠을 모아 造成한 始興 世系墓地에 父母님이 함께 正寢하시는 幽宅에 治葬하여 모셨으니 昊天에서 安息하옵시고 높으시고 넓으신 善德으로 살펴 주시옵기를 謁誌를 세워 追慕하나이다.

西紀二千年四月五日

小子 秉 甲 俯伏

(1) 淳昌趙氏 二十三世孫 秉惠先生 功績碑

前面(東)

◎ 住民의 심부름꾼으로 獻身

一九二四年 君子普通學校를 卒業하고 鄉里인 月串里에서 農事를 지으시면서 그 동네 區長(지금 月串洞長)으로 奉職하면서 住民의 便益과 高장 發展을 위하여 誠實하게 奉事하였다.

◎ 農村啓蒙 活動

암울했던 때(日帝時代) 學校에 다닐 수 없는 어린이들이 문맹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直視하고 <<祥谷講習所>>를 設立 運營하여 農村啓蒙 活動을 展開하였다. 달월 열두 동네는 물론 맏골 사랭이의 어린이들이 이 祥谷講習所로 모여드는 장한 모습을

側面(南)

보게 되었다.

◎ 面議員 및 郡教育委員 활동

大韓民國 建國后 처음으로 實施된 地方選舉에서 君子面 議員 및 始興郡 教育委員으로

被選되어 奉職하시었으며 當時面內에서

後面(西)

몇 안 되는 有志로서 尊敬을 받았다.

◎ 「달월 간이역」 設立으로 住民宿願事業成就

이 지역의 주민들과 通學生들이 仁川을 往來하는데 水仁線鐵道 소래역까지 한 시간 이상을 걸어야 하는 큰 不便을 겪고 있던 당시 이에 問題意識을 갖은 난관을 이겨내고 소래와 군자역 사이(10KM지점)에 「달월 간이역」을 설계하는 데 성공하였다.

◎ 자갈판 사업으로 부녀자를 소득증대

水仁線 철도 자갈 供給事業을 맡아 運營하여 지역 婦女子들이 勞賃을 받아 어려운 가정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功績碑는 月串洞 住民 淳昌趙氏 后孫들과 그들의 아들 딸

側面(北)

九男妹 모임이 세워 드립니다.

二〇一四年 月 日

묘역29 해주최씨 가족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4.78"N, 경도 126°44'57.83"E

□ 시 대 : 근대

□ 현 황 :

해주최씨 가족지묘는 순창조씨 묘역에서 남쪽으로 약 100m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의 특징은 봉분에 원형으로 호석을 구획하여 비문을 새겨 놓았다. 묘역은 봉분과 호석,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묘표와 호석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망주석 북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남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前面(東)

海州崔氏家族之墓

後面(西)

오랜 세월을 심약산 아래 계시던 28세 諱珽 선조와 29세 諱泰錫 선조의 묘소가 세월이



해주최씨 가족지묘 전경

흐르고 교통이 발달됨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어 어쩔 수 없이 이장을 하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그동안 후손된 도리를 못한 마음 후회되어 비록 화려하지는 않으나 조촐히 家族墓를 조성하여 뽕뽕이 흠어져 있던 선조의 영혼을 한 곳에 모시니 후손된 자로서의 자그마한 정성을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세 諱秉孝 선조께서는 인덕과 학문을 두루 갖추어 파주 교하 서패리에서 당을 짓고 학문을 양성하였는데 관직의 높고 낮음을 달리하고 관리가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찾아와 부임인사의 절차를 거쳤으며 별세 후 그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인근 3개면(문발·삼남·교하)의 하객들이 줄을 지어 문상함으로써 큰 행사로 알려져 있으며 파주 월릉 영태리 함영동에(정릉참봉) 묘 옆에 계시다가 군에 징발되어 파주 백석 갈마동에 옮겨졌는데 그 위치가 골이 깊고 벌이 없이 조부·증조부님과 같이 모시기로 하였으니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32세 諱萬變께서는 파주 교하 두익리 주산에 계셨다고는 하나 어떤 연유인지 화장을 모셨으므로 이곳에 함께 모시게 되었으며 33세이신 諱永老께서는 6·25동란 시 경기도 안성 불지촌으로 피난을 가시어 그곳에서 별세를 하였는데 같은 종친께서 그곳에 매장하였으나 화장을 모시게 되어 이곳으로 모셨으며, 34세 諱建鎬께서도 화장을 하였다가 이제야 이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여러 조상을 한곳에 모시게 됨에 한편으로는 그동안 못하였던 일을 하였다는 감동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다지 화려치 않게 모시게 됨에 섭섭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만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변하고 있음에 이같이 모시게 됨을 부디 서글퍼 마시고 불충한 후손들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빕니다.

側面(北)

2002년 12월 15일

해주최씨 35세손 躍童 勝一書

護石碑文

33世 崔在豐

1934.1.1.生~2001.4.21.졸(음3,23)

자 최원호

녀 영임 사위 이동복

윤석 정대현

32世 崔鍾變

1900.2.21.生~1945.11.22. 卒

配 坡平尹氏

1903.5.27.生~1950.5.16. 卒

자 최재룡 자부 김효년

손 충호

 준호

손녀 경숙

31世 崔秉賢

1858.1.1.生~1904.11.8 卒

配 坡平尹氏

1856.12.23.생~1888.7.7. 卒

31세 崔秉悌

1849.7.17.生~1919.3.19 卒

配 長水黃氏

1846.4.9.生~1881.9.9 卒

27世 崔晉憲

1743.10.23.生~1770.1.19. 卒

配位全州李氏

1742生~4.25 卒

28世 崔琹

1782.10.12. 生~1815.4.8. 卒

配 陰城朴氏

1775.1.9. 生~1836.11.12. 卒

29世 崔泰錫

1799.9.26. 生~1862.11.29 卒

配 新平李氏

1795.3.5. 生~1858.8.14 卒

31世 崔秉孝(竹源公)

1845.9.18. 生~1893.12.14 卒

配 丹陽禹氏

1843.10.18. 生~1902.2.4 卒

32世 崔萬燮

1867.9.29. 生~1940.7.3. 卒

配 慶州李氏

1870.9.3. 生~1917.10.21 卒

33世 崔永老

1885.7.28. 生~1950.12.17 卒

配 昌寧成氏

1881.12.23. 生~1908.3.17 卒

34世 崔建鎬

1921년 2월 24일~1973년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명륜3가 동장

配 金妙喜

1925년 11월 20일~2014년 9월 9일(윤)

자 화일 자 지수 손녀 소담

 승일 자부 김정자 진수 예술

 정일 김혜자

녀 희일 사위 조두환

 원일

 경일 장종철

 수일 안동립

묘역30 순천박공대규가족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4.57"N, 경도 126°44'58.22"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천박공대규가족지묘는 해주최씨가족지묘의 남쪽에 위치하여 있고 해주최씨가족지묘와 같은 형태로 조성하였다. 봉분의 호석에 비문을 새겨놓았고 상석, 고석, 향로석, 계체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호석의 정면과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護石正面

순천박공대규

지묘

창원황씨금엽

공 서기 1913년 음10월 19일생~1962년 음8월 9일졸

배 서기 1925년 음 5월 8일생~2003년 음4월 23일졸

墓表

前面(東)

순천박공대규가족묘

자 중국 손 장호

 중옥 민우

 중인 민석



순천박공대규가족지묘 전경



양성이씨 가족지묘 전경

종상	상민
종복	찬수
자부 송혜진	손녀 세라
전재순	지영
김성순	세진
한기은	세영

묘역31 양성이씨 가족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4.26"N, 경도 126°44'58.4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양성이씨 가족지묘는 순천박공대규가족지묘에서 남쪽 인근지역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이스라엘지역에 있는 석관묘 형태를 하고 있고 석관의 정면에는 공기구멍이 설치되어 있다. 석관 동쪽의 석물은 상석과 고석, 향로석, 묘표, 화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방형 비석 정면과 석관의 호석 한 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墓表

前面(東)

“ 中 陽城李氏家族之墓”

側面(北)

“西紀二〇〇三年四月 清明日”

護石

이중기(요셉)之靈

公1938.4.29.日生~2003.3.23.日卒

자 이경호

경수

딸 경희

사위 이승순

묘역32 밀양박씨 가족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4.09"N, 경도 126°44'58.74"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씨 가족지묘는 양성이씨 가족지묘에서 남쪽 인근지역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이스라엘지역에 있는 석관묘 형태를 하고 있고 석관의 정면에는 무궁화 장식을 하였다. 석관 동쪽의 석물은 상석과 고석, 향로석, 묘표, 화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표에는 후면에 순조33년(1833)에 받은 교지를 새겼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前面(東)

密陽朴氏家族之墓(忠憲公派)

後面(西)

(孝載)

教旨 朴季鎮爲折衝將軍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者

光緒十三年三月日

側面(北)

西紀二〇〇三年四月 青明日



밀양박씨가족지묘 전경



덕수장씨유정공파묘역 전경

묘역33 덕수장씨 유정공파묘역

- 소재지 : 위도 37°22'32.59"N, 경도 126°44'55.63"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씨 가족지묘에서 남쪽으로 약 10개 정도 내려가면 덕수장씨유정공파묘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전면에 “二十一世 世弘家族墓園 德水張氏柳亭公派”, 후면에 “二〇一二年 五月二十日 謹豎 慶台 慶熙 慶哲 慶旭 慶燦 慶翼 慶旭”이라는 묘표가 서 있다. 이 묘역에는 두 망주석 사이에 4기의 묘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망주석 남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북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1) 덕수장공하진지묘

前面(北)

配儒人全州李氏

之墓

德水張公夏鎮

側面(東)

一九三一年 九月十九日 卒

公

一八七一年 二月 九日 生

後面(西)

子 淳億 孫 健秀

懋秀

甲秀

懋秀

一九九五年閏八月初七日 甲秀 謹豎

慶台

側面(北)

一九四一年 四月三日 卒

一八六七年 十月 九日 生

(2) 덕수장공순억지묘

前面(北)

配儒人淸州韓氏

之墓

德水張公淳億

側面(東)

一九七三年 五月二十六日 卒

公

一八九五年 七月 二十八日 生

後面(西)

子 健秀 孫 慶台

懋秀 慶熙

甲秀 慶哲

慶旭

慶燦

慶翼

慶旭

懋秀

一九九五年閏八月初七日 甲秀 謹豎

慶台

側面(南)

一九六六年 十月 十八日 卒

配

一八九五年 七月二十九日 生

(3) 덕수장공건수지묘

前面(北)

配儒人全州李氏

之墓

德水張公健秀

側面(東)

一九一五年 七月二十日 生

公

一九五〇年 月 日 卒

後面(西)

子 慶台 孫 完在 佺在 瑩在

慶熙 東在 德在 成信

慶旭 珉在 美在

女 慶蘭

慶愛

側面(南)

一九一三年 九月 二日 生

配

一九九五年 十二月十五日 卒

(4) 덕수장공혁수지묘

前面(北)

配儒人平山申氏

之墓

德水張公赫秀

側面(東)

子 慶哲 女 慶姬 慶英 慶銀 慶慈 慶善 孫 峰在

慶旭

佑在

後面(西)

公께서는 一九二三年 十一月十八日 京畿道 始興長谷里에서 三男二女中次男으로 태어나시어 一九四四年 春川 師範學校를 修了하시고 일찍이 教育界에 投身하신 后 一九四六年 平山申氏와 結婚 슬하에 二男五女를 두고 透徹한 使命感과 誠實한 研究와 努力으로 四十餘星霜을 하루같이 育英 一線에서 한 점 티없이 獎學에 寄與하신 바 크다. 그 結果로는 斯界에 絶對의인 認定으로 內務部長官 感謝狀 文教部長官 表彰狀 國民褒章 國民勳章 木蓮章 文教部長官 功勞表彰 外 多數 受賞하신바 있다.

側面(南)

一九二八年 七月 二日 生

配

二〇一五年 五月 二十二日 卒

一九二三年 八月 二十七日 生

公

二〇一〇年 四月 九日 卒

묘역34 덕수장공석사갑수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2.93"N, 경도 126°44'55.01"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덕수장공석사갑수지묘는 순창조씨 묘역에서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200m 정도 올라가면 산의 동쪽 능선에 위치해 있다. 묘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전면에 “二十一世 世弘家族墓園 德水張氏柳亭公派”, 후면에 “二〇一二年 五月二十日 謹豎 慶台 慶熙 慶哲 慶旭 慶燦 慶翼 慶旭”이라는 묘표가 서 있다. 묘역은 상석, 고석, 계체석, 망주석, 봉분과 호석



덕수장공석사갑수지묘(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묘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西)

配孺人文化柳氏

之墓

德水張公碩士甲秀

側面(北)

一九三〇年 三月 六 日生

公

一九九九年八月二十七日卒

後面(東)

자 장경찬 자부 김여정 손 장성재 지원

경익 안혜정 장웅재 은정

여 경신 사위 유시정 외손 유규하 준하

側面(南)

一九三二年十一月一日生

配

二〇一三年八月十四日卒

묘역35 덕수장공세홍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3.26"N, 경도 126°44'54.65"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덕수장공세홍지묘는 덕수장공석사갑수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해 있다. 묘역은 상석, 고석, 계체석, 봉분과 호석, 망주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묘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西)

配孺人坡平尹氏

之墓

德水張公世弘

側面(北)

一九二九年二月 六 日 卒

公

一八五三年十月二十九日 生

後面(東)

子 夏鎮 孫 淳億

赫秀



덕수장공세홍지묘 전경



제주양공천의지묘 전경

一九九五年閏八月初七日 甲秀 謹豎
慶台

側面(南)

一八九四年 七月 五日 卒

配

一八四八年十一月十三日 生

묘역36 제주양공천일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2.07"N, 경도 126°44'56.86"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제주양공천일지묘는 덕수장공석사갑수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해 있다. 묘역은 상석, 고석, 계체석, 봉분과 호석, 망주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묘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망주석 동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서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前面(西)

長水黃氏貞燁

之墓

濟州梁公千鎰

側面(南)

一九一七年 二月 十三日 生

公

一九六二年 九月 十五日 卒

後面(東)

子 炳皓 손자 대현 손녀 성희

子婦 金貞姬 지영

소영

炳珉	태준	은영
李明熙		지혜
炳益	윤석	희진
文美慶	준석	
春熱		
朴用洙		
春實		
趙喆洙		
春英		
安賢萬		

側面(南)

配 一九一八年 七月 七日 生

二千九年 六月 十五日 卒

묘역37 성도공득삼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2.12"N, 경도 126°44'56.6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제주양궁천일지묘 묘역의 서북쪽에는 성도공득삼지묘가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화분, 묘갈로 구성되어 있다. 봉분에는 화강암으로 둘러놓았다.

前面(東)

당 성도공득삼지묘

側面(南)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라(요十一:二五)

後面(西)

딸 황정엽
 정선
 손녀 귀자
 귀순
 외손자 영일
 영호
 영대
 병호
 병민
 병익



성도공득삼지묘 전경

側面(南)

一八九七年 七月 二十七日生

一九八六年 五月 十二日卒

묘역38 재령이공만근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2.52"N, 경도 126°44'57.19"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재령이공만근지묘는 성도공득삼지묘에서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약100m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호석, 상석, 고석, 향로석, 화분, 계체석, 묘갈로 구성되어 있다.

前面(東)

全州李氏今順

之墓

載寧李公萬根

側面(南)

一九〇九年 三月十七日生

公

一九四五年十一月十八日卒
後面(西)

자 이병창 손 형주
병인 형석
딸 병숙
재임
옥례
금자

側面(北)

一九一〇年陰十月二十七日生
配
二〇〇五年陰三月二十三日卒



재령이공만근지묘 전경

묘역39 순창조공승열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30.99"N, 경도 126°44'59.8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창조공승열지묘는 재령이공만근지묘에서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돌아가면 약100m 지점 야산 동록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갈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前面(東)

淳昌趙公承烈

之墓

配全州李氏

側面(南)

己未 一九一九年 二月十一日 生
一九九一年二月十四日 卒



순창조공승열지묘

後面(西)

二十四世

子	元奎	孫	啓皓
	成奎		啓源
	祥奎		啓成
	尹奎		啓峰
	興奎		
	文奎		啓弘

婿 全州李海晷

側面(北)

丁巳西紀陰一九一七年一月二十五日 生
一九九五年二月 一日 卒

묘역40 순흥안공순옥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2.26"N, 경도 126°44'56.8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순옥지묘 전경

순흥안공순옥지묘는 순창조공승열지묘에서 월곶역 방향으로 나와서 북쪽으로 약 2km정도 돌아가면 월곶고잔 1길 125에 월곶 공소인 천주교 수원교구 시화 성바오로 성당과 이호정 음식점이 나온다. 이 성당과 이호정에서 북쪽 야산 능선 동쪽에 순흥안씨 묘역이 위치해 있고 서쪽에는 안동김씨 묘역이 분포되어 있다. 순흥안공순옥지묘는 정면에 묘갈이 있고 봉분에는 사각형으로 화강암을 깎아 설치해 놓았다.

前面(南)

順興安公舜玉之墓

孺人全州李氏之墓

1919음10.15~1950 음 01.15

1917음 8.25~1983 음 12.17

後面(北)

자 종성 여 정자 손 진호

자부 김정희 순자 정호

서 권오현 손녀 선영

황수찬

묘역41 순흥안공휘영창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2.72"N, 경도 126°44'56.96"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영창지묘는 순흥안공순옥지묘에서 서북쪽에 인접해 있다. 묘역에는 봉분에 화강암 호석을 둘러놓았고 석물은 상석, 고석, 계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석의 앞면에 “順興安公諱穎暢 配高靈金氏之墓” 글씨가 있다.

묘역42 병절교위안공휘첩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3.15"N, 경도 126°44'56.9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병절교위안공휘첩지묘는 순흥안공휘영창지묘의 북쪽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에는 봉분에 화강암 호석을 둘러놓았고 석물은 상석, 고석, 계체석, 문인석, 망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서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동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상석의 앞면에 “秉節校尉安公諱捷之墓 宜人青松沈氏祔左 崇禎再辛亥八月日 子都護府使世泰立”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순흥안공휘영창지묘



병절교위안공휘첩지묘 전경

묘역43 순흥안공휘선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3.25"N, 경도 126°44'56.56"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선지묘는 병절교위안공휘첩지묘 북쪽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에는 봉분에 화강암 호석을 둘러놓았고 석물은 상석, 고석, 계체석, 망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이 묘역의 동남쪽에는 권사 경주김씨 정옥, 성도 평산신공현만지묘가 위치해 있다.

前面(東)

贈掌樂院正

之墓

順興安公諱睿

後面(西)

子 穎達 孫 根

植

楫

楫



순흥안공휘선지묘 전경

桓
穎暢
穎耆

묘역44 순흥안공휘영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3.39"N, 경도 126°44'57.2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영지묘는 순흥안공휘선지묘 북쪽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에 화강암 호석을 둘러놓았고 석물은 상석, 고석, 계제석, 망주석, 문인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순흥안공휘영지묘 전경

前面(南)

配宜人固城朴氏

之墓

陰城縣監順興安公諱永

後面(西)

子 堯卿 孫 璠

球

珣

雲卿

側面(東)

一九九八年 三月 日建立

세사단

□ 소재지 : 위도 37°23'4.19"N, 경도 126°44'58.39"E

□ 시 대 : 조선~근대

□ 현 황 :

세사단은 순흥안공휘영지묘 북쪽에 인접하여 있다. 비석의 이수부분은 쌍용이 조각되어 있고 기대에는 歲祀壇라는 글씨가 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南)

僉知中樞府事公

配夫人義城金氏

配夫人康津康氏

後面(北)



세사단 비문 전경

順興安氏始祖 安子美高麗國興威保
勝別將追封神虎衛上護軍 子永儒密直
院副使上護軍 子孚正議大夫密直副使
版圖判書追封守太師門下侍中 子珣壁
上三韓三重大匡都僉議中贊修文殿太
學士文成公 子于器匡靖大夫檢校僉議
贊成事文順公 子牧通憲大夫政堂文學
進賢館大提學順興君 子元崇匡靖大夫
政堂文學藝文館大提學順城君 子瑗奉
翊大夫刑曹書判順興君 子從約判書公
從禮監察公 從義僉樞公 從廉都正公
從信參判公 從儉參議公

九代孫 從義朝鮮國太宗朝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僉樞公 配淑夫人義城金氏父司正金漢遇
后配淑夫人康津康氏墓京畿道長端郡津西面訥木里口井洞文成公兆下左東中麓亥坐 子永陰
城縣監 以下子孫墓月申三里瑩域奉歲祀也我肇國南北兩斷而僉樞公先祖墓所參拜不能闕祀
三十有餘年子孫道理無限痛嘆哀慕不已始興郡君子面月申里後孫全員誠心一體歲祀壇豎立奉
安 檀紀四千三百十六年癸亥二月 日



순흥안공순옥지묘 전경



순흥안공준목지묘 전경

묘역45 순흥안공순옥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1.93"N, 경도 126°44'58.44"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순옥지묘는 세사단에서 동북쪽으로 약100m 지점에 있다. 봉분에는 2단의 방형으로 호석을 둘렀고 정면에 장방형의 비문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南)

卍

聖徒順興安公舜玉

之墓

勸士安東權氏酉植

公 : 1919.10.15 ~ 1971.05.12

配 : 1921.04.20 ~ 2000.10.12

後面(北)

子 鍾烈 子婦 金玉蓮 孫世護

鍾燮

許順玉

種律	李成子	燦護
鍾善	李昇信	仁護
女 鍾海	婿 崔元植	
明海	劉寬植	

묘역46 순흥안공준목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2.29"N, 경도 126°44'58.2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준목지묘는 순흥안공순옥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봉분에는 2단의 방형으로 호석을 둘렀고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이 있다. 동쪽에 장방형의 비문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南)

順興安公俊默

之墓

孺人全州李氏

公 : 1910.陰4.11~1966.陰 4.28

配 : 1913.陰4.14~1995.陰 1.22

後面(北)

嗣子 二 玉 孫 鍾浩

子婦 朴福任 鍾根

鍾元

孫女 仁淑

婿 金錫培

金明燮

李仁烈

金尹洙

묘역47 순흥안공휘형진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2.39"N, 경도 126°44'58.6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형진지묘는 순흥안공준묵지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m 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순흥안공형진지묘의 동쪽에는 성도순흥안공의묵묘가 인접하여 있다. 봉분에는 2단의 방형으로 호석을 돌렸고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이 있다. 동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前面(南)

配 孺人隨城崔氏

之墓

學生府君順興安公諱亨鎮

側面(西)

西紀一七六八年 英祖朝四十四年 戊子生

公

西紀一八一五年 純祖朝十五年 乙亥卒

配 孺人隨城崔氏 出生·死亡年度 未詳

後面(北)

子 孫 曾孫 玄孫 六世孫 七世孫 八世孫

淮 柱參 哲熙 湘默 秉玉 鍾奭 壯漢

株八 燦熙 兢默 禎玉(系子) 鍾壽

柱降 應熙 斗默 茂玉 鍾萬(錫滿)

淞 柱七 冕熙(系子)

側面(西)

西紀一九九九年陰三月五日 建立



순흥안공휘형진지묘 전경



순흥안공휘효진지묘 전경

묘역48 순흥안공휘효진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2.86"N, 경도 126°44'57.88"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효진지묘는 순흥안공형진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봉분에는 2단의 방형으로 호석을 돌렸고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이 있다. 동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前面(南)

配 孺人 晉州 姜氏

之墓

學生府君順興安公諱孝鎮

側面(西)

西紀一七六七年 英祖朝四十三年 丁亥生

公

西紀一八二〇年 純祖朝二十年 庚辰卒

配 孺人晉州姜氏 出生·死亡年度 未詳

後面(北)

子 孫 曾孫 玄孫 六世孫 七世孫

沘 柱德(系子) 日熙 元默 思玉(出系) 鍾憲

禮 柱德(出系)

柱寬 敏熙 禹默 天玉 鍾弼

柱善

側面(西)

西紀一九九九年陰三月五日 建立

묘역49 순흥안공휘정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2.90"N, 경도 126°44'58.31"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정지묘는 순흥안공효진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봉분에는 2단의 방형으로 호석을 둘렀고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이 있다. 동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前面(南)

配 恭人 安東金氏

配 恭人 潘南朴氏 之墓

通德郎府君順興安公諱珽

側面(西)

西紀一七三四年 英祖朝十年 甲寅生

公

西紀一七八一年 正祖朝五年 辛丑卒

配 恭人潘南朴氏 出生·死亡年度 未詳

恭人安東金氏 出生·死亡年度 未詳

後面(北)

子 孫 曾孫 玄孫 六世孫 七世孫 八世孫

成鎮 洫 柱契 亨熙 宗默 秀玉 鍾赫
 (孫子:生父瓚) 柱益(出系)
 株夷 敬熙 惠默 光玉 鍾旭
 水桐 泰熙 株益(系子)
 孝鎮 宏 株德(系子) 日照 元默 思玉(系子) 鍾惠
 澧 株德(系子)
 株寬 敏熙 禹默 天玉 鍾弼
 株善

悌鎮

側面(北)

西紀一九九九年陰三月五日 建立

묘역50 순흥안공휘식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2.77"N, 경도 126°44'58.61"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식지묘는 순흥안공휘정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봉분에는 2단의 방형으로 호석을 둘렀고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이 있다. 상석의 서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순흥안공휘정지묘 전경



순흥안공휘식지묘 전경

前面(南)

配 恭人全州李氏

之墓

通德郎府君順興安公諱植

側面(西)

西紀一六三二年 仁祖朝 十 年 壬申生

公

西紀一六九八年 肅宗朝二十四年 戊寅卒

配 恭人全州李氏 出生·死亡年度 未詳

後面(北)

子 孫 曾孫 玄孫 六世孫 七世孫 九世孫 十世孫

世鼎 珩 載鎮 洽 柱起 桂熙 昌默 運玉 鍾建

(糸子: 生父憶) 濮 柱鶴 光熙 贊默 壽玉 鍾成

永浩 相佑

瑛(出系)

珖 道鎮 灌 柱文(糸子)

涵

維鎮 淡 柱文(出系)

柱玄 完熙 洪默 珍玉 鍾倫一人

側面(北)

西紀一九九九年陰三月五日 建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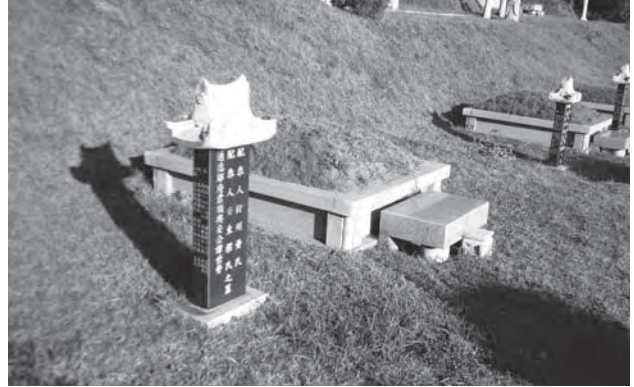
묘역51 순흥안공휘세진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2.58"N, 경도 126°44'58.75"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세진지묘는 순흥안공휘
식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봉분에는 2단의 방형으로 호석을 둘
렸고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이
있다. 상석의 서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순흥안공휘세진지묘 전경

前面(南)

配 恭人紆州黃氏

配 恭人安東權氏 之墓

通德郎府君順興安公諱世晉

側面(西)

西紀一六八九年 肅宗朝十五年己巳生
公

西紀一七四二年 英祖朝十八年壬戌卒
配 恭人安東權氏 出生·死亡年度 未詳
后配 恭人紆州黃氏 出生·死亡年度 未詳

後面(北)

子	孫	曾孫	玄孫	六世孫	七世孫	八世孫	九世孫
珽	成鎮	洎	柱契	亨熙	宗默	秀玉	鍾赫
	孝鎮	泓	柱德(出系)	日熙	元默	思玉(出系)	鍾憲
		柱寬	敏熙	禹默	天玉	鍾弼	

澧

悌鎮

瓚 亨鎮

成鎮(出係)

琬 敬鎮

側面(東)

西紀一九九九年陰三月五日 建立

묘역52 순흥안공휘찬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2.58"N, 경도 126°44'58.75"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찬지묘는 순흥안공휘세진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봉분에는 2단의 방형으로 호석을 둘렀고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이 있다. 상석의 서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前面(南)

配贈令人全州李氏

順興安公諱瓚之墓

贈司憲府掌令府君

側面(西)

西紀一七三七年 英祖朝十三年 丁巳生

公

西紀一八〇六年 純祖朝 六年 丙寅卒

配 贈令人全州李氏 出生·死亡年度 未詳

後面(北)

子 孫 曾孫 玄孫 六世孫 七世孫 八世孫

亨鎭 滌 柱參 哲熙 湘默 秉玉 鍾奭

柱八 競默 禎玉(系子) 鍾壽

柱隆 慶喜 斗默 茂玉 鍾萬(錫滿)

淞 柱七 冕熙(系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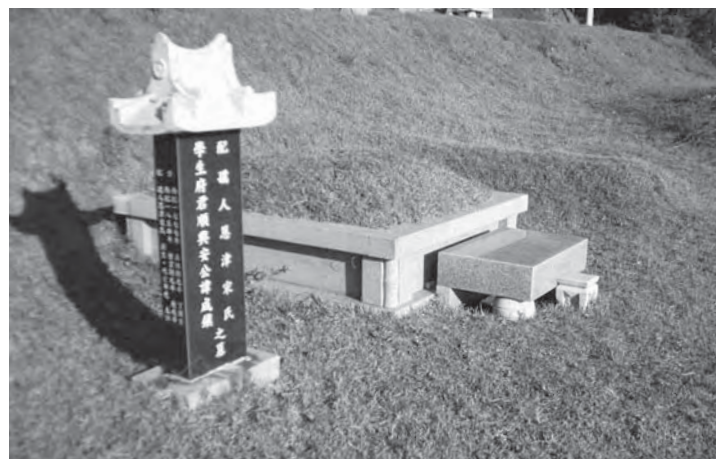
成鎭(出系)

側面(東)

西紀一九九九年陰三月五日 建立



순흥안공휘찬지묘 전경



순흥안공휘성진지묘 전경

묘역53 순흥안공휘성진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2.53"N, 경도 126°44'58.99"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성진지묘는 순흥안공휘찬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봉분에는 방형으로 호석을 돌렸고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이 있다. 상석의 서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前面(南)

配 孺人恩津宋氏

之墓

學生府君順興安公諱成鎮

側面(西)

西紀一七七七年 正祖朝元年 丁酉生

公

西紀一八五〇年 哲宗朝元年 庚戌卒

配 孺人恩津宋氏 出生·死亡年度 未詳

後面(北)

子 孫 曾孫 玄孫 六世孫 七世孫 八世孫

洧 柱契 亨熙 宗默 秀玉 鍾赫 柳護

柱益(系子)

柱奭 敬熙 惠默 光玉 鍾旭 盛喆

洧 柱益(系子) 泰熙

側面(東)

西紀一九九九年陰三月五日 建立

묘역54 순흥안공휘순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3.14"N, 경도 126°44'58.53"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순지묘는 순흥안공휘성진지묘에서 서북쪽에 인접하여 있다. 봉분에는 원형으로 호석을 둘렀고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 망주석이 있다. 상석의 서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前面(南)

配贈貞夫人慶州李氏

順興安公諱珣之墓

贈嘉善大夫工曹參判

側面(西)

西紀一四七九年 成宗朝 十年 己亥生

公

西紀一五六一年 明宗朝十六年 辛酉卒

配 贈貞夫人慶州李氏 出生·死亡年度 未詳

後面(北)

子 仁孫 孫 璫 曾孫 玄孫

璞

璉 哲男
 穎男 根(系子)
 璿 穎達 根(出系)
 植
 楫
 楫
 楫
 穎暢 楫
 楫
 穎耆 格
 義孫 楫

側面(東)

西紀一九九九年陰三月五日 建立

묘역55 순흥안공휘영남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2.99"N, 경도 126°44'58.9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휘영남지묘는 순흥안공휘순지묘에서 서북쪽에 인접하여 있다. 봉분에는 원형으로 호석을 둘렀고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이 있다. 상석의 서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前面(南)

配贈貞夫人南陽洪氏

順興安公諱穎男

之墓



순흥안공휘순지묘 전경



순흥안공휘영남지묘 전경

贈資憲大夫兵曹判書

京畿水軍節度使定州牧使

側面(西)

西紀一五七八年 宣祖朝十一年 戊寅生

公

西紀一六三六年 仁祖朝十四年 丙子定州殉節

配 贈貞夫人南陽洪氏 出生·死亡年度未詳

後面(北)

子 根(系子) 孫 世赫

世煜

世煥

世炯

側面(東)

西紀一九九九年陰三月五日 建立

묘역56 방어사안공근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2.73"N, 경도 126°44'59.35"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방어사안공근지묘는 순흥안공휘영남지묘에서 서북쪽에 인접하여 있다. 봉분에는 원형으로 호석을 둘렀고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 망주석이 있다. 망주석 동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서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상석의 서쪽에는 1736년에 세워진 묘표가 서 있다.

前面(南)

贈嘉善大夫兵曹叅判兼同知義禁

府事行通政大未昌城都護府使

兼請址左防禦使安公根之墓

贈貞夫人密陽朴氏附左



방어사안공근지묘 전경



안공휘요경지묘 전경

側面(西)

崇禎紀元後再丙辰十月 日立

묘역57 안공휘요경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3.77"N, 경도 126°45'0.84"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안공휘요경지묘는 방어사안공근지묘에서 서북쪽에 인접하여 있다. 봉분에는 원형으로 호석을 둘렀고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이 있다. 상석의 서쪽에는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동쪽에는 윗부분이 둥근모양의 묘표가 서 있다.

墓表(西)

前面(北)

配淑夫人長水黃氏

安公諱堯卿 之墓

通政大夫工曹參義

後面(南)

有明朝鮮國通政大夫工曹參議安公堯卿 銘

弘文館資憲大夫義政府左參贊兼知義禁府事同知成均館事李思鈞 撰 公堯卿工曹參義順
與人文成公裕七代孫考曰陰城縣監永王父曰成均生僉樞公從義父曰正憲大夫開城府留 後景
質公瑗外 王父曰同憲府監察朴榆公理部總領長能劉浹天順七年冬用蔭才始授兼宣傳官 頗
稱 旨八年夏 傳曰悉力盡忠可比舜之事堯 特改舜卿爲堯卿成化元年春遷通掖門通贊經歷監
察 濟用判官通津 縣監龍仁縣令懷德漣川縣監司僕判官僉正司憲府掌令摠槐山郡守秩滿課最
轉洪城庶尹尋陞軍資創正內瞻正出宰驪州牧使入爲司僕正禮賓正右通禮弘治十八年春陞堂
上旋授工曹參議忤一權臣論 以年老逆降護軍纔閱歲陞僉知中樞府事兼五衛特此浸皆食劉護
軍錄成寅五月十六日病化于第年 七十九聚判中樞府事黃致身之女生三男二女男長璠次球三
珣璠娶司評閔信達之女生一女球娶晉 州牧師李德根之女生二女珣聚祭訪李光曾之女生男女
皆二長女適宗簿寺正李宰善生三男二女次 女適忠義衛南舜彥生三男孫長曰仁孫早登武科令
爲遂安郡守次曰義孫亦捷武科爲司僕禮官將大 其家者宜於是乎在銘曰宣武原從功臣得 死又
吉 于而孫

皇明嘉靖三十九年仲秋 吉日 立

側面(西)

追記 墓京畿道高陽郡神道面梧琴里篤亭陰城公墓北下峯壬坐雙墳有碑石床石及望柱石光
明燈 石光明燈紛失西紀一九六八年八月陰城公墓遷墓同時現始興市月串洞古棧安陵山西坐
遷墓碑石 數百年間風磨洗雨彫刻字體不透明然故再彫刻西紀一九九五年十月建立 十三代孫
肯玉 謹書

墓表(東)

前面(北)

淑夫人黃氏之墓

通政大夫工曹叅議安公之墓

後面(南)

○○○○○○○○不○○○○○公墓○○○○○○○

○○○○○○○○大夫○○○○參○兼知○○○府○司○成均館事李思均 攢○○○○○
○兼○○○人文○○公裕七代孫考曰陰城縣監永王父曰成均士○○○○○○○○○憲奴契
○○○○曾徐景質公瑗外王父曰司憲府監察朴○○○○○○○○○○○決天順七年冬○次不
才始授兼 宣傳官頗稱 旨八○夏○○○○○○○○○○○比舜之富堯○特改舜卿爲堯卿成
化元年春遷通○門通○○○○歷監察濟月判官通津縣監龍仁縣令○德○○縣監司僕判官○
正司憲府密令槐山郡守○滿課長○○○○○藏庶尹○○置資○正內瞻正出○○州牧使入爲

司僕正禮賓正右通禮弘治十八年春○堂上旋授工曹參○忤一權臣論以年○適降○軍總○
 陞僉知中樞○兼五衛將與浚皆个○護置○戊寅五月十六日病化于第年七十九聚○中樞府
 事黃致身之女生三男三女男長孫次球三珣璠○司評閔信達之女生一女球娶晉州牧使公德○
 之女生二女珣娶容訪李光曾之女生男女皆工長女適宗簿寺正○○○生三男二女次女道憲○衛
 商舜彦生三男孫長日仁孫早登武科令○○長郡守○日○○○○武科爲司僕○○官將大長家
 者宜於是乎在銘日○○○○公○○○兔又○○于而前○○○○○○○○爲卜○○○○○○
 ○○○嘉○三十九二仲秋吉日立

묘역58 순흥안공영달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5.01"N, 경도 126°44'59.64"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영달지묘
 는 안공휘요경지묘에
 서 서쪽에 인접하여
 있다. 두 기의 봉분에는
 원형으로 호석을
 돌렸고 두 봉분 사이
 정면에 상석과 고석,
 향로석, 망주석이 있
 다. 망주석 동쪽의 세
 호는 올라가고 서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



순흥안공영달지묘 전경

으로 조각하였다. 상석의 서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이 묘역의 서북쪽 방향에는 순흥안씨 후손들의 묘역이 분포되어 있다.

前面(北)

配贈淑夫人昆陽裴氏

之墓

贈通政左承旨順興安公穎達

側面(東)

公 一五九九年 七月 二十五日 生

一六五〇年 七月 二日 卒

後面(南)

子根 出系 孫 世鼎

植 世輔

楨 世福

攄

桓

側面(西)

淑夫人 一六〇三年 九月 二十五日 生

一六六七年 九月 二十五日 卒

묘역59 안동김공휘병직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3.48"N, 경도 126°44'52.48"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안동김공휘병직지묘는 순흥안공영달지묘에서 남서쪽으로 산 능선을 따라 100m정도 가면 공기충 사격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100m정도 거리의 산동사면에 위치하여 있다. 묘역은 두 기의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상석의 서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前面(東)

安東金公諱丙植

之墓

孺人曹壤趙氏

側面(南)

戊戌年 三月 四日生



안동김공휘병직지묘 전경



안동김공휘우직지묘 전경

配

一九八五年 五月 二十日卒

後面(西)

손 상교 증손 종현

운교 종혁

종훈

二〇〇九年 六月 二十九日 建立

側面(北)

辛卯年 十月 十九日 生

公

辛卯年 八月 三日 卒

묘역60 안동김공휘우직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3.42"N, 경도 126°44'52.21"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안동김공휘우직지묘는 안동김공휘병직지묘에서 남서쪽으로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묘역은 한 기의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상석의 서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前面(東)

安東金公諱雨植
之墓

孺人杞溪俞氏

側面(南)

戊寅年 十月 二十二日生

配

丙寅年 十月 四日 卒

後面(西)

손 윤교 증손 종민 고손 정우

용교 종선 태우

동교 종석 찬우

영교 종훈

二〇〇九年 六月 二十九日 建立

側面(北)

公 戊寅年 十一月 二十三日 生

묘역61 안동김공휘헌심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3.55"N, 경도 126°44'51.96"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안동김공휘헌심지묘는 안동김공휘우직지묘에서 서북쪽으로 10m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1기의 봉분과 곽장, 상석, 고석, 향로석, 상석의 남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이 묘역의 서북쪽 지점에 인접하여 산신제단이 있는데 “土地之



안동김공휘현심지묘 전경

神神位”라고 쓴 비석과 상석, 향로석이 놓여 있다. 그 우측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납골당이 만들어져 있는데 문, 원형의 문고리장식, 무궁화가 새겨진 처마, 방형기둥과 상석, 향로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前面(東)

安東金公憲深

之墓

驪興閔氏文學

側面(南)

一八九〇年 生

配

一九八一年 二月 十日 卒

後面(西)

孫 鍾浩 孫婦 崔憲順 曾孫 度延

種秀

鄭順善

嫺辰

鮮榮

二〇〇九年 六月 二十九日 建立

側面(北)

一八八八年 生

公

一九八〇年 六月 十日 卒

묘역62 안동김공진석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3.92"N, 경도 126°44'52.29"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안동김공진석지묘는 안동김공휘헌심지묘에서 북쪽으로 난 도로를 타고 순흥안씨묘역을 지나 약 1km정도 가면 마을의 서쪽 산록에 위치하여 있다. 묘역은 1기의 봉분과 곡장, 상석, 고석, 향로석, 상석의 남쪽에는 다음과 같은 옥개석이 있는 묘표가 서 있다.



안동김공진석지묘와 안동김씨 묘역 전경

前面(東)

안동김공진석

지묘

성주이씨성예 (당 테레사)

側面(南)

配 一九九九年 十月 二日 卒

後面(西)

자 병수 자부 박기봉 손 순성 증손 건희

성수 이정열 순오 민

창수 이분기 순화

명수 안미옥 태은 태옥

영수 유선희 태남

정수 한은미 대현

태선

태철

二〇〇九年 六月 二十九日 建立

側面(北)

公 二〇〇〇年 五月 二十九日 卒

묘역63 봉강안동김공헌주공적비

□ 소재지 : 위도 37°23'1.00"N, 경도126°45'11.49"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봉강안동김공헌주공적비는 안동김공진석지묘에서 서쪽으로 10m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이수는 쌍용이 그려져 있고 비대는 복련이 있으며 비석의 주변에는 화강암으로 연주 모양의 난간석이 방형으로 둘러져 있고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東)

鳳岡安東金公憲周功績碑

側面(南)

功績紀念碑建立委員會

僉樞公宗孫 憲澈 委員 明植 民教 鍾浩

委員 長 晉教 憲吉 旭教 秉雨

副委員長 龍教 泳教 斗教

成教 鍾文

後面(西)

鳳岡安東金公憲周功績碑銘並書

아~德望 높으신 공이시여 純厚한 心情으로 崇高尙門을 지켜오신 想念은 門中の 胸襟을 올렸도다 公의 姓은 金이요 諱는 憲周이시고 字는 士顯이시며 鳳岡은 雅號이니 安東人 이시다 公은 新羅敬順王의 後裔로 高麗中策에 出將人相하신 諡忠烈公諱方慶이 中始祖요 忠烈公의 玄孫인 諱成牧은 派祖이시며 官至高麗朝工曹典書요 公의 二十三代祖이시다 이후 後孫들이 連綿히 벼슬에 오르신 赫赫한 家門이다 公은 아버지 諱允植氏와 어머니 茂松尹氏사이에 有二男三女中長男으로 西紀一八七九年己卯正月二十九日에 出生하시니 贈吏曹參判諱千鎰할아버지의 八代宗孫으로 天性이 仁厚하시고 學識과 德望을 兼備하사 隣近

에서 尊敬을 받으신 선비이셨다 또한 공께서는 崇祖精神이 남달리 透徹하시어 爲先事에는 한지도 소홀함이 없이 實踐하였으므로 公의 八代祖 以下先祖諸位의 墓所管理守護를 훌륭히 하시었다 그러나 公의 大宗家에는 後嗣가 없어 入養으로 承繼하여 왔으나 끝내는 後嗣가 끊겼고 支孫들은 貧困을免치 못하여 각지로 出郷하니 宗財를 지탱치 못하였다 故로 公의 十五代祖에서부터 九代祖까지 모셔있는 幽宅地가 他人의 所有가 되었으며 歲一祀도 奉祀치 못할 형편에 이르르니 공께서는 늘 이를 안타까히 여기시고 每年自家에서 祭需를 마련하여 交通이 不便하던 該時節에 步行으로 百餘里길을 멀다아니하시고 歲一祀를 하여 한번도 꺾사함이 없었다 또한 남의 所有가 된 烈先祖의 幽宅地



봉강안동김공현주공적비 전경

林野도 自己小宗財를 들여 買入하여 先祖英靈께서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하였으니 그 林野가 지금의 宗山이 되었으며 大宗宅에는 現宗孫의 父親諱丙植氏를 入后하여 承嗣케 하시고 마침내는 宗孫에게 木財를 제공하여 宗宅까지 新築케하여 宗孫이 마음히 祖上을 받들 수 있도록 주선함과 現在의 宗畝와 宗財도 保有케 하시었다 然而나 嗚呼痛哉라 공께서는 西紀 一九四九年(己丑)十月二十一日 享年 七十一歲를 一齒로 逝하시니 哀悼의

側面(北)

마음을 禁할수없도다 그러나 公은 가셨어도 공께서 이루어놓으신 赫赫한 功勳은 後孫들의 永遠한 龜鑑이 될 것이요 쌓아 놓으신 至極하신 功績은 어느 金字塔에 比하리요 우리 後孫들은 모두가 千秋萬代 公의 뜻을 지켜 앞으로 崇祖睦族의 精神을 涵養하여 後孫들에게 傳承할 것이며 우리 宗人들은 公의 높으신 뜻을 기리기 위하여 조그만한 誠으로 金石에 贊辭를 새겨 勳功을 謹告하나이다 銘曰 뜻이 尊嚴하고 高尚한 사람은 泰山과 같고 마음이 활짝핀 사람은 滄海와 같으니 오직 공께서 쌓아놓으신 功은 泰山과도 같고 大海와도 같도다

西紀 一九九七年(丁丑)十月 日 白承煥 謹書

典書公二十四代孫 晉教謹識 兪樞公派宗中 謹豎



안동김공영지묘 전경



안동김공종혁지묘 전경

묘역64 안동김공영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0.95"N, 경도 126°45'11.86"E

□ 시 대 : 조선

□ 현 황 :

안동김공영지묘는 봉강안동김공헌주공적비에서 서쪽으로 10m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계체석, 망주석, 곡장,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通政大夫行端川府使

安東金公泳之墓

淑夫人全州李氏祔左

後面(南)

崇禎紀元後三丁亥三月立

묘역65 안동김공종혁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0.69"N, 경도 126°45'11.74"E

□ 시 대 : 조선

□ 현 황:

안동김공중혁지묘는 안동김공영지묘에서 서쪽으로 5m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配淑夫人廣州李氏

通訓大夫海美營將

之墓

安東金公從革墓

後面(南)

宗 孫 憲澈

十三代孫 明植

十五代孫 晉教

龍教

西紀一九九七年 十月 日 立

묘역66 안동김공계복지묘

□ 소재지: 위도 37°23'0.62"N, 경도 126°45'11.50"E

□ 시 대: 조선

□ 현 황:

안동김공계복지묘는 안동김공중혁지묘에서 북쪽으로 5m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配 今 人 漢 陽 趙 氏

之墓

彦陽郡守安東金公繼福

後面(南)

宗 孫 憲澈



안동김공계복지묘 전경



안동김공상원지묘 전경

十二代孫 晋教

十四代孫 龍教

西紀一九九七年 十月 日 立

묘역67 안동김공상원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0.62"N, 경도126°45'11.26"E

□ 시 대 : 조선

□ 현 황 :

안동김공상원지묘는 안동김공계복지묘에서 북쪽으로 5m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配宜人驪興閔氏

之墓

生員進士安東金公尙元

後面(南)

宗 孫 憲澈

十代 孫 明植

十二代孫 晋教

龍教

西紀一九九七年 十月 日 立

묘역68 안동김공영정지묘

□ 소재지 : 위도 37°23'0.63"N, 경도 126°45'11.09"E

□ 시 대 : 조선

□ 현 황 :

안동김공영정지묘는 안동김공상원지묘에서 서남쪽으로 5m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 문인석, 망주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는 구 묘표와 상석이 두 봉분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망주석 북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남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配 淑 夫 人

安東金公永鼎之墓

通訓大夫甲山府使

後面(南)

宗 孫 憲澈

十四代孫 明植

十六代孫 晉教

龍教

西紀一九九七年 十月

묘역69 안동김공도영위

□ 소재지 : 위도 37°22'57.77"N, 경도 126°45'12.43"E

□ 시 대 : 조선

□ 현 황 :

안동김공도영위는 안동김공영정지묘에서 서남쪽으로 난 도로를 타고 약 500m정도 가



안동김공영정지묘 전경



안동김공도영위 전경

면 산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 망주석, 곡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북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남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2기의 묘표 중에 1978년에 건립된 묘표는 상단이 옥개석이 없고 반원형이며 1997년에 세워진 묘표는 옥개석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半圓形 墓表

前面(東)

貞 夫人 順興 安氏

靈位

嘉善大夫吏曹參判安東金公鍍

後面(南)

宗 孫 憲 澈

十八代孫 鍾 祿 十七代孫 滿教 成教

一九七九年己未二月 日立

屋蓋石 墓表

前面(東)

配貞夫人順興安氏

安東金公鍍之壇

喜善大夫吏曹參判

後面(西)

宗 孫 濂澈

十五代孫 明植

十七代孫 晋教

教龍

西紀一九九七年 十月 日 立

묘역70 안동김공사민영위

□ 소재지 : 위도 37°22'57.41"N, 경도 126°45'12.42"E

□ 시 대 : 조선

□ 현 황 :

안동김공사민영위는 안동김공도영위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 망주석, 곡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북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남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2기의 묘표 중에 1978년에 건립된 묘표는 상단이 옥개석이 없고 반원형이며 1997년에 세워진 묘표는 옥개석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半圓形 墓表

前面(東)

淑夫人巡安李氏

靈位



안동김공사민영위



경주이씨연순지묘 전경

文科注書安東金公師敏

後面(南)

宗 孫 憲 澈

十九代孫 鍾 祿

十八代孫 滿 教

成 教

一 九七九年己未二月 日 立

屋蓋石 墓表

前面(東)

配淑夫人延安李氏

之壇

文科注書安東金公師敏

後面(西)

宗 孫 憲澈

十六代孫 明植

十八代孫 晉教

龍教

西紀一九九七年 十月 日 立

묘역기 경주이씨연순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23.86"N, 경도 126°44'51.89"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안동김공사민영위에서 남서쪽으로 난 도로를 타고 뒷방울저수지를 향해 약 5km정도 가면 저수지 뚝 부분의 북쪽으로 난 길 남쪽에 낚시터가 나온다. 이 낚시터에서 북송아 과 수원으로 약 200m정도 들어가면 경주이씨연순지묘가 있다. 봉분 앞에 묘표가 있고 그 남쪽에 상석이 놓여 있다.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南)

경주이씨연순지묘

後面(北)

자 정영호

녀 은지

側面(北)

一九五四年陰一月十五日生

二〇〇四年陽九月十八日卒

묘역72 수원백공창기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28.62"N, 경도 126°44'39.5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수원백공창기지묘는 경주이씨연순지묘에서 동북쪽으로 오솔길로 난 도로를 타고 약 100m 정도 가면 있다. 묘역은 화강암으로 만든 방형 호석과 봉분, 곡장,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南)

水原白公昌基之墓

側面(北)

一九三二年 음二月二十二日生



수원백공창기지묘 전경



청주한공의웅지묘 전경

二〇〇四年 음七月十三日卒

後面(北)

자	길현	자부	곽성자	손	승주
	호현		김경자		진희
녀	미숙	사위	전배수		윤진
	송숙		심상국		지혜
	미옥		김영암		

묘역73 청주한공의옹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29.09"N, 경도 126°44'40.13"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청주한공의옹지묘는 수원백공창기지묘에서 동쪽으로 오솔길로 난 도로를 타고 약 50m 정도 가면 있다. 묘역은 2기의 화강암으로 만든 방형 호석과 봉분, 곡장, 상석, 고석, 향로석, 계체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南)

清州韓公義翁之墓

側面(北)

一九二八年陰六月八日生

一九八七年陰十二月十三日卒

後面(北)

妻	尹基順	婿	金錫英
子	榮瀚		李鍾燦
子婦	李庚子	外孫	金善美
女	英姬		善英
	明姬		善花
	英美		李恩珍
孫	齊岷		恩英

묘역74 광주이공용식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26.15"N, 경도 126°44'40.83"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광주이공용식지묘는 청주한공의용지묘에서 북쪽으로 산 능선을 따라 약50m 정도 가면 있다. 묘역은 봉분, 곡장,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옥개석이 있는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面(南)

化戒廣州李公容植之墓

後面(北)

子 斗載 婿 尹亨默 子孫 彦載 外孫 尹槿竣

仁載 朴淳弼 貞培 朴成澤

升載 金英圭 喜載 朴貞澤

孫 鍾榮 孫婿 金昌基 道載 金泰浩

鍾奭 春載 金泰允

鍾浣

鍾和

鍾源

城旭

曾孫 和洙

側面(東)

一九八四年 六月 十七日 卒

一九〇七年(陰) 九月二十一日 生

黃海道碧城郡來城面錦城里上章洞配漢陽趙氏

묘역75 집사이동모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5.50"N, 경도 126°45'48.32"E



광주이공용식지묘 전경



집사이동모지묘 전경

□ 시 대 : 근대

□ 현 황 :

광주이공용식지묘에서 동쪽으로 난 뒷방울 저수지를 따라 약 3km 정도 올라가면 요섭 베리팜 농장이 있다. 이 농장과 인접하여 동쪽능선에 집사이동모지묘이 조성되어 있다. 묘역은 봉분, 곡장,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南)

卍 執事李動模之墓

側面(西)

二千三年一月二十日陰十二,十八卒

後面(北)

자	형선	재욱
	형우	재곤
	형출	재승
	형옥	손녀 은주
	경수	은경
녀	영덕	은영
사위	박세근	은임
손	재봉	은유
	재명	은지

묘역76 신경애의 묘

□ 소재지 : 위도 37°22'5.70"N, 경도 126°45'48.7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신경애의 묘는 집사이동모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묘역은 방형의 호석과 봉분, 곡장,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 전면에 “신경애의 묘”라 써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묘역77 밀양박공휘상희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5.12"N, 경도 126°45'50.09"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휘상희지묘는 신경애의 묘에서 동쪽으로 약50m 정도에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다. 묘역은 2기의 봉분, 옥개석이 있는 묘표와 화강암 화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南)

密陽朴公諱常熙

卍 之墓

配孺人金海金氏

側面(西)

一九二三年十二月十四日生

妣位

一九六四年五月十三日卒

後面(北)

子 光吉 孫 商鎭

元吉 商源

政圭 商赫



신경애의묘 전경



밀양박공휘상희지묘 전경

婿 安永淳 孫女 荷旆
 姜龍永 信愛
 張炳永 信元
 李承完
 宋寅穆

側面(西)

一九二〇年七月二十五日生

公位

一九九六年六月二十日卒

묘역78 밀양박공휘이룡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4.66"N, 경도 126°45'50.2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휘이룡지묘는 밀양박공휘상희지묘에서 동쪽으로 약50m 정도에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다. 묘역은 2기의 봉분, 옥개석이 있는 묘표와 화강암 화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南)

配孺人仁同張氏

之墓

密陽朴公諱二龍

側面(西)

一八九四年七月二十七日生

公位

一九二九年七月三十日卒

後面(北)

子 朴常熙

女 看蘭

婿 安鎮成

側面(西)

一八九三年十月二十五日生

妣位

一九四七年十月二十四日卒

묘역79 권사밀양박씨을분의묘

□ 소재지 : 위도 37°22'4.23"N, 경도 126°45'50.5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권사밀양박씨을분의묘는 밀양박공휘이릉지묘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다. 묘역은 방형의 호석과 봉분, 옥개석이 있는 묘표와 화강암 화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南)

卽 권사밀양박씨을분의묘

側面(西)

一九一五年 七月 九日生



밀양박공휘이릉지묘 전경



권사밀양박씨을분의묘 전경

二00七年 十一月 二十三日 召天

後面(北)

자 김경태 손 영구

녀 정분 영환

칠분 손녀 영춘

용분 증손 인우

정순

서 정연석

정기룡

박수웅

신동인

묘역80 백천조공부환가족묘

□ 소재지 : 위도 37°22'4.08"N, 경도 126°45'50.11"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백천조공부환가족묘는 권사밀양박씨을분의묘에서 남동쪽으로 약 10m지점에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다. 묘역은 지상에 화강암으로 석관묘를 조성하여 놓았고 그 주위에는 보호석

과 묘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南)

(富成)

白川趙公富煥家族墓

側面(西)

자 재경

손 진만

손녀 은숙

현숙

서 이민호

한상훈

後面(北)

諱富煥

乙未 8.20 ~ 1967. 11. 20

配定州崔氏

甲午年 12. ~ 丁亥 2. 13



백천조공부환가족묘 전경

묘역81 순흥안공익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4.45"N, 경도 126°45'50.39"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익지묘는 백천조공부환가족묘에서 북쪽으로 약 10m지점에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다. 묘역은 두 개의 봉분사이에 묘표를 세웠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흥안공익지묘 전경

前面(南)

順興安公楹之墓

配慶州崔氏附左

後面(北)

公 諱 楹 繕工監 庚辰生 庚辰卒 享年

七十一歲 配慶州崔氏父忠甯公 致雲 生四男

長子世望 世哲 世榮 世鳴 七大孫 夔

墓碑 十代孫 鐘星 建立

西紀一九八三年癸亥二月

묘역82 순흥안공봉옥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5.22"N, 경도 126°45'52.39"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순흥안공봉옥지묘는 순흥안공익지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m지점에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다. 묘역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3기의 묘표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세워져 있다.

墓表1

前面(南)

配全州李基舜

之墓

順興安公鳳玉

後面(北)

父親께서는 農村出生으로 組父任命令에 絶對服從하시어 幼年時節부터 全家族을 扶養하기에 專心全力 極甚한 苦楚中 따님만 五兄弟을 出産 三十七歲時得男하사 全情熱를 저에게 傾注하시어 子孫大學教育을 唯



순흥안봉옥지묘 묘표 전경

一의 樂으로 七十平生을 農事에 尽力하시다가 享年七十一歲를 一期로 잠드시다 母親께서는 軟弱한 女子의 몸으로 不撤晝夜 아버님을 誠心補佐하시는 한편 子息의 成功을 爲하여 嚴冬雪寒 추운밤도 하루같이 정한수로 祈禱하시기 三十餘年 六十六歲를 一期로 잠드시다 不肖鍾星은 母父任의 泰山같은 恩惠万分の 一도 報答치 못함 九曲肝腸 맺인 限을 이 碑文에 記錄하여 子孫万代기리 傳하겠나이다

嗣子 鍾星 女 鐘熹 鐘姬 福姬 鐘粉 二禮

子婦 吳敏在 孫子 樟浩 智浩 孫女 惠晟

墓表2

前面(南)

順興安公順默之墓

配青松沈氏附左

後面(北)

公 諱 順默 西紀一八七六年五月十日生

西紀一九四六年八月十日卒 享年七十一歲

配青松沈氏 生二男二女 長子鳳玉 次子

麟玉 墓碑 孫 鍾星 建立

西紀一九八三年癸亥二月

墓表3

前面(南)

配文化柳氏

順興安公夔 之墓

配安東權氏

後面(北)

公 諱 夔 憲宗辛丑九月十八日生 光武甲

辰八月九日卒 享年六十四歲 配文化柳氏

后配安東泐氏 生一男 順默 墓碑 曾孫

鍾星 建立

西紀一九八三年癸亥二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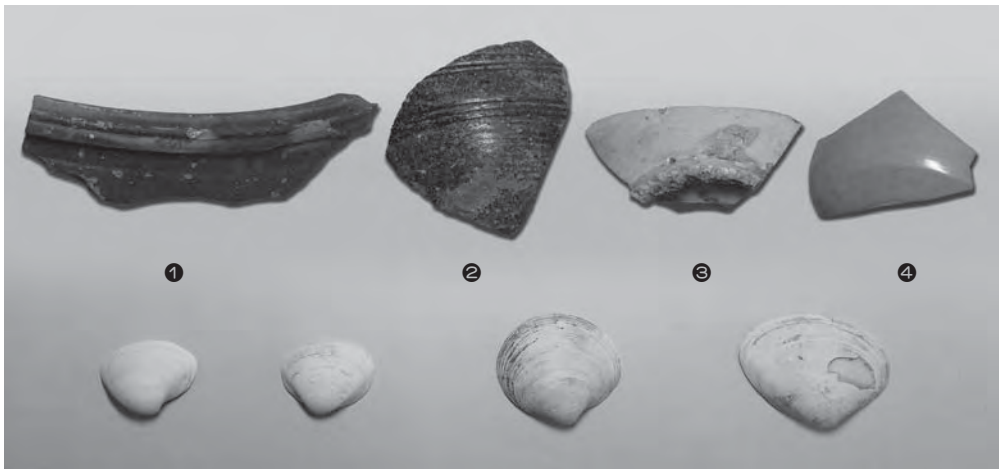
1) 거모동 뒷장울골 패총

□ 소재지 : 위도 37°22'3.61"N, 경도 126°45'48.40"E

□ 시 대 : 조선

□ 현 황 :

거모동 뒷장울골 패총은 백천조공부환가족묘에서 남쪽으로 10m정도 내려오면 비닐하우스와 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밭에 패각과 조선시대 토기와 도자기 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거모동 뒷장울 패총유적 출토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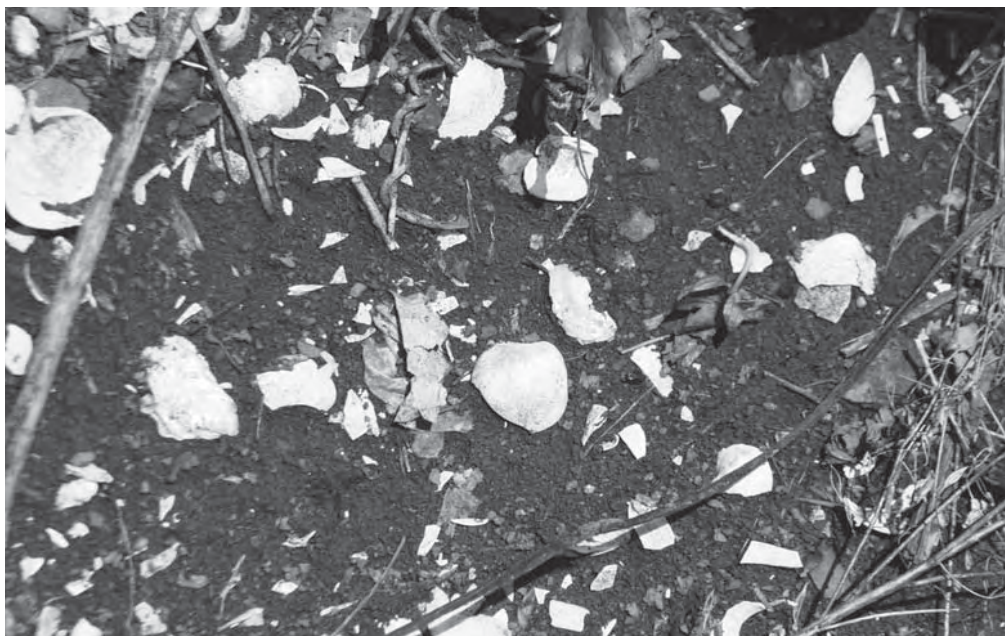
□ 유 물

1. 토 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1	회흑	회백	회흑	조질	경질	0.35 ~ 0.6	회흑색경질토기 웅기 구연부 편으로 구연부는 외반되어 있고 구연부 하단의 외면에는 음각선을 돌렸으며 내·외면에 빗질과 물레의 흔적이 있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와 작은 모래가 섞여 있다.
2	회흑	회백	회청	조질	도질	0.7 ~ 0.9	회흑색경질토기 웅기 몸통 편으로 외면에는 여러 줄의 음각선을 돌렸으며 내·외면에 빗질과 물레, 지두 흔적이 있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와 작은 모래가 섞여 있다.



거모동 뒷장울골 패총 전경



거모동 뒷장울골 패총 패각층 전경

2. 도자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3	회백	백	회백	니질	회백색	0.8 ~ 1.4	백자 발편으로 내·외면의 유약은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고 빙결이 나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운모가 섞여있고 잘 정선되어 있다. 굽 지름은 7.6cm이다.
4	회백	순백	회백	니질	회백색	0.3 ~ 1.0	백자 발로 내·외면의 유약은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정선되어 있다.

묘역83 밀양박공손희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0.85"N, 경도 126°45'44.0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손희지묘는 백천조 공부환가족묘에서 남쪽으로 논을 건너서 500m정도 가면 북쪽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을 화강암으로 만든 장방형 호석으로 둘러고 상석과 고석, 향로석, 화병, 묘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밀양박공손희지묘 전경

前面(北)

全州李氏甲順

之墓

密陽朴公孫熙

側面(東)

糾正公坡州府公二十四代孫

一 九一五年 一月十二日 生
公

一九六一年九月二十日 卒
後面(北)

자 용길	손 중혁	증손 현수
상길	정훈	범수
한길	정민	승수
경일	혜영	보영
녀 월순	호진	시현
길순	혜경	
명순	가영	
연순	가희	

側面(西)

一九一七년 三月 二十七日生
配

二〇〇九年 五月 十六日卒

묘역84 밀양박공휘순진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22"N, 경도 126°45'44.23"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휘순진지묘는 밀양박공손희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을 화강암으로 만든 장방형 호석으로 둘러고 상석과 고석, 향로석, 화병,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밀양박공휘순진지묘 전경

前面(北)

恭人洪川龍氏

之墓

參奉密陽朴公諱淳鎮

側面(東)

西紀 一八三四年九月十日生

西紀 一九一四年六月二十日卒

後面(北)

字 春實 子 聖澤 孫 長根

世根

四根

昌根

聖賢 春龍

春興

側面(東)

西紀 一八三四年十月九日生

西紀 一八九三年十月十一日卒

묘역85 밀양박공휘성택지묘

□ 소재지 : 위도 경도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휘성택지묘는 밀양박공
휘순진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해서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을 화강암
으로 만든 장방형 호석으로 둘러고
상석과 고석, 향로석, 화병,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
이 기록되어 있다.



밀양박공휘성택지묘 전경

前面(北)

恭人潁陽千氏諱奉熙

之墓

直員密陽朴公諱聖澤 西坐

側面(東)

西紀 一八七〇年十月十七日生

西紀 一九三八年十二月五日卒

後面(北)

子 長根 孫 孫熙 光熙 榮熙 俊熙

世根 常熙

四根 乙熙 鍾熙 敬熙

昌根 敦熙 文男

女 二分

壬分

乙分

側面(東)

西紀 一八七一年十月十七日生

西紀 一九六六年三月五日卒

묘역86 밀양박공휘장근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57"N, 경도 126°45'44.2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휘장근지묘는 밀양박공휘성택지묘에서 서남쪽으로 인접해서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을 화강암으로 만든 장방형 호석으로 둘러고 상석과 고석, 향로석, 화병,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聖徒白川趙氏諱隨來

之墓

直員密陽朴公諱長根 西坐

側面(東)

西紀 一八九二年一月九日生

西紀 一九三二年十一月九日卒

後面(北)

子 孫熙 孫 勇吉 曾孫 種赫

鍾訓(字正訓)

相吉 鍾敏(字正民)

庚吉

光熙 載昇 鍾運

載浩

榮熙 龍吉

善吉

俊熙 載滢 性玟

載秀

女 辛娘

分熙

錦熙

側面(東)

西紀 一八九二年十一月十九日生

西紀 一九八二年五月二十九日卒



밀양박공휘장근지묘 전경

묘역87 석성윤의 묘

□ 소재지 : 위도 37°22'2.21"N, 경도 126°45'43.35"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석성윤의묘는 밀양박공휘장근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해서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을 화강암으로 만든 장방형 호석으로 둘러고 상석과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



석성윤의 묘 전경



석종환의묘 전경

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김윤분

卍 의 묘

석성윤

側面(東)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장25절)

後面(北)

1951년 5월 21일 동란중 황망히 떠나가신 어머니와 여드레 후 뒤따라가신 아버지의 묘
지를 정리해 다시 모시고 이 묘비를 세우나이다.

2008년 2월 9일

자 석득근 자부 김경희

득홍 자부 김선녀

종환 자부 김완분

종운 자부 홍정선

이선옥

側面(東)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장二十六절)

묘역88 석종환의 묘

□ 소재지 : 위도 37°22'2.36"N, 경도 126°45'43.26"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석종환의 묘는 석성윤의 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해서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을 화강암으로 만든 장방형 호석으로 둘러고 상석과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한 장로 석종환의 묘

側面(東)

一九二五년 十二月 二十九日 일제의 강점기에 태어나 二〇〇五년 九月十七일 잠드신 석종환 장로를 이곳에 모시고 불효자들이 눈물로 이 비석을 세우나이다.

後面(北)

자 광인 자부 김정혜 손 우진

광설 임수현 우재

광훈 봉기

이령

녀 인희 사위 김길섭 외손 지원 서원

원희 최찬영 승 승민

용희 홍순곤 요셉

문희 박웅수 세인 지호

側面(西)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

묘역89 평산신공현만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7.75"N, 경도 126°45'54.20"E

□ 시 대 : 근대

□ 현 황:

평산신공현만지묘는 순흥안공기지묘에서 동북쪽으로 약 50m 지점에 비닐하우스 인근에 있다. 묘역은 2기의 봉분사이로 묘표가 서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南)

권사 경주김씨정옥

卍 지묘

성도 평산신공현만

側面(西)

一九二五 二, 五 생

부 陰

一九六一 八, 十五 졸

後面(北)

자 희철

영철

진철

승철

녀 미옥

側面(東)

一九二八 十一, 二十一 생



평산신공현만지묘 전경



밀양박공귀근지묘 전경

모 음

一九九一 七,二 졸

묘역90 밀양박공귀근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8.88"N, 경도 126°45'55.21"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귀근지묘는 평산신공현만지묘에서 서북쪽으로 약 5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을 화강암으로 만든 장방형 호석으로 둘렀고 상석과 향로석, 계체석과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서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동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南)

성도 한금복

卍 지묘

집사밀양박공귀근

側面(西)

부 一九九一年 一月二十七日 소천

모 一九九九年 一月十五日

묘역91 밀양박공태경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7.99"N, 경도 37°22'7.99"N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태경지묘는 밀양박공귀근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해서 50m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2기의 봉분 앞 상석과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밀양박공태경지묘 전경

김해김씨 간난이

지묘

밀양박공태경

側面(東)

一九一一年 三月 三十日 生

公

一 九八八年 陰 八月十六日 卒

後面(北)

자 영희	녀 춘희	자부 김유복	사위 김홍환	손 성규	손녀 정옥	손부 정명화
문희	정자	김혜숙	조상필	종규	수진	
정조	정숙	김순옥	신성현	동규	수미	
진희	정순	김광은		세진	혜련	
원희		이옥자		재규	혜영	
철희		문추자		진규	재운	
세희		박승람		문규	재원	
양희				민규	상아	
				한별		
				건도		
				건하		

側面(西)

一九一三年八月 五 日 生

配

二〇〇五年二月 十八日 卒

묘역92 밀양박공성래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7.84"N, 경도 126°45'55.33"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성래지묘는 밀양박공태경지묘에서 남쪽으로 인접해서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密陽朴公成來之墓

後面(北)

子 魯洙

魯勳

側面(西)

一九二九年二月十日生

配

一九七四年一月三十日卒



밀양박공성래지묘 전경

묘역93 밀양박공천근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7.81"N, 경도 126°45'55.16"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천근지묘는 밀양박공성래지묘에서 남쪽으로 인접해서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孺人旌善全氏

之墓

密陽朴公千根

側面(南)

一九二〇年九月二十日生

公

一九八九年十二月二十五日卒

後面(北)

자 승희 자부 송경순 손녀 은주

충희 정장숙 지현

원희 신춘자 지선

딸 영숙 사위 최익봉

영분 오승택

화자 김우철

손 윤규 영규 석규 완규

側面(西)

一九一九年十二月四日生

配

一九九六年十月四日卒

묘역94 밀양박공오근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7.75"N, 경도 126°45'54.71"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오근지묘는 밀양박공천근지묘에서 남쪽으로 인접해서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密陽朴公五根之墓

側面(南)

西紀一九二三年癸亥十二月二十三日生

西紀一九八十年庚申十二月十二日 卒



밀양박공천근지묘 전경



밀양박공오근지묘 전경

後面(北)

嗣子 貴熙

都熙

鋼熙

女 春鈺

錦鈺

善鈺

婿 李弼九

側面(西)

西紀 一九八一年四月二十六日 謹立

묘역95 밀양박공명근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8.53"N, 경도 126°45'54.81"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명근지묘는 밀양박공귀근지묘에서 서쪽으로 약5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慶州金氏用順

之墓

密陽朴公命根

側面(南)

一九九〇, 八一, 二月 卒

後面(北)

석준

서 김영노

정훈

노춘

영준

석희

용준

봉희

준

자 덕희

손광준



밀양박공명근지묘 전경

묘역96 밀양박공업래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9.03"N, 경도 126°45'54.79"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업래지묘는 밀양박공명
근지묘에서 동북쪽으로 약5m 지점
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표
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밀양박공업래지묘 전경

前面(東)

孺人平山申氏

之墓

密陽朴公業來

側面(南)

一九九〇, 八, 二 卒

後面(北)

一九〇六年五月十一日生

配

一九九〇年二月十三日卒

자 노준	자부 이복희	손 정규	손녀 미자
노영	여운분	홍규	미숙
노명	임금옥	홍덕	미애
노인	기화자	홍철	미경
			미영
			미정

묘역97 밀양박공봉희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9.27"N, 경도 126°45'54.5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봉희지묘는 밀양박공업
래지묘에서 북쪽으로 약5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
이 기록되어 있다.



밀양박공봉희지묘 전경

前面(東)

原州邊氏明順

之墓

密陽朴公奉熙

側面(南)

一九八七, 四, 二十卒

後面(北)

녀 숙현

용준
자 준

묘역98 밀양박공춘용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9.54"N, 경도 126°45'54.0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춘용지묘는 밀양박공봉
희지묘에서 서북쪽으로 약5m 지점
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방형의 화
강암 호석으로 둘러싼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
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밀양박공춘용지묘 전경

前面(東)

坡平尹氏昌明

之墓

密陽朴公春龍

側面(南)

一八九八年 十一月十七日生

陰

一九七七年 二月十三日卒

後面(北)

子 昌善 孫 弘圭 孫婿 鄭現鍾

子婦 崔春分 勳圭

達順

良順

子 昌雄 敏圭

子婦 李美華 賢我
女 魯芬 婿 金麟錫
 貞粉 金學哲

묘역99 밀양박공영준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9.50"N, 경도 126°45'53.08"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영준지묘는 밀양박공춘
용지묘에서 남쪽으로 약7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
이 기록되어 있다.



밀양박공영준지묘 전경

前面(東)

金海金氏順禮

之墓

密陽朴公泳俊

側面(南)

一九七四 음 三, 十八卒

後面(北)

노춘

석희

등희

○ 덕희

서 정필

자 ○근 증손 광준

側面(北)

一九八九, 七, 十六卒

묘역100 밀양박공휘사룡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9.67"N, 경도 126°45'54.9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휘사룡지묘는 밀양박공영준지묘에서 북쪽으로 약1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상석 뒤편에 세워진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밀양박공휘사룡지묘에서 서남쪽으로 약 15m정도 가면 11개의 비석을 남북방향으로 세워 놓았다.

前面(東)

向午坐子

密陽朴公諱四龍之墓

後面(北)

母 慶州金氏는

西紀一九七三年五月二十三日卒

西紀一九七四年八月十二日

入葬 後孫들의 悲嘆과 悚懼함을 禁할 수 없어 碑石을 記載하였음

子 巳熙 孫 永吉 曾孫 鍾夏

文吉



밀양박공휘사룡지묘 전경



남북으로 세워놓은 밀양박씨 비석들

子 鍾熙 孫 範吉 曾孫 女 해진
 炳吉
 子 敬熙 孫 明圭
 麟圭

묘역101 밀양박공영상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9.88"N, 경도 126°45'55.62"E
- 시 대 : 근대
- 현 황 :

밀양박공영상지묘는 밀양박공회 사릉지묘에서 서쪽으로 약1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계체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상석 북편에 세워진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밀양박공영상지묘 전경

前面(東)

密陽朴公泳商

之墓

孺人玄風郭氏 附左

側面(南)

一九〇五年正月十八日生

一九七九年陰四月二十日卒

後面(北)

자 박상래 자부 노옥남

명래 이희자

손 노희

노준

노혁

딸 경분 사위 유재복
 순분 정재석

側面(北)

一九〇二年陰十月十日生

一九八六年陰八月十二日卒

묘역102 경주최공승춘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0.03"N, 경도 126°45'55.82"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승춘지묘는 밀양박공영
상지묘에서 북쪽으로 약5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상석 북편에 세워진 장방형 묘표에
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주최공승춘지묘 전경

前面(東)

卍

慶州崔公承春

之墓

孺人全州李氏

側面(南)

公

一九五二年 九月六日生

陰

年 月 日 卒

後面(西)

딸 최민희

설희

장질 영식

질 우식

유식

환식

태식

側面(北)

一九五二年 八月二十五日生

配 陰

二〇〇〇年 十二月一日卒

묘역103 경주최공선환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0.14"N, 경도 126°45'55.4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선환지묘는 경주최공승춘지묘에서 북쪽으로 약5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화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석의 정면과 측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慶州崔公善煥

之墓

孺人南原梁氏

側面(南)

子 崔載明 載鍾 載先 載得

孫 元鎮 康鎮 旺鎮

側面(北)

公 一九〇七年 陰二月七日生



경주최공선환지묘 전경

一九七八年六月二十一日卒
配 一九一三年陰十二月三十日生
二〇〇六年二月二十四日卒

묘역104 경주최공중환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0.17"N, 경도 126°45'55.58"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중환지묘는 경주최공선환지묘에서 북쪽으로 약5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방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둘러싼 봉분과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慶州崔公鍾煥

之墓

孺人慶州李氏

側面(南)

一九一一年八月二十四日生

父

一九六四年八月十一日卒

後面(西)

孫婿 趙寅燦

한솔

증손 한별

吳奉花

孫婦 李眞敬

美敬

南鎭

孫 東鎭 曾孫 詠絡



경주최공중환지묘 전경

洪寬敎
 李先直
 婿 金善南
 富英
 壽英
 女 挑英
 子婦 蔡貞淑
 子 載甲
 側面(北)
 一九十七年九月一日生
 母
 一九七四年三月七日卒

묘역105 경주최공복휴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0.44"N, 경도 126°45'55.36"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복휴지묘는 경주최공종
 환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
 다. 묘역은 방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둘러싼 봉분과 망주석, 묘표로 구성
 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
 록되어 있다.



경주최공복휴지묘 전경

前面(東)
 慶州崔公福休
 之墓

孺人南原方氏

公 癸酉十二月二十四日生 十月十日 忌

配 辛未 八月二十日生 十二月十一日 忌

側面(南)

一九一一年八月二十四日生

父

一九六四年八月十一日卒

後面(西)

한양이

서 함수건

재현

재균

재춘

재일

재갑

재필

손 재식

중환

순환

자 세환

106 경주최공정환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0.65"N, 경도 126°45'55.86"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정환지묘는 경주최공복휴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慶州崔公正煥

之墓

泰安朴氏長順附左

側面(南)

子 孫

英敏 永宰

鎭

英鎬 中薰

原碩

英一 宇鎭

聖鎭

英國

英勳

女 婿

英愛 曹永周

英姬 申殷徹

後面(西)

옛부터 四季節이 변함없이 제때를 만났다가 사라짐은 自然의 큰 造化요 宇宙萬物과 一切重生의 오고감이 또한 하늘의 정한 바이니 一山 崔正煥 先生은 하늘의 造化에 乘하심이 다 다만 가신 님을 가슴에 묻어 놓고 님의 뜻과 平生의 行蹟을 기리는 것이 뒤에 남은 사람들의 常情이라 여기에 先生의 略歷을 간단히 남겨 놓는다 先生은 一九一七年(丁巳)十月二日 京畿道 始興郡 君子面에서 父親 崔相陳과 母親 車得伊 사이의 二男五女の 長男으로 태어나시어 婦人朴長順사이에 五男二女를 두시다 십여 세 때 仁川으로 移住 고학 독학으로 修學하며 이십 여세 때 鐵工場을 自營하시며 商工人의 길에 드시다 先生은 一生을 正直 勤勉 實踐을 생활신조로 삼아 一家를 이루며 自己富의 形成보다 仁川地域經濟界의 公人으로서 몸두심을 항상 신념으로 살아가시다 한편 教育界에도 至大한 관심을 두시어 仁川 教育 發展에 기여하심은 물론 體育界에도 관여하시어 體育 勳章을 받는 등 仁川地域 다방면의 社會發展에 기여하심을 항상 平凡한 市民의 仁川人으로서의 보람으로 사시다 一九八七年 十一月十五日 仁川市 中區 港洞에서 七〇歲의 아직 더 활동하실 아쉬운 歲를 남겨 놓고 逝去하시다 西紀一九九〇年三月二七日 咸安永撰 元仲植書

側面(北)

略歷



경주최공정환지묘 전경

1945-50

동양방직노총위원장

1965-67

인하대학교재단이사장

1968

미8군군수지원단 명예사령관
(명예미육군예비역대령)

1967-78

대한적십자사중앙위원

1969-78

동일방직전무고문

1970-80

경기도체육회부회장
경기도야구협회배구협회장

1980

체육훈장 수상

1971-78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1972

학교법인 信明학원 설립 이사장

1971-1981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
인천시정자문위원장
경기은행인천투자금융
두부관리협회설립
한국수출공단이사

1978-85

한국보이스카웃
경기.인천연맹장

묘역107 경주최공휘윤환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1.09"N, 경도 126°45'55.5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휘윤환지묘는 경주최공정환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주최공휘윤환지묘 전경

前面(東)

(字石崇)

處士慶州崔公諱允煥

之墓

孺人金海金氏附左

側面(南)

西紀一八九七年十月十日生

配

西紀一九九三年四月十四日卒

後面(西)

子 載烈 子婦 裴丁卯 孫 鳳鎮 孫婦 尹春兒 曾孫 承熊

女 慶禮 婿 申鉉弼 鍾鎮 李贊淑 承赫

慶德 金鎮元 元鎮 沈敏淑 承利

貞順 金貴鉉 孫女 花鎮 孫婿 韓圭鎮 曾孫女 柚美

愛鎮 閔炳一 姻奎

西紀 一九九八年四月 日謹立

側面(北)

西紀 一八九六年十月十日生
公
西紀 一九六三年七月三日卒

묘역108 경주최공휘성환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1.33"N, 경도 126°45'55.62"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휘성환지묘는 경주최공휘윤환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字成勤)

慶州崔公成煥

之墓

金海金氏福女

側面(南)

西紀一九一二年二月二日生

配

(陰)



경주최공휘성환지묘 전경



경주최공휘윤환지묘와 경주최공휘성환지묘 전경

西紀一九九八年六月二十九日卒

後面(西)

子 載奎 子婦 朴鍾順 孫子 字鎮 孫婦 金慶淑 曾孫 承勳
女 載姬 婿 李相仁 漳鎮 鄭達順 曾孫女 한슬
誠鎮 金貞姬 惠珍
范鎮 趙慧蘭
孫女 玉鎮

西紀 一九九八年九月十九日 謹立

側面(北)

西紀 一九〇五年一月十八日生

公 (陰)

西紀 一九八六年三月五日卒

묘역109 경주최공상진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0.86"N, 경도 126°45'55.48"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상진지묘는 경주최공휘성환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慶州崔公相陳

之墓

孺人延安車氏

側面(南)

西紀一九六七年一月二十三日卒

後面(西)

子 正煥 曾孫 永宰
玉煥 鎮

孫 英敏 中薰
 英鎬 原碩
 英一(渡美) 字鎮
 英國 成鎮(버니)
 英勳
 英基
 英培
 英信
 側面(北)

西紀 一九六九年六月十三日卒



경주최공상진지묘 전경

묘역110 경주최공극연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1.64"N, 경도 126°45'54.5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극연지묘는 경주최공상진지묘에서 북쪽으로 약 10m 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으로 화강암 호석을 두른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慶州崔公克筵

之墓

配全州李氏附左

後面(西)

公位 六月二十五日卒

妣位 八月十四日卒

子 時鉉

孫 天紱

一九九〇年 四月 六日 建立



경주최공극연지묘 전경



경주최공휘만령지묘 전경

側面(北)

雲瓚花樹會後孫一同

묘역111 경주최공휘만령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1.90"N, 경도 126°45'54.15"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휘만령지묘는 경주최공상극연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으로 화강암 호석을 두른 2기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석등, 2기의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北側墓表

前面(東)

中訓大夫行

慶州崔公諱萬齡之墓

配淑夫人金海金氏祔左 酉坐

側面(西)

載燮 載寬 德鎮 熙鎮 承赫

碑文建立委員 委員長 載萬 爽鎮 監查 承一 載珏 載有 世鎮 重鎮 承元

顧問 崔敎煥 副委員長 載烈 承圭 委員 德休 載瑄 載烈 永鎮 格鎮 承烈
 賢煥 載銀 總務 承卓 道煥 載宗 載敏 潤鎮 元鎮 陳煥
 載官 載鎬 洪鎮 承允 載炳
 載德 載植 財務 承賢 載源 載敏 載得 孝鎮 承德

後面(西)

始祖慶州人文昌候孤雲號海雲諱致遠新羅憲安王唐大中丁丑生年十二隨海
 船入唐僖宗乾符甲午文科時年十八調漂水縣尉遷侍御史內供奉賜紫金魚袋高麗
 顯宗庚申贈內史令從祀先聖廟癸亥追封文昌候公世爲慶州沙梁部人故後因以慶
 州爲貫

中祖諱玄祐高麗忠肅王忠惠王時人官止侍中諡和肅一云匡靖大夫三司左使諡
 和淑公墓京畿道高陽郡碧蹄邑城石里九耳內洞辰坐雙墳有石儀齊閣曰碧城齊墓
 享陰十月初一日

派祖曾祖父諱淑生字子眞號盅齊諡文貞公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五衛都總府
 都總管仁宗乙巳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有文集庚辰十月十三日卒享
 年五十八墓京畿道長端郡長道面梅峴里陵洞丁坐雙封有石儀

父諱悅字悅卿通訓大夫行全州府判官兼全州鎮營兵 節制都衛贈正憲大夫吏曹判書兼議政
 府使五衛都總府都總管萬曆乙丑十二月十九日卒墓京畿道抱川郡

永中面梁文里三達田甲坐合窆墓享日陰十月初二日

側面(北)

孤雲十九世中訓大夫行配淑夫人金海金氏墓京畿道始興市去毛洞末力峴西坐
 合封永世碑

西紀一九九〇年 四月 五日 建立

西側墓表

前面(東)

配 孺人金海金氏

之墓

東安慶州崔公諱萬齡

側面(西)

卒年未詳

配

生一五七三年生

卒年未詳

公

生一五八〇年生

後面(西)

子 克筵 孫 時鉉 曾孫 天紱 高孫 湛
浚
溢
澤

묘역112 경주최공인휴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1.50"N, 경도 126°45'55.2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인휴지묘는 경주최공휘만
령지묘에서 동북쪽으로 약 10m 지점
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
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경주최공인휴지묘의 남쪽
에는 경주최공찬휴지묘가 있다.



경주최공인휴지묘 전경

前面(東)

孺人昌原黃氏

之墓

慶州崔公仁休

側面(南)

一八七六年 一月五日生

父

一九四〇年 十一月十八日卒

後面(西)

子 基煥	孫 載亨
	載珏
榮煥	載源
	載鳳
	載秀
造煥	載仁
	載秉
	載敬

側面(北)

一八七八年九月九日生

母

一九三七年三月二十四日卒

묘역113 경주최공봉록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2.24"N, 경도 126°45'55.35"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봉록지묘는 경주최공인휴지묘에서 동북쪽으로 약 5m 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호석으로 둘러싼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화병,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孺人全州李氏

之墓

慶州崔公鳳祿

(충환)

側面(南)



경주최공봉록지묘 전경



경주최공남휴지묘 전경

公 一九六四年九月五日卒

後面(西)

자 재근 손 경진 석진

재관 태진

재선 성주

재운 호진

재욱 민진

딸 숙자 충진

側面(北)

配 一九八五年二月十三日 卒

묘역114 경주최공남휴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3.21"N, 경도 126°45'56.16"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남휴지묘는 경주최공봉록지묘에서 동북쪽으로 약 10m 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둘러싼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화병,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북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남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

였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慶州崔公男休之墓

孺人金海金氏

祔左

孺人慶州金氏

側面(南)

配 西紀一九四三年 十月 三日卒

繼配 西紀一九一五年 十二月 十七日生

西紀一九六二年 六月 二十七日卒

後面(西)

子 秀煥 子婦 趙南善 孫載賢

伊煥 金貞仁 賢姬

女 英姬 婿 李建宇 慶姬

明五 吳石根 高니

明元 鄭廣植 소원

明淑 李德洙

西紀 二〇〇一年 三月 十八日 謹立

側面(北)

字 正男 西紀 一九一五年五月十一日生

西紀 一九六七年二月三日卒

묘역115 경주최공백진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3.40"N, 경도 126°45'56.35"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백진지묘는 경주최공남휴지묘에서 북쪽으로 약 5m 지점에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둘러싼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장명등,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북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남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주최공백진지묘 전경

前面(東)

慶州崔公伯鎮之墓

孺人慶州金氏附左

後面(西)

慶州崔公諱伯鎮碣文

公의 諱는 伯鎮이시고 字는 貴奉이시니 始祖 文昌候 諱致遠 號는 孤雲 聖賢의 三十二世 孫이시며 傳至十六代祖 諱淑生 號忠齋公官至 左贊成贈大匡輔國崇錄大夫議政府領議政諡 文貞己卯名賢이시다 傳至十三代祖諱萬齡은 中訓大夫行成均館司成이시고 傳至 曾祖 諱齋 休이시고 祖諱宜煥이시며 考諱는 載鼎이시다 公은 西紀一九六九年 陰十一月 十九日 下世 하시고 妣位는 西紀一九七九年 陰九月 十日 下世하시여 始興市 月串洞 修理山 九의 六蕃 地에 合封하셨다가 西海岸 高速道路 事業으로 因하여 西紀一九九二年 三月二十日 始興市 去毛洞 未力峴 山一三五番地 宗山으로 移葬碣文을 적어 碑를 세우고 以下省錄하노라

西紀一九九三年 三月 十一日 子 承卓 謹豎

側面(北)

子 承國 女 吳順 明植 孫婦 李相分 孫女 英愛

承卓 孫 漢植 明根 敬愛

婦 安炳姬 碩根 孫婿 朴鴻圭

朴允順 根植 林錫俊 曾孫 炳怡

婿 黃起性 享根 曾孫女 송이

묘역116 경주최공혁환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3.69"N, 경도 126°45'56.60"E

□ 시 대 : 근대

□ 현 황:

경주최공혁환지묘는 경주최
공백진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
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
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
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
이 기록되어 있다.



경주최공혁환지묘 전경

前面(東)

慶州崔公赫煥(壽萬)

配 仁同長氏 之墓

配 金海金氏附左

後面(西)

公一九〇七年 十月十六日生 一九六五年十月三十日卒

配一九二二年八月二十七日生 一九六二年五月七日卒

子 載寬 孫 揚鎮

載星 世鎮

載振 尙鎮

孫 富鎮 宇鎮

側面(北)

一九九三年 四月 八日立

묘역117 경주최공윤은지묘

□ 소재지: 위도 37°22'13.62"N, 경도 126°45'56.17"E

□ 시 대: 근대

□ 현 황:

경주최공윤은지묘는 경주최공혁환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
강암 호석으로 둘러싼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화병,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남
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북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

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慶州崔公潤殷

之墓

孺人金海金氏

側面(南)

字聖淳 己卯三月二十四日生 十月二十三日忌

配 庚戌十月十六日忌

配 壬午二月 一日忌

後面(西)

子 男休(正男) 孫 秀煥 孫婦 趙南善 曾孫 載賢

子婦 金貞男 伊煥 金貞仁 현희

金英順 孫女 英姬 孫婿 李建宇 경희

女 再禮 明五 吳石根 고니

婿 金永春 明元 鄭廣植 소원

明淑 李德洙



경주최공윤은지묘 전경

묘역118 경주최공대휴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4.04"N, 경도 126°45'55.42"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대휴지묘는 경주최공윤은지묘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남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북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慶州崔公大休

之墓

配安東金氏祔左

側面(南)

戊辰 八月十五日生

妣位

二月六日卒

後面(西)

子 文煥 曾孫 澤鎭

忠煥 得眞

有鎭

孫 載銀 景鎭

載一 太鎭

載根 成鎭

載實 浩鎭

載善 忠鎭

載潤 忞鎭

載昱 高孫 承祐

側面(北)

哲宗 壬戌 正月二十七日生

公位

二月十四日卒



경주최공대휴지묘 전경

묘역119 경주최공재익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4.58"N, 경도 126°45'55.42"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재익지묘는 경주최공대휴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화병, 망주석, 석등,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북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남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주최공재익지묘 전경

前面(東)

配金海金氏陵順耐左

慶州崔公載益之墓

側面(南)

祖母 一九一六年 正月 十二日卒

祖父 一九四九年三月二十九日卒

後面(西)

子 永鎭

子 鵬鎭

女 吉順

孫子 承圭

曾孫子 正植

高孫子 妍智

孫子 承德

曾孫子 現植

承玉

相植

承達

雄植

承哲

男植

承燮

珉境

承澤

弘植

孫女 承淑

珉先

承雲

曾孫女 仁英

香淑

曾孫女 永暖

承順

仁淑

喜朝

承蘭

仁敬

美淑

仁貞

仁美

仁姬

側面(北)

文昌侯 後孫 三十二代孫

始祖 崔致遠 先生

慶州崔氏忠齋公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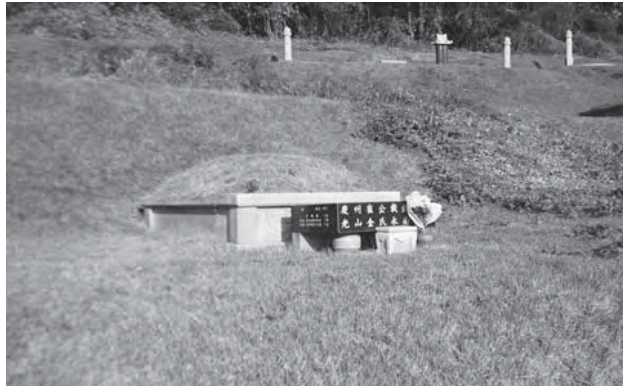
묘역120 경주최공재종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4.73"N, 경도 126°45'56.03"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재종지묘는 경주최공재익지묘에서 동북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화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묘역의 북쪽에는 “土地之神”이라는 작은 묘표와 상석이 놓여 있다.



경주최공재종지묘 전경

前面(東)

慶州崔公載鍾

之墓

光山金氏永南

側面(南)

子 崔康鎭

婦 이주희

女 香淑

婿 趙時衍

香子

劉煥權

香妍

尹杜竣

孫 承根

承玕

側面(北)

公 一九三八年陰十二月三十日生

二〇〇七年 五月 二十八日卒

配 一九四五年陰十月九日生

年陰 日卒

묘역121 경주최공휘도휴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5.38"N, 경도 126°45'55.5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휘도휴지묘는 경주 최공재종지묘에서 서북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북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남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주최공휘도휴지묘 전경

前面(東)

處士慶州崔公諱道休之墓

配孺人廣州金氏祔左

側面(南)

字 順道 生父 潤身 戊辰 六月 三十日生 忌 六月 十六日

配 壬辰 五月 五日生 忌 正月 二十一日

後面(北)

萬齡中訓大夫成均館事十代孫諱道休

子 允煥 孫 載烈 曾孫 鳳鎭 成鎭

克煥 載奎 鍾鎭 範鎭

成煥 載天 原鎭 大鎭

載宗 宇鎭 大成

載弘 漳鎭 明鎭

載秀 雲鎭 有敬

西紀一九九三年 五月 六日 建立

側面(北)

公 一九三八年陰十二月三十日生

二〇〇七年 五月 二十八日卒

配 一九四五年陰十月九日生

年陰 日卒

묘역122 경주최공윤주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5.72"N, 경도 126°45'55.82"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윤주지묘는 경주최공휘도휴지묘에서 북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두룬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북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남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慶州崔公潤周

之墓

孺人密陽朴氏

側面(南)

字 聖道 戊子正月十二日生



경주최공윤주지묘 전경

西紀 一九六七年四月六日忌

配 丙申年四月九日生

西紀一九七七年十一月二十九日忌

後面(北)

子 德在	子婦 韓貞順	孫 鳳玉	孫婦 金俊姬	曾孫 昌云
		鳳云	金敬淑	
德休	白承淑	奎煥	徐喜淑	載熙
女 氣馴	婿 李馴韓	庸煥	洪賢洙	載東
		孝煥	盧美寧	載旭
		弘煥	張珍株	載尤
		孫女 綽煥	孫婿 張錫南	曾孫女 載琳 敬分
		敏子	趙昌瑞	蘭 敬善
		貞任		예슬 敬延
		鳳伊		載英 敬愛

묘역123 광산김씨가족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6.65"N, 경도 126°45'56.9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광산김씨가족지묘는 경주 최공윤주지묘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다. 묘역은 원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두른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화병, 석등,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북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남



광산김씨가족지묘 전경

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표 전면에는 “光山金氏家族之墓”라고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묘 도면을 16부분으로 나누어 놓았다.

묘역124 제주고씨정순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6.38"N, 경도 126°45'57.4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제주고씨정순지묘는 광산
김씨가족지묘에서 동북쪽 하
단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방
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두른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화병,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
어 있다.



제주고씨정순지묘 전경

前面(東)

제주고씨 정순지묘

側面(西)

1911년 9월 22일생(음)

2005년 7월 13일졸(음)

後面(西)

장남 김문규 손 봉진 증손 호경

자부 곽세순 손부 장영미

손 종문

장녀 김영숙

사위 이병국

묘역125 경주최공학림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6.03"N, 경도 126°45'56.75"E

□ 시 대 : 근대

□ 현 황:

경주최공학림지묘는 제
주고씨정순지묘에서 서쪽으
로 약 5m 지점에 위치해 있
다. 묘역은 방형의 화강암 호
석으로 두른 봉분과 상석, 고
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
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주최공학림지묘 전경

前面(東)

孺人密陽朴氏

之墓

慶州崔公鶴林

(賢淑)

側面(西)

一八七三年七月十日生

公

一九五五年八月五日卒

後面(西)

子 元奉 孫 載憲

再奉 載俊

三奉

女 長禮

龍分

側面(北)

一八七五年一月 十四日生

配

一九三七年正月二十四日卒

묘역126 경주최공현환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5.76"N, 경도 126°45'56.57"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현환지묘는 경주 최공학림지묘에서 서쪽에 인접해 있다. 묘역은 방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두른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 북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남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주최공현환지묘 전경

前面(東)

孺人慶州金氏

之墓

慶州崔公賢煥

(三奉)

側面(西)

一九一三年十一月二十八日生

公

二〇〇一年六月二十五日卒

後面(西)

子 載惠 孫 喜鎭

載俊 裕鎭

女 吾貞 瑞元

吾順 孫女 喜英

側面(北)

一九二二年九月二十四日生

配

一九九三年七月 四日卒

묘역127 성도최덕진의묘

□ 소재지 : 위도 37°22'15.47"N, 경도 126°45'56.23"E

□ 시 대 : 근대

□ 현 황 :

성도최덕진의묘는 경주최공현환지묘에서 북쪽에 인접해 있다. 묘역은 방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두른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도최덕진의묘 전경

前面(東)

성도 최덕진

卍 의묘

권사 이상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14:6)

부 1917년 7월 24일생 2008년 음 1월 24일 소천

모 1919년 5월 15일생 2003년 음 12월 4일 소천

後面(西)

자 승관 자부 박춘옥 손자 현식 손부 손석진 증손자 병철

병선

증손녀 은혜

		원식	김정선	예림
				예진
		손녀 정숙	손서 윤기만	
승수	이동순	손자 완식	손부 윤현숙	
		손녀 효순		
		미정		
승민	이효정	손자 창식	손부 김정아	증손자 병문
		손녀 선영		
녀 승애	사위 박용희			
승년	윤석기			
승금	박창욱			
정애	조형욱			

묘역128 경주최씨의 가족납골묘원

□ 소재지 : 위도 37°22'15.45"N, 경도 126°45'56.70"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씨의 가족납골묘원은 성도최덕진의묘에서 북쪽에 인접해 있다. 묘역은 방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두른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주최씨의 가족납골묘원 전경

前面(東)

(海先)

慶州崔氏載海의家族納骨墓園

載天

(老天)

後面(西)

二〇〇六年九月七日建立

封墳護石1

慶州崔公載海(海先)

1923년 음 7월 16일 생 2007년 음 5월 18일 졸

封墳護石2

慶州崔公載天(老天)

1926년 10월 13일 생 1983년 12월 19일 졸

孺人昌寧成氏

1934년 11월 5일 생 1998년 11월 19일 졸

묘역129 경주최공극환지묘

□ 소재지 : 위도 37°22'15.70"N, 경도 126°45'57.05"E

□ 시 대 : 근대

□ 현 황 :

경주최공극환지묘는 경주최씨의 가족납골묘원에서 북쪽에 인접해 있다. 묘역은 방형의 화강암 호석으로 두른 봉분과 상석, 고석, 향로석, 화병,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慶州崔公克煥

之墓

平昌李氏福順

側面(南)

一八九九년 十一月十日生

配

十二月十二日忌



경주최공극환지묘 전경

짓고 선조들을 봉양하고 있다.

다섯째, 월곶동의 서쪽에 위치한 순흥안공영달이 1599년생이므로 조선중기 이후로 월곶동에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월곶동 지역에는 안동김씨전서공파 묘역이 주로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양한 성씨의 근현대의 묘역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일곱째, 월곶동과 주변지역 묘역을 조성한 성씨는 원주원씨, 금령김씨, 단양우씨, 순창설씨, 진주강씨, 밀양박씨, 영산신씨, 연안차씨, 파평윤씨, 해주최씨, 순천박씨, 양성이씨, 덕수장씨, 제주양씨, 재령이씨, 경주이씨, 수원백씨, 청주한씨, 광주이씨, 배천조씨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월곶동 마을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이 묘역을 통해 나타나고 있고 사당에는 승경도, 족보, 고문헌 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선시대의 묘역을 잘 정비하여 공원화하고 주민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잘 살아 있는 마을에 에코뮤지움의 개념을 도입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시킬 필요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이 장에서는 시흥시 월곶동 일대 조사지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 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시대별로 조사된 유물 및 유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구석기시대는 신생대 제3기 말 플라이오세(Pliocene)에서 제4기 갱신세 말 빙하기가 종식되는 1만 년 무렵까지 400만 년 이상 지속된 시기이다.¹²⁾ 시흥시의 계수동¹³⁾ 일대와 도창동, 매화동 일대에서 구석기 유물인 석영맥암 또는 규암제의 여러 면 석기, 찻개 등이 채집되었다. 계수동 구석기 유적은 소래저수지 쪽에서 삼십 고개 넘어 도당골 골짜기 끝에 있는 피정의 집 주위의 농장 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도창동 구석기 유적은 도창저수지의 서쪽 편에 있는 강창마을의 입구 쪽 언덕배기의 낮

12) 경기문화재단연구원·경기도박물관, 경기 발굴 10년의 발자취,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주)지앤에이 커뮤니케이션, 2009, p.7.

13)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단연구원, 앞의 책, p.68.

은 사면과 아래 밭 일대의 제4기층으로 보이는 붉은 점토층에서 석기가 수습되었다. 매화동 유적은 도창동에서 매화동으로 진행하면 장낙골을 지나 300여m 더 가면 길 우측 편으로 나지막한 구릉에 넓게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석기 한 점이 채집되었다.

목감동 구석기 유적¹⁴⁾은 목감 사거리 북쪽 500m 정도 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해발 76m의 독립된 구릉 하단의 완경사면에 제4기층으로 보이는 적갈색토가 폭넓게 분포하며 석영질의 석재들이 산재해 있다. 일대의 포도과수원에서 여러 면 석기 1점이 수습되었다. 월곶동 구석기 유물 산포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월곶IC 부근에 있는 고잔 마을 뒤 구릉, 월곶동 산117번지이다.¹⁵⁾ 이와 같이 월곶동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신석기시대는 B.C.8000년경 제주도 고산리 유적에서 토기가 출토된 이래로 B.C.6000년경 남해안 일대에 신석기토기가 등장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청동기시대가 개시되는 B.C.15~14세기까지로 볼 수 있다.¹⁶⁾ 시흥지역은 갯벌이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어로생활을 하던 신석기시대의 살림 자리로서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따라서 해안을 따라 또는 당시에 연육의 섬이었던 지점에서 많은 패총이 발견되고 있다. 오이도에는 현재 모두 12개소의 패총 유적이 있는데 거의 섬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오이도 패총은 1960년대 초에 보고가 이루어진 후 1988년 서울대학교 박물관¹⁷⁾에 의해 정식으로 발굴 조사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경기도박물관¹⁸⁾에서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오이도의 안말패총, 가운데살막 패총, 뒷살막 패총, 신포동 패총이 조사된 바 있다. 오이도 패총의 절대연대는 측정 결과 4080 ± 45 B.P(5)로 신석기시대 중·후기에 속하는 유적으로 알려졌다. 신석기시대 연구자들은 토기 연구를 토대로 초기의 신석기인들이 내륙에서 살다가 해안으로 진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흥 정왕동 유적은 오이도 안말 패총 옆에 길게 형성된 마을로 빗살무늬토기 편과 어망추(漁網錘) 흑요석이 발견되었다. 가운데살막 패총은 오이도의 서남쪽 구릉 사면에 위치해 있고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토기는 기존의 서해 도서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빗살무늬토기와는 달리 오히려 한강 유역의 빗살무늬토기와 가까워 서해 도서 신석기문

14) 앞의 책, p.103.

15) 배기동, 선사유적과 유물, 시흥시사 1,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pp.342~345.

16) 주6 앞의 책, p.26.

17) 임효재, 한국신석기문화, 집문당, 2000.

18) 경기도박물관,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 도서출판 큰기획, 2001, pp.44~60.

화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신평동 패총은 정왕동 하수종말처리장 일대에 위치하며 오이도 남단의 해안 구릉 사면에 위치해 있다. 바닥 면에서 3기의 노지가 확인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빗살무늬토기, 어망추, 석촉(石鏃), 골촉(骨鏃) 등의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¹⁹⁾ 소래벌 패총은 오이도의 북동쪽 옥터초등학교 옆 도로변에 위치하고 뒷살막 패총은 오이도의 최북단 구릉의 남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신석기시대의 패각층 속에서는 2기의 주거지와 7기의 야외노지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경사면을 파고 들어간 수혈주거지로서 외곽에 기둥자리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시흥 능곡동 주거지 유적조사가 2005년과 2006년에 능곡택지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발굴 조사되었다. 발굴조사 1지점에 해당하는 해발 30m 내외의 구릉 경사면에서 신석기시대의 주거지 24기가 밀집하여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들은 장축 3~9m의 규모로서 방형, 장방형 그리고 세장방형의 다양한 평면 형태를 보인다. 주거지에서 수습된 토기들은 횡주어골문, 점선문, 타래문, 사선문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²⁰⁾ 이러한 월곶동 주변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들은 월곶동에 본격적으로 사람들 삶의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신석기시대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청동기시대는 무문토기와 마제석기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청동기가 제작되는 시기로 정형화된 지석묘와 석관묘가 등장하고 농경을 생계경제로 삶을 영위한 시대이다. 경기도의 청동기시대 시기는 B.C.13~15세기에서 B.C.300년까지로 볼 수 있다.²¹⁾ 시흥시에 분포하는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지석묘유적들과 주거지 등이 분포되어 있다.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낮은 구릉지에 주거지나 지석묘를 조성하였다. 시흥시에서 지석묘가 조사된 유적은 계수동,²²⁾ 조남동,²³⁾ 금이동, 군자동 등에서 북방식과 남방식, 그리고 성혈이 발견되고 있다.

시흥의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능곡동, 정왕동, 계수동, 과림동, 군자동, 금이동, 논곡동, 매화동, 안현동, 조남동 등지에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무문토기, 마제석부, 반월형 석기 등이 수습되었다.²⁴⁾ 군자산 서쪽 구릉지대에서 민무늬토기 후기에 속하는 검

19) 任孝宰·朴淳發, 『烏耳島貝塚』, 서울대학교박물관, 1988.

20) 배기동, 선사유적과 유물, 시흥시사 1,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pp.342~352.

21) 주9 앞의 책, p.50.

22) 김병모·배기동·유태웅·신철호·방문규, 시흥시 계수동 지석묘, 시흥시·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pp.1~53

23) 김병모·배기동·김승·유태웅, 시흥시 조남동 지석묘, 한양대학교박물관·시흥시, 1999, pp.1~74.

24) 주10 앞의 책, pp.354~365.

은간토기편²⁵⁾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에 이어 기원전 4~3세기경 중국의 철기문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남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초기철기시대는 중국 동북지역에 자리 잡았던 연(燕)나라의 영향으로 주조철기가 보급되고 점토대토기, 세형동검, 적석목곽묘 등과 같은 새로운 문화가 유행한 시대이다. 초기철기시대는 청동기시대가 막을 내리는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에 서부터 한군현(漢郡縣)의 영향으로 단조철기가 대량으로 보급되는 본격적인 철기시대인 원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1세기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²⁶⁾ 야철 기술의 보급은 철제 농기구와 무기의 발전을 가져와 삼한이라 불리는 정치체제가 성립된다. 경기지역의 원삼국시대는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백제가 초기국가로 출현하는 기원후 3세기 중후반 무렵까지이다.²⁷⁾

시흥지역에서 이 시기의 유적이 발견된 예는 아직 없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도 상당한 인구가 이 지역에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취락 유적이나 분묘 유적들이 해안이나 강안의 평지, 넓고 낮은 구릉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시흥지역의 입지로 미루어 유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다. 향후 벌판을 끼고 있는 낮은 구릉지의 조사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나오는 마한 54국 중 시흥지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고구려는 건국초기 중국의 요동·요서지방과 부여지방으로 영토 확장에 주력하다가 4세기 초반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고 황해도 일원으로 진출한 이후 본격적인 남하를 실시하여 한강유역이 삼국의 쟁패지가 되었다. 광개토왕 1년(392년, 백제 진사왕8)에 고구려는 백제의 10성을 점령하고 396년에는 광개토왕이 백제를 정복하여 58성 700촌을 복속시켰다. 고구려 장수왕은 475년에 3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죽령, 조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시흥지역을 점령하여 장항구현(獐項口縣; 시흥시와 안산시), 매소홀현(買召忽縣; 시흥시와 인천광역시)을 설치하였다.

한반도 동남부에서 국가로 성장한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것은 진흥왕 때인 6세기 중엽이다.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은 나제동맹(羅濟同盟)을 맺고

25) 강대욱, 시흥시-역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585.

26) 주9 앞의 책, p.80.

27) 주9 앞의 책, p.84.

551년 복진을 시작하여 백제는 한성과 한강하류의 6군을 수복하고 신라는 죽령 이북의 한강상류 10군을 차지하였다. 757년(경덕왕16)에 지금의 시흥지역을 곡양현(穀壤縣 또는 穀梁縣), 장구군(獐口郡; 시흥시와 안산시), 소성현(邵城縣; 시흥시와 인천광역시)으로 개칭하였다.²⁸⁾

시흥의 군자봉에 위치한 군자산성지는 삼국시대 토기와 기와가 산포되어 있고 삼국시대에 한강유역과 남양만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지키는 요새지 역할을 하였다. 성지 둘레는 약 400m, 높이는 약 10m이다.²⁹⁾ 군자산에는 신라 경순왕의 사당이였다는 성황당지가 있다.

시흥시에 존재하는 고려시대 문화유적으로는 보물 1324호로 지정된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과 사적 413호로 지정된 시흥 방산동 청자·백자요지가 있다. 소래산 마애상은 소래산 중턱에 위치한 바위 암벽에 선각되어 있다. 시흥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는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사이에 인주이씨 가문과 관련된 호족세력에 의해서 운영되었을 것이다.³⁰⁾

조선시대 초 안산군은 경기도에 속하였다. 조선 후기의 행정구역으로 안산군의 군내면, 초산면, 내화면, 마유면, 대월면, 와리면과 인천부의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이 현재 시흥시와 관련된 지역이다.³¹⁾

시흥시는 조선시대까지 옛 안산과 인천에 속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에 속해 있던 황등천면, 전반면, 신현면은 부천군 소래면으로, 안산에 속해 있던 지역은 시흥군 군자면과 수암면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73년 부천군이 해체됨에 따라 소래면이 시흥군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고, 1989년에 소래읍과 군자면, 수암면이 통합되어 ‘시흥시’로 승격되었다.

28) <http://www.shculture.or.kr/>(시흥의 역사, 2015.12.23.)

29) 강대욱, 시흥시-군자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585.

30) 앞의 책

31)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 시흥시, 2007, p.25.

3. 마을의 지명유래와 변천사

1) 달월마을의 생활환경

예전에는 마을로 따지면 동네이름이 24동네 이상 되었다. 지금은 규모가 컸던 곳만을 따로 불러 달월 열두 동네라고 흔히 부른다. 상골, 궁골, 고잔, 독감말, 산밭이, 별가메, 통심이, 응고개, 벌말, 감고개, 우묵골, 대리골 전부 과거에 사람이 모여 살던 곳의 이름이다. 마을의 크기로 따지면 월동, 상곡, 고잔 순이었다.

본향산을 중심으로 산골짜기마다 가옥이 들어섰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서울 시내보다 사람이 더 많이 살았다고 할 정도로 달월마을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 그것은 인근에 있는 염전 덕분으로 염전에서 일하는 염부들과 그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상업적 발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달월 열두 동네만 알면 달월을 모르는 거야. 옛날에는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동네였어. 무슨 구대 하나만 있으면 ‘무슨 구대 산다’ 이러는 거야. 그렇게 부르다 동네 이름이 되는 거야. 사람이 찾기가 좋고 (동네 이름을) 붙이는 거야.”(남광현)

여름밤에 마당에 명석을 깔고 자며 더위를 이겨내고는 했다. 집이 있어도 오막살이집이라 좁고 여름이면 너무 더워 생겨난 달월의 피서 방법이었다. 마당 군데군데 모깃불을 피워놓으면 모기들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 가족들과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하룻밤을 보내면 다음날 아침이면 마당에 사람이 가득 찼다고 한다. 원래부터 자던 가족과 동네 이웃들에 등짐을 지고 소금을 사러온 장사꾼들, 일년을 두고 먹을 소금을 구매하려고 온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같이 하룻밤을 보낸 것이었다.

지금은 본향산과 인근 산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땔나무를 하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충분한 땔감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가 귀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난방과 취사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나무가 조금만 자라나도 다 베어가기 때문에 나무가 충분히 자라날 여건이 되지 않았다. 소나무 죽은 거 하나만 주워도 부자가 된 기분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 정도로 나무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면 무성하게 자라는 풀을 베어 가져갔다. 베어간 풀은 집에서 말려서 그것으로 불을 피워 밥을 해먹었다고 한다.

많은 달월마을 사람들은 염전에서 일했다. 염전일은 음력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시작해서 9개월가량 하였다. 겨울이면 땅이 얼고 일조량이 적어 일을 지속할 수 없었다. 염전일은 무척 고되고 어려운 일이었다.

염전과 수인선 철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의 소금과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염전이 없어진 지는 20년 정도 되었다. 인근에 염전이 있던 자리에 현재는 남동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 공업단지들이 형성되었다. 그와 더불어 달월마을에도 공장이나 창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소래염전이 있던 자리에는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염전이 없어지기 전까지 염전에서 일한 덕분에 달월마을에 정착한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잇고 자식들을 길러낼 수 있었다. 과거에는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에는 염전에 못 다니는 사람들은 제대로 끼니를 이어가기 힘들었다. 그 시절에는 끼니 때 밥만 먹어도 부자라고 하였다. 왜간장에 밥만 비벼 먹어도 행복하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밥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밥만 쌀밥으로 하고, 우리는 콩보리밥만 주는데 할아버지가 남겨. 보고 있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 일부러 남기시는 거야. 왜간장에 밥 비벼서 계란 하나 탁 깨뜨려봐 얼마나 맛있어. 지금은 그런 왜간장이 없단 말이지. 우린 왜간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절에 설탕간장이 최고지. 그것만 가지고 밥을 먹었는데.”(안종륜)

그때는 농사만으로는 가족 모두가 넉넉히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은 환갑을 넘기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60여 년 전에는 마을에 환갑을 넘기는 사람이 있으면 쌀을 걷어서 환갑잔치를 해주기도 하였다.

염전은 다른 의미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염전 주변에서 자라나는 염생식물은 봄에 일찍 자라나 씻어서 먹기도 하였다. 고추장 양념을 하여 비벼 먹으면 맛있었다고 한다. 또한 조금 더 자라나면 먹기에는 힘들고 말려서 땀감으로 활용하였다.

2) 달월마을의 지명유래 분류

2006년에 발간된 『시흥시 지명유래』의 월곶동 편³²⁾을 보면 달월마을의 총 78개 지명과

32) 시흥문화원, 『시흥시 지명유래』, 시흥시, 2006, 179~188쪽.

그 유래를 소개하고 있다. 달월 마을의 지명을 유래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유래가 여럿인 지명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기재하고, 유래가 불분명한 지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1) **자연환경 관련** : 고잔, 뱃말, 별말, 상골, 우묵골, 월동, 응고개(음고개), 조구나리(조구나루), 감투되산, 갯다리논, 게곶머리, 게밭산, 구루지들, 너멍골, 대리골(다래골), 대추마루, 돌고개, 미륵고개, 방고개, 부엉바위, 섬산, 송고지산, 수리미산, 여우골, 우묵골, 철남산, 쪽박산, 홍고개

(2) **인문환경 관련** : 구능뿌리, 궁골, 삼밭, 상골, 독가말(독가메), 이호정, 통심이, 노렵다리, 능고개, 본향산, 부처골, 불당교산, 사당터, 삼신우물터, 새방죽, 안방죽, 염병고개, 왜수골, 이문들, 찬우물, 큰빈장산, 하마터, 해초막터

(3) 새로 형성된 마을 : 별감(별가메), 새터(신기촌), 신촌

지형지물의 모양과 색을 묘사한 지명이나 인접한 자연물과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았다. 이중에서도 뱃말, 조구나리, 갯다리논, 게곶머리, 게밭산, 대리골, 미륵고개, 섬산, 별말 등 바다와 갯벌과 관련된 지명이 여럿이었다. 이러한 지명들은 과거 달월마을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고, 갯벌과 바다를 생활환경으로 삼아 사람들이 생활하였다는 증거이다. 과거의 지형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전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인문환경 관련 지명을 보면 과거 달월마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을 추측할 수 있다. 부처골, 불당교산, 사당터, 삼신우물터, 본향산이라는 지명에서 민간신앙과 종교의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의료시설이 넉넉지 않고, 끼니를 충분히 넘기기 힘든 상황에서 민간신앙과 종교의 중요성이 컸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능뿌리, 능고개, 하마터, 큰빈장산, 상골 등의 지명에서는 조상을 섬기는 것과 조상의 묘를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본향산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이며, 무덤이 여럿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호정, 삼신우물터, 찬우물 등의 지명에서는 생활을 위한 물을 구할 수 있는 우물의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별감, 새터, 신기촌 등의 지명에서는 달월마을이 조선시대와 근현대시기를 거치며 달월

마을에 인구가 늘고, 꾸준히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달월마을의 주요 지명

달월마을의 주요 지명을 기존 자료와 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³³⁾

① 고잔

쌍골 서쪽에 자리 잡은 마을로 마을이 내륙 쪽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고지의 안이란 뜻으로 ‘고잔’이라 부르고 있다. 고잔은 마을 서쪽 지역을 ‘웃말’, 동쪽 지역을 ‘아랫말’이라 각각 칭하고 있다. 이 마을에 처음으로 터를 잡기는 장씨로 알려졌으며, 그 후 안동김씨와 순흥안씨 등이 세거해왔다. 이곳에는 침지중추부사 안순·여주목사 안진·청주목사 안영남·창성부사 안근 등의 묘가 있다.

“그 전에 안동김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다가. 안동김씨가 궁골로 오는 바람에 여기는 덕수장씨가 들어왔어. 덕수장씨가 장곡에서 들어와서 살다가 떠나가 순흥안씨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순흥안씨가 지금까지 450년 동안 순흥안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만 해도 140가구가 살았어요.”(안종륜)

② 구능뿌리[뱃말]

구능뿌리 산중턱에 옛 능터가 있었으므로 ‘구능뿌리’라 칭하고 있다. 배가 들어오는 포구가 있다고 해서 뱃말이라고도 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고기잡이 배가 있었다고 한다.

③ 궁골

조선시대 내시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터를 잡은 마을이므로 ‘궁골’이라 부르고 있다.

33) 『시흥의 지명유래』(시흥문화원, 2006)에 언급된 월곶동 지명유래 중 주요 내용을 추리고, 2015년 필자 조사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시흥의 지명유래』 중 월곶동 지역은 2003년 7월~9월까지 김락기(당시 시흥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김영연(시흥시 향토사료실 전문위원), 심우일(교사), 김현진(인하대 사학과 대학원)이 조사정리하였다.

④ 벌말

이곳은 본래 넓은 벌판(갯벌)이었는데, 조선 말기에 이르러 경주최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아 촌락이 이루어졌다. 벌말은 범말로도 불리는데 남문현, 방연근의 증언에 따르면 자연을 굽던 벼(가마)이 있어서 벼말인데 벌말로 불린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자연이 성행하였다.

⑤ 별감·별가메

이 마을은 본래 삼밭이 딸린 마을로 세대수가 늘자 삼밭과는 별개의 마을이란 뜻으로 ‘별감’이라 칭하고 있다. 일설에는 궁골에 살던 하인들이 이곳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고 살았다 해서 별감이라 불리고 있다고 한다.

⑥ 삼밭(마전)

조선시대 밭에 삼을 많이 심었으므로 ‘삼밭’이라 부르고 있는데, 동쪽 지역을 ‘건너삼밭(바깥삼밭)’이라 칭하고, 서쪽 지역은 ‘안삼밭’이라 부른다.

“삼밭. 옷을 만드느 삼 있잖아. 그 삼이 여기에 옛날에 많았다. 나는 못 봤는데, 화전 불을 질러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 삼을 심은 거야. 그게 엄청 커진 거야. 그 삼을 내다 팔아서 연명을 했다. 그래서 거기가 삼밭이. 삼밭인데 삼밭이라고 쓰지.”(안종륜)

⑦ 상골

상곡마을이름의 유래가 명확하지 않다. ‘마을에서 상돌이 발견되었다.’는 유래와 ‘산골짜기 마을이다.’는 유래가 있다. 시외버스 종점과 방앗간이 있었다.

⑧ 새터·신기촌

이곳은 본래 농경지(밭)였다가 조선 말엽 인근의 사람들이 분가하면서 새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였다.

“새터는 왜냐하면 여기가 상곡이야. 궁골이야. 요 중간에 터를 잡았어. 사이에. 요 중간에 터를 잡았어. 사이에. 사이터인데 그래서 새터야. 상곡하고 궁골하고. 얼마 안됐어. 내가 어렸을 때 새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100년 조금 더 됐어. 제일 뒤에 생긴 동네.”(안종륜)

⑨ 신촌

별말 끝에 있는 마을로, 옛 소래염전 인부들이 모여면서 새로 생겼다고 한다.

⑩ 우묵골

응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로 삼태기처럼 우묵한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⑪ 월동[독가메]

상골 동쪽으로 수리미산 밑(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전주이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마을이다. 광복 이전에는 월동과 월서 사람들이 매년 줄다리기를 실시하여 마을의 단합을 다지기도 하였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독을 굽는 가마가 있었으므로 일명 ‘독감말’ 또는 ‘독가메’라 부르기도 하였다.

월서천 서쪽에 있는 응고개·상골·궁골·고잔·조구나리 등의 여러 지역은 서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월서리’라 하였고, 동쪽에 있는 독가말·통심·마전·별말 등의 여러 지역은 동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월동리’라 하였다. 월동이란 마을 명칭은 월동리의 여러 마을 중 가장 먼저 취락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수 또한 가장 크므로 붙여진 것으로 수리미산 밑에 있는 마을은 ‘웃말’, 서쪽에 있는 마을은 ‘아랫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경주최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⑫ 이호정

고잔 서남쪽으로 옛 수인선 달월역이 있던 마을로 본래는 가옥 2채와 우물이 있어 ‘이호정’이라 칭했다. 그 후 일제 말엽에 폐동되고 그곳이 농경지로 변모되었다가, 1960년대 달월 간이역이 생기면서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⑬ 조구나리·조구나루

조선시대 배가 이곳까지 들어왔을 때, 조기를 가득 실은 배가 이 마을에 들어왔다 해서 ‘조기나리’로 불리다가 ‘조구나리’가 되었다는 설과, 만조 때 물이 차야지만 배가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조고나루’로 불리다가 ‘조구나리’가 되었다는 설이 알려져 있다.

“염전 가까이 있던 마을로 과거에 포구가 있던 곳이야. 조깃배가 들어왔다고 해서 조기나루라고 한다.”(민병섭)

“여기까지 내려가면 여기 상곡 지나서 고잔 앞에 뱃말이라고 있어. 구능뿌리가 뱃말이야. 여기가 구능뿌리야. 여기까지 배덕이 있었어. 여기 배를 묶어놓고 일을 보고 물이 들어오면 또 배를 타고 나가고 그랬다는 거지. 조구나리가 아니고 조고나루. 물이 들어와야만 여기서 배를 탈 수 있었어. 만조 그때가 되어야 배가 나갈 수 있어. 물이 찼을 때만 배를 댈 수 있다. 그래서 조고나루.”(안종륜)

⑭ 통심

이곳은 본래 밭이었다가 조선 현종 때 최의환이란 이가 살았다. 그 후 자손을 분가시키면서 인근에 거주케 하여 취락이 형성되었다. 최의환의 집이 월동과 마전 사이에 마음을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여 ‘통심’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통심’을 ‘통심이’·‘통시미’라 부르기도 한다.

⑮ 대리골·다래골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곳까지 배가 닿았기 때문에 ‘다리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⑯ 미륵고개

조선시대 서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곳의 지대가 높아 배가 왕래하자면 밀어야 했다고 해서 ‘미력고개’로 불리다가 ‘미륵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바닷물이 마전저수지까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기가 미륵고개가 있어. 미륵이라고 하는데 미력이야.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사리 때는 들어오지만 조금 때는 여기까지 안 들어와 조금 때는 여기까지 들어와. 사리가 되면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사리 때 배를 타고 여기를 오면 물이 쪽 빠진 다음에는 조금 때는 여기 들어온 배가 나갈 수가 없어. 뱀에 떠 있는 거야. 그런데 미력 작은 힘으로 밀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야. 여기가 비탈이니까.”(안종륜)

⑰ 섬산

상골 북쪽으로 농경지 가운데에 있다. 산이 마치 섬처럼 생겼는데, 구전에 따르면 떠내려 온 산이라고 한다. 다른 유래로는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섬이었다가 물이 빠지면 산

이 된다고 해서 섬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오래된 유골과 낡은 식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여기 섬산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한 90가까이 되는 분들의 얘기가. 그 섬산에서 해골하고 식기 밥을 먹는 식기, 반찬그릇, 숟가락 이런 거를 섬산에서 봤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그럼 뭐하는데 거기 해골이 있었나.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년전 가까이 거기에 물이 들어왔는데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물이 들어오면 거기 섬산에 물이 잠겨서 바다 위의 산이 블록된 것처럼 돼서 거기를 들어갈 수도 없고 물이 나가면 거기가 다 빨이었기 때문에 환자는 못나갔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나룻배 같은 것으로다가 늙은이들을 실어다 거기다 고려장을 지낸 게 아닌가. 먹을 거, 이불 덮고 잘 거, 또 식기 몇 개, 숟가락 해가지고 사람이 한 옛날에는 80만 넘으면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보면은 환갑을 못 넘겼으니 단명을 했기 때문에 노망을 떨거나 빨리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 그런 분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놓고 먹을 거 갖다가 놓고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유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90가까이 된 사람들의 증언이야. 들은 이야기야. 순전히 구전이지. 과학적인 건 없는데 유골을 봤다는 거야. 섬산이 최근에는 물이 빠져가지고 바닷물이 안 들어오고 거기가 농토가 되었어.”(안종륜)

⑱ 하마터

본향산 북쪽 끝으로 고잔 진입 중간에 위치해 있다. 조선시대 순흥안씨 후손 중에 높은 관직을 역임하고 낙향하여 고잔에 살자, 인근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로는 말을 타고 오다 보면 하마터 인근에서 말이 멈추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말을 끌고 지나갔다고 하여 하마터란 지명이 생겼다고도 한다.

⑲ 달월교회

달월교회는 63년의 역사를 가졌다. 교회가 유치원 역할을 하였다. 달월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교회에 맡겨두고 일을 하러 다녔다. 교회에 스피커가 있었다. 주요 농사일을 하는 날짜가 정해지면 ‘금일 누구네 모내기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교회에서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현재 교회건물은 1972년도에 지은 것이다. 그때 달월동네 사람들이 와서 일을 도

와주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와서 일을 도왔다. 남자들은 주요 작업을 맡아하고, 여자들은 산에서 자갈을 모아 광주리로 지고 날랐다고 한다. 교회 광장에서 마을 운동회를 한 적도 있다.

㉔ 수인선 달월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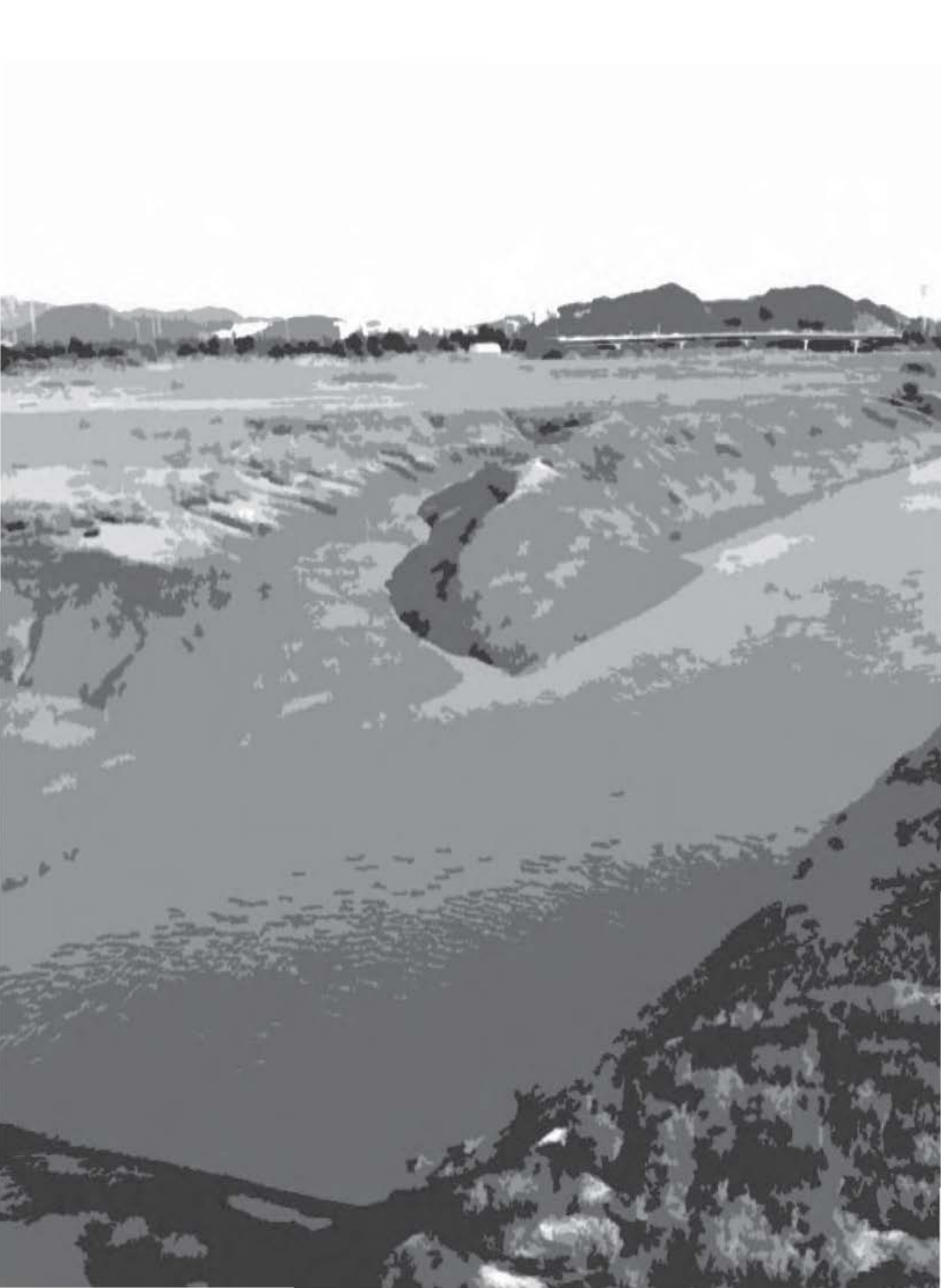
수인선 달월역전이 이호정 쪽에 있었다. 손님으로 장사꾼들이 많았다. 수인선 열차는 두 칸으로 차는 좁은데 손님이 많아 다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원에서부터 원곡, 군자 등지로 열차가 오면 이미 열차는 꽉 차있었다고 한다. 사람이 많을 때는 열차 실내에 타지 못하고 열차 지붕에 올라타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 짐만 실내에 넣어두고 지붕에 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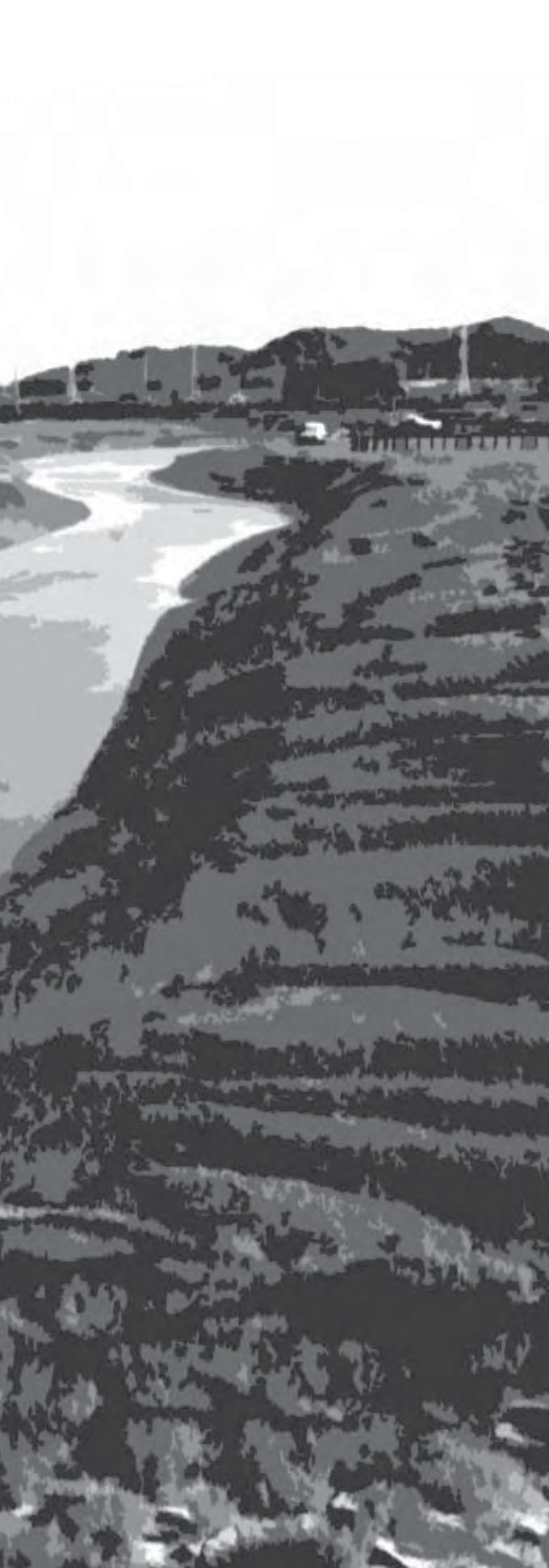
예전에는 장사하려고 인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달월역은 인천으로 넘어가는 막바지 역 중의 하나였는데, 이전 역에서 손님들이 타고 나면 빈자리가 없을 때가 허다했다고 한다. 그래서 역을 관리하는 남자들이 실내에 짐만 작대기로 밀어 넣고, 사람은 지붕에 타게 했다고 한다.

차량 관리하는 사람이 달월마을의 순흥안씨라 달월사람들 다 타야 열차를 출발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밀어넣어도 다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달월 사람들이 극성맞다고 욕하기도 했다. “달월년들 또 왔다”라는 말로 수근거렸다고 한다.

그 만큼 예전에는 달월마을에서 인천으로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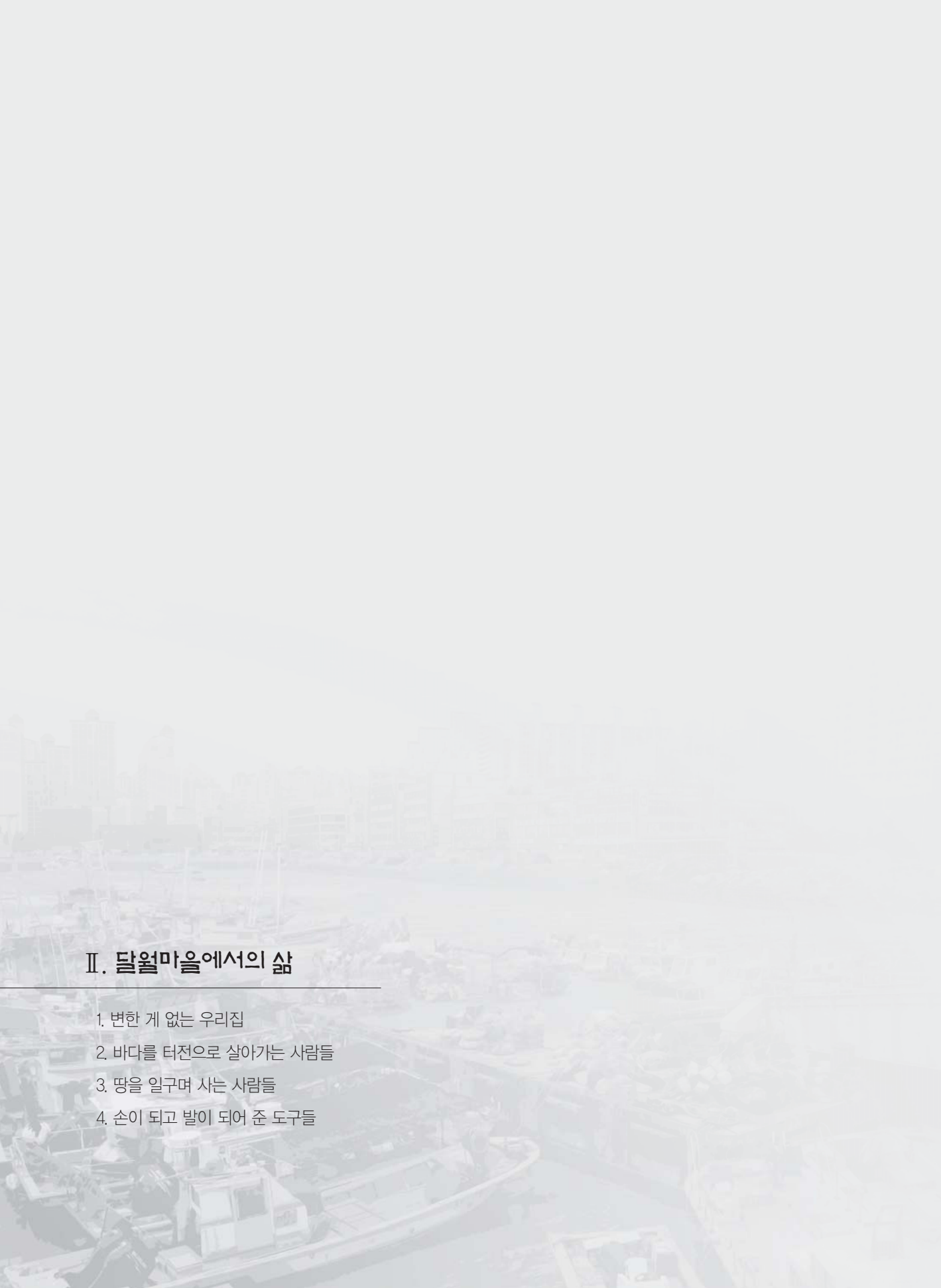
수인선 달월역은 인천 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달월 학생들의 통학수단이기도 했다. 간혹 열차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늦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달월 학생들은 열차를 열심히 뒤쫓아 가서 달리는 열차에 재빨리 올라타곤 했다고 한다. 그러면 학생이 아침부터 책가방을 메고 뛰니까 열차 운전수가 보고 속도를 줄이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조고나리 넘어가는 쪽이 약간 언덕이 저 있어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드는데 그때 재빨리 올라타기도 했다.





Ⅱ

달월 마을에서의 삶



Ⅱ. 달월마을에서의 삶

1. 변한 게 없는 우리집
2.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3. 땅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
4.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준 도구들

Ⅱ. 달월마을에서의 삶

수인선을 타고 달월역에 내려 2차선 도로를 걷다 보면 전방으로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우측으로 월곶마을이 위치한다. 마을에 들어서기 전 바깥쪽에서 마을을 바라보니 마치 고속도로가 마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본격적으로 마을에 들어서면 제일 처음 눈에 띄는 것들이 수많은 공장들이며 조금 더 걷다보면 하나 둘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보인다. 마을 내부에서의 전체적인 가옥 배치를 살펴보면 마을에 들어선 공장들이 가옥을 둘러싼 형태다.

월곶마을은 약 10여 년 전부터 외부로부터 공장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마을주민들이 거처하는 주거용도의 공간보다 공장 부지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마을주민들은 크고 작은 불만을 토로한다. 마을에 공장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 공기가 나빠지고 외지인들의 유입이 많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수 또한 증가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는 마을주민들에게 향후 마을공동체의 존속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월곶마을은 도심 근교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에 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수인선 개통, 아파트 건설 등 도시화의 흐름에 맞물려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주생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이나 지리적·환경적으로 도심과 인접해 있어 농촌과 도시의 중간지점에 있는 독특한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월곶마을은 주변의 개발과 맞물려 마을에 위치한 공장지대들이 점차 마을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 내부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이 공장지대에 갇혀있는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도시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에 처해있는 월곶마을에서 옛 가옥의 주거공간을 현재까지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옥을 중심으로 가옥의 공간구성 및 공간이용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주생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변한 게 없는 우리 집

월곶마을의 가옥은 크게 양옥과 오래된 단층 가옥으로 구분된다. 월곶마을의 가옥도 여느 마을과 다름없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지붕개량 및 초가집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양옥은 1990년대 들어 지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단층 및 2,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옥은 도심근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화된 가옥이라 볼 수 있다. 신축된 양옥들에 비해 전통가옥들은 지붕 개량 및 입식화 정도의 개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주거 공간 및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다.

1) 안종효, 이○○의 집

*안종효(남 65세 월곶3통 거주)

이○○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서 태어나 1979년도에 월곶3통으로 시집온 뒤 현재까지 이곳에 살고 있다. 시집을 당시 가족 구성원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전부였으며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누이 2명은 출가한 뒤였다. 이후 아들 2명을 출산하여 5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한다. 시집을 당시 마을에는 포도밭과 복숭아밭이 많아 과수원 일을 하면서 가정 경제에 힘을 보탰고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농사일이 없는 겨울철에는 공장에 나가 일을 했다고 한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출가하고 시어머니가 2003년도에 사망함에 따라 현재는 안종효, 이○○ 부부 내외만이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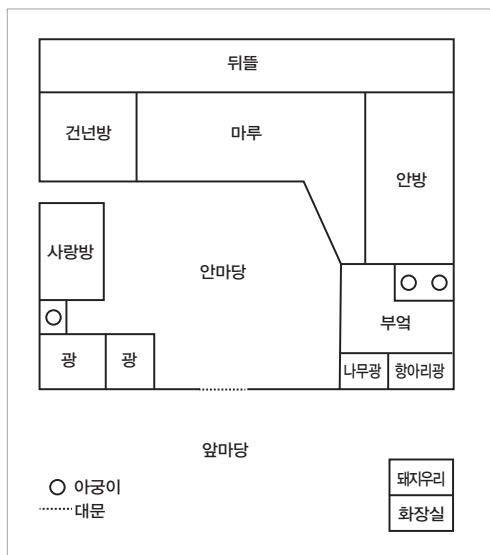
이 가옥은 일제강점기에 시아버지가 지은 집으로 이○○이 혼인한 이후부터 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의 남편인 안종효 씨에 따르면 부친이 처음 집을 지었을 당시에는 현재 모습과는 다르게 기와를 올린 ‘ㄱ자형’의 안채와 초가였던 ‘ㄴ자형’의 사랑채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안종효 씨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와 같은 가옥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하며, 안채를 먼저 짓고 후에 사랑채를 지었다는 얘기를 부친으로부터 들었

다고 했다. 따라서 집을 지은 지는 최소 70년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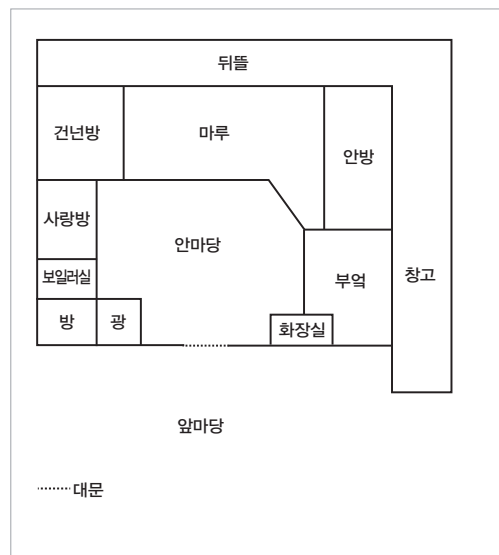
1972년도에는 집의 개축이 있었는데 이때 사랑채와 안채를 이으면서 초가였던 사랑채 건물의 지붕을 기와로 교체했으며 사랑채 쪽의 서까래 일부를 새로 교체했다고 한다. 이후 10여 년 전에 안마당에 햇빛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옥의 내부를 입식 형태로 바꾼 것이 집 수리의 전부이다.

“안 고쳤어 그대로야. 안에 화장실이랑 입식으로 고친 거지. 모양은 다 그대로야. 사랑채랑 안채랑 이으면서 지붕 바꾸고 한 게 72년도고. 그리고 나서 입식으로 고친 것도 편안하게 지내자 해서 고친 게 한 10년은 된 거지.(이 집은 처음에 누가 지으신 거예요?) 아버님. 이 집이 왜정시대 때 지었다고 하니까 이 동네에서도 오래됐지. 우리 집 대청마루도 다 예전 그대로 있어.”

현재 이○○의 가옥은 집의 개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처음 시아버지가 집을 지었을 당시의 뼈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는 마루에서 보이는 대들보와 서까래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개조 후 지붕은 현대기와로 교체되었으며 벽체는 시멘트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의 가옥은 ‘ㄱ자형’의 가옥 형태를 띠며, 중앙의 안마당을 끼고 크게 살림채와 창고로 구분되어 있다.



안종호, 이○○ 가옥 개조 전 평면도



안종호, 이○○ 가옥 개조 후 평면도

(1) 안방

이〇〇이 시집을 당시 안방은 시어머니가 거처하고 있었다. 안방은 시어머니의 취침 공간이자 가족들의 식사 공간이기도 했다. 또한 집안에 손님들이 방문할 경우 여성 손님에 국한하여 안방에서 맞이하였는데 당시 집에 자주 방문하던 시고모와 시이모가 시어머니와 함께 안방에 머무르며 생활했다고 한다.

이후 입식 시설을 갖추면서 시어머니로부터 안방을 양도받아 제보자 부부 내외가 안방에 거처하게 되었다. 현재 안방은 제보자 부부의 일상생활공간이자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처음에 내가 여기 시집왔을 때는 안방도 어머니가 살았는데 입식으로 꾸미면서 부엌이 가까우니까 네가 안방을 써야 한다고 해서 내가 안방을 쓰게 된 거지. 우리 어머니 사실 때는 우리 집에 시고모님이랑 시이모님이 자주 오셨어 우리 집에. 그래서 오시면 세 분이서 안방에 계시고 때 되면 밥 차려 드리고 그랬어.”

(2) 사랑방

대문을 통과하여 앞마당의 좌측에 위치한 공간을 제보자는 사랑방이라 지칭한다. 이 공간은 제보자가 혼인하여 집의 개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머물렀던 공간으로 개조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가 생활하였다.

현재 사랑방은 평소에는 옷가지, 살림살이 등을 보관해두는 장소로 사용되다가 명절 또는 제사와 같은 집안 행사가 있을 때에는 외지에 있는 자녀가 방문하여 머무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3) 건넌방

안방의 맞은편에 위치한 작은방을 제보자는 건넌방이라 지칭한다. 이 공간은 제보자의 두 아들이 출가하기 전까지 생활하던 공간이자 집안에 손님들이 방문할 시 손님들의 거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부터는 비어있는 상태로 가끔 외지에 있는 아들 내외 부부

가 방문할 시 사용하고 있다.

(4) 마루

안마당을 통과하여 집안 내부로 들어서면 좌우로 건넌방과 안방을 끼고 있는 중앙의 공간을 마루(대청마루)라 지칭한다. 부엌의 입식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름철이 되면 이곳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식사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부엌의 입식화로 평상시 이곳은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는 등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며 명절 차례 또는 조상 제사 등을 지내는 의례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5) 부엌

부엌은 안방과 직선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시집을 당시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어 안방에 불을 때고 솥을 걸어 밥을 지었다. 이곳에는 가족들의 식사 준비뿐 아니라 식수를 보관하고 각종 조리 도구 및 부엌살림을 보관해두었다. 개조 후 입식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어, 부엌에 설치된 아궁이를 제거하고 싱크대를 설치하였으며 부엌 한켠에 욕실 공간을 갖추게 되었다.

개조 전에는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시어머니가 머물던 안방에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였던 반면에 개조 후 입식화되면서부터 부엌은 단순히 음식의 조리뿐 아니라 가족들의 식사공간이 되었다.

(6) 광

대문을 통과하여 좌측으로 위치한 광은 예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곡식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다. 제보자 이○○이 시집을 당시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이○○은 시어머니와 조그만 논밭을 사들여 벼와 고추, 깨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가정에서 먹을 만큼의 농사는 직접 지었으므로 한 해 수확된 농작물을 광에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했다. 현재 광과 보일러실 사이에 위치한 방은 이전에는 광이었으나 개조 후 방으로 바뀌었고 평상시 다용도실로 사용되지만 집안에 손님들이 올 시에는 손님방으로도 활용된다. 이외에도 개조 전 가옥의 우측에는 광이 있었고 이를 각각 나무광과 항아리광

이라고 지칭하였으나 개조하는 과정에서 광을 없애고 그 자리에 부엌과 욕실을 설치했다.

(7) 기타 공간[마당(안마당, 앞마당), 창고]

앞마당을 지나 대문을 들어서면 중앙에 안마당 공간이 있고, 이곳을 둘러싸고 살림채가 배치된 구조를 띤다. 앞마당은 살림채 밖에 있는 외부 공간으로 평상시에는 곡식을 넣어 두고 건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나 집안에 가족들이 방문할 시에는 주차장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살림채 내에 위치한 안마당의 경우 가옥의 개조 전에는 이곳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의 목욕 공간이자 빨래터로 사용되었다. 또한 김장할 때 배추를 씻고 재료를 다듬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한다. 당시 안마당의 경우 지붕이 없어 눈이나 비, 햇볕 등이 그대로 집안에 들어와 집수리를 하면서 햇빛 가림막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개조 후에는 부엌을 입식형태로 바꾸면서 안마당에 설치된 수도를 없앴다. 현재는 이곳에 생활용품을 보관해두고 있다.

개조 전 돼지우리가 있던 자리를 허물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는 비로부터 곡식물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고추, 고춧가루 등을 보관한다. 이외에도 창고는 뒤뜰로 이어지는 유일한 공간이며 농사 일에 사용하는 부피가 작은 농기구나 연장, 살림살이 등을 보관해두고 있다.



안중호, 이OO 가옥 전경



햇빛 가림막을 설치한 안마당



안마당에서 바라본 안채 입구



마루



마루 천장(대들보와 서까래)



부엌(우측 : 화장실 입구)



앞마당에서 바라본 창고 입구



앞마당 전경

2) 장숙자의 집

* 장숙자(여, 75세, 월곶3통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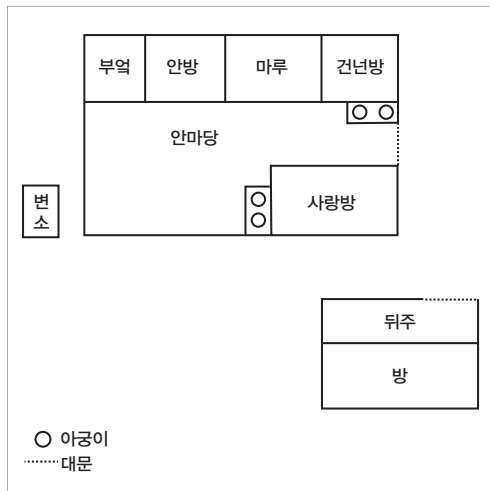
장숙자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서 태어나 23세 때 월곶마을로 시집온 뒤 현재까지 이곳에 살고 있다. 시집을 당시 가족 구성원은 시증조모와 시부모, 남편이 전부였으며 이후 4남매를 출산하였다고 한다. 시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당시 논을 8,000~10,00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며 이곳에서 벼·보리·고추 등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시집을 당 시에도 마을에서 보기 드문 기와집이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천석꾼 집으로 불렸다고 한다. 또한 머슴 2명과 식모 1명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었다.

장숙자의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금바우택으로 불리었으며 골수암을 앓다가 196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장숙자는 40세 즈음 되었을 때 교회에 다니면 골수암을 앓던 시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동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시증조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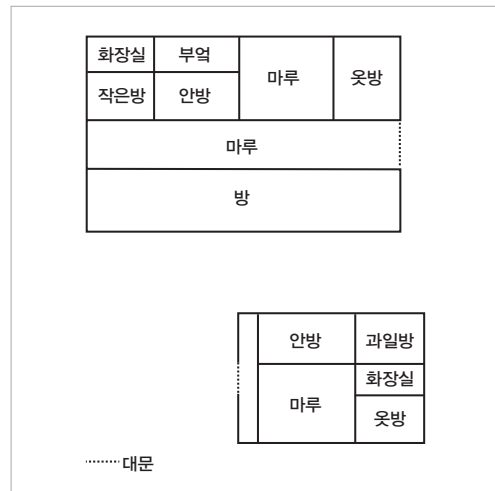
이 가옥은 장숙자가 혼인한 이후부터 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크게 ‘ㅁ자형’의 안채와 아래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의 건립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장숙자의 시할아버지가 이 집에 살았었다는 증언으로 추정하건대 집을 지은 지는 최소 100년 이상 되었을 것이다. 시집 올 당시 안채에는 시증조모, 시부모, 제보자 부부 내외가 거주하였고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서 함께 머물렀다. 아래채는 수확한 곡식을 보관하는 뒤횥과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머슴 2명이 거주하였다. 당시 가족들의 거주공간인 안채의 지붕 형태는 기와였으며 곡식 보관창고로서의 공간인 아래채는 벧짚을 이어 만든 초가 형태였으나 후에 슬레이트로 교체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집을 개조하였는데 이때 안채의 내부를 입식 형태로 바꾸었으며 아래채 역시 슬레이트 지붕을 기와로 교체하였고 내부 공간 역시 뒤횥을 없애고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때 안채 공간에서 식당 운영을 겸하기도 하였으나 19년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식당일을 접었다고 한다.

현재 제보자 장숙자는 홀로 아래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안채에는 딸과 사위 내외가 거주하고 있다.



장숙자 가옥 개조 전 평면도



장숙자 가옥 개조 후 평면도

(1) 안채

① 안방

장숙자가 시집 왔을 당시 안방은 부부 내외의 침실 공간이자 가족들의 식사공간이었다. 이는 안방이 부엌 옆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밥을 지어 상차림을 하는 데 가장 수월한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조 후에도 부엌과 안방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방은 제보자가 자녀들을 출산한 공간이자 유년기까지 함께 거처한 공간이기도 하다.

안방은 평상시에는 부부 내지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으나 집안에 상이 났을 시에는 빈소를 차려두는 상례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 실제로 제보자 장숙자의 시증조모와 시어머니가 사망했을 시에도 이곳에 빈소를 마련했다고 한다.

개조 후에는 안채 공간을 제보자의 딸 내외 부부가 사용함에 따라 이곳은 딸 내외의 취침공간이자 일상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② 사랑방

개조 전 가옥의 평면도에서 대문을 통과하여 좌측에 위치한 공간을 사랑방이라 지칭한다. 이 공간은 제보자가 혼인하여 집의 개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아버지가 머물렀던 공간이었다. 개조 후에는 안마당이 있었던 공간을 입식형태로 고치게 됨에 따라 사랑방이 있던 공간을 확장하여 방으로 만들었다. 현재 이 공간에는 옷가지, 살림살이 등을 보관해 두기도 하고 집안에 가족들이 모일 때 머무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③ 건넌방

개조 전 가옥의 평면도에서 대문을 통과하여 우측에 위치한 공간을 건넌방이라 지칭한다. 이 공간은 제보자가 시집 왔을 당시 시증조모와 시어머니가 함께 거처하던 공간이었다. 이처럼 건넌방은 집안의 두 여성 어른이 사시사철 거처하던 공간이므로 항상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난방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따라서 안마당에서 건넌방 쪽으로 불을 지필 수 있는 아궁이를 설치해두었다. 또한 이 공간은 집안에 여성 손님들이 방문할 시 손님들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후 집의 개조에 따라 건넌방이 지금의 옷방이 되었는데 이곳에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두 아들이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주말이 되어 집에 오면 머물던 공간으로 사용되었

다. 현재는 옷가지들을 걸어두고 보관하고 있어 옷방이라 지칭한다.

④ 마루

대문을 통과하여 안마당으로 들어서면 좌우로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위치한 공간을 마루라 지칭한다. 이곳은 때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의 식사공간이 되기도 하고 휴식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손님이 방문했을 시에는 접대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마루는 명절 차례나 조상 제사 등을 지내는 의례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보자 장숙자의 경우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면서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차례나 제사 등의 제례를 올릴 때에는 추도식의 형태로 지낸다고 한다. 이때에는 간단한 제물로 과일과 다과, 떡 정도를 준비하여 마루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외에도 정월 보름날이 되기 전에 하루 날을 잡아 마루에서 본향산 쪽을 향하여 돼지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냈다.

“(제사는 어디에서 지내셨어요?) 마루에서 지냈지. 마루에서 제사 지내고 또 정월 보름 되기 전에는 본향산 쪽으로 마루에다가 돼지대가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냈어. 그건 나 시집 오기 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안 하지만 예전에 나 시집왔을 때부터 하고 있었어.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것도 나 시집오고 계속 하다가 시어머니 아프시면서 내가 교회 나가고 하면서부터 안 했지.”

또한 실제로 집안의 두 여성 어른인 시증조모와 시어머니가 사망했을 시에는 빈소를 안방에 마련해두고 이곳 마루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조문객들을 대접했다고 한다. 당시 장례 절차 또한 목사님의 주도 아래 교회식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이후에 사망한 시아버지의 경우 집이 아닌 병원에서 장례를 치렀다.

이처럼 마루는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생활공간인 동시에 집을 방문한 외부인에게도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공간이었으며 제례와 상례 등의 의례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뒀안

제보자 장숙자의 시어머니는 골수암을 앓다가 사망했다. 장숙자가 40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 시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에 나가기 전까지 그녀는 매해 가을마다 추수한 햇곡을 가지고 뒀안에 모셔둔 터주 거리에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때에는 주로 햇곡으로 지은 떡을 만들어 올렸으며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다.

“뒀안에는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더라고. 그걸 뭐라고 하나. (터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 맞아. 터주거리. 뒀안에다가 요래 해가지고 가을이면 추수하잖아. 햇곡으로 거기 고사 지내고. 건강하고 복 들어오라고 한다고 했어.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거 나 시집오고도 계속 하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골수암에 걸리셔서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교회 다니면 우리 시어머니 치료도 된다 해서 교회에 다녔거든. 내가 한 40살 정도까 지 했던 거 같아. 교회 다니고 하면서부터는 안 했어.”

⑥ 아래채

개조 전 가옥의 평면도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채는 뒀주와 방 1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보자 장숙자가 시집오기 전부터 동네에서 천석꾼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아래채의 용도가 거주에 비중을 둔 공간이라기보다 창고의 기능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실제로 아래채가 가족들이 거주하였던 공간이 아닌 당시 집의 농사일을 도와주던 머슴 두 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개조 후 가옥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이전의 공간 구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공간이 갖는 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개조 전에는 거주 공간보다는 곡식 보관창고인 뒀주로서의 기능에 비중을 두고



장숙자 가옥 전경(좌측:아래채, 우측:안채)



안채 전경



아래채 전경

있었던 반면에 개조 후에는 뒤주를 없애고 살림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였다. 현재 아래채는 방과 마루, 화장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됨으로써 제보자 장숙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

아래채의 지붕 재료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가에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기와이다.

3) 이필희의 집

* 이필희(여, 89세, 월곶2통 거주)



제보자 이필희 할머니

이필희는 17살에 월곶마을로 시집온 뒤 현재까지 월곶2통에 살고 있다. 이필희의 친정은 수원시(현재의 화성시)로 선달에 혼례를 올리고 월곶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시 남편의 나이는 19살이었다. 남편과는 이필희 작은아버지의 소개로 중매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필희의 말에 따르면 당시 작은아버지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분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곳 월곶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를 이필희의 부친이 찾아 작은어머니를 데려와서 함께 이곳에서 살게 하였다. 동네에 정착하여 살자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작은아버지에게 혼사를 부탁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카딸이었던 이필희에게 중매가 들어와 혼인하여 정착하면서 현재까지 월곶마을에 살게 된 것이다.

시집을 당시의 가족 구성원으로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3명(아들 2명, 딸 1명), 그리고 이필희 부부 네외가 있었다. 당시 이필희가 시집왔을 무렵 막내 시동생의 나이가 6살이었다. 시집온 뒤 5년 뒤쯤 시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 이필희 부부 네외가 어린 시동생들을 키워 학교에 보내고 집을 마련하여 시집, 장가를 보냈다고 한다. 19살 때 첫 출산을 시작으로 8남매를 낳았으나 큰아들이 7살쯤 되었을 무렵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하나둘씩 출가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현재는 제보자 이필희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시집왔을 당시 시댁에서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특히 수익성이 높은 고추 농사를 많이 지어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수인선을 타고 고추를 싣고 가 팔았다고 한다. 현재는 제보자가 고령이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벼농사는 임대를 줘서 짓고 있다. 이외에 배추나 고구마, 콩 등도 조금씩 짓고 있는데 이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자식과 손주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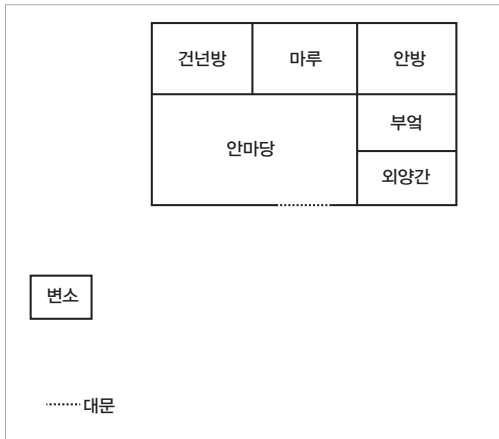
게 나누어 주는 등 가정 내 소비를 위한 목적이다.

현재 가옥은 이필희가 시집왔을 당시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집터는 변함이 없다. 더군다나 시아버지의 경우 현재 집터에 집을 짓고 살아온 월곶마을의 토박이라는 점과 이필희의 현재 나이와 혼인 당시 나이로만 보아도 이 터에서 집을 짓고 살아온 세월이 최소 100년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필희의 기억에 의존하여 가옥의 모습을 재구성해보면 현재 모습과는 다르게 초가 형태의 ‘ㄱ자형’의 가옥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왼쪽부터 차례로 건넌방(건방)과 마루, 안방이 ‘ㄱ자’로 배치되어 있었고 안방에서 다시 아래로 부엌과 외양간이 달려 있어 크게 ‘ㄱ자형’의 가옥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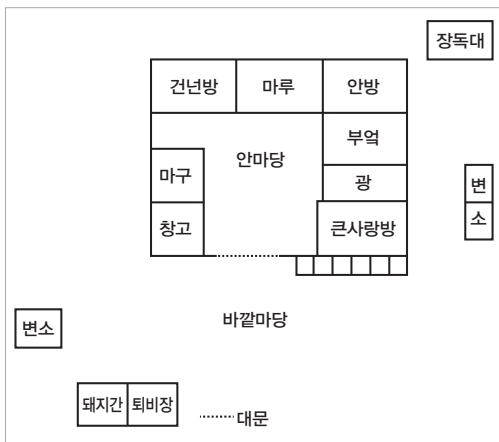
혼인 후 3년쯤 지났을 무렵 가옥의 증축이 있었는데 당시 이필희의 친정아버지가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와보니 집이 너무 낡고 누추하다 하여 집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목수였던 이필희의 부친은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직접 증축하여 ‘ㄷ자형’의 가옥으로 넓혀주었는데 이후 마을사람들 사이에 ‘큰 대문 집’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딸의 집을 잘 지어준 덕에 월곶마을 내에서도 부친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 이를 계기로 동네의 집들을 여러 채 지어주기 시작했는데, 당시 월곶마을에 살고 있던 작은아버지의 집부터 현재 궁골이라 불리는 마을의 조씨들의 집까지 지어주었다고 한다. 제보자가 시집오고 나서 가옥을 증축하여 넓히고 시댁 살림이 더 나아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복덩이’라고 불렸다.

“나 시집오고 나서 몇 해만에 한 삼 년 만에 와서 집을 지어주셨지. 안방, 건방, 마루 있고 부엌이랑 외양간 조그맣게 있었거든. 처음에 오니까 집이 찌끄맣고 소만 먹여서 외양간만 있었어. 찌끄맣니까 너무 척박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오서설랑 방도 늘려주시고 안방도 크게 늘려주고 마루, 안채도 다 늘리구 행랑채, 큰사랑방 해주구 그리구 대문 크게 달아주구 그래서 이름이 큰대문집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여기 집 많이 지었어. 집 잘 짓는다고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구. 우리 작은아버지 집도 지어주고 저 너머 궁골이라는데 조씨네 집, 조서방네 라는 집들을 많이 지으셨어. 우리집도 그전에 지어주셨는데 지금은 헐었지. 나 시집와서 부터는 집도 늘리구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복덩어리라고 그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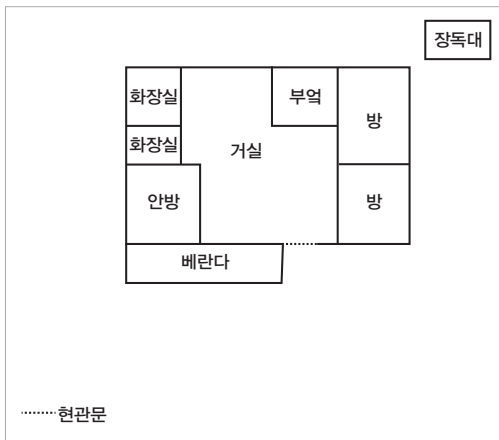
이렇게 증축된 가옥은 크게 ‘ㄷ자형’으로 건넌방과 마루, 안방, 부엌, 광, 큰사랑방, 마구,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보자 이필희는 ‘ㄷ자형’의 가옥 공간을 다시 안채, 사랑채, 행랑채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안방, 마루, 부엌, 광이 안채에 해당하며, 큰사랑방은 사랑채, 건넌방과 마구, 창고는 행랑채로 구분되었다. 이외에 대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



이필희 가옥 개조 전 평면도(혼인 직후)



이필희 가옥 개조 후 평면도



이필희 가옥 현재 평면도

면 변소가 있었고 그 위로 돼지간과 퇴비장이 있었다.

현재 이필희가 살고 있는 가옥은 신축한 지 10여 년 정도 되었으며 집터는 역시 변함이 없다. 신축하면서 벽체는 방화와 보온에 강한 벽돌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판넬을 사용했다. 가옥은 크게 ‘ㄱ자형’의 가옥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의 내부 공간으로는 방 3개와 화장실 2개, 부엌 겸 거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내부는 입식시설을 갖추어 생활하는 데 편리함을 도모했다. 신축하면서 집 밖에 있던 변소와 돼지간, 퇴비장 등의 공간을 없애고 현재는 넓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1) 안방

이필희가 시집을 당시 가옥에서 안방은 시부모님이 거처하는 공간이자 가족들의 식사공간이었다. 이 역시 공간배치로 살펴볼 때 안방이 부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밥을 짓고 상을 차려 가족들이 식사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안방은 제보자가 자녀들을 출산한 공간이었다고 하며 당시 출산을 도와준 사람도 시어머니였다고 한다. 이렇게 제보자가 자녀를 출산하면서부터 시부모님에게 안방을 물려받았고 이후 제보자 부부 내외가 안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개조 후의 가옥에서 안방 공간은 시부모님이 사용하였는데 이후 제보자가 임신을 함에 따라 다시 안방을 물려받고 시부모님이 건넌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에도 안방은 출산의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제보자의 경우 7남매 모두 시어머니가 직접 산파 역할을 했다. 출산하였다고 하여 따로 삼신을 위하지는 않았으나 백일이나 돌이 되었을 때는 안방에 밥과 떡을 하여 상을 차려두었다고 한다. 백일 때는 백설기를 찢으며 돌 때는 백설기와 팔떡, 송편 등을 함께 준비했다. 이날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안방과 마루에 상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맞이하여 아이의 탄생을 축하받고 그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였다.

개조 후에도 안방은 가족들의 식사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상차림은 가족이라고 하여 겸상을 차리지 않았으며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여 상을 차렸다고 한다. 따라서 시부모님 상을 따로 차리고 남편이 먹을 상을 차렸으며 마지막으로 아이들 상을 차렸다고 한다. 당시 제보자의 밥은 상에 차리지 않았으며 바닥에 두고 끼니를 대충 해결했다고 한다.

“안방에서 다 같이 밥을 먹었어. 상은 따로따로 어른 상, 애들 상 해서.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지님하고는 겸상하셨지. 애들은 애들끼리 먹고, 우리 어머님도 젊어서는 못하시고 늙으셔서 같이 드신거지. 상에다가 어른들하고 같이 올려놓고 못 먹고 바닥에 놓고 먹었어. 옛날엔 법이 그랬어. 지금은 그냥 애들이 어른이지만 옛날엔 어른 앞에서 젓가락질도 못했어. 그 전에는 법이 반드시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밥 먹는 거도 어렵고 어른들 계시면 어려웠지.”

이처럼 안방은 평상시에는 부부를 포함한 가족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용되다가도 집안에 상이 났을 땐 빈소를 마련해두는 상례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 실제 제보자의 시부모님과 남편이 사망했을 때에도 안방에 빈소를 마련해두었다. 따로 이곳에 빈소를 차려둔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손님을 맞이하는데 공간이 넓은 곳이 수월하므로 안방에 차려두었다고 한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경우 3일장을 지냈으며 상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도와주었다. 집에서는 쌀과 반찬 등만 내어다주면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알아서 음식을 준비해주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일 등을 도와주었는데 보통 삼우제까지도 함께 치러주었다고 한다. 이때 조문하러 온 사람들은 막걸리나 소주, 국수 등을 부조하기도 하였고 술이나 감주를 담가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제보자는 당시 집에 상이 났을 때에 “초상 한 번 나면 집안 살림이 거덜 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조문객들이 많이 방문하여 이들을 대접하여 보내는 일이 보통은 아니었다고 회상한다.

“옛날에 상 나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지. 나는 쌀하고 반찬만 내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들 해줬어. 도와주구. 다 와서랑 큰일 잔치고 초상이 나면 다들 모여. 저 윗동네까지 다 와서 먹고 해주구 치우구 해주는 거지. 삼우제 지낼때꺼정 다들 많이 해줬어. (그럼 상을 한 번 치르면 먹을거도 그렇고 소비가 크겠어요.) 그야말로 한 해 농사 다 잡숫고 간다는 거야. 그러게 생전 먹고 갈 걸 다 먹고 간다는 말을 하잖아. 우리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3일장하고 삼우제까지 동네 사람들 다 와서 해 먹구 가구. 저 동네 너머까지도 다 와서 먹어. 큰일 났다고 하면 다 오거든. 옛날엔 그냥 얻어 먹으려도 오고 일하러도 오고 그냥 아는 사람오고 다 오는 거야. 지금은 서로 배부르고 너는 너, 나는 나지만 옛날엔 안그랬어.”

현재 안방은 평상시에는 거처하지 않고 살림살이와 옷가지 등을 보관해두는 장소로 사용되며 명절이나 제사가 있을 때에 외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이 와서 머무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2) 건넌방

안방과 마루 옆에 일렬로 위치해있는 공간을 제보자는 건넌방 또는 건방이라 지칭한다. 이 공간은 제보자가 혼인하여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부부 내외가 함께 머물렀던 공간이다. 이후 제보자가 자녀를 출산함과 동시에 안방으로 거처를 옮김에 따라 이 공간은 시부모님의 생활공간이 되었다.

개조 후의 평면도에서 살펴볼 때 건넌방은 제보자의 시부모님이 사용하던 공간으로 이후 제보자의 자녀들을 데리고 생활하셨다고 한다. 제보자가 출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자녀들을 데리고 안방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자녀들이 크면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했다. 이후 제보자의 시동생이 장가를 들면서 시동생 부부 내외에게 건넌방을 물려주고 시부모님이 큰사랑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현재 가옥의 평면도에서 살펴보면 건넌방이 있던 위치에 내부 화장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큰 사랑방

개조 후의 평면도를 살펴볼 때 대문을 통과하여 우측으로 큰사랑방이 있었는데 제보자

는 이곳을 사랑채라고 부르기도 한다. 흔히 가옥을 동(棟)의 구분에 따라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는 다르게 제보자의 경우 ‘ㄱ자형’의 가옥을 공간 구성에 따라 안채, 사랑채, 행랑채로 구분하고 있어 제보자들마다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큰사랑방은 며느리에게 안방을 물려준 시부모님이 생활하던 공간이자 동시에 자녀들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공간이다. 집안의 어른이었던 시아버지가 머물렀던 공간이므로 시부모님을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 큰사랑방의 문을 열면 바깥으로 작은 뒷마루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시아버지가 남성 손님과 함께 뒷마루에 걸터앉아 장기를 두며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사랑방에는 노인네가 놀러 오는 사람들하고 장기 두고 바둑 두고 하고, 겨울엔 또 따뜻하잖아. 앞으로는 퇴식마루(뒷마루)가 바깥으로 이렇게 조금 나와 있었거든. 그럼 여기 퇴식마루로 나와서 말쑼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평상처럼 이렇게 달려있었어요.”

현재의 가옥으로 신축 후에는 입식시설로 바꿈에 따라 뒷마루를 없애고 큰사랑방이 있던 자리에 방을 배치하여 제보자의 아들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4) 마루

대문을 통과하여 안마당으로 들어오면 정면으로 위치한 공간을 마루라고 지칭한다. 좌우로 건넌방과 안방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곳은 가족구성원들의 휴식공간이자 식사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집안에 잔치가 있거나 손님이 방문했을 시에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루는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명절 차례 또는 조상 제사와 같은 개인 제사 등을 지내는 제례의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방보다는 마루라는 공간이 더 개방적이고 공간 또한 넓어서라고 한다. 제례를 지낼 때는 마루에서 안마당이 있는 남쪽 방향을 바라보고 병풍을 쳤는데 이는 방문이 있는 쪽으로 병풍을 치게 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사는 마루에서 지냈지. 제사는 개인제사 있고 동족제사가 있어. 우선 큰집에 가서 고조

에서부터 다 지내. 그 다음에 큰집, 작은집, 막내집 돌아가면서 지내는 거야. 마루가 지금은 거실 아냐. 거실에서 지내는 거야. 그때는 콩만한 방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 제사 지내면 몇 명씩 모이는데. 남쪽을 바라보고 지내. 그 유래는 확실히 모르겠어. 남쪽으로 병풍을 치고. 방에서 들락날락거리는데 방을 바라보고 제사를 못 지내니까. 마당 쪽을 바라보고 병풍을 쳤지. 집마다 달라. 지내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거지. 조상을 모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처럼 마루는 현재까지도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생활공간인 동시에 집을 방문한 외부인에게도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공간이며 제례와 같은 의례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마구, 돼지간

개조 후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마구와 돼지간이 있는데 당시 제보자의 집에서는 소와 돼지를 키웠다고 한다. 마구의 경우 집안 내부에 있었고 돼지간의 경우 바깥마당 한켠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돼지간 옆으로는 퇴비장이 딸려 있어 돼지간에서 나오는 퇴비들을 저장해두었다가 농사지를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당시 소는 몇 마리나 키우셨나요?) 1~2마리 키우면 많이 키우는 거였지. 여기는 그때 당시에 5·16 군사 혁명 일어나가지고 박정희가 정권 잡고 나서 소를 장려를 했어. 잘살아보자 하면서. 새마을사업하면서 그래서 소를 정부에서 위탁을 해준거야. 그래서 젓소를 키운 거야. (중략) 돼지간은 돼지우리야. 바깥에가 마당 한쪽에 돼지우리가 있는거야. 1마리 키웠는데 그걸 잡아먹을라고 팔든가. 옛날에는 퇴비도 했잖아. 마당에 보면 돼지간으로 옆에 이만큼 퇴비장이 있어. 돼지 키워가지고 이제 퇴비가 나오면 이걸 쌓아놓고 썩히는 거야.”

위 제보자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새마을운동 당시 정부에서 소나 돼지, 염소 등을 키우고 나눠주는 소득사업을 장려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집을 신축하면서 더 이상 소나 돼지를 먹이지 않게 되어 마구와 돼지간, 퇴비장의 공간들을 없앴으며 돼지간과 퇴비장이 있던 위치는 현재 공장부지가 되었다.

(6) 기타 공간[광, 창고, 마당(안마당, 바깥마당), 뒷간]

대문을 통과하여 우측으로 위치한 부엌 옆으로 딸려 있던 광은 당시 곡식을 저장해두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가정에서 주식으로 소비할 정도의 농사를 지었으므로 해마다 수확한 농작물을 광에 저장해두고 밥을 짓거나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하였다.

대문을 통과하여 좌측으로 딸려있던 창고는 나무를 저장해두는 공간으로 나뭇간이나 나무광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아궁이에 직접 불을 피워 각 방마다 난방을 하고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땀감으로 사용할 나무를 저장해두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고 한다. 개조 후에는 광이나 창고를 없애고 방을 설치했다.

또한 대문 밖의 터를 바깥마당이라고 불렀으며 대문을 통과하여 중앙에 위치한 공간을 안마당이라고 불렀다. 바깥마당은 살림채 밖에 있는 외부 공간으로 현재까지도 수확한 곡식들을 널어두고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며 자녀들이 방문할 시에는 주차장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제보자 이필희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 시어머니가 땃줄을 잘라서 바깥마당에 가져와 태웠다고 하는데 이때 아이의 태가 간질에 좋다고 하여 흠쳐 가는 사람들이 많아 시어머니가 바깥마당에 앉아 태가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안마당은 살림채 내부에 있는 공간으로 가옥의 중앙에 위치해있으며 이곳에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 가족들이 간단하게 세수를 하거나 아이들이 씻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김장철이 되면 안마당에 앉아 김치를 담그고 바깥마당에 땅을 파서 김칫독을 묻어두었다. 또한 안마당에서는 집안 잔치나 초상이 났을 때에 천막을 쳐두고 상을 차려서 손님들을 맞이했다고 한다.

제보자가 시집왔을 당시 뒷간은 대문 밖에 있었는데 이후 집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부엌과 광 옆으로 뒷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뒷간은 두 칸으로 각각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뒷간을 두 칸으로 만든 것은 큰사랑방에서 생활하던 남자와 안방이나 부엌에서 일을 하던 집안의 여성들이 뒷간에 드나들기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옛날에 화장실은 어느 쪽에 있었어요?) 옛날에도 안에 있는 게 있고 바깥쪽에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이만큼 떨어져 있어. 돼지간이 여기 있으면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뒷간이 있고, 나중에 사랑채 옆에 부엌이랑 광 있는데 이만큼 뒷간을 또 만들어서 사랑채에서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고, 여자들은 이쪽 부엌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부엌에도 뒷문이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두 칸인데 이렇게 가운데를 막아놓고 이쪽은 여자가 쓰고 이쪽 남자가 쓰고 한 거야.”



이필희 가옥 전경



안방



이필희 제보자 방



아들방



거실



부엌



화장실



현관 입구

따라서 이전에는 여성들도 대문 밖에 위치한 뒷간을 함께 사용해야 했기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가옥의 측면에 뒷간을 새롭게 설치하면서부터 부엌의 뒷문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

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뒷간을 각각 집 밖의 공간과 살림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둬으로써 실제 사용자 또한 손님과 집안 식구로 구분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는 바깥에 있던 뒷간 역시 집을 신축하면서 허물고 집안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생활하는 데 편리함을 도모하였다.

2.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월곶동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달월마을과 어업과 상업지역으로 1997년에 새롭게 조성된 월곶지구로 구분된다. 마을 내의 주택은 개량화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전통 가옥도 보이며, 마당은 고추, 가지, 깨 등을 말리는 공간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농작물 말리기

1) 달월 열두 동네와 수인선

월곶동은 예전부터 ‘달월 열두 동네’라 불리듯 많은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큰 마을로 월동, 상골, 고잔, 마전이 있으며, 작은 마을로 범말, 궁골, 새터말, 응고개, 방고개, 구능뿌리, 이호정, 통심이, 조구나리 등이 있다.



전통가옥1고잔



전통가옥2고잔



예전 사택이 있었던 섬산.
현재 공원 조성 중



구능뿌리



조구니리

또 섬산과 신촌은 소래염전이 조성된 이후 염전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들어와 살면서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다. 지명 가운데 구능뿌리(16세대)와 조구니리(8세대)에는 과거 작은 뗏목이 정박한 곳으로 월곶동의 나루 역할을 하였다. 구능뿌리에는 현재 칼국수, 추어탕집이 조성되어 있다.



달월교회



달월마트

월곶 주민들은 43년 전에 월곶입구 삼거리에서 소래대교 앞 삼거리까지 제방을 쌓아 막으려고 하였으나, 백중사리에 제방이 터져 결국 실패하였다. 당시 제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밀가루를 보상으로 주었는데, 사람들 사이에는 “밀가루 포대로 막아도 다 막았다.”라는 말이 생겼다. 그 이후 월곶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월곶(月串)의 곶(串)은 ‘바다의 끝과 접한 지역’이라는 뜻이며, 월곶의 우리 지명은 ‘달월’이다. 달월은 과거 행정구역상 군자동이었으며, 달월이라는 지명은 “달월교회”, “달월역”, 마트 상호명에서 보인다. 달월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

단은 수인선 열차였으며, 이것을 타고 인천과 안산, 수원 등지를 왕래하였다. 달월마을의 과거 군자역 역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 주위에 새롭게 달월역이 생겼다. 결국 과거 마을 지명을 딴 역이 새롭게 생긴 것이다.



옛 군자역 자리



달월역

일제는 경기만 일대의 소금 수송을 위해 인천과 수원 사이의 염전지대를 지나는 수인선 산업철도를 부설하였다. 수인선은 1937년 개통되어 1995년까지 58년간 여객과 화물운송을 담당하였다.³⁴⁾ 수원과 인천 사이 52km를 오가는 수인선은 협궤선으로 17개소의 정차장 가운데 10개소는 정식 정차장으로 역사를 두고 역원이 배치되었다. 열차 시간은 총 1시간 40분이 걸렸다.

달월역 열차시간표



협궤열차(소래박물관)

달월 주민들이 이용한 군자역은 정식 정차장 중 하나였으며, 당시 수인선 개통은 수원과 인천 사이를 하루 1~2번의 버스에 의존하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일이었다. 수인선을 통해 곡류와 소금 등이 인천과 내륙지역으로 연결되면서 인천은 한때 경제적 호황을

34)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3』(시흥의 근현대), 2007.

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이 발달하면서 수인선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1973년에는 수인선 구간 중 남인천-송도 구간 5km가 인천시 도시계획으로 폐쇄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은 송도가 수인선의 종점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송도역에서 인천항역까지의 수인선 철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수인선 노선 및 정차장(1937)

정차장명	구분	연장(km)
수원 水源	정차역	0
고색 古索	정차역	3.9
오목 梧木	임시정류장	5.8
어천 漁川	정차장	10.7
야목 野牧	임시정류장	13.7
빈정 濱汀	임시정류장	15.1
일리 一里	정차장	20.0
성두 城頭	임시정류장	21.6
원곡 元谷	정차장	27.9
신길 新吉	임시정류장	29.2
군자 君子	정차장	32.4
소래 蘇萊	정차장	38.4
논현 論峴	임시정류장	41.5
남동 南洞	정차장	42.4
문학 文鶴	임시정류장	45.8
송도 松島	정차장	47.0
인천항 仁川港	정차장	52.0

그 이후 수인선은 주변 경작 농민이나 어민, 통학생 등의 제한적인 여객수송기능을 담당하며 명맥을 이었고, 운행편수도 1961년까지는 수원-인천 간을 1일 5회 왕복하다가 1962년부터는 4회로 축소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다시 3회로 축소를 하였고, 운행 차량 수도 주중 2량, 주말 3량으로 한정시켰다. 1980년대 수도권이 개발되면서 적자인 수인선의 폐선 논의가 일어났고, 1994년 9월 1일자로 폐선하고 이듬해인 199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한양대앞~수원간 20.2km의 운행을 중단하였다. 수인선의 쇠퇴는 1977년 인천과 수원을 연결하는 42번 국도가 포장되면서 시작되었다.

2012년 수인선이 다시 개통되면서 월곶신도시에는 월곶역이, 달월 지역에는 달월역이 각각 개통되어 결국 월곶동에는 과거의 역[군자역]과 새로운 역이 각각 개통된 셈이다. 물론 과거 군자역을 개명한 달월역은 원주민들의 소망과 먼 미래를 보고 새롭게 단장하였지



월곶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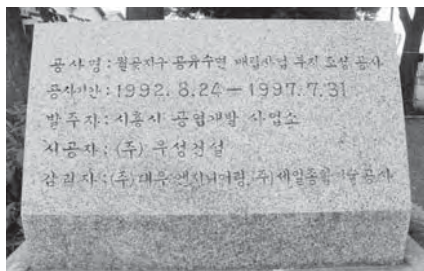
월곶역 입구

만, 월곶역과는 열차로 불과 2분 거리 정도이다. 그리고 달월 지역에는 현재 이용하지 않는 과거 영동고속도로 월곶IC가 그대로 남아 있어 주민들은 IC 주변지를 마을에 되돌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

월곶지구는 조선시대에는 수군만호가 설치되었고, 1991년까지는 바다와 자원의 보고라고 불리는 갯벌이었다. 이곳을 시흥시가 매립하여 면적 564,938㎡(170,893평)에 횃집과 어물전 230여 곳을 비롯하여 각종 위락시설을 조성하였다. 시흥시는 1992년 1월 20일 월곶 공유수면 매립지를 경기도로부터 면허 승인을 받고 1997년 8월 준공에 의하여 월곶지구가 형성되었다.

현재 월곶지구는 포구와 선착장, 어시장과 횃집, 모텔과 주거용 아파트 단지가 한데 조성되어 있다. 한때는 횃집과 모텔, 위락시설 등으로 인해 주거지환경으로 부적합하다고 비평을 받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풀림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다. 월곶지구는 관광지역도 주거지역도 아닌 애매모호한 지역이 되었다.

월곶지구는 입지여건상 서울대도시권, 인천국제교류권, 안양·군포·의왕 등의 산업물류거점으로 형성되는 삼각지대의 중심에 있고,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남동공단의 배후지에 위치하



월곶지구 매립사업 표지석



갯고랑 가장자리의 소형어선



월곶포구 전경

고 있다. 특히 서부 수도권 600만 인구가 직선거리 20km 이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초기에 시흥시는 신도시 개념의 월곶지구를 깨끗한 횃집, 정리 정돈된 음식점, 해안도로 산책길,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낚시터, 배에서 갓 잡은 싱싱한 활어를 보며 즐길 수 있는 눈요기, 짜임새 있게 구성된 놀이동산으로서의 마린월드 등을 자랑으로 삼아 홍보, 판촉을 하였다.³⁵⁾ 그래서 월곶포구를 소래포구에 버금가는 상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대로변에는 월곶포구 입구를 알리는 아치에 월곶포구 로고와 “낭만적인 바다와 노을, 정겨운 인심이 넘쳐요”라는 문구를 새겨두었다.

그러나 현재 월곶은 포구 기능이 상실되고, 어시장 곳곳이 폐업으로 빈 상태이며, 위락 시설과 주택이 혼재돼 있어 지역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또한 월곶 구성원인 입주민과 상인, 선주민과 상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즉, 입주민들은

35) 조계영, 『대도시 주변 관광어촌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위해업소, 불법주차 등에 대해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상인들은 과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어시장과 모텔 등의 영업이 좋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보는 눈이 많아지면서 연인들이 잘 찾지 않는 지역으로 변했다고 본다. 또한 주말에 상점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을 주민



월곶포구 아치

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머무르는 사람들이 줄었다. 상인과 선주의 경우, 상인들은 포구 주변에 어구나 쓰레기 등을 방치하고, 어구 보관 천막을 바닷가 주변에 세워 포구 미관을 해쳐 손님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반해 어민들은 물량장 일부를 상인들의 주차공간으로 주었고, 한때 상인들이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 판매에 대해 불법 거래를 내세워 주꾸미 축제도 1회에 그쳤다고 한다. 현재 월곶포구 수협공판장은 폐쇄된 상태로 월곶 어선들이 잡은 고기는 인천 소래나 안산시 대부분도 방아머리 경매장에서 팔리고 있다.

현재 월곶동은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제44호와 77호선 국도가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마치 교통의 요지처럼 보이지만, 마을이 도로에 갇힌 형국이다. 또한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여가생활과 정보를 소통하며, 주민들 사이에 정을 나누고 있다.

2) 염전에서 생활비를 벌다

개항 이후 화염이라고 불리는 조선식 소금 생산방식인 자염(煮鹽)은 중국의 천일염에서 생산한 소금 단가에 밀려 큰 타격을 입었다. 비록 천일염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연료비가 없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자염에 비해 가격이 유리하였다. 이에 통감부는 1907년 주안에서 천일염전을 시험하였고, 이후 천일염전을 축조하여 소금생산을 시

작하였다. 시흥시의 전체 해안선 연장은 16.7km이며, 간석지가 발달하여 2곳의 대형 염전이 만들어졌는데, 군자염전은 1921년에 착공을 하여 1925년 완공하고 소금생산을 시작하였다. 소래염전은 1934년 공사를 시작하여 1937년에 완공되었다.



소래염전 체험장



소래염전 소금창고



저수지와 소래염전



소래염전 갯고랑

『한국전매사』(1권)에 따르면, 소래염전은 1937년에 천일염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당해 연도에는 4,857톤을 생산하였으나, 1938년 18,739톤, 1939년 47,900톤, 1940년 25,860톤, 1941년 26,675톤, 1942년 29,718톤, 1943년 42,147톤, 1944년 32,875톤을 생산하였다. 결국 2만~5만 톤을 생산하는 염전이였다. 해방 이후 소래염전은 민간업체가 조직한 인천염업조합에 속해 있다가 1964년부터 대한염업주식회사 소유가 되었다. 당시 소래 염전의 면적은 549정보이었다. 소래염전은 1996년 대한염업주식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폐전 되었다.

월곶동은 마을 앞에 넓은 논과 소래염전 저수지와 염전(대한염업염전)이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농사와 때론 염부로 일하면서 생활을 하였다. 월곶동 주민치고 염전

을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이다.

시흥의 소래염전은 일제강점기 가장 늦은 1937년에 소금생산을 시작했으며, 그 면적은 549정보로 군자염전과 비등하다. 그런데 지역의 노인들에 따르면 소래염전을 만들 때 중국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조성 당시의 인부들 8,000여 명 중에서 2,000여 명은 산둥성에서 온 노무자들이었다. 그들은 소금 만드는 염부라기보다는 염전을 축조하는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³⁶⁾ 중국인 염전 축조 기술자들은 소래염전뿐만 아니라 평양 광양염전(1907~1913년, 934정보) 축조에도 참여하는 등 한국의 천일염은 중국인 기술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염전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명칭 등이 중국어이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일염을 시도한 일본은 정작 천일염이 존재하지 않고, 전통식 자염방식에서 1973년 정제염 방식으로 바뀌었다.

평양의 광양만 사람들이 정왕동에 정착하여 “피양촌(평양촌)”을 형성한 것도 염전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³⁷⁾ 피양촌은 정왕역 일대가 그곳인데 역전 개발과 함께 마을 이주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거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6·25전쟁 때 평양 광양만 염전 노무자들이 시흥의 평양촌을 찾은 것도 기존의 주민들과 연고가 있기 때문에 피난민 신분이지만 쉽게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소래염전은 조선총독부에서 관장하였으며, 관에서 소금생산, 유통을 책임지면서 민간염전을 일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6·25전쟁이 끝나고 남한 정부에는 소금이 부족하여 국유염전으로만 충당할 수 없어 민간에게도 염전개발을 허락하게 된다. 정부는 1952년 소금의 자급자족뿐 아니라 수출목표까지 염두에 둔 소금 증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56년까지 국유염전 3,500정보, 민간염전 6,500정보, 합계 1만 정보의 염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1955년에는 국유염전 2,000정보, 민간염전 8,500정보, 합계 1만500정보가 확보되어 연간 35만톤으로 염업사상 처음으로 자급자족을 달성하게 된다. 특히 6·25전쟁 이후 민간의 염전개발은 피난민들의 생계 차원에서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7년부터 소금생산이 과잉상태로 접어들자 정부는 1961년 12월 31일에 <염관리임시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민간에 의한 염업개발의 허가제와 염의 수급비상관리를 규제하는 한편 전매제를 폐지하고 1962년 1월 1일부터 완전 민영화한다. 기존의 국유염전도 1963년에는 대한염업주식회사로 이관하게 되었고, 현재 소래염전에서 근무한 경험이

36)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6(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287쪽.

37) 이승언, 『시흥시의 문화재와 유적』, 시흥시, 1995, 204쪽.

있는 월곶동 사람들은 모두 대한염업주식회사의 근무자들이었다.

염전구성은 저수지, 제1증발지(난치), 제2증발지(늦태), 결정지(든물간) 등으로 구분된다. 저수지는 제1저수지와 제2저수지(대용저수지)로 구분되고, 제1증발지는 6단 2열 12배미로 6단의 제일 위를 ‘상난치’, 그 다음을 ‘5방난치’~‘2방난치’, 마지막을 ‘쌀난치’로 구분하였다. 제2증발지는 4단 4열 16배미이며, 단은 바닥 재료에 따라 토판 4방~3방, 깎파리 2방~1방으로 나뉜다. 토판은 갯벌을 다진 그 상태이고, 깎파리는 용기나 사기 등을 자잘하게 깨뜨려 토판에 박은 것이다. 결정지는 4단 4열의 16배미로 되어 있으며, 바닥은 모두 깎파리를 깔았다. 깎파리를 바닥에 깔 이유는 깨끗한 소금과 매년 토판을 다지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함이다.

염전은 증발지에서 결정지로 염수가 잘 흐르도록 비스듬히 되어 있으며, 면적도 차츰 작아져 수분증발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에 대비해 2열 사이사이에는 간수구덩이를 설치하여 간물을 저장하였다. 통상 1증발지와 2증발지 사이에는 대형 간수구덩이를 설치하고, 2증발지와 결정지 사이에는 염전과 염전 사이에 간수구덩이를 설치하여 염도에 따라 함수를 보관할 수 있게 하였다. 간수구덩이는 함수구덩이라 부르기도 하며, 구덩이의 지붕은 처음에는 초가처럼 짚으로 이엉을 하여 덮었다가 나중에 철판, 1970년대에는 슬레이트로 바뀌었다. 그밖에 염전에는 조업에 필요한 각종 수로, 즉 용수로, 배수로, 도수로, 송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수로 지선과 간선에 따라 노퍽과 수심을 달리하며 정연하게 설치한다. 그리고 염전바닥은 잔모래와 흙이 섞인 “갯시모래”가 좋은데, 흙을 다지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염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 굳히기인데, 이것은 염전바닥을 자꾸 밟아서 굳도록 하는 작업이다. 그런 다음 롤러를 굴리고 덜 마른 속은 놀리면서 굳힌다. 처음 염전을 만들 때 판을 굳히는 ‘지고작업’은 몇 달이 걸리고 적어도 대여섯 번은 되풀이해야 한다.

함수의 염도는 저수지에서 증발지, 결정지로 이동하면서 점점 높아지게 된다. 매달 만조 때 두 번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데, 저수지의 바닷물은 염도가 2.5~3도 정도 된다. 2.5~3도의 바닷물은 증발지를 통해 결정지로 유입되면 염도가 보통 15~16도가 된다. 이것이 12시간 후면 염도가 25도가 되어 소금이 결정된다. 염도는 유리 대롱에 수은이 들어간 비중계로 측정하였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저수지 염수를 1증발지로 보내는 시간은 차이를 보이는데, 최적기인 5~6월에는 1일 1.5회, 봄과 가을에는 1일 1회 방류된다. 제1증발지에서 제2증발지까지는 최적기에는 6일, 봄과 가을에는 9일이 소요된다. 제2증발지로부터 결정지까지는 보통 1일이 걸린다. 즉, 저수지로부터 결정지에서 완전한 소금이 탄생하

기까지는 최적기에는 7일, 봄과 가을에는 10일이 걸린다. 그러나 한 단 한 단 넘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날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대한염업주식회사의 회사 임원은 지사장, 차장, 과장, 계장 등이 있고, 염전 현장의 총 책임자는 감독이고, 그 밑에 염부장, 반장이 있다. 그 이외에 대반장, 부반장, 난치반장, 증발수, 보조수, 잡부 등으로 구성된다. 염부장은 감독과 반장 사이의 중간관리자로 40정보(12만 평)를 책임지면 밑으로 반장 4명을 두었다. 반장은 밑에 2명의 부반장이 있으며, 관할하는 염전의 면적은 10정보이지만, 실질적으로 5정보를 책임지며 나머지 5정보는 부반장이 담당했다.

염전 직위와 담당 면적

직위	인원	담당 면적
감독	1구당 1명	100정도
염부장	1명. 반장 4명 통솔	40정보
반장	1호당 1명	10정보
부반장	1호당 1명	5정보

그밖에 난치반장은 염도를 가늠해가면서 염수를 이동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소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기에 “소금 내는 사람”이라고 한다. 난치반장 밑에는 증발수가 따라다니는데, “넓은 공력에 물 대주는 사람”이다. 잡부는 계절 계약으로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1반에 7명이 근무하였고, 잡부 가운데 책임자는 불박이로 일했다. 잡부는 3등급으로 구분하였고, 1등급은 목도질을 잘 하는 사람이다. 잡부들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채용하였고, 군자나 안양, 인천 남동에서도 왔다. 특히 1980년대 남성들이 인근 공단의 일반노무자 등으로 빠져 나가면서 여자 잡부들을 많이 채용하였다. 특히, 여름철 소금이 많이 생산될 때는 여성들을 약 5개월간 임시직으로 채용하였다. 염전의 지위는 대개 잡부로 시작해서 부반장, 반장 등으로



월곶동 농지



소래염전 저수지를 농토로 활용

올라가지만 염부장은 쉽지 않다.

월곶동 주민들은 잡부로 한시적으로 근무하였다. 그것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을 생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염전 일은 농한기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염전에서 잡부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소금 생산이 절정에 이르는 5~7월에는 일용직 근무로 며칠간 일을 해도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염전의 잡부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약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모씨는 예비군 훈련 때 염부라고 하면 근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돈 몇 푼을 받았지만 농민의 경우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날씨가 궂으면 염부들은 ‘오분대기조’ 같은 일상적 근무체제로 실질적인 휴식도 없이 반장의 지휘 아래 업무 이외 시간에도 늘 대기상태였다. 특히, 염부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느닷없이 비가 오는 경우이다. 이때는 바로 염전으로 달려와서 염전의 염수를 간수구덩이에 넣어야 한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염부들에게 근무이외 수당을 지급한다.

봄철에 행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소금고사’였다. 해마다 첫 소금이 나오면 염부장이 한 잔 내는 정도로 간단한 소금고사를 지냈다. 소주와 간단하게 먹을거리를 사와서 차려놓고 염부장이 대표로 “올 한 해도 소금 많이 나오게 해주시오”라고 비슨하고 절을 한다. 다른 염부들도 참석하여 간단하게 고사를 지내는 수순으로 끝이 나면 술 한 잔 먹고



소래염전 내 골프장



과거 소래염전 갯고랑



소래염전 갯고랑 수문



수문 근처 낚싯꾼

끝낸다. 첫 소금의 제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위로 일제강점기에도 이루어졌던 행사이기는 하나 그 이후 매우 축약되어 소략한 제의로 귀착되기에 이르렀다.

1996년 폐업한 대한염업주식회사 소유의 소래염전은 일부는 골프장으로 만들었고, 저수지는 역새와 같은 풀이 무성하여 새와 고라니의 서식처로 변했다. 바닷물의 통로인 갯골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염전 터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시흥시에서 소래염전의 일부를 매년 여름철에 체험장으로 개방하여 축제를 거행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염전 사택 6가구가 있던 “섬산”은 현재는 시흥시에서 공원으로 조성중이다.

3) 염전에서 물고기를 잡다

염전에서는 소금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잡았다. 물론 물고기 잡이는 생업보다는 심심풀이로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염전 가운데서 염전 갯고랑과 저수지는 월곶동 주민들의 고기 잡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이곳에는 바닷물을 따라 바다에서 흘러들어온 송어, 언지, 농어, 새우, 뱀장어, 실뱀장어, 조기, 전어새끼 등 다양한 어종을 잡았다. 염전에는 1달에 2번 만조 때 바닷물을 갯고랑을 통해 저수지에 가두기 때문에 이때 물고기도 따라 들어온 것이다. 물고기는 어종에 따라 잡는 장소가 다른데 장어, 조기, 전어새끼 등은 저수지에서, 다른 물고기는 수문 앞 갯고랑에서 잡았다. 어종 중 언지는 다소 생소한데, 송어처럼 생겼으나 입이 뾰족한 물고기라고 한다.

소래염전 저수지는 길이 6km, 폭 1km가 될 정도로 대형 저수지이다. 갯고랑은 만조 때 배가 들어올 정도로 폭이 40m가 넘는다. 갯고랑과 저수지에서의 물고기 잡이 방식은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갯고랑은 물이 흐르는 곳이기에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다. 갯고랑에서 사용하는 그물은 “개무지 그물”이라고 하며, 이 그물은 보통 보리가 누렇게 익는 5~6월과 벼가 익는 10월에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다.



갯벌 갯고랑(월곶)



갯벌 수문(월곶)

개무지 그물은 만조 때 바닷물이 갯고랑으로 흘러들어오기 전에 갯고랑 바닥에 우선 그물을 감추어 둔다. 그리고 갯고랑에 물이 가득하여 흐름이 멈추었을 때 갯고랑 입구 그물 가장자리에 코뚜레에 건 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겨 그물을 세운다. 그리고 밀물 때 갯고랑이 어느 정도 빠지면 갯고랑 끝쪽에서 짚단 2개로 갯벌을 밀면서 갯벌 입구에 세운 그물 쪽으로 고기 모이를 한다. 그물 앞으로 모아진 물고기는 손으로 광주리에 담아 지게로 운반하였다. 이때 주로 잡히는 물고기는 송어, 농어, 대하 등이다. 개무지 그물의 길이는 50m 정도로 지게로 운반하였으며, 통상 그물 주인과 마을 주민 2명 정도가 참여한다. 고기 분배는 그물 주인이 5목, 마을 주민 2명이 나머지 5목을 나누어 간다. 마을 주민이 많을 수록 그들이 가져가는 물고기의 양은 줄어든다.

저수지에는 갯고랑을 따라 들어온 조기·전어 새끼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바닥에는 장어가 산다. 물고기 새끼(어치)는 추석이 지나면 전어 크기 정도로 자라며, 날씨가 영하 5도로 내려가면 물고기가 추위를 견디지 못해 물 위로 떠다닌다. 이때 초크그물(투망)을 던져 이들 물고기를 잡았다. 그물의 길이는 20미터 정도이다. 저수지는 겨울철에 물을 거의 저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깊은 바닥 쪽에만 물이 모여들고 언다. 겨울철 저수지가 얼었을 때는 장어를 잡았다. 장어 잡이는 우선 저수지 얼음을 20cm 정도의 지름으로 구멍을 내고 그곳에 장어작살을 갯벌 속으로 집어넣고 잡아 당겨 작살에 걸린 장어를 잡는다. 한 구멍에서 몇 차례의 작살을 당겨 장어가 더 이상 없으면 또 다른 장소에 얼음 구멍을 내고 앞선 방법으로 장어를 잡는 것을 반복한다. 통상 하루에 개인당 2관 정도의 장어를 잡았다고 한다.

여름철에도 투망, 삼지창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았다. 야행성인 장어는 밤에 카바이트 불빛을 비춰 모여든 장어를 삼지창으로 찍어서 잡았다. 장어는 구멍을 뚫어 숨는 습성이 있어 염전에서 최대의 적이기도 하다. 만약 저수지의 장어가 증발지로 흘러들어가 여러 곳에 구멍을 내면 염도가 오르지 않은 염수를 다음 단계로 흘러 보내기 때문이다. 한편, 장어는 연어처럼 회귀해서 알을 낳는다. 월곶 주민 가운데는 방어 새끼인 “시라시”를 잡아 일본 장어 양식장에 수출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여름철 저수지에 물을 받을 때면 송어들이 물 위로 뛰어 오른다. 이때 투망을 던져 송어를 잡았다. 그리고 참게, 꽃게 등도 잡았는데 1970년대 농약을 치면서 사라졌다.

염전 갯고랑 갯벌에서는 “싸죽”을 잡았다. 싸죽은 바지락처럼 생겼지만 모래 속에 사는 바지락과 달리 개흙 속에 살며, 껍질이 흰색이다. 1시간이면 1가마를 잡을 정도로 과거에 흔했으며, 싸죽의 맛은 달작하기 때문에 된장찌개, 칼국수 등에 넣어 먹었다.



사유지 표지판



사유지 표지와 농작물 재배

현재 저수지와 폐염전은 사유지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고, 저수지 대로변 가장자리에는 농막을 설치하고 콩, 깨, 고구마, 오이, 호박,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다. 저수지 내에는 갈대숲이 형성되어 고라니, 오리 등이 서식하고, 웨딩사진 촬영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4) 갯벌에서 맛을 잡다

월곶신도시가 조성되기 전 그곳은 모두 갯벌이었다. 결국 달월마을 앞쪽이 갯벌(갯바탕)로 주민들은 맛, 망둥어, 숭어, 농어 등을 잡았다. 그런데 달월 갯벌은 다른 지역과 달리 모래가 없어 바지락 등 조개 등은 서식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잡은 것은 맛이다. 맛은 7월 초부터 추석 전까지 취미로 잡았으며 철사나 삽 등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맛을 잡을 때는 얼레미[체] 크기의 구멍이 수없이 모여 있는 곳을 우선 찾는다. 초보자들은 삽으로 땅을 깊이 파서 잡고, 전문가들은 철사를 구멍에 넣어 맛을 유도하면 철사에 붙은 맛을 끌어올려 잡는다. 맛은 가정에서는 보통 호박과 맛을 넣어 찌개로 끓여 먹거나 칼국수 장국용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맛을 많이 잡은 사람들은 젓갈을 만들어 수인선을 타고 인천 하인천역 인근에서 팔았다.

숭어, 농어 등은 갯벌에 건강망을 쳐서 잡았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달월마을에 1~2사람에 불과하고, 건강망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는 것이다. 그런데 달월주민들은 마을 단위의 어촌계를 조직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갯벌에서 바지락, 굴처럼 상품가치가 높은 것들이 서식하지 않았고, 농사가 주업이다보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갯벌 조업보다 염전에 종사에서 얻는 소득이 더 컸기 때문이다.



갯벌 습지



농막



파 재배



고추 재배



깨 재배



밭 돌무더기

월곶신도시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갯벌로 남아 있다. 그러나 갯벌은 갈대 등 여러 자연 식물이 자라는 습지로 바뀌었다. 일부는 농토로 활용되고, 연장이나 도구 등을 보관하는 농막 4채도 있다. 농토 가장자리는 바닷물이 흐르고 있어 널쪽으로 다리를 놓아 통행을 한다. 개인 소유 농토에는 철망을 둘러 영역을 표시하고 있으며, 오이·토마토·배추·고추·상추·파 등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습지 가운데 빗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는 붕어 등의 민물 고기를 낚시로 잡고 있다.

5) 소형어선 근해조업

(1) 시흥시 어선 현황

시흥시는 2015년 9월 현재, 157,165세대에 396,565명인데, 월곶동은 7,149세대에 16,476명(남자 8,577명, 여자 7,899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어가(漁家)가 626호 1,853명(남 1,148명, 여 705명)으로 전업 어가는 146호이다.³⁸⁾ 전업 어가 대부분은 선박을 소유한 자로, 상당수가 월곶 포구와 정왕 3동 오이도 포구에 주로 어선을 정박한다. 어선의 포구 정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현재 월곶 포구에도 인천 소래 중형(9톤) 어선들이 정박하고 있다.

시흥시의 어업은 시화호방조제(1994), 시흥공업단지 조성(1995) 등 여러 변수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1998년 이후에 어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전업 어가의 경우 2007년부터는 200호가 넘었다. 이것은 1997년 월곶포구의 준공, 인천 소래 및 안산시 어민들의 시흥시 이주 등이 한 몫 하였다. 그런데 2000년에 어가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된 것은 폐선과 어업환경에 의한 결과이다.

시흥시 어가 및 어가인구³⁹⁾

구분	어가			어가인구		
	합계	전업	겸업	합계	남	여
연도						
1989	248			1,144	572	572
1997	313	75	238	1,220	573	647
1998	636	72	564	1,534		
1999	717	101	616	1,294	930	364
2000	75	32	43	297	145	152
2001	686	166	520	1,846	1,292	554
2002	748	184	564	1,841	1,380	461
2003	726	180	546	2,084	1,250	834
2004	699	179	520	1,880	1,121	759
2007	742	234	508	1,998	1,373	625
2008	812	253	559	2,449	1,541	908
2009	844	275	569	2,551	1,916	635
2010	800	239	561	2,531	1,775	762
2011	846	234	612	2,561	1,793	768
2012	756	123	633	2,174	1,361	813
2013	626	146	480	1,853	1,148	705

38) 시흥시 <기본통계-통계연보> (www.siheung.go.kr/)

39) 시흥시(www.siheung.go.kr/)

시흥시의 어선 보유현황을 보면 2013년 12월 현재 동력선이 198척이고, 무동력선이 5척 등 총 203척이다. 1997년 총 22척의 어선 수를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를 한 것이다. 이것은 월곶포구의 조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런데 1999년 114척의 어선이 68척으로 급감한 것은 항만청의 보상으로 5톤 미만 어선의 폐선에 의한 것으로 1톤 미만 101척 중 44척이, 무동력선 9척이 모두 폐선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기존의 어선 수를 초과하여 2013년 현재는 200척에 이른다.

1990년대 시흥시에서 동력선 척수가 급증한 것은 실제 선박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이전 집계 과정에서 누락된 소형어선들이 모두 파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 늘어난 선박 대부분이 1톤 미만의 선박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2000년대 이후에는 5~10톤 규모의 선박이 늘어나는데, 이는 늘어난 어가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선박을 가지고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 이후 50~100톤 규모의 선박 보유 증가도 보인다.

어선보유현황

구분	동력원별		척수별				
	동력	무동력	1톤 미만	1~5톤	5~10톤	10~20톤	20~30톤
연도							
1997	14	8	16	6			
1998	125	10	129	6			
1999	114	9	101	22			
2000	68	—	57	7	3	1	
2001	154	7	73	81	7		
2002	169	4	68	100	5		
2003	178	6	64	112	7		1
2004	178	7	59	119	6		1
2007	159	6	40	116	9		
2008	157	5	35	119	8		
2009	170	5	37	127	10	1	
2010	180	5	34	137	13	1	
2011	178	5	27	145	11		
2012	193	4	29	154	13	1	
2013	198	5	28	160	14		1

2013년 현재 총 203척의 어선 가운데 톤수는 1톤 미만이 28척, 1~5톤이 160척, 5~10톤이 14척, 20~30톤이 1척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대부분의 어선이 5톤 미만의 소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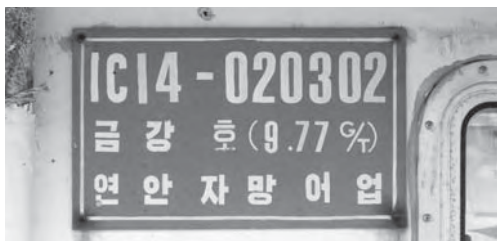
선임을 알 수 있다. 2002년부터는 1~5톤의 어선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1톤 미만의 어선은 감소하였다. 1~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은 기관장 등 별도로 인력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해에서 조업하는 도시 포구의 어선은 소형인 것이 일반적이다. 2톤 미만의 소형 어선은 발동기 대신 모터로 장착한 배가 상당하다.

시흥시의 어선은 오이도와 월곶포구 등 2곳에 정박한다. 두 지역의 어선 수는 오이도가 월곶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이는 오이도포구의 입지가 월곶포구보다 좋고, 월곶포구가 포구로서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월곶 수협공판장의 폐쇄도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월곶어촌계에 포함된 어선 수는 157척에 이르는데, 이것은 시흥시, 영흥도, 대부도, 소래 등지의 어선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월곶어촌계 소속 어선들은 웅진수협은 물론 남부수협, 남동수협에 거래하는 어선들이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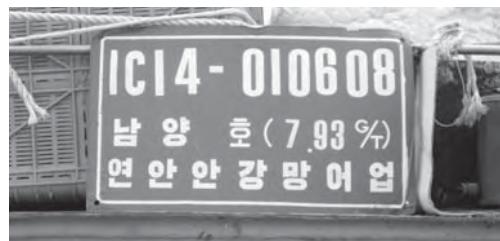
월곶과 오이도의 등록 어선 수

연도	계	월곶	오이도
2010	180	58	122
2011	178	58	120
2012	193	65	128
2013	198	63	135
2014	209	70	126
2015	203	62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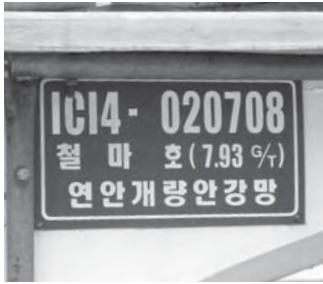
어선은 선박에 따라 면허를 가지고 있다. 어업은 허가와 면허, 신고 등 잡는 고기와 방법에 따라 나뉜다. 어업허가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구분되는데, 연안어업은 연승·안강망·자망·통발·채낚기·3중자망·복합 등으로 허가권이 되어 있다. 이중 자망 채낚기·복합 등의 어업허가권을 가진 선주들이 많다. 근해어업의 경우 저인망·안강망·자망·연승·채낚기·통발·복합·잠수기·형망·운반업 등의 면허권이 있는데, 자망과 복합 면허권을 가진 배들이 많다.



연안자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2) 월곶 어선 현황

월곶포구에는 선박 계류시설 1개소, 크레인 1기, 물량장 등이 있다. 월곶포구 정박 어선들은 어촌계 소속 어선뿐만 아니라 오이도, 소래 어선들도 정박을 한다. 소래 어선들이 이곳에 정박하는 것은 소래포구에 비해 이곳의 접안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며, 어선을 정박 후 집으로 귀가하는 데 거리도 멀지 않기 때문이다. 월곶포구 선박의 경우 소형 어선들은 육지 쪽으로 5톤 이상 중형 어선 등으로 바다 쪽 가까이 정박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다. 월곶포구 소속 어촌계원들은 타지의 어선들이 제대로 정박을 못하면 약간의 불만도 있지만, 포구에는 어느 지역의 배도 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탓할 수는 없다.



월곶포구 소래어선



외지어선



크레인



5톤 미만 소형어선

물량장에는 각종 그물과 어구 등이 쌓여 있고, 그물수선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천막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물량장은 포구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현재 수협공판장 앞쪽에 물량장을 새롭게 짓고 있는 중이다.



물량장1



물량장2



물량장3



물량장의 소리통발



물량장의 꽃게그물



물량장과 영업점



물량장 천막



물량장 천막 내부



수협공판장



공판장 내부

월곶포구의 어선은 어촌계 소속이다. 월곶어촌계 사무실은 수협공판장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어촌계와 달리 대책위원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천 송도신도시 등 주변의 개발로 인한 피해 대책을 위한 위원회인 셈이다. 2015년 현재, 어촌계 소속의 어선 수는 157척으로 시흥시

에 등록된 월곶 어선 수 62척보다 두 배를 훨씬 넘는다. 나머지 어선 95척은 타 지역의 것들로 인천항만공사 등 개발 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모인 어선들로 보면 된다. 현재 어촌계 소속 7톤 이상의 어선 8척을 제외하고 폐선 신청을 한 상태이다.

월곶어촌계 소속 어선⁴⁰⁾의 톤수를 보면, 1톤 미만 32척, 2톤 미만 64척, 3톤 미만 25척, 4톤 미만 21척, 5톤 미만 12척, 5톤 이상 3척 등으로 대부분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이다. 심

40) 어선이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그물, 낚시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해사안전법 제2조 11항)

지어 2톤 미만인 96척으로 전체 어선의 61%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어선은 인천 팔미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기름 값이 너무 들어 고기를 잡아도 적자라고 한다. 현재 어촌계 대부분의 어선은 폐선을 신청한 상태인데, 대부도 조력발전소, 인천 송도신도시개발 등으로 포구와 인근 바다에 토사가 유입되어 잡는 물고기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어촌계 선박에는 북 등의 악기 등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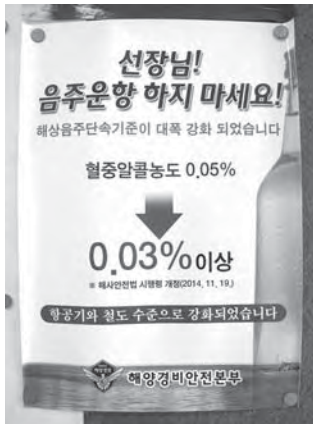
어선의 등기와 등록⁴¹⁾은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선적항)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톤수에 따라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즉, 총 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에게는 “선박국적증서”, 총 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 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은 “선적증서”, 총 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에게는 등록필증을 부여한다.

어선의 톤수에 따라 선원의 수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7.93톤 이상의 연안어선인 경우는 5~7명 정도의 선원이 탑승하며, 5톤 미만인 경우는 3명, 3톤 미만은 부부가 조업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월곶포구의 어선들은 팔미도 인근해에서 조업을 하는데, 그 거리는 15km이다. 그 이상은 잡는 어획에 비해 기름 값이 많이 들어 조업을 나가지 못한다. 어선들은 스스로 바다의 폐그물 등을 수거해서 폐기 처리한다.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거한 폐그물을 1자루에 6천 원씩 시흥시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지금은 무상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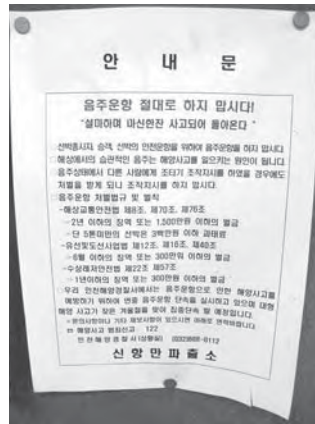
배의 이름은 과거 작명소를 통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래에는 구입한 배의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배의 이름에 길상의 의미를 가진 광(光), 흥(興), 영(永), 복(福), 수(壽), 길(吉), 용(龍) 등의 문구를 즐겨 사용한다. 월곶어선의 경우도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선주의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신항만 파출소나 어촌계 게시판에는 음주 운항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하였다. 현행 해사안전법(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벌금을 규정짓고 있다. 41조 5항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개정 2015.6.22 / 시행일 2015.12.23), 제104조(벌칙)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41) 어선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제13조



음주운전 관련 포스터



음주운전 관련 안내문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월곶포구의 어선처럼 5톤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110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0.1퍼센트인 경우는 50만 원, 0.1퍼센트~0.2퍼센트는 100만 원,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00

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개정 2014.11.19.>)

(3) 어촌계 결성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 2010.4.12)에 의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및 경제권을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어업인 조직으로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제15조)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짓고 있다.(제1조) 그리고 조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 구분된다.(제2조 4항)

조합원은 지구별 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며(20조), 정관으로 정한 금액을 출자하여야 한다.(제22조) 지구별 수협은 어민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후생복지사업, 운송사업 등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월곶어촌계에서도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한 어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를 추진 중이다.

수협공판장 2층에 위치한 월곶어촌계는 어선 소유 선주를 중심으로 2001년 1월 5일 시흥시청의 인가와 웅진수산업협동조합의 인증을 받아 설립되었다. 월곶어촌계는 갯벌에서 어패류 서식이 불가능해 선주들을 중심으로 면허업 어촌계를 결성하였다. 어촌계 계원조

건은 어선만 있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회원은 가입비 200만 원, 월 회비 3만 원을 낸다. 어촌계 조직은 계장 1명, 감사 1명, 경리 1명, 총대의원 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총대는 12명에서 8명으로 감축하였다. 감사는 1년에 2번(6월, 12월), 총회는 1년에



월곶어촌계



월곶어촌계 입구

1번(12월) 개최한다. 그러나 어선 면허로 구성된 어촌계이기에 잉여사업은 없다.

어촌계의 가입비와 월 회비는 선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과 어촌계장 판공비, 경리 월급 등으로 지불된다. 월곶어촌계는 오이도, 대부도, 선재도, 영흥도 지역의 선주들과 함께 개발공사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어촌계는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상대로 어업량 감소에 따른 폐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550척(5톤 미만) 중 330척이 폐선하였고, 올 11월에 230척이 마저 폐선할 예정이라고 한다. 2.63톤을 소유한 선주는 폐선 보상금으로 5,400만 원을 받았는데, 배값·기계값·장비값 등의 감가상각비가 고려되었다. 그러나 실제 거래를 하면 7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보상금은 거래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월곶어촌계 소속 어선 가운데 8척은 폐선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개인적 의견에 따른다.

월곶어촌계에서는 2006년에 수협공판장 주변에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기도 하였다. 어선들이 잡은 꽃게, 소라, 주꾸미, 활어 등을 좌판을 만들어 어민들이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안가 주변에 어시장 조성을 계획한 시흥시와 마찰을 빚고 어시장이 조성되면서 사라졌다.

선주들끼리는 친목계를 운영하기도 한다. 어느 선주 친목계는 20명 정도가 2달에 1번 부부모임을 하고 월 3만 원의 회비를 낸다. 주로 친목을 위한 모임으로 때로는 선박, 조업 관련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도 한다.

월곶포구 옆에는 웅진수협이 운영하는 수협공판장과 해양경찰서 월곶출장소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수협공판장은 2004년에 휴업하였고 월곶출장소는 2015년 2월 16일자

로 신항만해양경비안전센터 소속 소래출장소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것도 월곶포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해양경찰서 월곶출장소



수협공판장 내 그물들

웅진수협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 200좌(2백만 원) 이상을 납입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이 승인되어야 하거나 가입금 1만 원 이상을 납입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한다. 웅진수협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⁴²⁾

- 1962.04.01. 연평, 덕적, 부천, 용유어업조합을 각각 어업협동조합으로 개편 발족
- 1962.07.01. 대청도어업조합을 대청도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
- 1965.04.28. 백령도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2.06.04. 덕적, 용유조합을 부천군어업협동조합으로,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조합을 웅진군어업협동조합으로 합병
- 1972.07.12. 부천군어업협동조합을 부천어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75.07.10. 부천어업협동조합을 웅진군부천어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77.04.03. 웅진군부천어업협동조합을 부천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웅진군어업협동조합을 웅진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42) 웅진수산업협동조합, <2014년도 웅진수협 현황>, 2014.12.31.

- 1981.03.02. 부천군수산업협동조합과 웅진군수산업협동조합이 합병. 웅진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92.11.08. 웅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2002.05.31. 영흥법인어촌계를 영흥수산업협동조합으로 승격 분할
- 2010.10.11. 원미지점에서 부천지점으로 명칭 변경

웅진수협은 1997년 5월부터 월곶포구 수산물공판장(시 소유, 건축면적 810m²)을 운영하며 서해 연안에서 잡은 꽃게나 주꾸미 등을 수도권 일대 횃집 등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월곶공판장의 적자운영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웅진수협은 2004년 1월 31일 공판장을 폐쇄하면서 월곶포구 주변 100여 개 횃집과 중도매인들이 수산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어촌계장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월곶포구는 24시간 배들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간만의 차가 심해 경매에 참가한 배들이 100척이 넘었다. 그런데 월곶포구에 토사가 쌓이자 배들이 만조 때만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배들도 떠났고 수협공판장도 폐업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2014년도 웅진수협 현황>에도 오이도지점은 보여도 월곶지점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월곶포구는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한 곳이었다. 그래서 월곶포구 옆에 수협공판장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공판장에는 5명의 경매 상인이 있었고 그들의 거주지는 소래, 월곶이었다. 경매 상인의 자격은 사업등록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수협에 수수료를 낸다. 수협 경매에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어선들은 활어를 위해 1초라도 빨리 경매장으로 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초기의 월곶포구는 적항이었다. 따라서 초기의 수협공판장은 80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법적 수수료 4%, 운영비 1억을 제외해도 흑자였다. 그러나 월곶포구에 토사가 몰려오면서 인천 소래포구보다 해류가 1시가 30분 늦는다. 그러다보니 수협공판장을 찾는 어선들이 줄어들었고 수익도 감소하면서 폐쇄되었다.

현재 수협공판장은 어민들의 어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만 이용되고 있다. 수협공판장이 폐쇄되면서 월곶포구의 어선들은 소래나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경매에 물고기를 넘기고 있다. 경매는 아침 10시경에 이루어진다. 해양경찰서 월곶출장소도 월곶포구가 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2015년 2월 16일자로 신한만해양경비안전센터 소속 소래출장소와 통합 운영되면서 폐쇄되었다.

월곶어촌계 소속 어선 현황

연번	선명	톤수	업종	연번	선명	톤수	업종
1	민지호	1.98	자복(자망, 복합)	41	승정호	0.93	복합
2	길영호	2.31	자복	42	상선2호	0.8	자복
3	경원호	0.85	자복	43	상진호	4.19	자망
4	경일호	4.16	복합	44	보경호	2.99	자복
5	동아호	2.5	복합	45	신선호	3.75	복합
6	행복호	1.42	복합	46	성운호	0.96	자망
7	거성호	0.77	자망	47	유성호	4.51	복합
8	경진호	2.26	자망	48	일해호	1.96	자복
9	남양호	4.01	자복	49	영민호	3.86	자복
10	남포호	2.93	복합	50	일오삼호	0.86	복합
11	대일호	3.55	자복	51	일광호	3.15	자복
12	대성호	3.67	자복	52	유성호	1.28	복합
13	태성호	1.33	자망	53	유성9호	1.19	자복
14	바다호	0.72	복합	54	인성호	2.47	복합
15	대하5호	1.5	자망	55	용복호	0.73	자복
16	번개호	1.04	자복	56	영진호	1.67	복합
17	대광호	3.59	자복	57	진성호	1.75	자복
18	대풍호	4.18	자복	58	정동호	1.48	자복
19	덕교5호	0.91	복합	59	승진1호	1.1	자복
20	대귀호	1.14	자복	60	진명2호	3.83	자복
21	영광호	1.32	자복	61	진일호	0.98	자복
22	경인호	1.24	복합	62	금성호	1.35	자복
23	대양7호	4.99	자복	63	제2원광호	2.61	자복
24	군자호	1.94	자복	64	제9심창호	3.15	자망
25	만선호	4.7	자복	65	천호	2.21	복합
26	별망호	1.91	자복	66	충남호	1.33	자망
27	신현호	0.66	복합	67	해광호	1.98	복합
28	순풍호	3.2	복합	68	학다리호	1.98	자복
29	서산호	2.03	자복	69	흥진호	1.83	복합
30	삼성호	2.62	자복	70	해운호	1.89	자복
31	삼성2호	3.19	자복	71	한성호	1.93	자망
32	태평호	1.88	자복	72	만찬호	1.79	자복
33	성운호	1.46	자망	73	황해호	2.07	자복
34	신진호	2.28	자복	74	호남호	4.97	복합
35	삼양호	1.16	자복	75	해민호	2.22	자복
36	수복호	2.22	자복	76	합덕호	1.29	자복
37	셋별호	1.82	복합	77	한일1호	0.56	복합
38	수광호	4.8	자복	78	현덕호	0.96	자복
39	수광호	1.99	복합	79	황룡호	0.81	복합
40	세현호	1.98	자복	80	현덕2호	0.78	자복

연번	선명	톤수	업종	연번	선명	톤수	업종
81	해양호	1.39	자복	120	홍영호	1.98	복합
82	하용호	2.7	복합	121	흥진호	7.93	통발, 자망
83	윤진호	1.3	자복	122	대길호	0.8	자망
84	대상호	0.69	복합	123	동진3호	0.79	복합
85	영복호	0.9	복합	124	봉산2호	1.26	자복
86	푸른호	2.14	자복	125	대성호	1.26	자복
87	숙진호	1.62	복합	126	선진호	1.64	자망
88	승미호	3.48	자망	127	서해8호	4.72	자복
89	돌고래2호	1.96	자망	128	대길호	3.55	자복
90	진주호	2.04	복합	129	해광3호	4.95	자복
91	덕성호	1.51	자망	130	상진호	1.95	자복
92	고향호	1.29	자망	131	영진호	2.98	자복
93	만세호	0.95	복합	132	순덕호	4.56	자복
94	영광호	2.41	복합	133	영주호	0.89	자복
95	선수호	1.22	자복	134	영일호	1.36	자망
96	창해호	3.01	복합	135	삼흥호	0.79	복합
97	만선호	1.2	자망	136	청룡호	1.72	자복
98	길용호	1.49	복합	137	금광호	3.25	자복
99	제3다나호	1.66	자망	138	명진6호	1.26	복합
100	덕성호	1.86	자복	139	용순호	1.05	복합
101	수정호	0.96	자망	140	계룡호	3.47	자복
102	건강호	2.2	자망	141	순양호	0.98	자복
103	서신1호	0.89	자망	142	성일호	1.21	자복
104	일삼호	3.07	복합	143	진영호	1.41	자망
105	종갑호	0.8	복합	144	유복호	0.98	복합
106	신광호	0.93	자복	145	해진호	1.97	자복
107	서천호	1.31	자복	146	풍안5호	0.72	자복
108	한솔호	1.35	자복	147	남경호	1.98	자망
109	해신2호	2.47	자망	148	명성호	1.94	자복
110	서해3호	2.65	복합	149	미주호	7.31	통발, 복합
111	삼광호	3.57	자망	150	신양호	1.68	복합
112	해송호	3.09	복합	151	원호	1.42	자복
113	장원호	3.83	자복	152	반달호	1.98	복합
114	금성3호	0.94	자복	153	대성호	2.59	복합
115	선정호	0.98	자복	154	대원1호	1.02	자복
116	등대호	0.96	자망	155	삼성3호	2.97	자복
117	동호	3.35	자복	156	해광호	1.83	자망
118	덕천호	2.27	자망	157	바다호	3.51	자복
119	진흥호	7.93	안강망, 통발				

어선 크기와 수량

톤수	수량	비고
1톤 미만	32	
2톤 미만	64	
3톤 미만	25	
4톤 미만	21	
5톤 미만	12	
5톤 이상	3	7.31톤, 7.93톤(2)
합 계	157	

6) 절기별로 다른 물고기를 잡다

소래포구의 어선들은 잡는 시기와 어종이 약간 차이를 보인다. 계절적으로 잡는 물고기는 아래와 같다. 봄에는 주로 암 꽃게를 잡고, 꽃게 금어기에는 일부어선들은 멸치를 잡는다. 가을에는 숯 꽃게를 잡고, 11월에는 다양한 잡어를 잡고, 겨울철에는 일부 어선들이 새우를 잡는데 그 새우를 “동백하”라고 한다. 동(冬)은 겨울이라는 뜻이다. 연안어업 어선들은 덕적도 근해에서 고기를 잡고, 새우를 잡는 것 배는 강화도 인근으로 간다. 새우는 밀물과 바닷물이 모이는 곳에서 주로 서식하기에 새우잡이 어선은 임진강과 한강이 흐르는 강화도 근해로 간다.

소래포구 어선의 절기별 잡는 어종

계절	잡는 어종	비고
봄	꽃게(암), 밴댕이, 오징어, 복어	
여름	멸치, 꽃게 금어기(7~8월)	
가을	꽃게(숯)	
11월	잡어(삼치, 아구, 장대, 간재미, 우럭, 갑오징어)	
12월~1월	동백하	



출어 어선

금어기와 겨울철(11월 말~2월)을 제외하면 선원들의 근무는 9개월 정도이다. 보수는 월급제이며, 선원의 경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통상 월 400만 원을 받는다. 일이 없는 4개월 동안은 월급의 50%를 받는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일부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



출어 준비 어선

지만 막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조업의 시작은 통상 “보름밥 먹고 일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한다.

월곶포구 어선들이 잡는 어종은 면허, 어구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절에 따라 잡히는 어종은 봄철에 꽃게와 주꾸미, 여름철에 넙치, 병어, 가을철에 숯게와 전어, 12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의 휴식을 취한다. 그런데 여름철에 암게는 7~8월에 산란을 한 후 허물을 벗어 물렁해서 통발에 들어갈 힘이 없다. 1달이 지나면 다시 껍질이 굳어져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다시 암게를 잡는다. 암게를 선호하는 것은 숯게보다 경매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한편, 게 가운데 “범게”는 과거 환자가 있는 집 대문에 건 벽사용이었으나 근래에는 그 맛이 좋아 1kg에 3천~4천 원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덕적도 인근에서 많이 잡힌다.



전어



잡어 말리기

절기별 잡는 어종

기간	어종	비고
3월~4월	꽃게, 주꾸미	암게
5월~6월	넙치	
7월~8월	병어	꽃게 금어기
9월~10월	꽃게	숫게
10월~11월	전어, 꽃게	암게
12월~2월		휴식기

월곶포구는 꽃게 금어기가 끝나고 조업 시작(8. 21)을 위해 꽃게잡이용 통발을 배에 적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발은 노란색 또는 파란색이며 5개의 통발을 한 묶음으로 하는데, 이것은 운반하고 적재하기 편하다. 각각의 통발에는 줄 고리가 있고, 굵은 밧줄로 5개의 줄 고리를 엮어 고정시킨다. 통발의 각 면은 그물이 열려 있어 꽃게가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데 미끼로는 고등어를 사용한다.



꽃게 통발(노란색)



꽃게 통발(파란색)



꽃게 통발 배에 옮기기



꽃게 통발 조업 준비

주꾸미는 소라통발을 이용해 잡는다. 월곶포구 물량장에는 지난 해 사용했던 소라통발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데, 이것은 월곶포구의 어선들이 잡는 주 어종 중에 하나가 주꾸미

임을 말해준다. 소라통발은 소라 껍질과 속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통발을 연결한 줄도 곧게 펴고 오염물도 없앤다. 소라통발은 소라 입구 단단한 부위에 구멍을 내어 그곳에 30cm 정도의 줄을 끼우고, 그것을 60cm 간격으로 긴 줄에 연결한다. 소라통발은 매년 조업을 앞두고 손질을 하는데, 통상 4~5년은 사용이 가능하다. 소라는 두껍고 단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라는 껍질이 얇아 쉽게 깨지기 때문에 베트남, 북한산 소라를 쓴다. 소라껍질 1개의 가격은 850원 정도이다.



소라통발



소라통발 손질하기



소라통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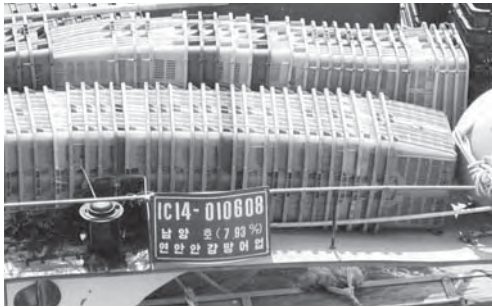
깨진 소라통발

멸치그물과 꽃게그물은 모두 입구는 같으나 그물코가 꽃게(14cm)가 멸치(10cm)보다 크다. 그리고 그물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입을 열어 고기들을 유인한다. 그물 길이도 32m, 35m, 45m, 48m, 50m 등 다양한데 수리한 그물은 멸치가 35m, 꽃게는 50m이다. 그물 색깔은 멸치는 고기를 유도하는 그물색은 붉은색이나 고기가 모이는 곳은 노란색이고, 꽃게 그물은 유도 그물은 녹색, 모이는 곳은 노란색이다. 이 색깔은 선원들이 어종에 따른 그물을 쉽게 알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그물들은 소래포구의 7.93톤 어선의 그물로, 이 배에는 7명이 탑승하며 선원들은 50세 이상이다.

바다에 설치하는 그물의 위치는 계절 및 잡는 어종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꽃게의 경우



멸치 어선



멸치 광주리

봄과 겨울에는 살이 찌고 알이 차서 가라앉는 성향이 있어 그물을 바다 속 밑으로 치고, 가을에는 살이 덜하고 산란한 암게들이 낮게 바다 속을 다녀 그물을 높게 친다. 멸치는 늘 떠다니고 야행성이라서 밤에 그물을 높게 친다.

월곶포구 공터에서는 금어기(6. 20~7. 30)에 그물수선 및 정리 등이 이루어진다. 찢어진 그물코를 수리하고, 정리가 완료된 것은 크레인을 동원해 긴 그물을 여러 번 접고 차량으로 이동해 한쪽 공간에 보관한다. 크레인 이용료는 1시간에 15만 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물 수선이 완료되면 부른다. 보관할 때는 쥐와 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천으로 감싸는데 종종

쥐약을 뿌려 쥐가 그물을 갉아먹는 것을 방지한다. 이들 그물들은 멸치와 꽃게를 잡는 그물인데, 선주는 선원 또는 그물 수선자를 고용하여 그물을 손본다. 그물 수선자는 일당으로 13만 원을 받는데 여성들도 있다.



그물펼치기



그물 손질



그물코 연결



그물코 도구



손상된 그물 자르기



그물접기



그물접어 모으기



그물 트럭에 옮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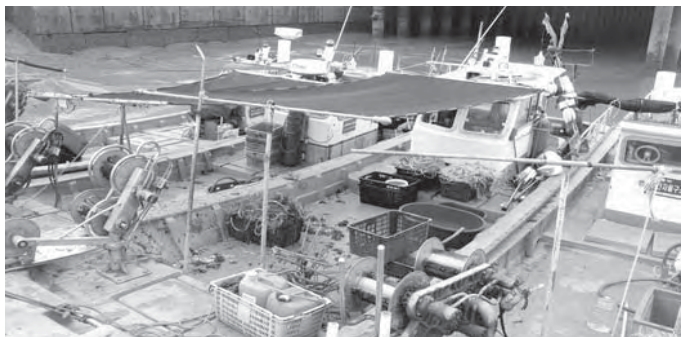


쥐약 뿌리기

그물 수선은 배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물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끊어진 그물코를 엮어주는 등 조업을 마친 배에서도 그물 손질은 한참 진행 중이다.



그물 손질



손질 후 남은 이물질

시흥시의 수산물 어획은 연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바다의 상황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가령, 한 해에는 병어가 많이 잡히고, 어떤 해에는 꽃게가 많이 잡기기 때문이다. 어느 선주는 작년에 병어 그물을 구입했으나 고기가 없어 사용도 못했고 배는 곧 폐선할 예정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산물 가운데 높은 금액의 실적을 올리는 것은 물고기와 갑각류인 꽃게이다. 2013년 현재, 시흥시의 수산물 수량은 336톤이며, 금액으로 30억 원으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한편, 해조류 어획은 전무하다.

수산물 어획고

(단위:m/t, 1,000원)

연별	합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패류		기타수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7	280	2,653,900	37	516,027	64	563,904	131	1,221,442	34	170,122	14	182,405
2008	181	1,737,721	60	603,162	72	530,104	41	560,829	8	43,626		
2009	388	2,602,956	89	780,883	103	867,189	43	554,144	153	400,740		
2010	276	2,110,668	92	777,353	120	888,581	20	276,695	44	168,039		
2011	196	1,536,362	60	635,339	62	529,267	44	246,648	31	125,108		
2012	262	2,606,483	81	1,039,040	113	1,022,656	36	320,457	32	224,330		
2013	336	3,091,000	83	1,044,000	184	1,367,000	32	417,000	37	263,000		

월곶포구는 1997년 7월 31일 인공 포구로 조성되었다. 이때 안산, 시흥 지역의 어선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오이도 선주들은 새로 조성된 오이도 포구를 이용하였다. 안산 사리 인근 마을인 별망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느 선주(75세)는 시화호방조제 사업으로 폐업을 하였다가 월곶포구가 조성되면서 다시 어선을 취득해 조업을 하고 있다. 그가 한 해 동안 잡는 어종은 아래와 같으며, 어법이 각각 달라 동시에 두 가지 어종을 잡을 수 없다고 한다. 광어, 전어, 병어 등은 그물로 잡는데, 그물코의 길이가 각각 다르다.

어느 선주의 절기별 어종과 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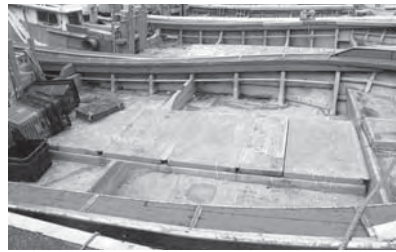
기간	어종	어구
3월~6월	꽃게	그물
4월	광어	그물
5월~6월	병어	그물(흰색)
9월~10월	전어	전어그물
8. 21~10월 말	꽃게	그물(초록)
11월~3월	주꾸미	소리통발

그 가운데 광어 그물 코가 제일 크며(7×8), 병어(5×5), 전어(3×3) 순이다. 고기를 잡는 장소도 광어와 병어는 팔미도 인근 깊은 바다에서, 꽃게는 어느 장소나, 주꾸미는 갯벌

이 발달된 곳에서 잡는다. 그러나 어선 기름값 때문에 자월도 아래로는 가지 않는데, 월곶에서 오이도까지 휘발유 20리터가 든다. 잡은 고기는 소래공판장 경매에 넘긴다.

올봄에는 꽃게가 많이 잡히지 않아 가을 꽃게 조업을 앞두고 주문한 그물도 가져오지 않았다. 최근 4~5년 동안 100~200kg의 꽃게를 잡았으나 올봄에는 30kg 정도밖에 잡지 못하였다. 병어와 전어는 활어인가에 따라 그 가격이 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병어와 전어는 잡으면 바로 물통에 넣고 산소를 틀어 살린다. 그리고 어종 중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것은 꽃게, 주꾸미 순이다.

꽃게는 살아있는 것이 제 가격을 받는다. 따라서 배에서 잡은 꽃게는 바닷물이 있는 플라스틱이나 고무통에 넣어 살려두며, 통발보다 그물로 많이 잡는다. 잡은 양이 많을 때는 배 중간에 마련된 ‘물칸’에 넣는다. 물칸은 총 5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1칸의 깊이는 150cm, 세로 10cm, 가로 80cm이다. 7톤 이상의 어선은 꽃게잡이 때 연평도 인근 바다로 간다.



배의 물칸

어선 업종을 보면 자망·복합이 79척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복합(46척), 자망(29척) 순이다. 통발과 자망, 안강망과 통발, 복합과 통발 등의 업종은 각각 1척이다. 복합과 자망을 제외하고 두 가지 업종의 경우는 각각의 어업면허를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중 어업면허가 가장 비싼 것은 안강망이며, 그다음이 통발, 자망·복합 순이다. 어선의 가격은 면허와 톤수, 조성 연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최근에 통발 면허권을 가진 7.93톤 어선이 2억 5천 정도에 거래된다.



꽃게그물과 고무통

업종 면허와 잡는 어종

업종	수량	잡는 어종
자망·복합	79	꽃게 전어 병어 넙치 민어 농어
복합	46	민어 농어
자망	29	꽃게 전어 병어 넙치
안강망·통발	1	새우 멸치 꽃게 박하지(게) 우럭 놀래미 소라 님지 장어
복합·통발	1	꽃게 박하지(게) 우럭 놀래미 소라 님지 장어
자망·통발	1	꽃게 전어 병어 넙치 박하지(게) 우럭 놀래미 소라 님지 장어
합계	157	

어업도구에 따라 잡는 어종도 차이를 보인다. 자망의 경우 꽃게, 전어, 병어, 넙치 등의 물고기를 주로 잡는데, 전어 그물코는 다른 물고기에 비해 작다. 복합은 연승으로 민어, 농어 등을 잡는데, 미끼로 ‘민챙이’를 사용한다. 자망·복합면허는 자망과 복합으로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어획한다. 통발로는 꽃게, 박하지(게), 우럭, 놀래미, 소라, 낚지, 장어 등을 잡는데, 소라는 홍합을 미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고등어를 이용한다. 안강망은 새우, 멸치를 비롯해 모든 물고기를 잡는다.

유자망은 그물 윗부분의 부포가 둥둥 뜨고 밑에는 납봉이 달려 있고, 1틀(3~4쪽)에 닻을 2개씩 달아 그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닻은 반드시 갯벌에 박혀 있어야 한다. 결국 위로 뜨고자 하는 힘과 아래로 가라앉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 그물은 서 있는 상태가 된다. 유자망은 대개 세 겹으로 된 삼중망, 이른바 ‘삼마이그물’을 쓰는데, 원래 법적으로 금지된 어구이다.

월곶동에서는 유자망을 ‘자망’이라고 부른다. 자망은 네트 모양의 그물을 물속에 수직으로 길게 쳐 놓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거나 말려들도록 하는 그물이다. 통상 그물을 설치해두고 매일 나가서 그물에 걸린 고기를 건지고 다시 자망을 친다. 물론 그 자리에 고기가 별로 잡히지 않으면 다른 자리로 옮겨 친다. 자망의 코는 작은 물고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크기가 제한되어 있으며,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30~60일의 어업정지를 당한다.⁴³⁾

통발은 틀에 그물을 씌워서 제작한 것으로 노란색, 초록색 등 다양하다. 통발의 사각 면은 틈이 있어 그쪽으로 고기를 유도한다. 안강망(魷鰵網)의 안강(魷鰵)은 아귀처럼 머리가 큰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어구 자체가 아귀처럼 입만을 크게 벌려 조류에 밀려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고기를 잡는 것이다. 보통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그물을 닻으로 고정시켜 놓고 멸치, 새우, 각종 잡어 등을 잡는다.

월곶포구는 현재 포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1992년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된 월곶포구는 초기에는 24시간 배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입지조건으로 포구로 성장하였으나 2008년부터 폐항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거기에는 1994년부터 시작된 송도공유수면 매립 및 송도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월곶포구에 토사들이 몰려들어 만조 때만 어선들의 입출항이 가능하게 되었고, 물량장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1993년부터 월곶수협공판장이 폐쇄되면서 물고기 경매장이 사라져 월곶포구의 어선들은 소래포구나

4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40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04. 16.]

대부도 방아머리 포구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포구 주변의 폐어구와 갯벌의 오염으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다.

7) 주차장 부족이 어시장 손님을 내몰다

(1) 월곶지구의 현재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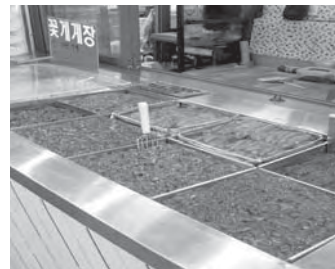
월곶지구에는 횃집, 음식점 등 약 260여 점포가 있다. 음식점의 경우는 규모가 비교적 크나 투자한 비용에 비해 수입은 저조한 편이다. 전업할 계획도 있지만, 손님이 없는 현재로서는 투자비용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월곶지구 상인의 이전 거주지는 인천, 소래포구, 안산 사리포구, 시흥 등 인천과 시흥시 주변이다. 그런데 월곶지구에 바로 인접한 소래포구에서 이전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월곶지역 개발 초기에 기대가 컸던 것을 알 수 있다.⁴⁴⁾



월곶포구 어시장



새우젓



각종 젓갈

월곶포구 옆에는 3동의 어시장이 있다. 본래 소래포구처럼 계획적으로 어시장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개발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젓갈시장은 한 구역에 모여 있을 뿐이다. 어시장은 주로 활어, 패류, 건어물 등을 판매하였으나 소래포구에 비해 영업 실적이 좋지 못하였다.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지던 월곶수협공판장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일찍 폐쇄하여 어선에서 잡은 싱싱한 물고기가 어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였다. 또한 월곶포구 인근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조류의 차가 작아지고, 갯벌이 오염되면서 어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었다. 어시장 중 도로변에 인접한 상인들은 어물

44) 조계영, 『대도시 주변 관광어촌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판매 대신 포장마차로 구조를 바꾸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어시장 공판장에서 어물을 직접 판매해서 포장마차, 횡집 등으로 용도가 바뀌다보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경우도 많다. 또한 횡집의 경우는 음식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불법 영업으로 주변으로부터 신고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화장실이 없어 위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 이후에는 오늘날처럼 여러 상점 공간을 한 공간으로 만들어 대형 횡집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 횡집 간판은 대부분 전라도 지명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주인이 전라도 출신인 경우도 있지만 전라도 음식의 명성을 이용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어시장은 도로를 접한 지역을 제외하고 어시장 내부의 상점들은 모두 폐업을 하였다.



폐업 횡집



폐업 횡집 이전 안내 현수막



어시장 내부



어시장 내부(폐업)

어시장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18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 어시장 기둥으로 이용한 파이프 등이 주저앉아 재개발이 시급한 상태이다. 내부 상점도 폐업으로 인해 불량화가 심각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내부 상점 골목에는 짐기들이 쌓여 있는 상태이다.

월곶종합어시장 협동조합(이사장 신병학)은 횡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17명이 가입비 7백

만 원을 내고 조합을 결성하였다. 조합에서는 횃감으로 사용되는 물고기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이익금을 가지고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물고기는 현지에서 직접 구매를 하며, 횃집으로 넘겨주고 남은 것은 조합 소유의 수족관에 넣어 일반인에게도 판매를 한다. 외지에서 직송되는 물고기는 옥돔, 광어, 우럭 등이며, 통영, 완도, 제주도에서 온다. 협동조합은 2년 전에 ‘소상공인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것으로 차량 2대를 구입하고, 사무실과 수족관(물칸, 28평) 설치비로 사용하였다. 지원차량은 5년이 지나면 운영권이 모두 조합에 주어져 팔 수도 있으며, 차량 운전은 인건비를 고려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운전을 한다.



월곶어시장 협동조합 사무실



활어 공동구판장



월곶어시장 협동조합 차량



협동조합에서 공급받은 광어

어시장은 1997년 8월에 입주를 하였고, 상인회(회장 정부기)는 입주 전에 결성되었다. 월곶어시장은 본래 연안부두식 좌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젓갈, 건어물, 회 코너 등의 구획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시장에서 꽃게, 젓갈 등은 팔리지 않고 횃감은 팔렸다. 그래서 어시장이 개업한 지 3년 만에 횃집 형태로 바뀌었다. 그런데 젓갈시장은 장사가 괜찮아 점포들이 모이게 되었다.

월곶종합어시장은 상가번영회에서 지었다. 종합어시장은 가나다 등 3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나동이 규모가 제일 크다. 어시장에는 7평 규모의 점포 23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동은 25개, 나동은 150개, 다동은 58개이다. 초기 분할 가격은 평당 2천만 원이었다. 점포는 주인이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지만, 월세를 주기도 하였다. 어시장 영업주 가운데 1/3은 자가 운영이다. 풍림아파트가 월곳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어시장은 영업을 활성화되어 월세가 150만 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월세는 10만~20만 원으로 톱 떨어졌고, 점포 가격도 2억에서 5천만 원으로 내려갔다. 이것은 현재 월곳어시장의 영업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월곳어시장은 일본 방사선, 메르스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어시장 상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주말의 주차단속이다. 인근의 음식점과 달리 어시장 내에는 주차장이 없어, 대로변 옆에 불법주차를 하였다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빈번하자 점점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현재는 횡집 주인들이 주차관리 일까지 챙기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말이면 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많은데,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한 월곳에서는 오히려 시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천마횡집				전라도 혜자매 식당	사 송 회 봉 도	목포신안횡집	전라 고흥 나로도	호남 갯 벌	원도 쌍둥이네
대계 키크랩 도소매	결성젓갈		황해도젓갈	광천독베토굴젓갈					
농가 소 돼지 생고기	강화젓갈		유씨상회	전라도막회집		군산바다회집	전라도 별교 고흥 소문난 횡집		창민횡집
충청도 공주회집	독새매운탕								전라도 목포 해남 진도 횡집
형제수산									
광명수산	충청도공주회		천승수산	호남해벌네					
충청도 공주회집	전라도의명소		시원조개직판장	충청도 서천 공주					
전라도 고흥횡집(형제수산)	수성수산	백년젓갈	유달산	활어공동구판장					
충청도 금산횡집	목포회센터	세종할매	조합	전라도 보성 무안 회					
목포 군산(월곳월물도소매)			경진수산	전라도 신안 흑산도					
호남, 여수, 함평, 전라도 회집	목포는 항구다 이모네 회집		호남횡집	큰손회 바다농장 (구룡진 횡집)					
군산 전라도 한가네	소문난회집		독도수산 산남지도매	바닷가 작은집(커피)					

어시장 나동, 다동 점포 분포도⁴⁵⁾

45) 어시장 내 상점은 폐점, 합병 등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의 분포도는 정확하지 않음을 사전에 양지 바란다.

현재 풍림4차 자리는 과거 공터였다. 이곳은 어시장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많은 손님과 모임 단체 손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가 자리 잡고 월곶 지역에 공터가 사라지면서 찾아오는 손님에 비해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주차장 부족은 손님이 월곶을 다시 찾지 않는 결정적 이유라고 상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차량을 몰고 오는 대규모 손님들을 맞이할 수 없다.

횃집과 선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횃집의 주차장은 과거 어구 등을 보관하던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나 횃집이 들어서면서 일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보니 어구를 일반도로나 인도에 방치한 경우도 발생했다. 그리고 바다 쪽 물량장에는 20여 개의 어구 보망장(창고)과 방치된 폐어구 등이 인근 상점의 미관을 해쳐 민원이 제기되고 이에 시흥시에서는 수협공판장 앞쪽에 새롭게 어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물량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물량장 계단에는 창고에 넣을 수 없는 각종 그물, 닻, 소라통발, 깃발 등도 쌓여 있다. 그리고 월곶포구의 어선에서 잡은 물고기가 인근 횃집에 유통되지 않는 등 상인과 어민 사이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물량장 공사



물량장 공사 마무리 중

(2) 월곶포구 꿈을 꾸다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566,000㎡(약 171,000평)의 준공기념으로 “월곶포구 미래탑”을 세웠다. 탑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높이가 30m이고 탑 위에는 직경 5.75m가 되는 지구본을 올려두었다. 조형탑 설명문에는 “지구본은 세계로 향한 21세기를 여는 서해안 시대의 관문을 의미하고 위로 향한 기둥은 시의 미래 지향적인 진취적 기상을 의미하며, 하늘을 향해 솟은 3개의 탑은 단합, 협동, 총화의 상징으로 뻗어 오르는 힘찬 시흥시의 의지 표현”을 나타낸 것이라고 적고 있다.



미래탑



소래철교

소래와 월곶 사이를 잇는 수인선 소래 철교 구간은 관광객들의 체험공간으로 인기가 많다. 그런데 정작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월곶보다 소래포구 쪽에서 식사 등 시간을 보낸다. 이런 경향에 화가 난 일부 월곶 상인들은 한때 월곶 쪽 수인선 일부를 막아 월곶에서 소래로는 수인선 다리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조선소



선박 도색 작업

월곶포구는 소래포구와 마찬가지로 도심 속에 있는 포구이다. 포구 한쪽에는 조선소가 있어 배의 제작이나 수리, 오염물 제거, 칠 등을 하고 있으며, 해변을 따라 횃집, 어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다. 조선소는 2001년에 자리를 잡고 초기에는 선박을 생산하여 소음, 진동 문제로 30m 거리의 인근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월곶포구가 포구 기능이 상실되면서 조선소는 도색 등 간단한 일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선소가 적자이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월곶포구는 1997년 공유수면 매립 및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퇴적물로 인해 포구로서의 기능이 매우 축소되었으며, 현재 개발 중인 군자매립지(배곧도시개발구역) 및 송도 11공구 공사로 퇴적물에 의한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월곶포구의 지속적인 퇴적·매물로 인하여 간조 시 어선의 출입이 제한되어 포구로서 제 기능을 못해 상실위기에 있고 또한 항 내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악취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월곶항의 준설이 불가피하다.⁴⁶⁾

시흥시는 2015년 8월 28일 <월곶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⁴⁷⁾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시흥시는 월곶포구의 국가항 지정시 포구 어선 진입부를 준설하고, 이때 준설토를 인근 주변 공유수면에 매립하여 매립된 토지는 어항에 필요한 물량장을 비롯해 주차장, 녹지공원 부지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로 직입부에서 물량장까지는 80m 폭의 항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설하고 준설토를 이용하여 항 내부에 100m 폭을 매립(3.7만㎡)하고 물량장 뒤편인 정왕동 횡단 동측 공유수면 8.7만㎡를 매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흥시는 포구 수면 유지를 위해 준설이 절대 필요하며 이때 발생하는 토지를 주변 공유수면에 투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 지역 투기가 불가능한 준설토를 인근 공유수면을 준설토 투기가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월곶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 시 준설 등을 정부에서 하게 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월곶포구와 상점이 활성화되려면 소래처럼 난장이나 재래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근의 주민들이 손쉽게 신선한 생선을 구입할 수 있다면 찾는 사람들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선박 계류 시설을 보강하고 포구로 유입된 토사 등을 제거하여 배들이 24시간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래포구의 경우 썰물과 들물의 차가 9m 정도로 언제든 배가 드나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흥시에서는 월곶포구 활성화를 위한 부정기적이지만 주꾸미축제와 포구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월곶포구 주꾸미 축제”는 2004년 4월 24, 25일에 월곶포구 미래탐 앞 물양

46) 시흥시, <월곶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5.7.

47) 시흥시, <월곶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초안요약서), 2015.8.

장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주꾸미 시식회 및 반짝 경매 등을 비롯해 각설이공연, 가요제 등의 행사를 펼쳤다. 당시 인기가수들 공연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이 축제의 목적이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하였지만, 그 이후에 주꾸미 축제는 행해지지 않았다.

축제 현황

날짜	시 간	내 용	주 관
11.7(토)	11:00~12:00	농악 거리 공연	달월두레농악
	12:00~13:00	주민자치&동아리공연	주민자치위원
	13:00~14:00	우수동아리공연	
	14:00~14:30	고기잡이체험	
	14:30~15:00	비보이공연	
	17:00~18:00	리허설	
	18:00~18:30	풍어제	월곶초등학교
	18:30~19:00	개막식	위원회
	19:00~21:00	달빛콘서트축하공연	
	21:00~	풍등날리기	월곶초등학교
11.8(일)	12:00~13:00	주민자치&동아리공연	
	13:00~14:00	시흥시우수동아리공연	
	14:00~14:30	수산물감짜경매	
	15:00~17:00	시민노래자랑결선	
	17:00~19:00	리허설	
	19:00~21:30	폐막축하공연	가수협회
	21:30~	불꽃쇼	위원회

■ 상설프로그램 ■

- 어선승선체험(12:00~15:00)
- 먹거리장터, 벼룩시장
- 어린이사생대회 전시, 옛 사진전시, 어구전시
- 솜사탕, 달고나체험, 페이스페인팅, 바람개비만들기, 버블체험

현재까지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축제는 “월곶 포구축제”이다. 월곶포구발전축제위원회(위원장, 정부귀)가 주관하고 시흥시가 주최하는 형식으로 2015년에도 월곶 포구 미래 탑 광장 일원에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제3회 월곶 포구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축제의 목적은 “수도권 명품 해안인 월곶 포구를 테마로 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월곶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도권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방문을 유도하고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 선정을 계기로 시흥시의 관광중심지인 월곶동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행사 프로그램은 인기가수와 비보이 공연, 고기잡이 체험, 어선 승선체험, 주민자치 및 동아리 공연, 불꽃놀이, 수산물 경매 등이다. 그간 2회 포구축제는 2013년 11월 2, 3일에, 1회는 2007년 7월 14일에 거행하였다.



2013년 월곶포구 축제 포스터



어선을 정박하는 여인

수자원보호 및 어업인들의 어업경영비 부담경감 및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흥시에서는 2002년부터 어민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어구 구입비 지원 및 어린 물고기 방류, 연안 및 포구 정화사업, 폐어망(어구) 및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들 수 있다.

월곶포구의 주 어획물은 광어, 꽃게, 주꾸미, 낙지, 패류 등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월곶의 경우는 낙지와 패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광어와 꽃게 등의 어획량은 어린 물고기의 지속적인 방류 효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연안 정착성 어종인 광어와 꽃게 치어 478만미를 방류하였다. 2012년에는 총 140만 미를 방류하였는데 넙치(광어) 55만 미, 꽃게 85마리를 방류하였고, 사업비로 5억 원을 사용하였다.⁴⁸⁾ 어업 허가는 연안으로 모든 어선은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월곶 갯벌



갯벌에 파묻힌 목선

48) 2011(5억) 넙치(광어) 60만미, 꽃게 108만미 / 2010(5억) 광어 70, 꽃게 100, / 2009(7억) 광어 150, 꽃게 103 / 2008(4억8천) 광어 60, 우럭 40 / 2007(468백만 원) 넙치 380, 우럭 594 / 2006(580백만 원) 넙치 548, 우럭 501 / 2005(320백만 원) 넙치 392천 미, 우럭 233천 미 / 2004(430백만 원) 넙치 467천 미, 우럭 228천 미.

어구 구입비 지원은 2002년 연안자망, 연안 복합허가를 받은 어선 어업자들에게 어구 구입비 3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데, 2003년에는 6천 4백만 원, 2004년에는 4천7백만 원, 2007년은 6천5백만 원, 2010~2012년도에는 1억 6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어구 구입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 및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시흥시의 특색 사업이라고 자평하고 있다.⁴⁹⁾

연안 및 항포구의 정화사업은 해안가에 방치된 오염물질 제거 및 해양오염 방지, 훼손된 갯벌생태계를 자연 상태로 복구하는 것으로 2003년에 2천3백만 원(도비 6백 시비 1천 7백), 2004년도에는 9천 3백만 원, 2007년도에 1억 일천만 원을 투입하여 폐어망,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 64톤을 수거, 처리함으로써 갯벌생태계 보호와 항포구 조성에 기여하였다. 2010~2012년도에는 9천만 원을 투입하여 폐어망, 폐어구 등 해안가 쓰레기 464톤을 수거, 처리함으로써 갯벌 생태계 보호와 깨끗한 포구 조성에 기여하였다.

3. 땅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

달월마을은 바닷가와 인접해 있으나 어업은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뿐 마을의 전통적인 생업은 농업이었다. 넓은 들에서는 논농사를 주로 지었고, 쌀 이외에 필요한 부식을 재배하기 위해 밭농사를 지었다. 다만 모든 농사꾼들이 그러하듯이 조금 남은 땅이라도 개간하기 위해 애썼고, 달월주민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게로 흙을 날라 간척사업을 계속해 왔다. 달월마을의 간척지는 국가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조금씩 간척을 진행해 오던 곳이었다.

달월마을 주민들의 주 생업은 농업이지만 고기잡이나 염전사업 등 생계를 꾸리기 위해 바다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 먹거나 미끄러운 갯고랑을 미끄럼틀 삼아 놀았다고 한다.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 사람은 드물었으나 ‘사두리’로 새우새끼를 잡아먹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사두리는 반두와 비슷한 형태의 그물로 반두보다는 더 큰 크기의 그물이었다. 바다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그물도 없었다고 한다. 1960년대 이후에 큰 그물로 밀물 때 갯고랑을 막았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들을 잡는 형태의 어업이 있었

49) 시흥시(www.siheung.go.kr/)

다. 당시 그물의 주인이 잡은 고기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일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갔다고 한다.

1970년대에는 환금작물 중심으로 마을의 농업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논농사가 여전히 중요하였으나 각 가정별로 소비할 양의 고추농사를 지었었는데 이제는 판매를 위해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과수 농사도 70년대에 짓기 시작하는 등 전반적으로 마을 농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점차 마을에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린벨트로 개발이 묶였던 지역이 해제 되면서 공장들이 생겨났다. 처음에는 많은 주민들이 마을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으나 점차 마을 개발과 더불어 공장들이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주민들은 마을의 공장들이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1) 논농사

5~6년 전만 해도 벼씨를 소독한 후 물과 섞어 고무통에서 싹을 틔운 후 논에다 직접 못자리를 만들어 모를 길렀다. 모가 자라면 우마차나 지게로 옮겨와 이웃 사람들과 품앗이를 해가며 모를 냈는데, 이yang기가 보급되면서 하우스 안의 모판에 직접 파종을 하여 모내기할 때 다 자란 모판을 자동차나 트랙터로 옮겨서 모내기를 하거나 발아된 벼씨를 모판에 농약 비료 등을 혼합한 상토위에 기계를 이용하여 뿌린 후 논 근처에 못자리를 하였다. 이로 인해 운반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다. 모내기 철 달월 큰 방죽에는 트랙터 2~3대, 이yang기 2~3대와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몇 차례 오고가면 모내기가 끝난다. 약 2주 정도 걸린다.

마을에서 규모가 큰 기계화 영농을 하고 있는 아버지 정준채 씨의 농사일을 이어받은 신세대 농업인 정찬주 씨가 제일 먼저 벼씨를 골라 발아시키기 전 탈망작업을 하고 있다.



기계로 탈망작업을 하고 있는 정찬주 씨



벼씨 발아기



발아된 벼씨



벼씨를 모판에 파종하는 월곶 쌀 작목반원들



월곶 쌀 작목반원들



못자리를 하고 있는 쌀 작목반원들



모내기 전 트랙터로 논을 고르고 있는 2통 궁골 조원열 통장님/ 쌀 영농조합 조용준 회장

이앙기는 직접 끌고 다니는 보행 4조식부터 앞서 운전하는 승용6조식, 8조식을 이용하여 모내기를 하고 있다. 달월 큰방죽에는 초창기에 보급된 보행 4조식을 잘 관리하는 농가가 있는데 70년대 경운기를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 이앙기도 농지의 크기에 따라 대형화되는 추세이지만 현재에는 승용 6조식, 8조식을 주로 사용한다.



다 자란 못자리



모내기 전 모판을 정리하는 심덕인 씨



보행 4조식 이앙기로 3대가 모여서 모내기 하는 독감마을 최천진 씨댁 모내기



6조식 승용이앙기로 모를 내고 배달된 음식을 먹고 있는 최승수 씨



최신형 8조식 승용이앙기로 모를 내는 쌀 작목반 조관훈 회장님

70년대 냇둑길에는 강아지, 주전자 들고 가는 손자, 밥고리를 이고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가는 아낙네가 줄지어 가던 모습이 생각난다. 이제는 5월 중순 트랙터와 이앙기 화물트럭만 2주일 정도 오고가면 모내기가 완료된다.



달월 큰 방죽 수리미산 아래 모내기가 끝난 논



섬산길 방향



모내기 후 물대기하는 갯다리 이준성 씨



모내기 후 뜬 모 잇는 벌말 이관하 씨



벼가 싹싹 자라고 있는 7월의 큰 방죽



이삭 거름 주는 궁골마을 조원열 2통장님



8월 논에서 볼 수 있는 벼꽃



항공방제(7월과 8월 두 차례 헬기로 농약 살포)

80년대 맹독성 살충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농약이 자연분해되지 않고 논에서 갯골로 흘러가면서 벼메뚜기, 미꾸라지, 붕어 등 민물고기와 참게, 방게, 붉은 발농게 등을 거의 멸종시켰다. 2000년대부터 서서히 친환경 농약 사용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복원되고 올해부터는 큰 방죽 섬산 방향 우측농지에 우렁이 농법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벼이삭이 익어가는 9월 아침에 제일 먼저 물꼬를 보러 나오는 안태옥 씨

자전거에 농기구가 항상 장착되어 있다. 모내기하기 전부터 추수 때까지 새벽동트기 전 한결 같은 모습으로 달월 큰방죽에서 벼농사 관리를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황금물결 치는 10월의 큰 방죽 벌판



친환경 농약 사용으로 다시 돌아온 메뚜기



벼 베기 하는 안종호 씨



벼 베기를 하고 새참을 먹고 있는 주민들

정월에는 가래떡을 뽑고 보리, 밀, 수수, 벼 등 온갖 곡식을 정리하던 정겨운 방앗간이다. 한 때는 주변에 떡 방앗간, 슈퍼, 이발소가 있었으며 70년대 달월마을의 변화가였다.



1950년대 말 전기를 이용하여 달월마을의 곡식을 정리하던 달월정미소

2) 밭농사

달월마을의 밭농사는 70년대까지 늦은 가을보리와 약간의 밀을 심고 5월 모내기를 마치면 6월 보리와 밀을 수확하였는데 이 마을에도 60년대까지는 보릿고개가 있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떨어지면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양식이 부족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다. 보리개떡, 풀떼기 등 그 시절 먹던 음식들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다.

보리를 수확하여 보릿단을 운반할 때 남자들은 지게로,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날랐다. 무더워지기 시작하는 초여름 보리를 탈곡(절구를 뉘어놓고 탈곡함)할 때 보리 티끌이 따가워 고생을 했다. 그 보릿짚을 이용하여 여름방학 때 여치집을 만들던 추억도 생생하다. 보리를 수확하면 콩을 심고 콩밭 중간에는 수수를 심었다. 여름방학 무더운 삼복중에 콩밭골고지(풀 뽑는 일)도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이다.

콩밭 중간에 심은 수수는 한참 자랄 때 껌부기가 간식거리다. 가을에 수확하고 남은 수숫대는 겨울철 농한기에 엮어 울타리로 사용하고, 수수뿌리는 캐어서 땀감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털어낸 수수자루는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수숫대 맨 위의 긴 대는 활쏘기 놀이 할 때 화살로 이용하고 학교에서 만들기(공작)시간에 안경도 만들고 저수지의 망둥어를 낚시할 때 낚시찌로도 사용하였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면서 고추, 딸기, 참외 등을 심어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늘어나고 보리보다는 채소를 재배하여 인천으로 팔러가는 아낙들이 많아지면서 달월 간이

역에 모여드는 보따리도 늘어갔다. 기차 시간이 가까워지면 경운기, 지게, 자전거, 리어카, 오토바이 등 짐을 실은 운송도구가 줄을 이었다.

시간이 한적한 달월 간이역에는 걸음을 재촉하는 할머니들과 아기를 업고 뛰는 젊은 새댁까지 달월 여자들의 부지런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기차가 정차하면 좁은 기차 안에 사람과 보따리가 화물처럼 밀려들어가는 진풍경도 있었으며, 80년대 들어서 축산업과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90년대에는 화물차와 자가용 등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기 시작하였다.

매년 봄이 오면 농기계가 없던 시절 논두렁과 밭고랑을 정리하기 위해 가래를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경운기, 트랙터, 포크레인에 밀려 사용하지 않는다.

옛 생각을 하면서 고잔마을 어르신들이 이용민 3통 반장님 발에 나가 가래질을 하였다.



가래 장치 손보는 안산옥 어르신



고잔마을 어르신들 가래질

70년대에 보급되기 시작한 경운기가 50여 년간 만능 농기계에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전문화된 농기계에 밀려 사용하는 농가가 줄어들었으며 달월마을에도 남아있는 경운기가 몇 대 안 된다.



궁골마을의 조진열 씨



독감마을 최수환 1통 통장



우묵골의 민금식 씨 3부자



상곡마을 안창옥 씨



관리기로 밭을 고르는
월곶3통 이용민 통장



농약을 살포하는
삼밭마을 4통 강용석 통장



월동택지개발로 마지막
농사를 지으시는 백석조 어르신



달월마을 최고령 농부이신
독감마을 최재열 어르신



고잔마을 안철옥 어르신



삼밭마을에서
정왕동으로 이주하신 김성의 씨 부부



삼밭마을 4통 노인회장
박홍열 어르신 부부



고추를 건조시키는 1통, 3통 통장님



젊은 시절
달월 이발관 사장님 최재복 씨

달월마을은 염전이 축조된 지역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적어서 포도재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60년대에는 벌말에 포도 과수원이 있었고 고잔마을에 복숭아 과수원이 있어 그 시절 과수원집 자녀들만 과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지금도 달월마을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벌말에 이해근, 이관하, 이인창 어르신이 계시고 상곡에 정승채 씨, 조관훈 씨, 고잔에 안종학 씨가 계시다.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신옥순 씨



포도를 판매하는 조진열 씨 부부

포도 판매를 위해서는 도로변에 포도밭이 있어야 판매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근의 포도밭은 전부 도로가에 있다.



고잔마을 안종학 씨



별말 이관하 어르신



독감마을 이인창 어르신

요즘 달월마을에는 보리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다. 집에서 먹는 엿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심는다. 보리밭 구경하기가 힘들다.



옛날 방식인 도리깨로 보리를 탈곡하고 있는 안청옥 씨 부부



새들이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양파자루를 씌워 놓은 이색적인 수수밭



가정에서 양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한 참깨와 들깨



고추를 수확한 자리에 김장배추와 무씨를 뿌리고 있는 궁골마을의 조관훈 씨 부부



마늘 수확을 하고 있는 벌말 최재갑 씨 부부



채소를 다듬고 있는 궁골 하윤식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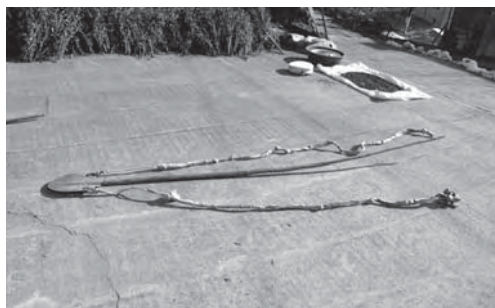
상곡마을에서 농사일을 거드시는
90세가 넘으신 당을순 할머니

4. 손이 되고 발이 되어준 도구들

사람들은 많은 도구들을 이용하면서 살아간다. 도구를 통해 생활양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문화적 전통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사용하던 도구들은 기계 및 재료의 발달 등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월곶마을의 생업의 변화를 간략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도구들을 기록한다.

1) 가래

가래는 일반적인 삽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그 길이가 삽보다는 훨씬 길고 날이 있는 부분 양쪽으로 줄이 달려있다. 달월마을에서는 ‘삽가래’라고도 부르는데, 마을에서 찾은 가래는 전체 길이가 300cm, 날 길이 32cm, 날 폭 24cm이다. 가래는 보통 논두렁을 만들거나 독을 쌓을 때 사용한다. 가래는 똑같은 가래를 사용



가래

하는 사람 수에 따라 5명이 가래를 함께 사용하면 ‘다섯목가래’, 3명이 가래를 함께 사용하면 ‘세목가래’라고 부른다. 다섯목가래는 세목가래보다 줄을 잡는 길이를 길게 하여 사용한다. 다섯목가래는 긴 장대를 잡는 ‘장부대기’가 1명, 가래날 양쪽의 줄을 짧게 잡는 ‘목줄잡이’가 2명, 가래날 양쪽의 줄을 가래날과 멀리 떨어진 곳의 줄을 잡는 ‘끝줄대리기’ 2명이 필요하다. 먼저 장부대기는 가래자루를 잡고 있고 목줄잡이는 가래날 부근에서 굴토를 할 땅에 가래날을 깊이 박는다. 장부대기도 자루에 힘을 주어 함께 힘을 보탠다. 그 다음 끝줄대리기가 멀리서 줄을 잡아 당겨 흙을 떠낸다. 이때 장부대기는 가래자루를 길게 밀어내어 힘을 더하고 목줄잡이는 가래날을 머리까지 높이 들어주어 가래로 뜬 흙이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목가래를 사용하면 멀게는 10미터 떨어진 곳까지 흙을 던질 수 있어 흙을 쌓아둔 곳과 독을 쌓아둘 곳의 거리가 멀 때 사용한다. 세목가래는 목줄잡이가 필요 없이 끝줄대기 2명과 장부대기 한 명이 함께 일을 한다. 대신 목줄잡이의 역할을 장부대기와 끝줄잡이가 조금씩 나누어 일을 진행한다. 보통 흙을 모아둔 곳과 독을 쌓아둘 곳의 거리 5미터 이내의 가까운 곳일 때 사용한다. 목줄잡이와 끝줄대리기는 줄이

손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잡기 편한 곳에 매듭을 묶어둔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다보면 가래줄에 여러 개의 매듭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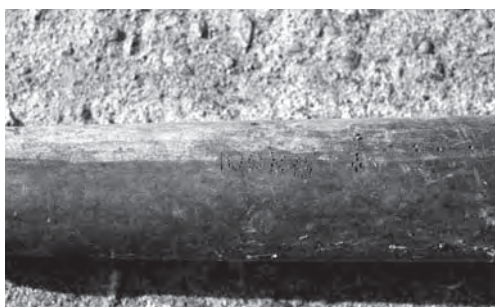
2) 대칭저울(저울 길이는 141.6cm)



대칭저울



저울추



100kg이 새겨진 저울



30kg이 새겨진 저울

대칭저울은 무게를 재는 도구로 저울과 추로 구성되어 있다. 저울은 최대 100kg까지 무게를 잴 수 있게 제작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쌀가마의 무게를 잴 때 많이 사용하였다. 무게를 잴 때 저울의 끝에 갈고리에 무게를 잴 물건을 건다. 물건의 대략적인 무게가 30kg 이내인 경우 붉은색 끈에 붓을 끼우고 30kg이 넘을 것 같은 물건은 희색 끈에 붓을 끼워 두 사람이 들어 올린다. 그리고 저울의 반대편에 추를 매단다. 저울의 한 쪽 면에는 양쪽 끝에 30kg과 100kg이 적혀있고 그 사이에 작은 점이 찍혀있다. 1kg 단위로 점이 찍혀있는데 홀수 무게에는 점이 1개, 짝수 무게에는 점이 2개 찍혀있다. 그리고 10kg마다 점이 4개가 찍혀 있어 무게를 잴 때 쉽게 해 두었다. 저울의 다른 쪽 면은 양쪽 끝에 1kg과 30kg이 적혀있고 그사이 동일한 형태로 점이 찍혀 있다. 이 면은 30kg 이내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한다. 추의 위치에 따라 무게가 정해지는데 추를 이리저리 옮겨 무게를 정하는 것을 ‘메곤

을 조정한다.’라고 한다.

3) 팔랑개비

팔랑개비는 ‘바람풍선’이라고도 부르며, 곡물의 찌꺼기 등을 날려 알곡과 구분하는데 사용한다. 한 사람이 이 팔랑개비를 손으로 돌리고 그 앞에서 알곡과 찌꺼기가 구분되지 않은 곡식을 키에 넣고 까부른다. 그럼 팔랑개비의 바람에 의해 더욱 쉽게 알곡이 구분된다. 팔랑개비가 나오기 전에 마을에서는 ‘붓두’라는 것을 사용하



팔랑개비

였다. 붓두는 돗자리처럼 생겼는데 양쪽 끝이 긴 장대에 매달려 있다. 붓두의 가운데를 발로 밟고 양쪽의 장대를 들어 서로 마주치듯이 휘젓는다. 그럼 바람이 크게 일어 알곡을 쉽게 분리할 수 있었다. 붓두는 바람이 많이 일어 효과는 좋았으나 힘이 많이 들어 오랫동안 작업을 하기 어려운 반면에 팔랑개비는 힘이 훨씬 덜 들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4) 도리깨



도리깨



도리깨 아들

도리깨는 주로 콩과 같은 곡식을 두드려 알곡을 털어내는 데 사용한다. 도리깨의 몸통을 ‘도리깨 장치’라고 부르며, 알곡을 직접 때리는 부분은 ‘도리깨 아들’이라고 부른다. 도리깨는 제작하기 쉬운 농기계로 대부분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도리깨 장치는 사용하기 편하게 곧고 단단한 나무를 구해서 만드는데 주로 노간주나무로 만든다.

그리고 도리깨 아들은 알곡을 직접 때리다 보니 금세 부러지기 쉬워 1년 이상을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해마다 도리깨 아들로 적합한 나무를 베어다가 1년 동안 말려둔다. 주로 뽕나무, 밤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쪽 곤은 나무로 만든다. 곤게 퍼지지 않은 나무는 집 안의 기둥에 묶어서 말렸다고 한다. 위 사진의 도리깨 아들 재료는 나무를 서로 묶어 곤게 퍼 말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둥에 묶어서 말렸으나 가옥을 개조 후 집 안에 기둥이 없어 나무를 서로 묶어서 말렸다고 한다. 사진에 있는 도리깨는 도리깨 아들을 굵은 전선으로 만들었다. 매년 도리깨를 제작하는 것이 번거로워 부러지지 않는 전선으로 도리깨 아들을 만들었으며, 만든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부서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도리깨의 길이는 173cm, 도리깨 아들의 길이는 139cm이다.

5) 고무래



고무래

고무래는 주로 나락과 같은 곡식을 퍼서 넣어놓는 데 사용하거나 밭의 흙을 고를 때 사용한다. 마을에서는 주로 ‘거문대’ 또는 ‘거물개’라고 부른다. 넓은 오각형 형태의 얇은 나무판에 긴 나뭇가지를 연결하였다. 고무래의 크기는 길이 151cm, 나무판 폭 52cm, 나무판 높이 15cm이다.

6) 쳃다리



쳃다리

쳃다리는 체와 함지 사이에 받쳐서 콩물과 같은 것을 내릴 때 사용한다. ‘V’자 모양의 나뭇가지를 다듬어 사용하며 대부분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들었다. 쳃다리를 만들 때 나무는 소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등을 사용하는데, 나무의 종류보다 나무 모양이 더욱 중요하다. 쳃다리를 제작

하기 적당한 모양으로 갈라진 나무를 찾아서 쳇다리를 만든다. 쳇다리의 길이는 함지 크기에 맞춰서 함지가 크면 길게, 작으면 짧게 제작하였다. 나무는 종류에 상관없이 형태가 잘 생긴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들었다. 현재는 도토리 녹말을 내리는 데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7) 조개 잡는 글개이와 조개 망태



조개잡는 글개이



조개망태

조개 잡는 글개이와 조개 망태는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는 데 사용하였다. 조개 잡는 글개이로 갯바닥을 긁어서 조개가 걸러나오면 조개 망태에 집어넣었다. 조개 잡는 글개이는 끝을 구부린 쇠 꼬챙이 두 개를 둥근 나무 손잡이에 연결하여 만들었다. 조개 잡는 글개이는 자갈을 긁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8) 두더지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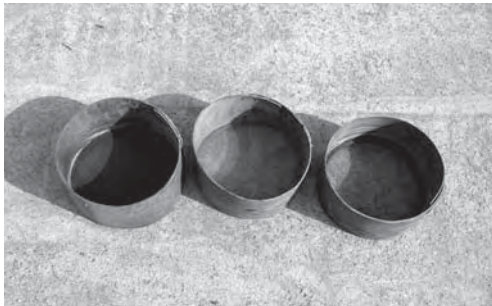
두더지창 작동 전



두더지창 작동 후

두더지창은 두더지를 잡는 데 사용한 낚시이다. 두더지가 잘 지나다니는 곳에 두더지창을 땅에 박아 둔다. 두더지가 땅 속을 파면서 지나가다 낚시를 건드리면 낚시의 입이 다물어지면서 두더지가 잡히게 된다. 근래에는 거름이 풍부하여 땅속 벌레가 많아지면서 두더지도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한다.

9) 고은체, 중체, 얼래미



고은체, 중체, 얼래미

고은체, 중체, 얼래미는 체의 일종으로 크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위의 사진에서 좌측부터 고은체, 중체, 얼래미이다. 고은체는 체의 간격이 가장 좁은 것으로 술이나 팔죽과 같이 액체를 거르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술을 거르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여 ‘술체’라고도 불렸다. 중체는 고은체보다는 체의 간격이 넓은 것으로

깨와 같은 곡식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다. 얼래미는 체의 간격이 가장 넓은 것으로 곡식의 크기가 크고 굵은 경우에 사용하였다. 그 밖에 떡을 뺏아서 내리는 데 사용한 떡가루체 등 몇 가지 종류가 더 있다고 하나 현재 남아있지 않다.

여 백



Ⅲ

축제와 놀이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faded, artistic illustration of a harbor scene. In the foreground, several large cargo ships are docked at a pier. In the background, a city skyline with various buildings is visible across the water. The overall tone is light and atmospheric.

Ⅲ. 축제와 놀이

1. 마을에서 행해지던 축제
2. 마을에 전해오는 놀이

Ⅲ. 축제와 놀이

1. 마을에서 행해지던 축제

2011년 10월부터 3년간 달월마을에서는 벼 베기 축제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취지는 달월마을 주민의 단합과 벼 베기 축제를 통한 벼 베기 체험 행사와 월동리, 월서리의 두레 농기구 전시 등 잊혀가는 마을 전통을 재연하여 풍성한 추수를 위해 달월수리계가 나서고 마을의 각 기관들이 후원하였다.

1) 벼 베기 축제와 달월의 두레

달월마을에는 월서천을 중심으로 동쪽(월동리)과 서쪽(월서리)으로 나뉘어 독감마을 입구에 월동리가 진을 치고 상골마을 입구에 월서리가 진을 치고 줄다리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두레조직이 활발했던 1930년경부터 마을마다 두레조직을 이용해 농사일을 하였으며 그 두레의 전통에 따라 월동리 두레를 형님두레라 하였고, 두레싸움은 한 판씩 놀아 잘 노는 편이 우승을 했다. 1960대에 들어오면서 농기를 쓰러트려 썰작목을 빼앗는 편이 이기는 몸싸움으로 변질되다 경운기가 보급되면서 사라졌다.



2011년 달월마을 두레 조직 기념촬영
(좌로부터 민병섭, 최승수, 최재선,
조원열, 이용민)



2011년부터 3년간 달월 큰 방죽에서 행해진 벼 베기 축제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부녀회원들



벼 베기 체험행사를 하고 있는 장곡초등학교 어린이들



탈곡기로 벼를 터는 시범을 보이고 있는 월곡 쌀 작목반원들



광주리에 새참을 이고 옛 모습을 재연하는
이재순 2동 부녀회장님



새끼들로 새끼 꼬는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안전점검을 받은 후 장갑을 끼고 베 베기 체험을 하는 어린이들



2) 정월대보름 놀이

60, 70년대 달월마을 청소년들은 정월대보름 전날부터 분주했다. 오곡밥을 아홉 번 먹어야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아홉 짐을 해 와야 하며 저녁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잠도 자지 말아야 했다. 대보름날 아침에 부럼을 깨트리며 나쁜 악귀를 쫓아내고 내 더위 파는 친구가 밖에서 부르면 대답하지 말아야 했다. 저녁이 되면 집 근처에서는 아낙들이 짚단을 본인 나이만큼 묶어서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고, 설날부터 양지바른 마당에선 널뛰기를 했다.

개구쟁이 남자 어린이들은 깡통에 술방울과 관솔(소나무의 옹이)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월서천(넋둑)에 모여서 쥐불놀이를 했다. 개천을 중심으로 월동리 마을과 월서리 마을로 편을 갈라 열심히 깡통을 돌리다가 함성과 함께 불꽃을 하늘로 올리는데 이때 불꽃이 많은 쪽이 이겼다. 70년대 말 그 불싸움은 상대마을 짚가리에 불을 놓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후 TV가 보급되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세시풍속 같은 놀이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2012년 시흥시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행사

그래도 정월대보름 옷놀이는 크게 번성하여 달월정미소 마당에 장롱 같은 커다란 상품을 걸고 옷놀이를 하느라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달월마을에는 80년대부터 월곶 보건진료소가 운영되었는데 2010년부터 장봉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풍물교실 등 마을의 보건 복지 취미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김학은 운영위원장님과 정준채 후원회장님이 수고하고 계시다.

90년대 시화공단 조성으로 삼발마을 뒷산이 토취장으로 지정되면서 정왕동 이주단지로 이전해 간 삼발원주민회(마전원주민회) 주민들이 삼발마을 식당에 모여 옷놀이를 하고 있다.



월곶 보건 진료소 정월대보름 옷놀이



신나게 옷을 던지고 있는 남택선 씨



웃놀이를 하고 있는 삼발원주민 회원들



마을회관 마당에서 웃놀이를 하고 있는 고잔마을 주민들



웃놀이 상품으로 내놓은 다양한 생활용품들

2. 마을에 전해오는 놀이

놀이는 단순히 유희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잠시 일손을 쉬어가며 하는 놀이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놀이를 통해 서로 간에 유대를 다지며 친분을 확인하기도 한다.

달월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놀이와 함께 근대에 새로 생겨난 놀이가 있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놀이를 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놀이문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던 달월사람들의 유연한 사고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우선 전통놀이로 줄다리기와 두레놀이 그리고 지신밟기가 있다. 농한기에는 줄다리기와 지신밟기를 통하여 협동심을 다지고 한 해의 농사와 생업의 풍작을 기원했다. 반면 농번기에는 두레놀이를 통하여 힘든 농사일을 함께 수행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또한 두레놀이는 함께 풍물을 치며 어울렸기 때문에 유희적인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근대에 새로 생겨난 놀이로는 울리기와 찜뽕이 있다. 이것은 필드하키와 야구라는 새로운 스포츠가 달월마을에 적응하며 변형된 것으로 추수가 끝난 논밭에서 주로 행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그네뛰기 대회, 노래자랑, 연극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월마을 사람들이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 달월마을 사람들이 서로 유대하며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전통놀이

(1) 줄다리기

월서천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응고개, 상골, 궁골, 고잔, 조구나리 등을 월서리라 하였고, 동쪽에 있는 독가말, 통심, 마전, 벌말 등의 지역을 월동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해방 이전까지 월동리와 월서리 간에 상골 남쪽 개울에 있는 해초막터 근처에서 줄다리를 했다고 한다.

“월동리, 월서리가 형성이 되고, 그 간에 줄다리기 같은 걸 했다는 역사적 고증이 한편 한 줄 나와요. 실제로 가능해요.” (민병섭)

(2) 두레놀이

월서천을 중심으로 동쪽마을인 월동리에 두레패가 발달했었다. 특히 독감말의 두레가 유명하여 조선시대 한양까지 불려가 두레를 놀았다고 한다. 전국에서 모인 두레패 중에서 가장 뛰어나 왕으로부터 농기를 하사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창경궁 개축 당시에 각 지역에서 그 두레 조직을 많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선출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나 봐요. 아마 가래질이라느니 무슨 토목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월동리에 있는 두레 조직이 나가서 일도 잘하고 풍물도 잘해서 임금님으로부터 농기를 하사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태평소 부시는 분이 마지막까지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양반이 이사를 가면서 분실을 하게 된 거야.” (민병섭)

월동마을의 두레는 35년 전까지만 해도 유지되고 있었다. 월동마을 사람들만 참여하는 두레였다. 두레는 마을 사람들끼리 함께 모내기, 김매기, 벼 베기 등을 하는 협동노동을 하는 조직이었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순번을 정하여 농사일을 돕곤 했는데 농사일을 앞둔 사람들이 두레패에 와서 자문을 구하여 일할 날을 정했다고 한다.

두레패는 농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며 일하고 있는 논까지 갔다. 논 옆에 농기를 콧아 두고 두레패가 함께 농사일을 하였다. 농사일을 하다가 힘들 때면 풍물을 치며 어울려 놀기도 하였다. 농사일을 마친 논 주인은 밥과 술을 대접하고 품삯을 쳐서 주었다고 한다. 김을 맬 때는 보통 호미로 풀을 긁어 제거하였다. 두레패에 가입하는 조건은 없었다. 농사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농사일이 없는 사람은 그냥 놀다 가기도 했다.

타 지역의 두레패가 월동을 지나가다가 월동 두레패와 두레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레싸움은 농기를 든 사람이 버티고 선 상태에서 상대방 농기를 쓰러뜨려 썰장목을 먼저 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달월마을 내에서는 월동두레가 형님두레 역할을 해서 상골두레나 산반이 두레가 인사를 하며 예를 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근 지역인 장곡마을 두레가 오면 두레싸움이 벌어졌다.

“농기를 쓰러뜨려서 썰장목을 먼저 뺀 쪽이 이기다 보니까 약간의 몸싸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형님두레 아우두레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었어요. 월동두레같이 역사적으로 아주 입증이 된 두레가 형님두레야. 그 두레가 딱 지나가면 주변 마을

두레인 산반이 두레나 상골마을 두레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곳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 지역의 두레가 오면 두레싸움이 일어난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힘센 농기수가 버티고 있고 나머지 두레들은 소고치는 사람들이 가서 농기를 쓰러뜨려서 쾅장목을 뺏는 것으로…….”(민병섭)

35여 년 전에 사라진 달월마을의 두레패를 3년 전에 다시 조직하였다. 농사일을 돕는 협동노동조직의 성격은 거의 없어지고 풍물을 치는 공연 성격이 강하다. 월동과 월서 두레패로 나누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농기를 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달월 벼베기 축제’ 체험행사나 시흥의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3) 지신밟기

음력 정월 대보름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가정의 평온을 비는 지신밟기를 하였다. 음력 정월과 보름 사이에 지신밟기를 하는 사람들이 각 가정을 돌며 덕담을 해주었다고 한다. 덕담을 해 줄 가정에 들어가면 집안 구석구석을 풍물을 치며 돌아다녔다. 가령 우물에 가면 우물굿을 하는 형식이다. 우물에서 치는 가락은 ‘뚫어라, 뚫어라 샘구멍을 뚫어라’라는 등의 덕담을 하였다. 이때 농기를 앞세우지 않았다. 두레패보다는 오랫동안 마을에서 행해졌다.

(4) 그네뛰기

그네뛰기는 주로 여자들의 놀이로 단오 무렵 나무에 그네를 매어두고 즐겼다. 달월마을에서는 상품을 건 그네뛰기 대회가 있었다. 1950년대 중반 당시 1등 상품은 큰 술, 2등 상품은 작은 냄비였다고 한다.

“피난 오다가 여기 오니까는 그네 뛰는 행사를 한데요. 그래서 날 보고 자꾸 나오라는 거야. 나는 웃도 없고 애도 쪼그맣고 근데 어디를 끼느냐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네를 뛰었는데 2등을 했어요. 그네 뛰어가지고 2등을 했어. 2등 냄비 요만한 거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밥을 해 먹었어.”(복희삼)

2) 새로 생겨난 놀이

(1) 울리기

고잔마을에서는 ‘울리기’라는 놀이를 했다. 울리기는 필드하키와 유사한 경기였다. 60여 년 전 동네 어른들이 하였다. 그 당시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서 함께 즐겼다. 고잔마을에서는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편을 나누어 농한기에 즐겼다.

울리기를 하는 장소는 추수가 끝난 논밭이었다. 농작물이 없는 논이나 밭의 양쪽 끝에 골대를 만든다. 골대는 양편에 나무 말뚝을 박거나 돌을 놓아두어 표시한다. 공과 직접 짝아 만든 채를 이용하여 경기를 진행하였다. 경기방식은 필드하키와 비슷하여 표시해둔 골대에 공이 들어가면 1점을 얻는 식이었다.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신흥 스포츠를 (했어) 그게 지금(보면) 필드하키야. 우리 동네에서는 울리기라고 했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그 운동을 했단 말야. 우리 동네가 상당히 앞서간 동네란 말이야. 논밭에서, (주로) 보리밭에서 했단 말이야. 농작물 없을 때 골대 만들어놓고 밭 끝에다가 돌을 놓아둔다거나 나무를 박던가. 돌 양쪽에 해놓고, 그 사이에 들어가면 1점 하는 거지.” (안종륜)

(2) 찰뽕

과거 고잔마을에서는 정구공과 라켓으로 하는 ‘찰뽕’이라는 놀이를 하였다. 라켓은 ‘와이어 전화선’으로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 야구와 비슷한 형식의 놀이라고 하였다. 울리기와 마찬가지로 추수가 끝난 논밭에서 주로 많이 하였다.

“우리 동네(에서) 찰뽕이라고 보리밭에서 해가지고, 정구 라켓하고 정구공으로 하는 거야. 말랑말랑한 고무공하고, 와이어 전화선으로 라켓을 만들어서 치는 거야. 공을 굽으면서 치면 납작해져가지고 날아가지. 그럼 그게 또 기술이야. 그냥 때리면 둥그레가지고 날아가는데 이걸 굽는 거야. 굽어버리면 이게 또 찰뽕 같아. 납작해가지고 날아가는데 멀리가지.” (안종륜)

3) 아이들 놀이

아이들은 주로 집의 마당에서 놀았다. 놀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기놀이, 구슬차기, 못치기, 사방치기, 가이생, 수건돌리기, 실뜨기 등이었다. 또한 갯벌에 나가 게 같은 어패류를 잡아먹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국을 끓여먹는 등 달월마을이 처한 환경을 아이들은 즐겼다고 한다.

“줄넘기 하고, 사방치기 하고, 가이생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맨날 그 짓이지 뭐있어? 가이생은 일본말로 그게 [그것도 그려놓고 이쪽편, 저쪽편 그려놓고 서로 잡아 당겨서 집어 넣으면 지는 거고 이리 끌려 갈라고 그러고 저리 끌려 갈라고 그러고] 일본말로 가이생이라 그러는데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몰라. 잊어버렸어. 우리들은 그냥 사방치기하고, 줄넘기 하고, 옛날에는 할 게 없으니까 죄 그거 했어. 그리고 실, 실뜨기.” (조정렬, 안오순)

(1) 못치기

남자 아이들은 ‘못치기’라는 놀이를 했다. 못치기의 규칙은 한 사람이 땅에 못을 박아 두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못으로 세워진 못을 친다. 이때 못이 튕겨 쓰러뜨리면 상대방의 못을 따낼 수 있는 것이다. 쓰러뜨리지 못하면 공수 교대가 된다. 작은 못보다는 대못을 가지고 있어야 놀이에 이길 수도 있고 못을 치는 재미도 있다고 한다.

“못치기 알아? 대못 이만한 거 못을 탁치면 나가. 못 한 개 두 개 뺏어 먹는 거야. 원안에 못을 두고, 같이 쳐가지고 넘어뜨리면 먹는 거고, 어떻게든 이겨야 하니까 쇠꼬챙이 이만한 거로 하면 좋아. 내가 손으로 때리잖아. 땅에 꽂히잖아. 쓰러뜨리면 내가 이기는 거야. 서로 쓰러뜨려서 먹고 먹히는 거지 그게 못치기야.” (남광현)

(2)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자그마한 돌을 던져 받는 놀이이다. 주로 여자아이들이 하였다. 바닷가에서

둥글고 작은 돌을 주워 가지고 다니다가 학교나 친구집 마당에서 공기놀이를 하였다. 놀이는 주로 5개의 공깃돌을 가지고 하는데 20개의 공깃돌을 사용하여 서로 뺏는 방식도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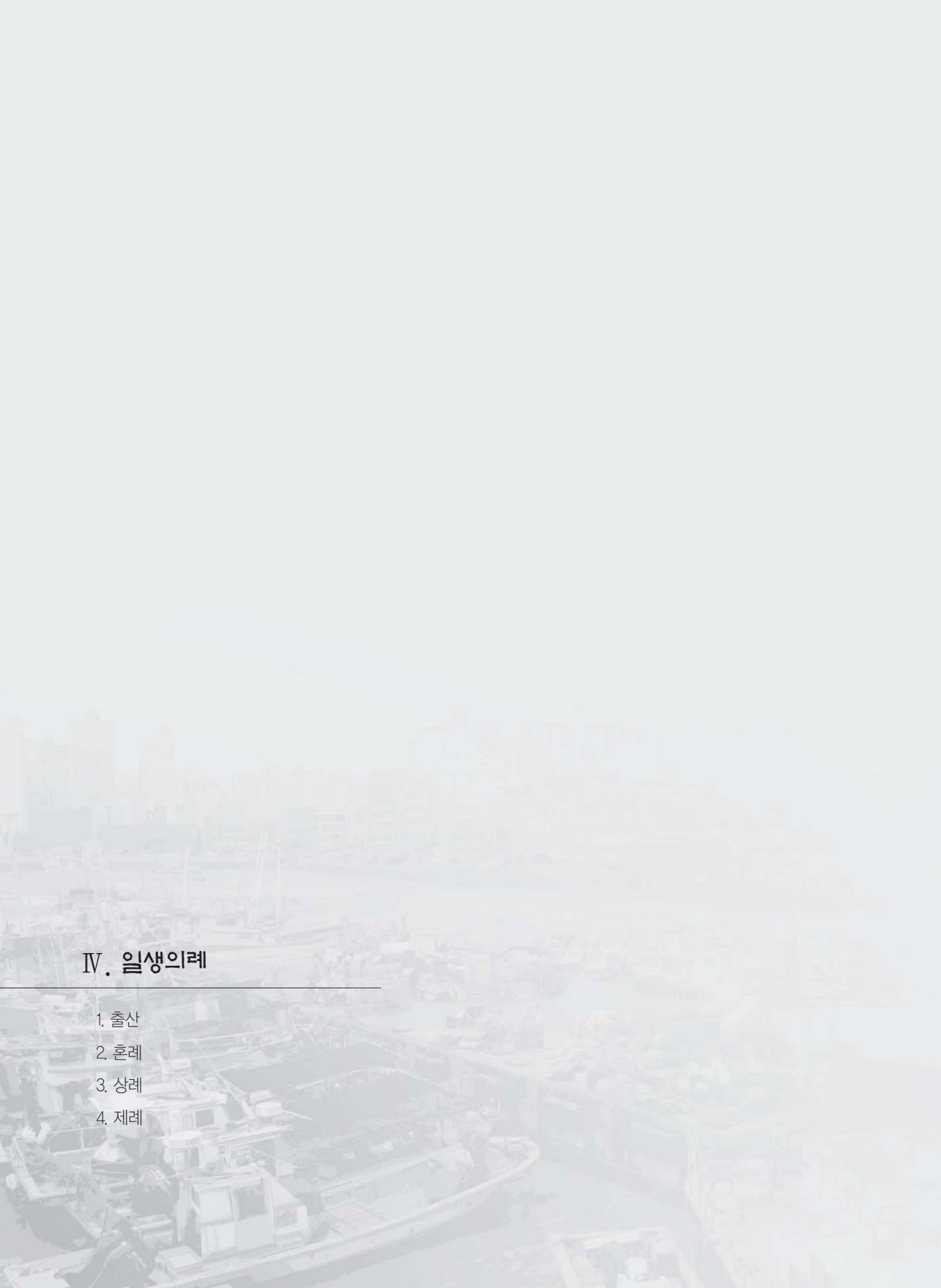
“학교 다닐 때 해변가 같은데 가면 둥글둥글 한 거 줏어서 가지고 다니지. 책가방에. 그때는 책가방이 있어? 책보. 보자기 둘둘 말아 업고 다니지. 여자들만 했지. 다섯 개. 손등에 얹어서.” (안오순)





IV

일생의례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faded, artistic illustration of a harbor scene. In the foreground, several large cargo ships are docked at a pier. In the background, a city skyline with various buildings is visible across the water. The overall tone is light and hazy.

IV. 일생의례

1. 출산
2. 혼례
3. 상례
4. 제례

IV. 일생의례

1. 출산

1) 달월마을의 출산

달월마을에서도 여느 마을과 같이 아기를 갖기 위해 몸가짐을 조심하고 음식을 가렸으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은 삼신께 기도를 했다.

(1) 기자(祈子)

달월마을에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여자들이 이용하던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은 고잔의 마을 사람들이 1970년까지도 이용하였는데 물맛 좋기로 유명하였다. 아이 갖기를 원하던 여자들은 이 우물을 ‘삼신우물’이라 부르며 떠다 마셨는데 삼신할머니가 자녀를 갖게 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한다. 1970년대 상수도를 설치한 뒤로는 이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잔에는 ‘삼신우물’이라고 부르는 기자(祈子)의 대상이 있었지만, 달월마을에서 만난 제보자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특별한 치성을 올린 적은 없다고 했다. 가만히 있어도 아이가 잘 들어섰고, 혼인을 한 이후로 1, 2년간 아이가 없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2) 태중금기(胎中禁忌)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부가 몸을 조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병원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몸을 조심해야 했다.

임신부가 닭껍질을 먹으면 피부가 닭살같이 나오고, 돼지 창자를 먹으면 연두창 같은 질병을 앓고, 오리를 먹으면 아이의 손발이 오리발처럼 들러붙어 나온다고 하였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7, 8개월까지는 조심해야 했다.

(3) 산실(産室)과 해산준비

아이를 출산하는 장소는 대개 임신부가 거주하던 방이었다. 단칸방에서 가족이 살고 있을 때에는 다른 가족들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해산 준비는 태를 가를 때 사용하는 실과 가위, 아이를 씻길 데운 물, 아이가 입을 옷, 첫국밥에 사용하는 미역 등이었다.

(4) 해산관

달월마을에서는 임신부의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을 ‘해산관’이라 부른다. 아이를 받고 뒷바라지해주는 것을 ‘해산관 해준다’, ‘해산바라지’라고 하였다. 해산관은 보통 시어머니가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친정어머니가 가까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친정어머니가 해산관을 해주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때 피난 와 달월에 정착한 이옥화 씨의 경우에는 같이 피난 온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받아주었다.

해산관을 해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동네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마을 주민이 맡아서 하였다. 이때 해산관도 금기를 지켜야 하는데, 부정 타는 것을 하거나 듣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 고잔에 사는 복희삼 씨는 첫국밥을 해준 사람이 개를 잡고 와 아이의 피부에 이상이 생겨 고생하였다.

(5) 태와 태반의 처리

태는 해산관을 맡은 사람이 갈라준다. 탯줄을 3치 정도 남기고 실로 묶은 뒤 가위로 자른다. 태의 처리는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맡아서 하는데, 해산관을 해준 사람이 하는 경우

도 있었다. 달월마을에서는 태와 태반을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갓난 아이의 태와 태반이 간질에 좋다고 하여 흠쳐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필분 씨의 시어머니는 태와 태반이 다 탈 때까지 지키고 있었다고 하였다.

(6) 첫국밥

산모가 출산을 하고 처음 먹는 미역국과 밥을 ‘첫국밥’이라고 하였다. 첫국밥은 해산관 해준 사람이 지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7) 금줄

금줄은 원새끼로 꼬아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고추와 숯을 끼우고, 여자아이면 솔가지와 숯을 끼웠다.

(8) 삼신상

삼신상은 가정의 방식에 따라 올리기도 하고 올리지 않기도 하였다. 삼신밥으로 올린 밥과 국을 첫국밥으로 먹는 경우도 있다.

(9) 몸조리

아이를 낳고 장기간 몸조리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아이를 낳고 3일이 지나면 간단한 집안일을 하였다고 한다. 고잔의 조정렬 씨는 아이를 낳고 바로 낙숫물에 걸레를 빨아 청소를 하였다고 하였다. 제보자 대부분 먹고살기 바쁜 시절이라 몸조리를 할 틈도 없었다고 하였다.

(10) 백일잔치와 돌잔치

백일잔치는 친척들을 불러다 밥과 미역국을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하였다. 떡을 100집이 나누어 먹으면 아이에게 좋다고 하여 백설기를 해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했다. 돌

때도 사람을 불러다 잔치를 하고 팔떡, 백설기 등을 나누어 먹고 돌잡이를 하였다.

2) 출산의 사례

(1) 상골마을 이필분의 사례

이필분 씨는 17살에 결혼을 하고 19살에 첫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위한 치성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치성? 그런거 없어. 있으면 낳고, 없으면 아닌거지. (시부모의 재촉) 그런 거 없었어. 낳게 되면 낳는 거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음식을 조심해서 먹었다. 닭 껍질, 오리, 개, 돼지 창자 같은 것들은 아이의 신체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먹지 않았다.

“(닭껍질) 정말 그런 거 먹으면 닭살같이 나와. 돼지 창자 저기를 먹으면 연두창 앓고 그런다고. 그때는 음식을 조심해야 돼. 사람 될 적에 잘못 먹으면 병이 되는 거지. 오리 먹으면 오리발 나와. 들러붙은 게 나와. 개도 먹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밥을 잘 먹어야지. 함부로 먹으면 짐승처럼 되는 거야. 잘 못먹으면 애 낳아서 부스럼 같이 앓고, 고름 같은 게 나오고 그래. 하여튼 7, 8달까지는 조심해야 돼.”

아이를 낳을 때 고생은 하지 않았다.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간호사를 데려와서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해산관은 시어머니가 맡았고 아이를 낳은 방은 본인이 사용하던 안방이었다.

“(애기는) 안방에서 낳았지. (마을에) 그전에도 산파라고 여자 있긴 있었어. (산파 안 불러도) 잘 낳았어. 시어머니가 도와줬지. 7남매 다 집에서 낳았어. 다 시어머니가 받아줬어.”

땃줄 자르기와 땃줄의 처리 모두 해산관을 해준 시어머니가 하였다. 땃줄은 바깥마당에 불을 놓아 태웠다. 시어머니가 태가 다 탈 때까지 지키고 있었다.

“텃줄은 해산관 하는 사람이 자르지. 시어머니가 잘랐지. 세 뽕 해서 세치를 남겨놔. 그래서 배꼽에다가 (뭍어)놔터라고 그래서 난중에 텃줄이 떨어지면 그게 배꼽이 되는 거지. (텃줄은) 마당에서 불 놓고 태워. 그걸 흠쳐가는 사람도 있어. 태 가져가는 사람. 약으로다가 간질 하는 사람에 종대. 그래서 지키는 거야. 태를 태울 적에는 지켜. 바깥마당에다가 불을 놓고 태우는 거지. 그것도 해산관 해주는 할머니가 하는 거지.”

첫국밥은 시어머니가 차려주었다. 상도 없이 밥 한 그릇과 미역국 한 그릇을 떠다 주어 먹었다. 아이를 낳고도 음식 먹는 것을 조심하였다. 산모의 음식이 아이가 먹는 젖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매운 것을 먹으면 아이의 똥구멍이 붉게 변하고 설사를 한다거나 상추를 먹으면 아이가 똥을 잘못 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심을 하였다고 한다. 아이는 젖을 뗄 때까지만 엄마가 기르고 그 이후에는 아이의 할머니가 데리고 잤다.

아이의 머리는 보통 백일 이전까지는 그냥 두었다. 백일이 지나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직접 깎아주었다고 한다.

“갓 낳아서 깎아주진 않아. 내버려 뒀지. 백일 지나면 깎아줘도 돼. 백일 이전에는 보통 그냥 놔둬. 백일 지나면 이쁘게 깎아줄 수 있잖아. 남자는 상고머리로 깎고 여자는 단발머리로 깎고. 내가 깎았어. 나 머리로 잘 깎아. (머리카락은) 아무데나 버려도 되고, 태워도 되고.”

백일잔치는 7남매 모두 집에서 했다. 친척들을 불러서 미역국과 밥을 나누어 먹었다. 백일떡은 백설기를 하였고, 100집이 먹어야 좋다고 해서 동네에 다 백설기를 돌렸다.

“백집이 먹어야 좋다고 동네 다 돌리고 그랬어. 백설기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찌는 거. 사탕가루 넣어가지고 달게 맛있게 해서 찌는 거지. 고물 안 넣고. 쌀은 내 마음대로지. 많이 해서 많이 나눠 먹으려면 많이 하고. 집안이 많고 동네 다 나눠먹으려고 많이 했지.”

돌잔치 때도 떡을 해서 집집마다 나누어 먹었다. 돌 때는 송편, 팔떡, 흰무리(백설기)를 했다. 팔떡은 아이의 부정과 살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돌잔치 때 돌잡이를 하였다. 돌잡이 물품으로는 연필, 붓, 떡, 실이었다.

“놔주는 사람이 마음이지. 연필, 붓, 떡, 실. 실 집으면 명이 길다. 붓 집으면 공부 잘한다. 돈 집으면 돈 잘 쓴다고 말을 짓는 거지. 옛날부터 내려왔으니까. 돌 때는 송편, 팥떡, 흰무리하고 그러는 거야. 팥떡은 부정을 풀고 살을 푼다는 거야. 그래서 팥떡을 많이 해. 아무 것도 안 해도 팥떡은 해주는 거야.”

(2) 고잔마을 복희삼의 사례

복희삼 씨는 19살에 혼인을 한 뒤 황해도에서 첫아이를 낳고 피난을 와 달월마을에 정착했다. 그때가 21살이었다. 달월마을에서 4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피난민이라 집도 없고, 먹고살기도 힘든 시절이라 아이를 가지고도 인천으로 장사를 나갔다. 입덧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임신하고도 장사했어. 입덧은 안했어. 먹을 것도 없는데 입덧을 어떻게 해.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입덧도 하지.”

아이들은 다 집에서 낳았다. 단칸방에 살던 시절이었다. 방이 하나라 다 같이 생활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해산 준비를 하였다. 진통이 오면 앉아 있지 못하고 서서 움직이다가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남편이 해산관을 해주었다. 남편이 아이를 씻을 물을 데워왔다고 한다.

“아부지하고 둘이 받아가지고. 나는 낳고 아부지는 받고. 그렇게 낳았지. 뜨거운 물은 영감이 데워오면 씻기지. 애 씻기는 거야. 불 때서 데워오면.”

탯줄은 양쪽에서 잡아매어 가운데를 잘랐다. 탯줄은 시아버지가 마당에서 불태웠다. 방아를 찧고 나온 겨에 불을 붙여 태웠다. 아이들의 이름은 남편과 상의하여 직접 지었다.

“애들 이름은 내가 그냥 지었지. 그냥 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냥 뭐로 부릅시다 하고 짓고 그냥 명철이로 지읍시다 하고 그냥 짓고 바로 갔다(호적을) 올리더라고.”

셋째를 낳을 때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음력 팔월 열나흘날에 진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아

이는 나오지 않고 엿새를 고생하였다. 양수가 터져 하혈을 하는데 병원에도 못 갔다고 한다. 그러다가 팔월 스무날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핏기가 없었다.

“팔월 열나흘날 떡을 안치는데 진통이 오더라고. 그러더니 팔월 스무날 낳았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어. 아주 죽을 뻔했어. 애 낳았는데 애가 이 빛이야. 아주 하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이를 들고 엉덩이를 치면 아이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 남편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남편이 꺼려하여서 본인이 직접 하였다. 엉덩이를 치고 나니 잠시 후 아이가 ‘후’하고 숨을 내쉬며 살아났다.

“나동그라져 숨도 안 쉬더라고. 그래도 죽을 뻔 죽더라도. 이렇게 들고서 불기썩을 쳐보라고. 그랬더니 난 못한대. 떨어져. 신랑이 못한대. 내가 그거를 들고서 불기썩이 떨어져 나가게 같겼어. 그랬더니 조금 드러누워 있더니 후 하더라고요. 후 이래. 그러더니 살아났어.”

첫국밥은 동네 사람이 해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개를 잡고 씻고 온 터라 부정을 타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는 그을린 듯이 변하고, 산모의 젖이 부어올랐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왔냐면 개를 잡고 씻고서 왔대. (아이는) 받지는 못하고 밥해준다고 왔는데 개를 잡고 와가지고. 애가 그냥 그슬르는 것 같애. 그냥 아주. 나는 젖이 점점 커지고 부정이 타서.”

냉수를 떠다가 아이의 머리맡에서 일주일을 빌었더니 아이의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원래 아이를 낳으면 실, 물, 밥, 미역국 등을 삼신상으로 차려놓는데, 아이가 아파 더 간절히 빌었다.

“애 머리맡에다 놓고 빌었지 뭐야. 미련한 인간이 몰라서 그랬다고. 재배를 드리면서 빌었지. 삼신할머니 찾으면서. 삼신할머니, 삼신할아버지 애 좀 낫게 해달라고 빌었지.”

백일과 돌잔치 때는 피난 온 시절이라 크게 잔치는 하지 않고 가족끼리 축하를 하였다.

백일에는 수수팔떡을 해주었고, 첫돌에는 송편과 수수팔떡을 해서 먹었다. 실, 공책 같은 것을 상에 두고 돌잡이도 하였다.

(3) 구능뿌리 최연옥의 사례

최연옥 씨는 21살에 구능뿌리로 시집와서 22살에 첫아이를 낳았다. 36살까지 2살 터울로 7남매를 낳아 길렀다.

첫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을 심하게 했다. 9월에 혼인을 하고 바로 아이를 가진 터라 설 명절에 일을 해야 했는데 입덧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그때 시아버지가 빵장사 편으로 커다란 호떡을 보내주었다. 호떡은 그나마 먹을 수가 있어 기운을 차려 명절 집안일을 하였다고 한다.

“입덧. 입덧하지. 배 이렇게 부르고, 첫째 때 입덧을 많이 했어. 못 먹었는데 새색시가 명일이 닥쳤으니까 할 일이 많잖아. 이불도 떼서 뜯어가지고 해서 흥두깨질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염전 마루보시 십장이었어. 빵장사가 이고 다니면서 동네동네 팔았어. 노인네가 빵장사한테 저기 소 있는 집가서 빵 좀 주고 가라고 돈을 노인네가 준거야. 어떤 아저씨가 소 있는 집에 주고 가겠다고 빵을 쥐서 빵을 먹고 빨래하고 그랬어. 빵은 괜찮더라고. 그래서 살아난 거야.”

첫째 딸을 8월에 낳았다. 거주하던 집의 안방에서 낳았다. 해산관은 동네 아주머니가 해주었다. 남편은 아이를 낳고 쌀을 구하러 나가 늦게 돌아와 첫국밥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고 한다.

탯줄은 해산관을 해준 아주머니가 잘라주었다. 피가 흐르지 않게 양쪽을 실로 맨 다음 가운데를 잘랐다. 자르고 나면 태가 쏟아진다고 한다. 태가 나와야지만 산모가 편하게 쉴 수 있었다. 태는 바깥에 나가 왕겨로 불을 지펴 태웠다.

“태는 갖다가 태우지. 그럼 바깥에 나가서 태우지. 저기 왕겨 이렇게 놓고 이렇게 태우지. 옛날에는 그렇게 태웠어.”

삼신상은 방에 밥과 미역국을 각각 한 그릇씩 떠놓는 것이다. 특별히 치성을 드리는 것

은 아니고 삼신밥을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본인이 먹었다고 한다. 금줄은 대문에 달았다. 딸이라 술과 솥을 매었다. 아들을 낳았으면 솥과 고추를 맨다고 한다.

7남매 중 여섯 명은 집에서 낳았고, 막내는 인천 병원에서 낳았다. 출산일을 앞두고 5일을 고생하다가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낳았는데 아이가 새까맣고 머리카락이 길었다. 아이는 3일이 지나서야 피부색이 돌아왔다고 한다.

병원이라 첫국밥을 얻어먹지 못했고 인천에서 기차를 타고 와 달월역에서 구능뿌리에 있는 집까지 걸어갔다. 딸이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어서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집에서도 낳을 수 있는데. 안 비즌 사람이 5일을 비즈니까 겁이 나서 가서 낳았지. 가서 9시에 낳았는데 애가 이렇게 새까맣고 머리가 길어. 애가 죽은거지. 우리 사촌형님이 같이 갔는데 삼일 있다 오니까 하얗게 고대로 (되더라). 낳을 것을 못 낳고 갔으니까 애가 까맣게 질려 버린 거지. 병원에서 애를 낳고 국밥이 안 들어왔잖아. 삼일 만에 집에 왔는데 택시를 못타고 기차를 타고 와서 집에 걸어간거야. 달월역에서 집에 걸어간 거야. 딸애가 미역국을 끓여놓은 거야. 미역국이 맛있지.”

(4) 독감말 이옥화 씨의 사례

이옥화 씨는 한국전쟁 1·4후퇴 때 피난을 나왔다. 고향은 웅진 용현면이다. 혼례는 19세에 고향에서 치르고, 20세에 피난와서 전라도에서 3년 살다가 23세 때 월동에 정착해서 현재까지 61년을 달월마을에서 살았다. 이곳에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는 남의 집 사랑방에서 셋방살이를 할 때였다. 주인집이 좋아서 눈치를 보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 그때 살던 집은 개발이 되어 철거된 상태다. 그 집에서 아들, 딸을 다 낳았다고 한다.

산실은 셋방살이를 하던 방, 월동에 있는 가옥의 사랑방이었다. 아이를 잘 낳게 해 달라고 빌러 다니지는 않았다고 한다. 진통이 오면 방안에 가만히 누워있었다고 했다.

미역국은 같이 피난 나온 친정엄마가 같은 동네에 살아서 챙겨주었다. 친정식구가 같은 동네에 살았다. 삼신상은 올리지 않았고, 금줄은 쳤다. 금줄은 원새끼로 꼬아 만들었고, 이곳에서 낳은 첫 아이가 남자아이라 고추와 술잎을 꽂았다. 딸은 술잎만 꽂았다.

탯줄은 친정엄마가 처리했다. 가까운 산에 묻었다고 한다. 묻는 이유는 모르고, 친정엄마에게 탯줄을 묻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2. 혼례

과거에는 중매로 결혼을 많이 했다. 남자들이 술 한 잔 먹다가 자녀의 결혼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혼례장소는 보통 신부의 친정집이었다. 신부의 친정집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않다면 보통 친정 마당에서 대례를 올렸다.

친정집에서 대례를 올리면 시집으로 보통 신랑은 말, 신부는 가마를 타고 왔다. 하지만 신부의 친정과 시집의 거리가 너무 멀 경우에는 트럭 같은 차를 타고 오거나, 차를 타고 오다가 마을 어귀에서부터 말과 가마로 바꾸어 타고 왔다고 한다. 그때는 승용차가 없어 신랑 색시가 타고 오는 차로 트럭을 많이 이용했다. 달월마을은 수인선 열차가 다녀서 수인선 열차를 타고 시집으로 오는 사례도 많다.

달월에서는 시집가서 3일 후에 친정으로 간다. 재행 간다고도 한다. 대례를 친정에서 치르고 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오면 신부는 이틀을 자고 친정에 갔다. 지금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부의 친정집에 찾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한다. 이것을 삼일나들이, 재행 간다, 근친간다 등으로 부른다.

달월과 인근 마을에서는 신랑이 장가를 들러 사모관대를 착용하고 신부의 마을로 오면 동네 청년들이 재를 뭉쳐서 던졌다. 이것을 ‘재꾸러미’라고 부른다. 심한 경우 똥을 타서 던진다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이후에 결혼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예전처럼 재를 구하기가 힘들어져 재꾸러미는 안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아궁이를 쓰던 시절이라 쪼이나 보리, 나무 등을 때고 나온 재를 모아놓는 곳이 집집마다 있었다. 재꾸러미는 한 마을의 이웃 청년들이 우리 동네 처녀를 데려가는 신랑에게 부리는 장난의 일종이었다. 또한 귀한 동네 처녀를 데려가니 앞으로 잘 살라는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다.

신부의 친정동네 청년들이 신랑에게 하는 장난은 삼일나들이 때도 이어진다. 삼일나들이 때 신랑도 처갓집을 찾는데, 이때 신랑 매달기를 보통 당한다고 한다. 신부의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색시를 데려갔으니 한 톱 내라.’고 신랑의 발을 잡아 묶어 발바닥을 때렸다. 장난이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무섭게 때렸다고 한다. 그때는 신랑 입에서 ‘닭이 몇 마리, 뱀이 몇 마리...’ 소리가 나와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한다. 신랑은 풀려나려면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다.

상골마을에선 혼인을 앞두고 있는 처녀들이 저녁에 모여 시집갈 때 가져갈 이불보를 만들었다. 이불보에 수를 놓기도 했다. 원래는 등잔을 켜고 했는데 어두워서 촛불을 사용했

다. 그러나 촛불이 비싸고 혼자 하기에는 아까워서 같은 또래의 처녀들이 한 집 한방에 모여서 이불보에 수를 놓았다고 한다. 반면 고잔 마을은 염전과 가까워서 일찍부터 전기가 들어와 전구를 이용했다고 한다.

1) 상골 이필분 씨의 사례

— 수원에서 시흥으로 수인선을 타고 와 가마로 갈아타다

이필분 씨는 수원 매송면 송라리(현재 화성시)에서 살다가 상골의 의령 남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 당시 신랑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2명, 여동생 1명이었다. 친정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현재 살고 있는 집터에 있던 초가집의 건넌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처음 상골에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필분 씨를 ‘새댁’이라고 불렀다. 혼례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었지만 집 신축 당시 분실하였다고 한다. 자녀는 4남 3녀를 낳았다. 자녀들은 서울, 수원, 인천, 안산, 고양, 시흥 등지에서 살고 있다.

이필분 씨는 17세에 결혼을 하였다. 신랑의 나이는 19살이었다. 시집오던 당시는 일본 사람들이 보국단을 뽑아 전쟁터에 보내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집 갈 나이가 되지도 않았는데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마땅한 배우자가 아니어도 시집을 가야할 상황이었다. 이필분 씨는 좋은 사람과 만나 다행이었다고 한다. 신랑이 19살인데도 웃자라서 키가 무척 컸다고 회상하였다.

상골 마을에 살던 막내 작은 아버지가 이필분 씨의 시아버지를 먼저 알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원래 충청도가 고향이었다. 시어머니는 고잔에 살던 순흥안씨 집안이었다. 시아버지가 혼례를 올리고 처가댁 근처로 이사를 한 것이다. 이후로 달월마을 상골을 고향삼아 자식을 기른 셈이다.

이필분 씨의 아버지도 동생을 보러 오가며 친분이 있던 집안이었다. 결국 막내 작은 아버지의 중매로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신랑이 조카 사위감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여 중신을 썼다고 한다. 당시 궁합을 봤는데 괜찮게 나왔다고 한다.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혼인을 했다. 혼례날 처음 본 신랑은 키가 훗칠했다고 기억하였다.

사주가 오간 날짜와 택일하는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혼례를 올린 결혼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주는 언제 보내는지는 내가 알아? 다 잊어버렸지. 결혼 달은 잊어버리지도 않아. 섣달에 지냈지. 섣달 스물 이렛날에 지냈어.”

시흥과 수원 사이에 일제강점기에 놓인 동차(수인선)가 다녔다. 신랑은 동차를 타고 수원까지 왔다. 시댁 동네에서 미리 보낸 말과 일행이 역전에서 기다렸다. 동차에서 내린 신랑은 역전부터 신부 집까지 말을 타고 들어왔다. 사모관대를 착용했다고 한다.

친정집 마당에서 대례를 올렸다. 대례상을 차려놓고 양편에 신랑과 신부가 서서 혼례가 진행되었다. 대례상에는 콩, 용떡(흰떡), 쫄대 등이 올라간다.

대례가 시작되면 우선 쫄대를 켜다.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절을 하고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절을 한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한다. 대례는 닭을 날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대례를 올린 후 폐백을 올렸다. 친척들이 대추, 밤 등을 던져주면 받았다고 한다.

친정집에서 시집으로 올 때는 ‘햇님(하님)’이라는 수발들어주는 사람이 쫓아왔다. 대례를 치를 때는 하님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시집으로 와서 3일 정도 신부의 수발을 돕다가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전에는 옛날에는 햇님이라고 쫓아다녔어. 수발들어주는 사람. 말하자면 우리 친정 종이지 그 사람이 여기 쫓아와서 3일 날 가. 여기 쫓아와서 다 해주고 가는 거야.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친정에는 다 부리는 저기가 있었어. 지금도 다 있고.”

친정집에서 시집으로 올 때는 자신이 쓸 옷과 이불, 밥그릇, 수저 등을 가져왔다. 친정 아버지가 해준 2층장도 가지고 왔다. 최근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지만 집을 신축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옷 해 가지고 왔지 뭘 해가지고. 옷하고 이불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왔지. 장롱. 내가 해온 장롱 정말 좋았는데 이 집 지으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건데. 2층장이었는데 정말 좋았는데. 반상기. 밥그릇 수저. 다 가져왔지.”

시댁의 대문에 들어설 때 엎어놓은 바가지를 밟고 들어왔다. 예전부터 하는 방식이라고 그대로 따랐다. 신랑도 친정집에 들어설 때 바가지를 깨고 들어왔다고 한다.

“바가지 얹어놓은거 뺏으라고 하면 딱 깨지잖아.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 하던데. 시키니까 했지. 신랑은 처갓집에서 하고 색시는 여기와서 하는 건가봐.”

큰댁 사당에 인사를 드린 후에 시댁 식구들과 절을 하였다. 웃어른에게는 큰절을 하고 같은 향렬과는 맞절을 하였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 시집살이는 하지 않았다.

대례를 올리고 일년만에 친정집에 가는 것을 ‘첫나들이 간다.’고 하였다. 이필분 씨는 첫나들이를 갔다가 석 달만에 돌아왔다. 당시에 신랑이 데리러 왔다고 한다. 첫나들이 갈 때는 엿과 떡을 ‘고리짝’으로 해서 가지고 갔다. 이렇게 보내는 것을 ‘차담’이라고 하였다. 시댁에서 보낸 차담은 친정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첫나들이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떡과 엿을 친정집에서 보내준다. 이때 시댁 식구들에게 줄 버선이나 양말을 가져왔다. 이것을 ‘봉송 싸온다’ 라고 하였다.

“그때는 엿하고 떡하고 그래가지고 왔어. 여기서도 그렇게 해 보내고. 그걸 동네에 다 돌려. 차담이라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인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차담이 오면 동네에 돌리고 혼자 안 먹어. 많이 해오니까 엿하고 떡하고 고리짝으로 해오니까. 그렇게 해줘서 그 동네 다 나눠먹고. 친정에서 또 해 와서 또 나눠 먹는 거야. 양말 버선, 친척들은 버선 해 오는 거야. 양말 할 사람 양말하고. 지금은 간단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한 거야.”

2) 구능뿌리 최연옥 씨의 사례

— 김포 외발산에서 달월 구능뿌리로 피난 온 마을로 시집을 오다

최연옥 씨의 고향은 김포 외발산이다.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보국단 징용을 피하기 위해 용현동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용현동에서 성장하였다. 1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고향인 외발산으로 돌아왔다.

최연옥 씨는 달월마을로 한국전쟁 때 피난 온 적이 있다. 아버지의 외사촌이 살아서 이곳으로 피난왔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다고 한다. 21살에 달월마을 구능뿌리로 시집을 오는 꿈에도 몰랐다.

구능뿌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동네가 아주 컸다고 기억했다. 초가집이 많았고, 사는

사람도 많았다. ‘기집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가 구능뿌리라고 한다. 그만큼 땅이 질고 흙물이 빠지는 동네였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자 시아버지는 딸 둘이 있는 여자와 재혼을 한 상태였다. 시집살이를 많이 살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막내딸을 달월마을에 사는 집에 중매를 본 셈이다. 사윗감의 아버지가 염전 마루보시 십장이고 부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결혼 약속 이후에 큰아버지가 구능뿌리에 다녀온 후에 아버지 욕을 많이 했다고 한다.

대례는 외발산에서 지냈다. 사주는 3일 전에 왔다. 신랑이 함을 직접 지고 혼자서 친정집에 왔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일찍 죽고 객지 생활을 하다 군대에 입대한 상태로 함진아비를 부탁할 친구가 없었다고 한다.

거리가 멀어 신랑은 차를 타고 왔다. 최연옥 씨도 시택에 갈 때 가마를 타지 않고 차를 타고 갔다.

친정동네에서 신랑을 다루는 장난을 하였다. 혼례 때 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친정집에 올라올 때 재를 뭉쳐 던지는 것이다. 이것을 ‘재꾸러미’라고 한다. 혼례 날, 비가 오면 옷이 비에 젖어 재가 잘 안 지워졌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대례를 지내려 신랑이 절을 하려 할 때 바닥에 놓은 돗자리를 잡아 빼는 것이다. 돗자리 밑에 수수깁을 깔아 놓아 돗자리를 쉽게 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네 처녀를 다른 동네서 데려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랑이 처갓집, 즉 신부의 친정집에 들어갈 때에 얹어놓은 바가지를 깨고 들어온다.

대례복장은 한복을 입고 족두리를 쓴 상태에서 연지곤지로 화장을 했다고 한다. 한복은 집에서 직접 지은 것이다.

대례 방식은 보통 구식이라고 말했다. 신랑과 신부는 닭, 초, 떡 등이 놓인 상을 마주 보고 서 있다. 대례가 시작되면 하녀들이 도와서 절하는 것과 술 따르는 것, 술을 마시는 것을 돕는다. 하녀는 최연옥 씨가 시택에 갈 때도 같이 왔다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친정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대례를 마치고 잔치 손님들이 돌아가면 신방을 꾸미기 시작한다.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창호지문을 손가락으로 뚫어 신방을 엿봤다고 한다.

신랑에게 혼례 예물로 금반지를 받았다. 신부는 시택으로 가며 저고리, 치마, 버선 각 한 켤, 자신이 쓸 수저, 밥그릇, 국그릇 등을 가져왔다. 또한 시부모에게 줄 이불과 옷을 가지고 왔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구능뿌리에 차를 타고 왔다. 거리가 멀어 말이나 가마는 타지 않았다. 재행으로 큰아버지가 같이 왔다. 시댁에 들어갈 때 대문에서 얹어놓은 박을 깨고 들어갔다.

이후에는 폐백을 했다. 시아버지, 시할머니, 큰동생, 아주버니들에게 절을 한다. 이때도 함께 온 하님의 도움을 받아 시댁식구에게 절을 했다. 절을 받은 시댁식구들이 대추 등을 던지면 그걸 받았다고 한다.

신부 구경한다고 구능뿌리의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이 사람들에게 국수를 대접했다. 이것을 ‘국수 잔치한다.’라고 한다. 국수잔치 온 사람들이 갈 때까지 최연옥 씨는 방에 앉아 있었다. 최연옥 씨는 이것을 ‘새댁 노릇한다.’고 했는데 눈을 감고 손님들이 갈 때까지 조신하게 앉아 있었다고 한다. 이유는 눈을 뜨면 인상이 사나워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다. 그래서 시집에 온 신부는 방에서 요강을 사용했다. 볼 일을 보다보면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강 안에 솜을 깔았다고 한다. 솜을 깔아주는 등 하루 동안 신부의 치다꺼리를 한 하님은 재행을 왔던 큰아버지와 다음날 돌아갔다. 큰아버지와 하님 모두가 최연옥 씨의 시집살이를 걱정했다고 한다.

혼례를 치르고 시댁에 와서 이틀을 자고 삼일째 되는 날에 삼일나들이를 갔다. 삼일나들이는 친정에 가는 것이다. 시댁에서 떡을 해서 친정에 싸갔다.

3) 조정열 씨의 사례

— 달월 상골에서 달월 고잔으로 친구네 집에 시집을 오다

달월마을 상골에서 태어나 고잔 마을로 시집을 왔다. 그래서 외지를 모른다고 한다. 달월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달월마을로 시집을 오고 한평생을 산 것이다. 중매로 결혼했다. 상골마을에 순흥안씨가 이웃으로 살았는데, 그 이웃이 중매를 봤다고 한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있어 고잔에도 많이 놀러왔었다. 시누가 동창이었다. 그래서 친구 오빠가 신랑이 된 것이었다. 어렸을 때 동창과 놀러 시집에 왔었다. 시집와서 ‘색시노릇’하고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아주머니 왔지?’ 이래서 쳐다봤더니, 처녀 때 알고 지내던 시댁식구였다고 한다. 색시노릇은 시집와서 시댁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앉아서 눈을 살짝 내리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상골에서 고잔으로 올 때는 가마를 탔다. 가마는 마을에서 함께 쓰는 것이었다.

3. 상례

과거에는 마을에서 초상이 나면 지금처럼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 초상을 집에서 치르며 안방에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조문을 받았다고 한다. 시신은 조문을 받아야 하므로 가장 넓은 방인 안방에 두었다.

장례는 보통 3일장을 지냈다. 5일장이나 7일장을 지내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달월마을에서는 거의 대부분 3일장을 지냈다고 한다. 조문객이 많거나, 반드시 와야 하는 손님이 늦을 경우에만 5일장이나 7일장을 하였다고 한다. 이것도 돈이 많은 집이라야 장례 기간을 늘릴 수 있었고, 대부분 그렇지 못했다.

“3일 동안 와서 아침 점심 저녁 먹여야지. 맨날 술 먹는 거 먹여야지. 3일 동안 초상 한 번 치르면 집안 거덜 난다고 그랬어. 장가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그것이야. 옛날에는 부조라는 게 뭐냐면 막걸리 한 뒷박, 소주, 국수 한 뭉텅이. 어떤 이는 술 담가오고, 어떤 이는 감주 가져오는 이도 있고.” (남광현)

화장이 일반화된 요즘과 달리 과거에는 거의 매장을 하였다. 집안의 종중산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매장 허가를 받아 종중산에 매장을 하였다. 달월마을에는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종중산에 묻힌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종중산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묘를 썼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장사를 지냈다. 음식과 수의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부고 돌리기, 묘 준비 등 상장례 전 과정을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장사가 나면 보통 만드는 음식은 육개장이었다. 마을의 여자들은 재료를 준비하여 육개장을 끓이고, 돼지고기를 삶고, 반찬을 만들었다.

지금은 돈으로 부조를 하지만 그때는 물건으로 하였다. 보통 쌀 한 되나 막걸리 한 동이를 가져오는 식이었다. 물론 그때도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조로 들어온 음식은 조문객들이 밤을 새면서 먹거나 장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이용한다.

“쌀만 내주면 동네 사람들이 다 해 먹었어. 감만 주면은 다 와서 해줬어. 반찬도 그렇고. 잔치고 초상이고 나면 다 와서 해주고 먹고 그러는 거지. 치우고, 그래서 주인은 모르게 되는 거지. 삼우제 지낼 때까지 많이들 해줬어. 그러게 생전에 먹고 갈 걸 가져간다고 하

는 거야.”(이필분)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10~20년 전까지도 했는데 세월이 변하면서 병원에서 하게 되었다.

1) 임종

돌아가시는 이를 지키는 것을 임종이라고 한다. 보통 임종은 지키려 노력한다고 한다. 집에 나이 드신 분이 있거나 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늘 신경을 쓴다고 한다. 그래서 집안의 사람이 돌아가시려고 하면 사람을 보내어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다. 그럼에도 부모의 임종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임종을 못했다.’라고 한다.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려고 하면 우선 외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을 불러들이고 어른은 안방 윗목에 보통 모셨다고 한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노인네가 편찮으셔서 왔다고 임종을 봤어. 그때 당시 안방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지.”(남광현)

2) 초혼

망자의 죽음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초혼이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입던 옷을 들고 지붕 위의 용마루에 올라갔다. 이후에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휘이휘이 김해김씨 혼 가져가시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을 ‘초혼 부른다.’라고도 하고, ‘혼을 쫓는다.’라고도 했다. 지붕에 올라가지 않고 마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혼 이후에 초염(소름)을 했다.

3) 호상

호상은 망자를 위해서 상장례의 전반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주는 조문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장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진행하기에는 힘들다. 이때 돌아가신 분의 자제들, 즉 상주를 대신하여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호상이다.

호상은 보통 망자의 집안 어른이 맡아서 한다. 호상이 선정되면 부고, 염습, 치장 등의

일을 결정하고 진행한다. 이때 호상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와 의논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4) 부고

부고는 망자의 죽음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지금 같으면 전화나 핸드폰 문자를 이용하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알리러 다녔다. 호상은 상주와 상의하여 부고를 돌릴 곳을 선정하고, 담당할 마을 사람을 결정한다.

결정된 마을 사람들은 망자의 친척이나 친지를 찾아 인근 마을에 알리러 갔다. 멀게는 서울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상주 쪽에서 차비를 줘서 보냈다고 한다. 부고 돌리기는 보통 마을의 청년들이 담당했다.

5) 수의 준비

수의는 염습 과정에서 망자에게 입히는 옷을 말한다. 수의는 미리 마련해 놓기도 하고, 수의 만들 옷감만 미리 사두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망자가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에는 시장에서 감을 사와서 집에서 바느질을 했다. 집안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바느질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평소 옷을 만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6) 염습

염습은 소렴과 대렴으로 구분된다. 소렴은 자세를 반듯하게 유지하기 위해 망자의 시신을 간단하게 묶는 것을 말한다. 소렴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한다.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여러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소독약으로 닦고 자세를 반듯하게 한 다음에 손과 발을 묶어준다고 한다. 그런 후에 망자의 시신을 모실 장소에 수숫대를 깔고 칠성판을 놓은 다음 시신을 놓아둔다. 그런 후에 하얀 천을 씌우고 그 앞에 병풍을 쳤다.

“돌아가시면 부패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위생상 안 좋으니까 시신 위에다가 수숫대를 엮어다가 그것을 밑에 깔아. 돌아가신 분을 칠성판이라고 얇은 송판 위에도 소렴을 해서 자세

를 반듯하게 하고 두는거지.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해봤는데 어려움 없이 했어. 예전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지. 시체를 만지는 것이 어렵단 말이야. 찬 시체라도 긴장을 해서 땀이 나. 누구나 섬뜩한 거지. 돌아가시면 몸이 굳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듯하게 하는 거지. 이불 하얀 이불감을 찢어서 덮고 그 앞에 병풍을 치는데 글씨가 앞으로 보이게 놓는 거야.”(최재갑)

소름을 하고 나서 하루 지난 다음에 대렴을 한다. 대렴은 시신을 씻긴 후 수의를 입히고 관에다 모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소름을 하고 나서 하루 동안 모셨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첫날 소름을 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밥을 올린 다음에 대렴이 진행된다. 대렴은 동네에서 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했다. 보통 남자가 했는데, 염을 잘하는 할머니가 있어 이 할머니가 대렴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망자의 시신에 수의를 입히고 베로 일곱 매를 묶었다. 베를 지그재그로 두고 묶기 시작하는데 손, 발, 발목, 종아리, 허벅지, 허리, 어깨 등 7번을 묶는다고 한다. 묶을 때 쓰는 칼은 망자의 시신 위로 넘기면 안 된다고 한다. 일곱 매로 단단하게 묶으면 시신을 양쪽에서 수월하게 들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 이후에 관에 모셨다. 병풍을 친 후 조문객을 받았다.

손톱, 발톱과 머리카락은 깎아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시신을 관에 모실 때 같이 넣어주었다. 망자가 좋아했던 물건을 같이 넣어주기도 했는데 화투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7) 상복

상주들이 입는 옷을 상복이라고 하는데 보통 굴건제복을 입었다. 상복을 만들 때도 마을의 여자들이 바느질을 해주었다. 바느질을 하는 순서는 우선 망자에게 입힐 수의를 만들고, 그다음에 상주들이 입는 상복을 만들었다. 이유는 망자의 염습이 끝난 다음에야 상주들이 옷을 입기 때문에 망자가 입을 수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다.

“돌아가신 날 저녁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서 베 끊어다가 다 상주 껴, 돌아가신 분에게 입힐 옷, 수의 옷이지. 다 짓고, 아줌마들이 마루에 뽁뽁하게 모여서 그 옷을 만들고 다

그랬어. 그게 동네사람들의 협심이야. 아낙네들이.”(최재갑)

상주들은 망자를 입관하고 나서야 상복을 입었다. 상복으로 갈아입기 전까지는 평상복을 입었다고 한다. 평상복이라도 화려한 무늬나 색을 들어간 옷을 입지 않았다.

8) 조문

입관이 끝나고 상복을 마친 후에 조문객을 받았다. 조문객들은 조문을 오면서 쌀이나 막걸리 등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왔다.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이라 초상난 집에서 대접할 음식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들이 먹을 음식을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과거에도 돈으로 부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기준으로 2천 원~3천 원 정도 부조를 했다고 한다. 조문객들이 조문을 오면서 가지고 오는 부조는 ‘방명록’에 기록해 두었다가 일을 다 치르고 상주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막걸리 한 되에다가 쌀 한 되를 가져오면 그걸 다 적어. 누구네서 탁주 한 되 쌀 한 되. 그걸 다 적었어. 예를 들어 떡 한말 누구네서 해왔다. 그것까지 다 적는 거야.”(최재갑)

초상 음식을 품앗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 큰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떡 한 시루, 감주 한 동이 등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두는 것이다. 그래서 한 쪽 집에서 이번에 도움을 받으면 다음에 도움을 주었던 집에서 초상이 나면 똑같이 갚았다고 한다.

9) 상여 꾸미기

망자가 돌아가신 날을 포함하여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상가 마당에서 상여를 꾸민다. 상여를 꾸밀 때는 마을 사람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함께 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상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 월동, 상골, 고잔 등 큰 동네를 중심으로 상여가 하나씩은 다 있었다고 한다.

“큰 동네가 어디냐면, 월동, 상골, 고잔, 큰동네 위주로 상여가 하나씩은 다 있었어. 보유자들이만 든거야. 그사람들이 만들어서 비쌌어. 그래도 동네가 다 그걸 샀어. 마을 돈으로 샀어.”(최재갑)

10) 발인

마당에서 꾸며진 상여에 망자의 관을 모신다. 이 과정에서 발인제를 하는데, 상장례 중에서 망자가 살던 집에서 행하는 마지막 절차이다. 발인은 아침식사를 한 이후에 한다고 한다. 제사를 하고 나서 상여가 나간다. 상여는 양쪽으로 6명씩 해서 총 12명이 들었다고 한다.

상여가 나가기 전에 망자가 생전에 살던 집에 마지막으로 절을 하는 과정을 가진다. 상여를 맨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인데, 앞에 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구부린다고 한다. 절은 3번 한다.

11) 상여 행렬

상여가 나가면 그 뒤를 상주와 친척들 마을 사람들이 따른다. 상여를 이끌며 상여소리를 했다. 달월 마을에는 방연근 씨가 상여소리와 회방아소리에 능했다고 한다.

상여행렬은 망자가 터전을 일구어 살던 동네 땅을 밟으며 미리 준비해둔 장지를 향해 이어졌다. 호상(好喪)일 때는 상여 행렬 도중에 장난도 많이 쳤다고 한다. 도랑이나 다리가 있으면 건너지 않고 기다리는데, 상주가 돈을 쥐어주면 상여가 다시 움직였다고 한다. 상주가 준 돈을 마을 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마을 돈으로 모여진 금액은 복날이나 마을 행사 때 사용했다.

“악상은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더 살아야 할 사람이 죽은 게 악상이고 나이 먹어서 돌아가실 때 돼서 죽으면 호상이고, 호상이면 상여 나가면서 장난을 많이 해. 여기 도랑 있으면 안 가고 막 이려고, 그러면 상주들이 가달라고 돈 뜯어내고,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한 거니까 마을 돈으로 기부를 하는 거야.” (최재갑)

12) 노제

상여가 장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노제를 지낸다. 노제는 미리 선정된 사람이 비용을 내어 준비했다. 술과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노제를 올리고 다시 장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때 뒤늦게 온 사람이 조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노제는 상여를 든 사람들이 잠깐 쉬는 역할도 겸했다.

13) 치장

광중을 파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했다. 광중을 팔 때 사용하는 가렛줄도 미리 만들어 두었다. 원래는 손으로 다 꼬았는데 나중에는 짚을 넣으면 새끼를 꼬아주는 기계가 있어 편했다고 한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 땅을 파는 것이 힘들었다. 그때는 왕겨를 못 자리에 놓고 불을 놓아 땅을 녹였다. 관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땅을 파는 것을 속광정이라고 한다.

14) 하관

상여를 한쪽에 두고 그 앞에 병풍을 쳐둔다. 병풍 앞에는 영정사진을 둔 후 향불을 피운다고 한다. 3일장을 치르며 조문객으로 오지 못한 사람들이 망자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거리가 멀어 뒤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관은 지관이 정한 시간에 한다. 하관을 하는 사람은 태어난 띠를 따져서 정한다. 태어난 띠가 맞지 않는 사람은 하관을 할 때 뒤돌아서 있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보지 말라는 사람이 하관하는 것을 보면 부정이 타서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하관을 할 때만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일은 같이 했다고 한다.

관 위에는 영정을 먼저 덮은 다음에 홍대를 그 위에 덮었다. 그런 후에 상주들이 돌아가면서 흙을 한 삽씩 떠서 덮었다고 한다.

15) 상청

하관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마루에 상청을 만들어 두었다. 일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상식을 올렸다고 한다. 상청에 밥을 먼저 올린 후에 그 밥을 가져다가 가족들이 먹었다. 상청을 걷는 것은 집안마다 형편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 보통 일년은 상청을 두었다고 한다. 초하루와 보름에는 제사 때와 같이 제물을 차렸다.

16) 소상, 대상

장사를 지내고 일년에 돌아오는 제사를 소상이라 부르고, 2년이 되는 제사를 대상이라 한다. 대상까지 지내면 모든 상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4. 제례

1) 순흥안씨 첨추공파 달월종친회 기제사

순흥안씨는 달월마을에 450여 년 전부터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6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고잔, 구능뿌리, 이호정, 조고나리 4동네에 140가구가 살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인근 지역으로 떠났다. 현재는 고잔 마을에 거주하는 전체 38세대 중에 절반 정도가 순흥안씨 집안이라고 한다.

“고잔에는 그 전에 안동김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다가 안동김씨가 궁골로 가는 바람에 여기는 덕수장씨가 들어왔어. 덕수장씨가 장곡에서 들어와서 살다가 떠나고 순흥안씨가 들어온 거야. 순흥안씨는 지금까지 450년 동안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만 해도 140가구가 살았어요. 지금은 순흥안씨가 전부 외지로 나가서 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늙은이들만 살고 있어.”(안종륜)

안종륜 씨는 4대조까지 기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였다. 기제사, 명절 차례, 시제를 포함하여 일년에 13번 정도의 제례를 지내는 것이다. 순흥안씨 첨추공파의 단비가 인근 산에 세워져 있다. 시제는 음력 10월 초에 지낸다.

순흥안씨 첨추공파는 2001년에 『안문록』이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안문록』은 문중의 의례와 관련된 각종 참고자료를 엮은 책으로 제례의 순서와 제수의 진설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안문록』의 내용과 순흥안씨 첨추공파 달월종친회 전(前) 종회장인 안종륜 씨의 제보 내용을 종합하여 순흥안씨 첨추공파 달월종친회의 기제사의 모습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사상 차리기

제수의 진설은 각 지방의 관습이나 풍속, 가문의 전통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순흥안씨 첨취공파 달월종친회에서는 ‘집사자향 좌’라 하여 제주가 제사상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을 동쪽으로, 오른쪽을 서쪽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다.

진설의 순서는 맨 앞줄에는 과일을 놓고, 둘째 줄에는 나물과 당숙류, 조과류를 놓는다. 셋째 줄에는 포와 식혜 및 탕류를 놓고 넷째 줄에는 적과 전을 진설한다. 다섯째 줄에는 메와 갯을 순서대로 놓는다.

가장 안쪽에는 지방을 써서 신위를 올린다. 남자의 신위는 왼쪽에 여자의 신위는 오른쪽에 모신다. 밥은 왼쪽에 놓고 국은 오른쪽에 놓는다. 수저를 밥에 꽂을 때에는 패인 곳이 왼쪽을 향하게 하여 메의 한복판에 꽂는다고 하였다. 과일은 대추, 밤, 꽃감, 감, 배가 기본이고, 생전에 좋아했던 과일을 올리기도 한다.

“(맨 앞줄은) 조율시이까지는 이대로 놔야 한다는 거야. 이쪽(오른쪽)은 좋아했던 과일을 놓는 거야. 수박이나 바나나는 (원래는) 안 올리지만 바나나를 좋아하셨으면 바나나를 놓고 하는 거야.”

(2) 기제사 순서

기제사는 총 16차례 절차를 거친다. 영신-강신-참신-초헌-독축-아헌-종헌-첨작-삼시정저-합문-계문-헌다-철시복반-사신-철상-음복의 순이다. 최근에는 제관을 담당할 사람도 많지 않고 제사 때마다 축문을 작성하여 독축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약식으로 기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약식제례의 순서는 먼저 영신준비를 마친 후 참신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강신과 초헌 절차를 병행하여 올린다. 독축, 아헌, 종헌, 첨작 등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이후 삼시정저, 합문, 계문, 헌다, 철시복반, 철상, 음복의 순서대로 제례를 올리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각 절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신(迎神)

영신을 할 때는 우선 대문을 미리 열어놓는다. 제사상의 뒤쪽(북쪽)을 향해 병풍을 치고 제사상 위에 제수를 진설하고 지방을 써 붙이면 제사의 준비가 끝난다고 한다. 예전에는 출주라 하여 사당에서 신주를 모셔 내왔다고 한다.

－ 강신(降神)

강신은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운다. 집사가 제사상에서 잔을 들어 제주에게 건네주고 잔에 술을 조금 따른다. 제주는 두 손으로 잔을 들고 향불 위에서 세 번 돌린 다음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빈 잔을 집사에게 다시 건네주고 일어나서 두 번 반 절한다. 이때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고 모사에 술을 붓는 것은 땅 아래 신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참신(參神)

참신은 고인의 신위 앞에 인사하는 절차로 모든 사람이 일제히 두 번 반 절한다고 한다. 여자는 네 번 반 절을 한다.

－ 초헌(初獻)

초헌은 제주가 첫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한다. 집사가 잔을 제주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두 손으로 잔을 향불 위에서 세 번 돌린 다음 집사에게 건네주고 집사가 잔을 놓으면 제주는 일어나 두 번 반 절을 한다.

－ 독축(讀祝)

초헌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모두 꿇어앉으면 축관이 옆에 앉아서 독축을 한다. 축문은 제주가 읽어도 된다고 한다. 최대한 엄숙하고 정중히 천천히 읽는다고 한다. 축문 읽기가 끝나면 모두 일어나 두 번 반 절을 한다.

－ 아헌(亞獻)

아헌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절차는 초헌 때와 같으나 모사에 술을 붓지 않는다.

－ 종헌(終獻)

종헌은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아헌자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아헌 때와 같이 한다고 한다. 이때 잔에 술은 반드시 7부쯤 부어서 올리고 종헌관이 두 번 반 절을 한다.

－ 첨작(添酌)

종헌 때 7부 쯤 따랐던 술잔에 집사가 세 번 첨작하여 잔을 가득 채우는 의식이다. 집사가 첨작을 할 동안 제주는 꿇어앉아 있다가 일어나 두 번 반 절한다.

－ 삽시정저(插匙正箸)

첨작이 끝나면 삽시정저를 한다.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손가락의 패인 쪽이 왼쪽(동)을 향하게 꽂는 것이다. 젓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육적이나 어적 위에 올려놓는다고 한다. 삽시정저가 끝나면 절을 한다.

－ 합문(闔門)

합문은 참가자 모두가 잠시 밖으로 나아가 문을 닫고 기다리는 의식이다. 대청마루에 제사상을 차렸으면 뜰아래로 내려가 돌아서서 잠시 기다린다고 한다. 단칸방의 경우에는 제자리에 엎드려 몇 분 동안 있다가 일어나는 것이다.

－ 계문(啓門)

계문은 닫았던 문을 여는 절차이다. 축관이 헛기침을 세 번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뒤따라 들어간다. 문이 열려있는 경우에는 생략하여도 된다고 한다.

－ 헌다(獻茶)

헌다는 갥을 내리고 숭늉을 올린 뒤 메 세 술을 떠서 물에 말아놓고 저를 모아 세 번 구르는 것이다. 이때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잠시 후에 고개를 든다고 한다.

－ 첼시복반(撤匙覆飯)

숭늉 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제자리에 놓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 것이다.

－ 사신(辭神)

사신은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서 모두가 신위 앞에 일제히 두 번 반 절을 하는 것이다. 제주는 지방과 축문을 불사르고 신주일 때에는 사당으로 모신다. 이로써 제례를 올리는 절차는 모두 끝나는 것이다.

－ 철찬(撤饌)

촛불을 끄고 제상 위에 놓인 모든 제수를 뒤쪽에서부터 차례로 물린다.

－ 음복(飮福)

음복은 참자가 한자리에 앉아 제수를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한다. 음복을 끝내기 전에는 제복을 벗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한다.

2) 경주최씨 총재공파 만령화수회 시제

월동마을에는 대대로 경주최씨가 많이 살았다. 경주최씨는 선조가 임진왜란 때 난을 피해 경기도 파주에서 달월마을로 정착한 이래로 지금까지 400여 년 간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인근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제수의 진설

이 늘어났지만 매년 음력 10월 시제를 지내는 날이면 선산에 모여 선조들을 기리고 우애를 다진다고 한다.

2015년 경주최씨 총재공파 만령화수회 시제는 음력 10월 11일(양력 11월 22일)에 실시하였다. 시제는 원래 음력 10월 11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제수 장만과 준비가 여의치 않아 음력 10월 11일을 전후한 가까운 주말에 날을 정하여 하

고 있었다.

시제 전날에는 월촌재에 모여 제수 준비를 한다. 제수는 국수, 포, 육적, 어적, 떡, 간장, 나물, 탕, 동태전, 녹두전, 두부전, 배, 유과, 약과, 감, 사과, 대추를 준비한다. 국수를 올리므로 시제 때는 저만 있고 숟가락은 올리지 않는다.

시제 당일 오전 10시 정도에 달월마을에 정착한 가장 윗대 선조가 모셔져 있는 미륵고개 선산(거모동 산 135번지)에 경주최씨 종친회원이 모였다. 선조에게 시제를 올리기에 앞서서 선산의 산신에게 먼저 산신제를 올린다고 한다. 산신제의 제물은 선조에게 올리는 제물의 종류와 동일하다. 다만 국수는 한 그릇만 올린다. 산신제에는 단잔만 올리고 산신제 축문을 읽으며 산신에게 시제의 시작을 고한다.

산신제를 지낸 후에는 가장 윗대 선조부터 시제를 올리기 시작한다. 각 산소의 상석에 미리 제수를 진설해 놓는다. 시제를 지내는 순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집사가 향에 불을 붙여 헌관에게 인계한다.
- ② 초헌관이 술을 올린다.
- ③ 집사가 젓가락을 시접에 세 번 구르고 육적에 올린다.
- ④ 참가자 전원이 엎드리고 축관이 축을 읽는다.
- ⑤ 참가자 전원이 일어난 후 절을 한다.
- ⑥ 아헌관이 술을 올린다.
- ⑦ 집사가 젓가락을 시접에 세 번 구르고 포에 올린다.
- ⑧ 참가자 전원이 절을 한다.
- ⑨ 종헌관이 술을 올린다.
- ⑩ 집사가 젓가락을 거둔다.
- ⑪ 참가자 전원이 절을 한다.

미륵고개에서 시제를 올린 이후에는 월촌재가 있는 선산으로 이동하여 시제를 계속 진행한다. 이때에도 선산의 산신에게 산신제를 먼저 지낸다. 이후 윗대 선조부터 차례로 시제를 올리기 시작한다. 각 선조의 산소에 미리 제수를 진설해놓고 시제 절차가 끝나면 거두어들여 월촌재로 가져온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시제는 오후 1시가 가까운 시간에 끝이 났다. 시제를 마친 이후에는 월촌재에 모여 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2015년 달월마을 선산 경주최씨 시제 현장]



향시조 묘소



초헌관 봉헌[향시조 묘소]



독축[향시조 묘소]



재배[향시조 아들 묘소]



월곶동 산1번지 선산 산신제
[독축 : 최승일(종중회장), 분향 : 최재갑(종중부회장)]



초헌관 봉헌[향시조 손자의 묘소]



2015년 달월마을 경주최씨 시제 참석자





V

민간신앙과 의료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faded, artistic illustration of a harbor scene. In the foreground, several fishing boats are docked at a pier. In the middle ground, a large body of water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a city skyline with various buildings is visible under a hazy sky.

V. 민간신앙과 의료

1. 월곶마을의 신앙
2. 민간의료와 속신

V. 민간신앙과 의료

1. 월곶마을의 신앙

한국의 마을에는 마을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을 공동체 신앙이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마다 공동체 신앙의 대상이 다르거나 신앙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 다양한 이유로 공동체 신앙의 전통이 전승력이 약화되거나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달월마을도 현재 마을 공동체 신앙의 전통이 단절되어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과거 바다와 맞닿아 있는 구능뿌리 지역과 마을 중심에 솟아있는 본향산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신앙의 흔적이 약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1) 구능뿌리의 공동체 신앙

구능뿌리는 달월마을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간척사업이 진행되기 전 바다와 접한 마을이었다. 현재 약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 식당을 운영 중이다. 구능뿌리 입구에는 큰 고목나무가 한 그루 있으며, 이 나무를 군웅이라고 불렀다. 구능뿌리 주민들은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으며, 마을에서 함께 제를 올렸다고 한다. 나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무를 함부로 꺾거나 손을 대지 못하게 했으나 특별히 배를 정박할 때 뱃줄은 이 나무에 묶었다고 한다.

현재 달월마을 주민들 중 구능뿌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제를 지내는 것을 실제로



구능뿌리 마을의 신성한 나무(군웅)

우가 많았다. 현재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믿음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나무가 오래되어 가지를 모두 잘라내는 등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2) 본향산에 대한 믿음

달월마을의 또 다른 공동체 신앙은 마을 중앙에 솟아있는 본향산에 대한 믿음이다. 달월마을 가운데 솟아있는 본향산은 마을 주변에 있는 산 중 가장 높은 산으로 과거 산은 마을 주민들의 삶과는 떼어 수 없는 관계이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식량을 제공해주고, 겨울은 땔감을 제공해주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의 보고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산신령이 있다는 믿음으로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마을에서는 산을 함부로 파헤치거나 하면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였



강천학 무당이 살았던 집 터

확인한 사람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보아 공동체 신앙의 성격은 사라진 것이 8·15 해방 전후인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신앙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졌어도 구능(나무)에 대한 경험함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나뭇가지를 함부로 꺾거나 하지 않았으며, 마을 인근의 무당들이 이 나무에서 굿을 올리는 경

다. 그래서 본향산에서 자원을 채취할 때도 항상 본향 산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과거 본향산의 신령함은 인근 마을에까지도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한다. 1950년대에는 마을에 강천학이라는 무당이 들어와 본향산신을 모시면서 살았다고 한다. 약 20년 동안 마을에서 거주하였으며, 경험함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이는 강천학 무당이 모시는 신이 본향산의 산신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이처럼 본향산은 인근 마을에서도 ‘산신이 세다’라는 소문이 났으며, 달월마을 주민들은 예전부터 본향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본향산에 제의를 올리거나 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달월마을 순흥안씨 집안의 일부가 본향산에서 터줏가리를 모시고 가족을 안녕을 빌었으며, 다른 주민들도 순흥안씨가 만든 터줏가리에서 기도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순흥안씨 집안의 가정신앙적인 측면이 본향산의 영험함과 맞물려 공동체 신앙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달월마을 순흥안씨 집안은 3형제가 있는데 그중 큰 집과 둘째 집에서 본향산을 모셨다고 한다. 순흥안씨 집안에서 언제부터 본향산을 모셨는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현재 70대 제보자에 의하면 2대조 선조가 본향산을 모셨으며, 3대조 조상은 본향산을 모신 것은 파악되지 않지만 그 이전부터 모시던 것을 이어서 모시는 것이라고 한다.

순흥안씨 집안에서 본향산을 모시는 것은 산 정상에 터줏가리를 만들어 이곳에서 가족의 안녕을 빌었다. 터줏가리를 만들어 산에 모시는 것은 음력 10월 중에 진행하며, 좋은 날을 선택해 터줏가리를 산에 올린다. 10월 추수가 끝나고 나면 깨끗한 짚을 모아 원새끼를 꼰다. 이것을 엮어서 터줏가리를 만드는데 움집의 형태로 지붕이 여러 단으로 만든다. 본향산에 모시는 터줏가리는 5단으로 쌓아서 만들고 본향산 꼭대기에 특정 나무아래에 모셔둔다. 터줏가리 안에는 작은 단지를 넣고 단지 안에 쌀을 넣어둔다. 터줏가리는 본향산에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집에서도 만들어 모신다. 주로 장독대 주변에 만들어 모셨으며, 집안의 터주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순흥안씨 집안에서 본향산에 터줏가리를 모시는 것은 개인이 본향산신을 모시는 것인데 이것이 마을 주민들 전체에 영



본향산에서 가져온 자재로 쌓은 담장



달월교회

향을 끼치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순흥안씨 집안에서 만들어 둔 터줏가리에 와서 소원을 빌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곳에서 해결을 기원하였다는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작은 종이에 소원을 적어 터줏가리에 매달아 두었다고 한다. 이는 주민들 사이에 본향산이 마을 전체를 지켜준다는 기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주민들이 본향산 꼭대기에 올라와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는데, 이 터줏가리에 와서 한 해의 안녕을 빌었다. 아이들도 본향산 꼭대기에 올라와 떠오르는 달을 보고 터줏가리에서 소원을 빌었으며, 이후 마을로 내려와 쥐불놀이를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본향산에 대한 믿음은 마을의 개발 등으로 인해 점차 약화되었다. 특히 1950년 달월교회 설립으로 주민들 중 많은 교인이 생기면서 본향산에 대한 믿음은 점차 미신으로 치부되기 시작하였다. 달월교회는 설립 이후 마을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1971년에는 어려운 농촌환경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달월 재건중학교’를 설립하여 주민 교육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마을 내 교회의 발전은 전통신앙에 대하여 점차 미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본향산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불화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본향산 터줏가리를 없애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이후 본향산에 대한 믿음은 본격적으로 약화되었다. 당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의 길을 넓히는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공사에 필요한 골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본향산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본향산을 훼손하거나 본향산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면 큰 해를 입는다고 믿었으나, 이후부터 이러한 인식이 점차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달월마을에는 전통적인 공동체 신앙은 사라졌으나 다른 형태의 주민들 간의 공동체는 유지하고 있다. 마을 회관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있으며, 달월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구성되어 현재 마을을 구성하고 있다.

2. 민간의료와 속신

지금은 크고 작은 병원을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차로 1시간 이내일 정도로 시흥과 인근 도시에 병원이 흔해졌다. 과거에는 달월마을에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아픔을 참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한다.

충분치 않은 의료시설로 인해서 60~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홍역이나 마마 같은 병으로 어린 아이들을 많이 잃었다고 한다. 그 시절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반만 살아있어도 다행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인제 그건 우리네 애가 자식 낳아서 기를 시절이고 우리네 자랄 시절에는 죽었어. 많이. 이래죽고 저래 죽고 열 낳으면 다섯 기르고, 반타작하고 그랬어. 옛날에, 우리네가 자식 낳아서 기를 때는 그냥 돌팔이 의사래도 의사가 있지만, 우리들 자랄 시절에는 어머니가 열을 낳았다 그러면 열이 다 사는 게 아니야. 지금은 다 살지만, 열 낳아서 다섯 살고 다섯 죽고, 우리네 자랄 시절에는 그랬지.” (조정렬)

산골마을에 살고 있는 어느 제보자는 19살에 낳은 첫째 아들을 홍역으로 잃은 아픈 기억이 있다. 홍역이 걸린 7살 아이는 인천 도립 병원까지 데리고 가서도 호전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7살 먹고 홍역 하다가 잘못됐지. 홍역들이 심하고 그때는 약도 없고, 홍역들 마마하다가 많이 죽었어. 그래서 학교 입학원서가 나왔는데 못가고, 인천 도립병원까지 갔었는데, 별안간 홍역이 들이차면서 숨이 차더라고. 그게 숨이 차서 혈떡거리다가 인천도립병원까지 가서 별걸 다 해보고 안 나아가지고, 그 길로다가 갔어. 그래서 저기 섬산이라는 데 가있어. 섬산에 갔다 묻었어. 관 짜서, 관 짚는데 그때 아버지가 구두를 사줬는데 그때 첨으로 고무로 만든 구두가 있었어. 구두가 좋다고 무척 좋다고 한 번 신어보고 신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그 신발도 넣어줬어.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었어.”

그 시절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가려면 인천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 기차가 다니는 소래다리를 걸어서 건너 인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른 길이었다.

“아프면, 인천으로 다녔죠. 소래다리 (걸어서) 건너서 버스 타고 인천으로 갔지. 소래까지는 버스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천으로 갔지.” (복희삼)

소래염전에 의사가 상주했었다고도 한다. 대한염업주식회사가 소래염전, 군자염전에 염부들을 위해서 두 곳에 의사를 상주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소래염전과 만나는 쪽인 군자염전 측에만 의사가 있었다. 갑자기 아픈 아이를 업고 이십 리 길을 뛰어서 의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후에 소래염전 쪽에도 의사가 상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의사가 있던 곳은 ‘섬산’이었다. 섬산에 염전 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감독관이 있었다. 그 사무소에 의사가 상주하면서 직원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었다고 한다. 염전에서 고용한 인부들만 치료해주었지만 급한 환자의 경우에는 돌보아 주기도 했다. 정식 의사 면허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환자의 증세를 듣고 약만 지어주는 약제사였다는 제보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시절 달월마을을 가까이에 있는 의료시설 중에서는 가장 나았다고 한다.

또한 달월마을에 사는 ‘간호원’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했다. 일반 가정집에 살았는데 동네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간호원을 찾았다. 의료 관련해서 조금 볼 줄 알았다고 한다. 상골마을을 방앗간 인근에 살았다. 50여 년 전까지 살다가 그 이후에 인천으로 나갔다고 한다. 1966년 정도까지 달월마을에 살았던 셈이다.

간호원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처방을 내리는 정도였다. 침을 놔주기도 하고 간단한 약이나 조금 주는 정도였다고 한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손을 따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간호원의 나이는 당시 30~40살 정도였다고 한다.

과거에는 밥을 먹기도 어려운 시절이라 약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민간의료를 행하고 속신을 지키며 행동을 조심하였다고 한다.

- ① 배가 아플 때에는 물을 데워서 뜨거워진 물을 배에 대어준다.
- ② 배가 아플 때에는 손으로 문질러주며 ‘엄마 손이 약속이다, 쓱쓱 내려가라’ 라고 해준다.
- ③ 머리에 열이 날 때에는 수건에 찬물을 적셔서 이마에 대어준다.
- ④ 체하면 소화가 잘 되라고 바늘로 손끝을 따준다.
- ⑤ 예전에는 동네에서 애를 낳으면 개를 잡지 않고 동네 전체가 조심을 한다.
- ⑥ 못질은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중에 눈에 탈이 난다.
- ⑦ 봄에 송홧가루를 털어다가 종이봉투에 담아 벽에 걸어둔다. 이것을 아플 때 사용한다.

- ⑧ 어머니의 모유가 만병통치약이다. 눈이 아플 때 눈에 넣으면 괜찮아진다.
- ⑨ 부스럼이 난 곳에 침을 바른다.
- ⑩ 상처에 고운 흙가루를 흘리면 상처가 아문다.
- ⑪ 상처 난 곳에 송진을 바른다.



VI

마을 사람들 이야기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faded, artistic illustration of a harbor scene. In the foreground, several fishing boats are docked at a pier. The middle ground shows a body of water with more boats and a city skyline in the distance. The overall tone is soft and nostalgic.

Ⅵ. 마을 사람들 이야기

1. 마을 할아버지의 살아온 이야기
2. 마을 할머니의 살아오신 이야기

Ⅵ. 마을 사람들 이야기

마을주민생애사를 조사할 때는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쓸 수 있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에 일부만 그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분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마을별로 할 것인가, 나이순으로 할 것인가, 직업별로 할 것인가, 성별로 할 것인가, 토박이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이입된 분들을 할 것인가 등등.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성별로 구분하여 남성 3인, 여성 2인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살아온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기에 남성분들은 달월마을의 환경을 중시하여 바다나 염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던 분, 농사를 짓고 살아오신 분, 그리고 개인 사업을 했던 분 등을 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외에 마을, 나이, 토박이인지 아닌지를 배려하여 가능한 한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결과로 선정된 분들이 고잔마을 인근 우묵골에서 살아온 민금식 씨, 월동마을의 이인창 씨, 상골마을의 남문현 씨이다. 민금식 씨는 토박이로 30대까지 염전에서 일했고, 이인창 씨는 외지에서 이입된 분이면서 농사로 평생을 보냈고, 남문현 씨는 상골마을 토박이면서 토목공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다. 여성은 달월마을 내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결혼하신 토박이분과, 결혼해서 이 마을로 들어오신 분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결과로 선정된 분이 고잔마을의 조정열 씨와 구능뿌리의 최연옥 씨이다. 조정열 씨는 궁골에서 태어나 고잔마을의 순흥안씨와 결혼하여 지금도 고잔마을에 살고 있다. 최연옥 씨는 친정이 외발산동인데 구능뿌리의 순흥안씨와 결혼하여 지금도 구능뿌리에서 살고 있다.

마을주민 생애사를 조사함에 있어 원래는 모두 토박이 분들만을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여기서 특별히 외지에서 들어온 이입인(移入人)을 중시하여 이인창 씨를 조사하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우리 민족은 전통사회의 경우에는 한 집안이 일정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대를 거듭하며 살아오는 특징이 있어, 전국에는 그 역사가 수백 년 이상이 되는 집성촌이 많고 이곳을 중심으로 소중한 전통문화들이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6·25는 민족 대이동을 불러와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약화시켰다.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은 실향민이 되어 타지에서 새롭게 삶을 개척해야 되었다. 그래서 이런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삶을 개척하고 있는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인창 씨는 6·25 때 월동마을에 정착해서 고군분투하며 삶을 개척해왔다. 결과로 현재는 비교적 여유 있게 살면서 마을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분의 삶을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다.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모두 조사 당일까지의 사실이다. 이후의 변화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면의 제한이 있어 어떤 조사대상자의 내용은 일부만 선별하여 기록하였음을 밝혀둔다. 선별 기준은 마을지이기에, 그리고 생애사이기에 가능한 한 마을의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순서는 조사대상자의 나이순으로 하기보다는 직업과 관련하여 민금식, 이인창, 남문현 씨 순으로 소개하고, 여성은 조정열 씨가 항렬상 윗대여서 조정열, 최연옥 순으로 했다. 모든 글은 존칭을 생략하고, 일반 서술체로 적기로 한다. () 속은 조사자의 말이다. 다른 분이 말하는 경우에는 () 속에 그 이름을 적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시간을 내어 본 생애사 조사에 응해주신 다섯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 마을 할아버지의 살아온 이야기

1) 고잔마을 옆 우묵골의 민금식 씨가 살아온 내력

* 남, 75세, 1941년생, 뱀띠, 여흥 민씨/ 부인 김인순 씨, 69세, 김해김씨

민금식 씨는 2015년 10월 25일(일) 달월교회에서 만났다. 달월마을 열두 마을에는 인근에 소래염전이 있었다. 이 염전은 1936년 이후부터 약 60년 간 존속해 오면서 마을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염전에서 일했던 분을 대상으로 생애사를 조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주위에 수소문을 한 결과 월곶 3통 이용민 통장님과 시흥문화원 민병섭 이사님이 민금식 씨를 추천해 주어 이 분을 만나게 되었다. 살아오신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첫 마디가 “나는요, 그냥 분주하게 살아왔어요.”

라고 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는 ‘남보다 앞서야 살아 남는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

민금식 씨는 부친이 평생 염전에서 염부를 했다. 그리고 본인은 30대까지 염전에서 염부 및 노조위원회의 조직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젓소목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와 지금은 비교적 여유 있게 살고 있다. 부인과는 펜팔을 통해 만났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데, 모두 혼인하여 출가했고 지금은 부부만 살고 있다. 부부가 함께 달월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신앙심이 아주 깊다.



민금식 씨와 부인 김인순 씨

(1) 민금식 씨의 부모님과 형제들

민금식 씨의 조상이 우묵골에 정착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 일이다. 원래는 경기 북부의 송산이란 곳에서 살았었는데, 당시는 워낙 먹고살기 어려울 때라 할아버지가 염전을 보고 아들 3명 등 가솔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이주했다. 여기는 염전이 있어 월급은 나올 수 있으니까 힘은 들지만 먹고살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금식 씨는 아버님 민영돌 씨와 어머니 유봉덕 씨 사이에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아래로 남동생 3명과 여동생 2명이 있다. 4남 4녀 중 장남인 셈이다. 부모님은 현재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만일 살아 계시다면 아버님은 105살, 어머니는 98살 되셨을 것이다. 아버님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라곤 오로지 국민학교를 1주일 정도만 다니셨다. 그러나 한문은 자습으로 익히고, 붓글씨도 혼자 연습하여 한문을 잘 아시고, 붓글씨도 아주 잘 쓰셨다. 그리고 재주가 워낙 많고 좋아서, 목수일을 비롯하여 쟁기, 마차, 집 짓는 것 등 못하는 것이 없었다. 산에서 싸리나무를 꺾어다 바구니도 잘 만드셨고, 벼짚으로 종다리, 멧방석, 명석 같은 것도 다 만들어 썼다. 치과 일도 잘 보셨는데, 특히 금니를 잘 하셨다. 이렇게 재주가 많으셨지만, 예전에는 이런 재주를 이용하여 만든 것들은 집에서나 썼지 그걸 판매하거나 장사한 것은 아니어서 돈 버는 일하고는 상관 없었다. 집에서 농사를 조금 지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쟁기질도 하고 논갈이, 밭갈이를 하면서 살림을 보태기도 했지만, 평생 소래염전에서 염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8명이나 되다 보니 살림은 늘 빠듯하여 가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민금식 씨의 남동생들은 지금 서울, 인천, 충북 등에 살고 있다. 민금식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을 때 인근에 땅을 마련하여 아버지 3형제의 산소를 보기 좋게 마련해 드렸다. 평생을 힘들게 사셨던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해드린 것 같아 기쁘다.

(2) 어린 시절

초등학교는 정왕동에 있는 군서국민학교를 다녔다. 당시 달월 열두 마을 다른 마을에서는 거의 대부분 군자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고잔마을쪽 아이들만은 군서국민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다. 학교까지는 수인선 기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었지만 차비가 없어 그냥 걸어 다녔다. 어떤 때는 학교까지 맨발로 다닌 적도 있는데, 부모님이 고무신을 하나 사주시긴 했는데, 신고 다니다보니 밑창이 다 떨어져 위에만 걸치고 다니다가 그마저도 떨어져 맨발로 걸은 것이다. 9살 때는 6·25가 일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군자중학교를 다녔고, 이곳을 졸업한 후에는 염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① 9살에 6·25를 겪고

“이곳은 피난곳이어서 그래도 전쟁이 그리 심하진 않았는데, 친구랑 학교를 가다가 소래다리에 군인들이 헬멧을 쓰고, 총을 거꾸로 들고, 애를 위에다 업고, 개미가 비 오면 줄지어 가듯, 줄지어 가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바로 후퇴하는 모습이었다. 또 산 꼭대기에서는 비행기가 소래다리를 끊는 것도 보았고, 썩썩이가 오르내리며 총으로 계속 해서 소래지사를 없애는 것도 보았다.

(그럼 6·25때 동네 사람들은 뭐를 드시구 살았어요?) 사는 거야 뭐 피치 못했지요. 그 당시에, 그때 터지구 나니까 소래다리 끊어지기 전이야 막. 근데 인천에 납작보리 공장이 있었는데, 창고가 있었는데 그걸 개방한다구 그러드라구. 그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거제도루다 제국민병으로 가셨구, 우리 애들 어린애들허구 여자가 그냥 그 보리쌀을 가지러 간 거야. 그거를 입빠이 한 푸대를, 거기서 아낙네가 여길 소래다릴 건널 때까지 와서 한 이십 일은 앓으셨었대 그 당시 말 듣기는. 그래 그렇게 먹구 살구. 그 뭐 아주 비참했지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때야. 그래가꾸 그렇게 살다보니까 낭중에 아버지가 오시드라구. 그래가꾸 이제 사람이 참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두 있는데, 아이, 어떨 때는 부모 생각 나. 너무 불쌍해 부모 세대는.

6·25때는 싸죽 먹구 살았어요. 그거 갯벌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구 깨따구리라구, 잿나물

이라구 저 해초, 나문쟁이, 그게 가뭇에 먹구 남아서 나문쟁이라 이름이. 그 유래가. 그거 6·25때 많이 먹었어요. 그거 먹구 살은 거야. 그거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선. 갯벌에는 아무데나 다 있으니까. 지금은 오염 돼서 안 먹지만은.

6·25 겪고 나서는 상황이 더욱 나빠져서 나무 송기, 쭉, 올망대 쭉, 뽕기, 시영, 시영 혹은 고시 영이라고 하는 신맛 나는 풀, 메싹 등 독이 없는 풀이나 뿌리는 다 먹었다. 그리고 보리겨에 사카린을 넣어 찌먹기도 했는데, 그러면 목구멍이 아주 곪끄러워 아팠다. 호박죽, 보리밥 먹는 날은 아주 잘 먹는 날이었고, 납작보리 수수 그런 거 먹고는 설사를 하거나 가 불치기도 했다. 그나마 이런 것마저 없으면 그냥 물만 먹고 견딘 날도 많았다. 당시엔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고 전부 다 그랬지만,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② 웅덩이의 물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어려서는 물고기도 많이 잡으러 다녔다. 논가의 웅덩이에서는 생이, 붕어, 미꾸리 같은 것을 잡았고,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섬산 같은 곳에서는 장어를 잡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배가 고파서 하기도 했지만, 일상적으로 흔하게 했었다.

“논에 가면 그 샘 나는 웅덩이가 있어. 논 옆에 웅덩이 같은 거 있는데 거긴 시간 나면 잡아 왔지. 그걸루 갖다가 반찬허구. 가물치, 잉어, 붕어, 미꾸리 실컷 먹었지 뭐 그런 거야. 그 전엔 생이라구 있었어. 생이. 요만한 민물새우, 생이라구.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수초가 있으면 최[체] 있잖아. 최루다 이렇게 허면 그때는 한 주먹씩 걸렸어. 그러면 그걸 갖다 무 놓구 쥘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그래구 그때는 농약을 안 쳐서 이렇게 물 고인 데 있 으든 붕어, 또 미꾸리, 장어가 있드랬어. 그거야 뭐 일 허다두 잡아먹구 뭐 그거는 공식적 으루 허는 거지 뭐.

웅덩인 겨울철에 잘 잡지요. 한 군데로 몰리니까. 추우니까, 이 논 있는 데 있는 웅덩인 겨울철에는 안 얼어. 샘 구덩인. 그럼 그리루 몰려오는 거야 생이가. 붕어허구 미꾸리가. 그 때 벌써 푸구 잡는 거야. 다른 데는 얼어서, 그거는 물이니까 안 춥잖아요. 몰려드는 거예요. 생이허구 미꾸리, 장어가. 게 수렁 수문 있는 데는 꼭 뱀장어가 그쪽으루 몰려와. 그럼 그걸 잡는 거야 겨울에. 민물하고 바닷물 만나는 데는 여름에 잡는 거구. 여름에서 가을까지 잡는 거구. 인저 생이, 붕어 그런 거 수렁에서 잡는 거는 겨울에 허구.

장어는 민물과 짙물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 수문 통에 민물허구 바닷물이 내려가는 고 사이에 그 장어가 산란하구 서식하는 거야 장어가. 갯고랑 끝에, 육지 땅에서 민물이 내려

가잖아요. 그 민물이 섞이는 고런 데 많이 살어 장어가. 요기 섬산 같은데, 거기야 뭐 미꾸리, 잉어, 붕어, 가물치 그 뭐 많었지. 그때 강이 있구. (그때 진짜 먹을 게 더 많았겠어요?) 그럼요. 그거는 실컷 먹었지. 그냥 좌우간 한 바께쓰씩 잡았으니까 금세 가서. 그냥 물이 인제 어느 정도 빠지면 등을 보이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삼으루다 탁 때리구 그냥 기절하면 또 주워오구. 그때는 잡기도 쉽고, 또 요 방 만큼한 곳에서두 한 바께쓰씩 잡았어. 얼마나 많은지.”

③ 개골창 막아서는 송어를 잡고, 갯벌에서는 맛과 싸죽을 캐고

달월 열두 마을 인근에는 예전에 갯벌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맛과 싸죽이 많았다. 그래서 6·25 때도 이런 것을 잡아먹으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여기 월곶신도시 있는 데 아시죠? 거기 철길이 있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다 바다였어. 시흥시에서 첫 사업이 배곶신도시 아니예요? 그때는 나가면 맛 있어. 맛, 싸죽, 맛, 새우 막 그런 거 많이 잡아먹었지. 6·25때 그 없을 때두 그런 거 많이 먹었지. 싸죽, 새우, 또 인제 개골창 막아서 그물 이렇게 올려서 송어 걸은 거두 잡구. 고기 많았었어요 예전엔. 그건 시간만 나면 가서 허지. 물때 맞춰서. 그래구 투망, 투망 던져서두 잡구.

그래구 여긴 싸죽이 많았어. 쪼꼬만 조개. 그거 많이 잡아다 먹었죠. (그건 갯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갯벌에서. 물 맑은 곳에서 조개는 다 건져. 허영게 나와. 빨에서. 이렇게 묶은 갯땅에서 있어서. 그리구 맛은 이렇게 구멍[구멍]이 있어 다. 그러면 손으로두 잡구 또 이렇게 성애라구 만들어서 꼬부라진 칼쿠리루 잡구. 맛 잡는 도구지 그게. (그런 도구가 지금 남아 있을까요?) 없지요. 그건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 오염돼서 있다 하드라구 못 먹어요. 그 맛, 싸죽 그런 건. 그것두 읊지만 오염이 돼서 못 먹어. 냄새가 나서. 구역질 나서 못 먹어요.”

④ 배를 타고 나가 한 번은 죽을 뻔하고

달월동네 인근 바닷가에서는 전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빈저리라는 생선이 많이 잡혔다. 이것은 밴댕이와는 다른데 밴댕이는 몸이 연한 데 비해 빈저리는 그렇지 않다. 또한 송어도 많이 잡혔고 새우도 많이 잡혔다. 갯벌에서는 망둥어, 궤[게] 등도 많이 잡혔는데, 궤는 꽃게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게다. 게나 새우는 겨울에는 추워서 바다에 들어갈 수 없기에 주로 여름에만 잡았다. 민금식 씨가 어렸을 때는 배가 엔진 없이 그냥 노를 저어 다니

는 조그만 배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겨울에는 추워서 바다에서 일 하기 어려웠다.

민금식 씨는 어린 시절,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태풍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배를 잘 타지 않는다.

“(그러면 배 같은 것 가지고 가서는 고기 안 잡아요?) 그전엔 없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배가 없잖아. 그때 우리가, 우리 아버님이, 배 얘기 나와서 얘길 해야지. 우리 아버님이 염전을 땡겨서, 인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나왔어. 그래가지구 또 땅을 한 마지기 정도 팔아가지구 합쳐가지구, 경험이 읊는데, 누가 허믈 지방그물을 허믈 돈을 번다 그랬어. 그때는 고기가 많을 때예요. 아, 이래가지구 지금 여기서 뒷방울 요기서 나가서 저 쌍섬이라구 돌출이 거기 지나서 가가꾸, 지금 저 대부도 가자면 쌍섬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믈 파도가 좀 있어. 근데 우리는 노를 저어가꾸 허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그때 지방그물을 이렇게 배에다 그물을 딱 맨들어가자구 달구가믈, 지방그물은 이제 배에다 이렇게 그물을 매달구 가면, 왜 바다엔 밀물 썰물이 있잖아. 그러면 밀물이믈 고기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썰물이면 획 바껴서 또 그리루 고기가 들어와요. 고기가 이렇게 물에 썰려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고기두 잡히는데 그 당시는 또 판로가 없는 거야. 또 비가 오는 거야 또. 그러면 다 썩는 거야. 그래가지구 홀랑 망하다가 또 배가 뒤집혀가지구 죽다 살아난 적두 있어요 내가. 아버지허구 나허구 했는데, 파도가 밀려서 저 고줄이 돌출이 그 뒤에 떠내려 가가지구, 내 그 다음부터 다시는 배 안 탄다구. 그 부자가 같이 타는 게 아니래 배는. (비행기두 그렇대요. 그래서 재벌들은 부자가 같이 비행기 안 탄대요.) 이 시월에는, 저 오뉴월에는 신선이구, 구시월에는 도지기 태풍이 막 일어나서 그때는 뱃놈이래. 그때는 못 타는 거래. 그러니깐 육칠월에는 신선이구, 구시월에는 일명 뱃놈인데, 그 아들 부모가 자식과는 뭐 안 타는 거래는구만. 죽으믈 다 싹 죽어버리기 땡에. 그래가지구 떠내려가가꾸 그물 다 떠내려가구 아유, 빗만 잔뜩 지구 고생 많았지. (그때가 몇 살쯤 되셨을 때예요?) 그때 태풍이 엄청 늦게 왔는데... 그때가 어렸을 때예요 좌우간. 중학교 한 열대엿 살 났을 꺼야 그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⁵⁰⁾ 그래서 내가 배를 잘 안 타잖아요. 죽을 뻔해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다 엔진이 있

50) 자료를 찾아보면, 민금식 씨가 이런 경험을 한 것은 아마도 사라호 태풍 때가 아니었던가 한다. 이야기 속에서 보면,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태풍이 엄청 심했다 하고 또 태풍이 늦게 왔다고 하는데, 사라호 태풍은 추석을 이삼일 앞두고 9월 15일을 전후하여 불어와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 태풍으로, 근현대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다. 만약 이때가 사라호 태풍이었다면 1959년이다.

어서 일기예보 있구 다 뜯구 다 싹 고속으루 하구 그러잖아. 그때는 노를 저어가지구 못대 달았어. 이거를 맞춰서 바람 풍향을 맞춰서 올래니까 안 된 거야. (똑딱선 같은 거예요?) 똑딱선은 엔진이 있어서 좋지. 노루다 젓고 다녔을 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험두 없는 사람덜이. 그래 그것두 한 번 해봤어요.”

(2) 삶의 터전이 되었던 소래염전 : 염전에서 염부로 일하다

민금식 씨의 아버지는 평생 소래염전에서 염부로 일하셨는데, 말년에는 반장을 맡았었다. 민금식 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를 따라가 염전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완전히 염전을 퇴직한 후에는 아버지 대신 염전에 취직하여 본격적으로 염부의 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물을 퍼 올리는 수리채를 돌리는 일을 했는데, 체격이 좋아 일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오랜 기간 염부로 일하다가 군대에 가게 되어 26살에 염전을 그만두었다. 오랜 기간 염전에 근무한 만큼, 그는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

“여기 월곶 열두 동네뿐 아니라 장곡동까지, 진마루까지 다 염전을, 여기 섬말, 포리, 서창동 일대 주변은 다 염전에 의해서 살았죠. 염전은 인저 여기는 천일염이니까, 일본 사람덜이 이 염전을 남동, 소래, 군자가 우리 그전에 보면 초등학교 지리책에 4학년 때부터 나오잖아요. 천일염으루. 근데 인저 일본사람들이 백년을 데이터를 냈대. 무슨 데이터를 냈냐 허든 한 달이든 한 이십 팔구일, 한 삼사일 놔두구 다 서풍이 부는 거야. 또 강우량이 젤 적은 거야. 지질학적으로 보며는 이 등고선을 타고, 이 기류가 댄 데로 가고 여기는 비가 적게 오는 데야. 그래서 일본 사람덜이 백 년 데이터를 내가지구, 일기를 기상을 백년을 데이터를 내가지구 서풍이 가장 많이 불구 햇빛이 많이 잘 쏘이구, 서풍 바람이 불구 비가 안 오는 곳을 택한 곳이 남동, 소래, 군자야. 그래서 비가 적게 오구 증발이 되면 소금이 돼요.

소금은 먼저 바닷물을 갖다 이 저수지에다 가둬요. 그러믄 정수가 돼. 그러면 뿌연 물이 다 파랗게 아주 그냥 정수, 그 찌꺼기가 가라앉는 거야. 그거를 양수장으루 물을 그 큰 논뼤미가 있어. 그 염전에 가면 대양저수지라구. 그리루 일차 퍼서 인저 내려가면서 물 양을 알게 되면서 증발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결정적인데 가서, 19도 21도만 되면 소금이 결정이 있어. 소금이. 소금이 되는 거야. 그 정도 되면 소금이 인저 앉아서, 생산을 인저 맨날 거두구

하루에 한두 번씩 건쥌. 그게 일광으루다가 햇빛으루다가 그 저 바람에 말리고 햇빛에 증발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염전이야 그게. 가물며는 이게 창고가 있어. 막사처럼 이렇게 창고가 있는데, 거기가 꼭 차서 그 옆에다가 인저 마당에다가 그만큼이 더 쌓아지는 거야. 가물면. (가물면 더 유리하죠?) 아유, 노나는 거지 아주 그냥. 수지맞는 거지 그 염전에서. 그러면 인제 어떤 해는 바람이 불구 비가 자주 오면 또 안 돼. 날이 흐리고 그러면. 그 해는 적게 나오고 생산이. 그렇게 일기에 따라 좌우허니깐. 그래서 천일염이야 그게.

(그러면 소금 많이 나라고 뭐 고사 같은 것도 지내나요?) 아유, 그런 건 없구. 없어요. 그때 두 그런 건 없구. 그냥 이게 기후상으루 인저 유난히 어떤 해에는 아- 봄바람이 잘 불구 그냥 물이 증발이 되는 걸 보면, 수증기가 새파랗게 날라가. 이 바닷물에도 민물이 있잖아요. 그게 날라가는 거야. 그러면 또 바닷물도 쏘여지고 그러면 이게 대양저수지라고 물을 이만큼 가둬. 가두면 이제 느태라구 그러쥌. 그게 또 대양저수지라구 있어. 바닷물을 저수지에 다 담는다고 저기다. 큰 저 웅덩이에다 인저, 그러면 거기서 양수장을 만들어가꾸 각 저 섬 말쪽으루 뭐 동서부락으루 나누는데, 이쪽 소래 쪽은 서부구 저쪽은 동쪽에 있어서 동부라 그래. 그러면 동서부루 메칠까지는 그 쪽으루, 물이 적다면 그쪽으로 퍼 주구, 또 이쪽 퍼 주구, 양수장이 물 보내는 데야. 물 퍼서. 저수지에다 가둔 맑은 물을. 그러면 거기서, 그 물 두 장마철에는 염도가 낮어. 그 가물 때 잡아두는 거야. 그러면 넓은 면적에서 좁은 데로 잡으면 염도가 덜 떨어질꺼 아니예요. 그걸 이용한 거지. 그게 물을 증발시켜서 졸이는 거야. 그게 인저 염전에서 자연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거가 있다는 거야. 그게 처음에는 물을 많이 실었다, 점점 적어. 그러면 점점 물을 얹혀. 그러면 염도가, 소금이 짜져. 염도가 생겨. 그러면 거기 결정체가 19도 정도만 되면 소금 결정체가 될 단계야. 그러면 20도 21도만 되면 소금이 결정이, 소금이 앉는 거야.

소금은 4월달서부터 모낼 때, 5월 6월 그때가 최성기야. 그때 소나무가, 송애가루라고 노란 가루가 날려. 그러면 그게 그냥 논바닥에 짝 노랗게 깔려. 그때가 제일 가물구 바람이 세구 태양이 일광욕이 강할 때야. 그때가 확 나쥌. 그러구 육칠월 장마에는 비가 와서 물을 가두구 별루 없구. 장마가 지나구 좀 나지. 그러니 그 송애가루 날 때가 최적기야. 그때가 소금이 제일 많이 나. (그럼 송화가루가 섞인 소금을 제일 좋은 것으로 쳐요?) 아니, 그건 인제 다 없어져. 자연적으루 없어지구. 그 인저 소금을 졸이면 자꾸 염도가 올라가니까 낭중에 인저 19도 이상만 되면 벌써 결정체를 맺을 준비를 해서 21도가 되면 소금이 막 앉쥌. 막 그냥 순두부 엉기듯이 그렇게 돼. 그러면 위애가 등실등실 뜨구. 그러면 그게 또 간수라구 있어요. 간수. 두부 만들 때 쓰는 간수 아시쥌? 근데 인저 거뭇물이라고 그게 오래 돼서

간수가 그냥 묵은 간수는 또 안 돼. 소금이 저 나쁘고 맛두 없구 그래. 그때는 새로운 한 19도나 18도 되는 물을 갖다가 보충을 시켜줘. 그러면 소금이 그냥 하얗구 또 그냥 막 많이 생산되지. 그게 기술이야 그게. 그게 염전에 염도 재는 저기가 있어요. 기구가. 시즈끼라구 일본말루. 그게 자지 자. 물자지. 그게 있어. 인저 염도를 체크하는 자가 있어. 그걸루 재문다 나타나요. 그걸루 조절을 하는 거예요 다. 떠서 그거 허구.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거야 염전이.

그래가꾸 인제 여기 창고에다 쌓아 놓으믄, 그 전에는 저 처음에는 여기 저 푹푹이라구 인저 배가 있었어. 갯고랑에다 대구, 칠통이라구 거기다 소금을 짚어서 배에다 계근해서 갖다 싣구 싣구 했는데, 그 후에는 가시랑차라구 대보에다 네루를 놓고 소래지청으루 끌어들여 다 거기서 또 다 차루다 싣구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시 도로를 내가지구 또 길루 땡겨서 자동차가 직접 창고까지 들어오게끔 그렇게 허다가 인저 염전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순서가. 처음에는 칠통이라구 함석으로 만든 지게가 있어. 그걸 저서 배에다가 계근을 여어서 계근을 달아가지구 거기다 배에다 싣아서 처음에는 보냈구, 고계 발전이 돼서 소가 끝었지. 소가. 소가 끝구, 고 답에 가시랑차라구 인저 이 저 엔진차가 저기 저 구루마를 끝은 거야. 그 답에는 그 내루를 걷구 저기 저 화물차가 직접 창고까지 들어왔어. 염전 창고까지. 그리구 끝했어요. (그러면 소마차루 구루마를 끝었다는 건 아주 옛날이네요?) 초창기. 아니 두 번째. 칠통으루 지구 지게루 저서 배에다 싣구, 푹푹이가 그 저 배를 끝구 땡겼었지. 그 후에 저 우마차루 끝었지. 구루마를 네루 달려갔구. 그 답에 네루 걸치구 가시랑차루 하구. 엔진으루 해서 운전을 해서 가시랑차라 해서 소금 끄는 차가 있었어요, 네모 반듯하게 차가. 그 차가 있구 그 답에 인저 직접 자동차가 생산하는 창고까지 들어왔다가 그게 끝이야.

(그럼 그때 일당은 얼마정도였어요?) 일당은 몰르구.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비 오믄, 만약에 비 왔다, 인저 소금이 막 앉았어요. 갑자기 비가 막 오잖아. 밤에 잠 못자구 와서 가서 다, 비설거지라구 그래 그걸갖다. 그러면 물을 다 포랑으로 떠서 그걸 또 간수구텅이라구 있어. 간수, 소금 원료 간수를. 그리 퍼 넣는 거야. 그럼 죽어나는 거지 뭐. 밤에 자다말구 뛰가서 그거 뭐. 그거 늦게 허믄 맹물 되는 거야. 그러믄 난리 나는 거야. 반장한테. 빨리 가서 물을 떠서 포랑에다 해서 구텅이에다 한데 뽀 놓는 게 최소한 목적이야 그 목적이. 비 설거지래는 게, 그거 무척했어요.

소금 나면 어깨에다가 인저 목도라구 인저 어깨에다가, 일본말이지마는, 창고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바구니를 달아서 이렇게 미구, 그걸 목도라 그래. 그거 많이 했지.

(3) 염전 일과 동시에 집에서는 토끼나 양 같은 동물을 키우다

민금식 씨는 군대 가기 전, 염전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토끼나 양 같은 동물들을 키웠다. 아버지 혼자 벌어들인 많은 가족이 먹고살아야 해서 늘 가난했기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까닭에 돈을 벌어 아버지도 도와드릴 겸해서 집에서 토끼나 양 같은 동물을 키운 것이다. 당시 앙고라토끼털이 값이 좋다는 소문이 있어 앙고라토끼를 길렀는데, 털을 깎으면 아버지가 서울역에 가서 팔아오시곤 했다. 그러던 중 군대를 가게 되었다. 어머니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토끼와 양을 잘 돌봐주셔야 한다고 부탁하고 갔는데, 제대 후에 보니 동물들이 그대로 다 있었다. 부모님들이 그것을 돌보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짝하다.

(4) 군입대와 군생활

민금식 씨는 혈압이 높아서 군대를 못 가다가 26살이 되어서야 갔다. 동기들은 거의 제대한 후였다. 또한 제대 말년인 1968년에는 김신조가 내려와서 36개월을 꼬박 다 채우고 나왔다. 그래서 1969년 29살 때 제대를 했다.

군대 생활은 광주 기갑학교에서 보냈다. 기갑부대는 보병의 화력을 지원하는 병과로, 지상전력이 있을 때는 탱크를 가지고 맨 앞에 나서서 직사화기[대포]로 공격하고, 적을 섬멸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를 말한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포병이 맨 앞에 서고, 뒤에 수많은 보병이 따르기 때문에 기갑부대는 육군의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바, 지상의 왕자라 불린다.

민금식 씨는 이러한 부대에 배치되어, 여기에서 탱크를 타고 레버를 조정하는 일도 했었고, 직접 포를 쏘는 일도 맡았었다. 그때는 규율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그때 배운 구호나 암호는 지금도 다 외울 수 있다. 그는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아 사단의 기수도 한 적이 있다.

군대에서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배운 것도 많았다. 군대에서는 일반학, 전술학, 통신학 등등을 다 마스터해야 했기에 공부가 많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 지식은 제대 후 사회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는 기계를 보면 공랭식인지 수랭식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 군생활에서 배운 지식 덕분이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기계는 정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도 많고, 손가락도 다쳐서 이런 일은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제대 후 예비군 소대장도 한 적이 있다. 기갑부대에서 군생활을 했기에 그는 병기라면

못 다루는 것이 없다. 김신조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무장간첩을 토벌한다고 높은 분들이 직접 권총을 차고 다니며 산 같은 곳을 수색하기도 했는데, 수리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때 그는 어떤 분의 총을 분해하여 조립해 준 적이 있는데, 이 일로 해서 예비군 소대장을 맡게 되었다. 또한 이 지역의 예비군병기고 책임자도 되었다. 당시는 실탄도 지급하고 총기도 지급할 때라 예비군 병기고 책임자는 그 책임이 막중하고 어려웠을 때인데, 민금식 씨는 이런 일을 맡아 무사히 임무를 끝내기도 했다.

(5) 펜팔로 맺은 인연으로 부인 김인순 씨와 결혼을 하고

민금식 씨는 마을 인근에 있는 달월교회를 다니고 있다. 군대 가기 전 한 번은 아주 심하게 아팠었는데, 어머니께서 무당 박수를 불러 푸닥거리를 했다. 무당이 춤추며 칼을 밖으로 던지기도 하고 흰죽을 버리는 것도 보았는데, 어쩐지 그것이 싫어 어머니에게 나는 이런 것이 싫다고, 그런 것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만두게 하고, 그 후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와 인연을 맺은 후로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가리방을 굿어 주보도 만들었다. 후에는 어머니를 비롯 큰어머니, 작은 어머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게 되어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함께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안수는 받으셨다.

69년도에 군을 제대한 후 곧바로 6살 아래인 김인순 씨와 결혼을 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주로 인근에 있는 달월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했는데, 그 역시 여기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주례는 당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전양부 목사님이 해주셨고, 그는 결혼증서 1호를 받았다. 전양부 목사는 달월교회에 재직할 때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가난하여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달월중학원을 만들기도 했고, 달월신용조합을 창설하기도 했다.

부인과는 펜팔로 만났다. 부인은 원래 고향이 전북 익산인데 어렸을 때 오빠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면서 영등포 신풍교회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현재 달월교회 장로이며 재정을 맡고 있다. 또한 광화문에 있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본부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민금식 씨는 부인이 아무 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에 올라가 일하게 된 것은 본인을 비롯하여 가족 모두 신앙심이 좋고, 부인이 여러 측면으로 교회 일에 열심이어서 안 해본 역할이 없을 정도인데, 신도들이 추천을 한 후 위에서 감독되시는 분이 뽑아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덕분이

라 했다. 부인은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확고하다.

“내가 배우자를, 김인순 씨를 어떻게 만났냐 하며는, 우리 사촌이 나보다 네 살 아래야. 근데 요 조치원에 장군을 모시고 있는 수행원이었었어요. 근데 인제, 우리 처남이 그 내 사촌 하구 같이 근무를 한 거예요. 근데 내 사촌은 장군 수행원이구, 장군을 모시고 숙소에서 있는 사람이구, 또 내 처남은 그 부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집 사람이 자기 오빠한테 편지를 쓴 거야. 그 편지 주소를 갖다가 이 사촌이, 근데 내가 첫 휴가를 왔는데 우리 사촌두 왔어. 근데 형, 심심헌데 이리루 편지 한번 해 봐. 이렇게 해가꾸, 그때 당시엔 펜팔이 상당히 유행했었어. 그러가지군 그때 인제 나두 그림두 그리기 좋아해가꾸 편지를 멋있게 하나 써서 보냈더니 편지가 답장이 온 거예요. 교회 쪽으루 해서. 그래서 어떻게, 편지를 한 일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깐, 그 어떻게 참 인연이 됐던지, 인제 사귀구 보니깐, 또 인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구 나는 지금 와서 감리교회에 갔다오면서 생각을 한다구 이렇게 편지를 딱-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자꾸 오는 거야. 그러니깐 참 정이 드는 거야. 그러가꾸 제대하구 인제 결혼까지 했지요. 그러가꾸 결혼 잘 했어요 나는. 그러가꾸 그 영등포에 신평감리교회라구 있어. 내가 가끔씩 부대에서 나와가지구, 아이들을 가르치구 있대 반사루. 그래서 내가 가서 유리창 너머로 가 봤지 그 당시에. 그래봤더니 진짜 가르치고 있드라구. 그래서 인제 만나가지구 아, 믿을만 하다 그러가지구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아주 증말 잘 택한 거 같아요.”

(6) 군 제대 후에는 큰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해

군 제대 후에는 토끼나 양 같은 것을 키우는 일은 접고 양계장을 시작했다. 양계장은 자본이 없어 소규모로 했는데, 사료값은 비싸고 소득이 적어 곧 그만두었다. 후에는 돼지와 소 같은 것을 키웠다. 키우는 동물이 점점 커진 것이다.

“군대 갔다와서 여기 소사고개에 한미재단이라구 있었다구. 한미재단. 그 전에 미국허구 우리나라허구 합작으루다가 우유포 허구 돼지 아주 좋은 종자들만, 큰 것덜, 대형 그런 거를 길렀었다구. 종축장을. 거기서 내가 분양을 받아다가 키워가지구 이름을 날렸지요 내가. 그 번식하는데. 돼지는 한번 팔면, 돼지두 때를 잘 가려야 돼요. 봄새끼가 제일 비싸. 돼지를 번식할 적에, 이제 돼지를 길러서 새끼를 벨 적에는 발정이 와요. 그러면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돼. 그게 아무 때나 더울 적에 나오면 싸. 그리구 봄 가축이 잘 자라. 병두 얹어. 그걸 잘 맞추면 잘 받는 거야. 머리를 그렇게 쓴 거야. 그래가지구 그렇게 쓰니깐,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거를 갖다 앞서 가는 거지요. 그러면 돈두 더 받구, 잘 팔리구, 소문이 나서 또 많이 사러 와. 그러면 재미가 있어.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지요. 그렇게 해가지구, 그때는 우윳소 한 마리만 가지든 먹구 살구, 대학교 공납금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을 때야. 그런 정보를 많이 들어가꾸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들어야 돼.

그리구 내가 그렇게 허구 나서 월곶 열두 동네에서 전할 쥔 먼저 들었어요 내가. 최초루. 그때는 이렇게 수화기 돌리는 거 있었는데, 내가 개인 전화루, 최초루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헛 게 많죠. 오토바이두 그렇구 승용차두 최초루 했지. 여기서 샀지. 근데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니까 일부에서는 많이 비웃어요. 금식이가 뭐가 바쁘다고 전화를 놓느냐? 그러면서 막 비웃어. 근데 그때 일동 이동에 거기에 인삼재배를 했었어요. 군대 생활을 내가 금화 와수리에서 했거든요. 강원도. 근데 그때 일동 이동 그 쪽을 오구하면서 많이 봤는데, 그때 거기서 벼짚이 귀한 거야. 그러면 전화루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 전화통화해서, 여기서 짚을 그 땐 샀어요. 몰아다 주면 또 수입이 짹짹해. 그렇게 앞서 간 거야 내가. 뭐든지 그렇게 앞서 간 거지. 그렇게 인제 하여튼 뒤지지 않구, 남이 생각지 못했던 거, 그렇게 했더니, 그 전엔 내가 자동차 중고를 샀지 뭐야. 승용차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 뭐이가 벌써 시골에서 사냐구. 그럼 지금 전화 승용차 10년은 앞선 거야. 남보다. 모내는 기계두 동양기계라구 수원 가서, 여기 이 교회에서 신용협동조합을 했어. 거 샀을 적에 내가 최초루 모내는 기계도 산 거야. 그랬더니 또 비웃어. 모넨게 영성하다구. 그랬더니 지금 모두 다 그거 하는 거 아니예요? 이양기루 하잖아.

그래 내가 한 10년 이상은 앞서 가는 거야 맨날. 하우스도 제일 먼저 했구. (아, 하우스도 하셨어요?) 내가 중학교 댕길 적부터 관심 있어가꾸 난, 인제 그 땐 철이 좀 일찍 난 거 같애. 그래가꾸 그냥 남이 하우스를, 그때 오이를 재배해서 한 박스 서울 갖구 가면 돈을 한 박스씩 지구 왔다는 소문을 듣구 아, 저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먼저 든 거야 내가. 그러니깐 다른 사람보다는 듣는 소리를 스쳐버리지 않구 나는 그거를 연구하고 생각했지 많이. 그랬더니 결과가 좋긴 좋더라구 나중에는. 그래서 인제 역시 관심을 가져야지 남 따라 가면 그때는 늦은 거야. 그래구 인제 뭐든지 남이 안 했을 때 자기가 개발을 허구 생각허구 이렇게 실천을 해야지, 남이 헐다구 했을 때 그때 쫓아가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남이 재미를 보니깐. 그래서 인제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7) 군 제대 후 다시 염전에서 일을 하고

군제대 후 집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다시 염전을 다녔다. 이때가 71년도였는데, 염전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민금식 씨는 말을 매우 조리 있게 잘 하는 편이다. 그래서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노조위원회의 조직부장으로 뽑혔다. 당시 염전회사로는 인천지부에 남동, 소래, 군자 3개 지사가 있었다. 하인천에 지부 사무실이 있었는데 조직부장이 하는 일은 여기에 근무하면서 3개 지사의 재정계장으로 부터 1일 생산량을 보고받아 그것을 합계 내고, 본사 및 노조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합쳐 일년 통계를 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협의를 하는 것이었다. 당시 본사는 서울 중구 저동 쌍용빌딩 7층에 있었는데, 민금식 씨는 노사협의 지부장, 부지부장 등과 함께 본사를 다니며 노사협의를 했다. 당시는 소래염전이 흑자를 내고 있을 때여서 봉급도 제법 관찮을 때였지만 노사협의를 하는 일은 항상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노사 간 싸움이 싫어 1972년 염전을 그만두었다.

(8) 본격적으로 목장운영을 시작하다

1972년, 염전을 그만두고 나서 잠시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 그때가 32살 때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목장을 권장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한창 목장이 부흥하고 있었다. 민금식 씨도 여기에 착안하여 곧바로 목장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우유소(젖소) 한 마리로 조그맣게 시작했다. 목장 이름은 동네 이름을 따서 ‘우묵골 목장’이라 했다. 젖소를 기르다 보니 차츰 새끼도 생겨서, 암소는 다시 키워 젖을 짜고 수소는 비육우로 해서 팔았다. 나중에는 암소가 15마리, 수소는 10마리 이상 되었다. 마지막에는 30마리 정도까지 키웠다. 목장일은 60세 전후까지 했다.

젖소를 키울 당시엔 우윳값과 소값이 아주 좋아서, 이 사업으로 세 명의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고 땅도 일부 마련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부모들이 그렇듯이 민금식 씨 부부도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 땅을 팔아 주안에 집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인천에서 교육시켰다. 그래서 딸은 인천여중과 인천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가야금학과를 졸업했다. 아들은 인천중학교,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 막내인 딸은 유학까지 보냈다. 우리는 못 배웠어도 자식들만큼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들 부부는 자식들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 시골에서는

별 수입이 없어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목장일로 자식들을 다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당시는 소값이 좋아서, 젖소 한 마리를 팔면 좋은 땅은 아니더라고 근처의 건담 같은 것을 삼사백 평 정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 소를 팔아 땅을 일부 마련했다. 농사를 짓거나 목장을 할 땅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땅들이 값이 많이 올라서 노후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목장일을 하면서 민금식 씨는 군자지역 낙우회 총무를 8년간 했다. 그리고 7개시의 축협이 통합된 안양축협에서는 임원으로 발탁되어 이사 4년, 수석이사 4년, 조합장 대행 등 8년을 했다.

(9) 승마로 건강을 회복하고

민금식 씨는 취미로 10여년 간 승마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타던 말이 쓰러져 어깨 관절이 부러지게 되어 그만두었다. 야간에 승마를 했는데, 공사판을 지날 때 웅덩이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곳을 지나다 말이 넘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어깨를 많이 다쳤다.

민금식 씨가 승마를 하게 된 것은 건강 때문이었다. 당시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승마를 하면 말의 흔들림으로 내장이 강화되고, 몸의 여러 부위도 유연하게 된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정신 상태도 항상 긴장하게 되고, 시선도 집중하게 되어 몸을 삼가 조심하게 되므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승마는 좋은 운동이다. 승마를 1시간 하면 산을 천고지 오르는 운동량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승마는 운동량이 많고 크다. 민금식 씨는 승마가 혈액순환에 좋고 운동이 많이 된다고 해서 시작해보기로 했다. 승마장과 말 사육 건물은 민금식 씨의 땅에 만들었다. 우묵골에 있는 삼밭이야생촌 식당 건물이 민금식 씨 집인데, 근처에 승마장과 건물을 마련한 것이다. 이 승마장은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 임대를 주었는데, 정식으로 허가 난 것이 아니라 올 10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정리할 예정이다. 민금식 씨는 여기에서 10여년 간 승마를 하며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그의 말은 호주산이었는데, 이름은 애니였다. 10년 이상 이 말을 탔는데, 말이 넘어지고 자신도 어깨를 많이 다치게 되어 지금은 이 말을 정리했다. 그는 승마를 하면서 경기도 지역내 생활체육회 이사도 했고, 수상도 2번 한 적이 있다.

(10) 지금은 취미로 아코디언을 배우고 있어

말을 타다 다쳐 승마를 그만두고, 취미를 음악으로 바꾸고자 색소폰을 시작했다.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하모니카를 분 적이 있어, 그 매력에 이끌려 취미로 음악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농사일을 하다가 그만 경운기 피대에 손이 팔려 들어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한 마디 이상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결과로 쇼크를 받아 안면마비도 왔다. 순간 이제는 쓸모없는 폐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른손 둘째와 셋째 손가락이 한 마디 이상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보니, 더 이상은 색소폰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다. 하루는 부인이 TV에서 실버 노인들이 아코디언을 하는 것을 보고,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권했다. 아이들도 의수를 헤드릴 테니 배워보라고 격려했다. 여기에 힘을 얻어 민금식 씨가 단장을 만나 상의를 해보니, 단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다. 그래서 새롭게 아코디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시흥시에서는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 안산시 상록구 노인복지회관까지 가서 배우고 있다. 아코디언은 7~8년 배웠는데, 요즈음은 안산시 행사가 있으면 팀전체가 가서 식전행사로부터 여흥까지 연주를 해주고 있다. 팀원은 전부 13명인데, 드럼, 색소폰, 아코디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금식 씨는 현재 아코디언으로 많은 곡을 연주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좋아하는 곡은 고향무정, 애수의 소야곡, 무명초, 들국화 여인 등이다. 요즈음 유행했던 ‘내 나이가 어때서’도 간혹 연주한다. 그는 “음악을 학원이나 학교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한 게 아니라, 농사꾼이니까 그저 집에서 하모니카나 불구 그랬는데, 그래서 음악을 전혀 몰랐지만, 그저 열심히 남의 께 보면서 하다 보니 터득해서 지금은 악보를 볼 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요즈음은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2) 월동마을 이인창 씨의 살아오신 내력

* 남, 84세, 1932년, 원송이피, 완산 이씨/ 부인 유인정(여, 81세, 1935년, 돼지피, 문화 유씨)

농사짓는 분들 중 어떤 분을 대상으로 생애사를 조사하면 좋을지 해서 월곡 1통 최수환 통장님에게 상의를 했더니, 이인창 어르신을 적극 추천했다. 이 분은 비록 이곳 토박이는 아니지만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하기를 좋아



이인창 씨와 부인 유인정 씨

하며, 마을일도 적극 도와주고 있어 추천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는 이분을 대상으로 생애사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인창 씨는 2015년 8월 18일(화)과 8월 21일(금) 두 차례 월곶1통 마을회관에서 만났다. 첫날엔 설화를 이야기해 주실 분들과 함께 만났었는데, 평생을 너무 바쁘게 살아 왔기에 옛날이야기 같은

것은 주고받을 겨를이 없어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평생 살아오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근데 너무 바쁘게 살았구, 아마 이 동네에서 웬만한 일은 거의 다 하다시피 했으니 욕두 많이 먹었지요.”라면서 일생을 요약 정리했다.

이인창 씨의 고향은 장단이다. 1949년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했다가 6·25가 일어나 가족 모두 피란을 나와 외가인 월동마을에 정착했다. 따라서 이 마을에 온 지는 대략 65년 정도 된다. 부인 유인정 씨와의 사이에 6남매를 두었는데 모두 출가했고, 현재는 부인과 단 둘이 살고 있다.

(1) 월동마을에 정착하게 된 배경

이인창 씨는 본관이 완산으로 성선군 21대손이다. 부친 이약우 씨와 모친 최윤희 씨 사이의 5형제 중 막내로 올해 나이 84세다. 고향은 원래 경기도 장단군 대강면 나부리 41번지였는데, 현재 이곳은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다. 그곳에서 대강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 밑에서 웬만한 한글은 터득했다. 학교 다닐 때는 학생단장도 했고, 박연폭포나 원산에도 가본 적이 있다. 이후 장풍중학교를 다니던 중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 부친이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서울 신촌으로 이사했다. 장풍중학교에서는 영어 대신 러시아말을 가르쳤는데, 이인창 씨는 앞으로는 영어와 수학을 알아야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신촌에서 종로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영수고등학교에서 영어와 수

학을 배웠다. 그러던 중 1950년 6·25가 발발했다. 이북에서는 신촌에서 능곡 쪽으로 가는 철로에 비행기로 폭격을 했다. 이인창 씨는 학원을 가다가 이런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6월 29일 한강다리가 끊어져 가족은 모두 배를 타고 밤섬으로 건너왔다가 조치원으로 내려갔다. 가보았더니 이북애들이 벌써 자신들보다 앞서 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움막을 얻어 살았다. 후에 중공군이 후퇴를 하자 다시 올라와 시흥의 월동마을에 정착하였다. 월동마을은 경주최씨 집성촌인데, 이곳에 살던 최 진사, 즉 최 참봉이 외조부였기에 그 연줄을 따라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최 진사는 아들이 없어 최재늑 씨를 양자로 들였다. 그 덕에 이인창 씨 가족은 이 집에서 피난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고맙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때가 1952년이었고, 이인창 씨는 21살이었다. 그는 “서울 살다가 김일성 덕분에 보따리를 여기다 풀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옛날에 와 보니까 앞에 염전이 짝 있었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한다.

“그러니깐 우리 아버님이 이 박사 손주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종손이에요. 그러니깐 증조부 할아버지가 성균관 문학박사를 하셨구. 사패지를 받았어요. (사패지는 뭐예요?) 사패지는 나라에서 공을 세운 사람, 고을을 띠어줬잖아요. 너 이거 먹구 살아라. 증조부께서 그러니까 여기 최 진사 딸을 데려갔지. 최진사 딸을 주겠수?

우리 아버지는 외독자루다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 연세에 맨날 당나귀타구 놀러만 댕기시구, 가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생 많았지요. 논허구 산허구 해서 우리 고향집에는 자체적으로 동물원두 있었어요. 여우, 노루, 까치, 뭐 이렇게 해서 원체 재산이 좀 있으니깐 그냥 놀구 잡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고생만 많이 한 거지요. [중략] 게 거기서 나온 거는 이북에서 인제 몰수를 허거든 전부. 재산권을. 거기는 소비조 아닙니까? 공동. 몰수를 해서, 국영이에요. 그러니깐 우리 땅이 거기 사방 20리야. 동서남북으로 사방 20리면 얼마씩이오? 장단군 대강면 나부리 471번지, 지금 그게 비무장지대야.

어머님은 아주 학자시지. 그 뭐 옛날에 그 왜 혼사허면, 그 문안이래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웬만허든 동네걸 다 써 주시구. 한번 붓을 대며는 그냥 쭈루루 내려가면 참...”

이인창 씨 가족이 월동마을에 처음 정착했을 때는 난리 중에 피란을 나온 터라 살림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적수공권이라는 말이 맞았다. 그래서 이때는 구호양곡을 타 먹으면서 살았다.

(2) 25살에 유인정 씨와 결혼을 하고

25살에 마전마을[삼밭이]에 살았던 22살의 유인정 씨와 결혼을 했다. 그때가 1956년경이었을 듯하다. 오촌 당숙이 소개를 했는데, 마전에 참한 규수가 있다고 하여 먼저 큰 형수가 가서 보고 왔다. 모친이 며느리에게 이 동네의 누구를 닮았냐고 물은 후, 그 대답을 듣고는 그만하면 됐다 하고 다시 어른들이 가서 보고 왔다. 후에는 이인창 씨가 직접 가서 봤는데, “내가 잘 나아 좋은 규수를 골르지, 그냥 병신 아니면 괜찮다구 생각하고 갔더니” 사람이 괜찮았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 금천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다. 지금은 두 분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당시는 신부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곳에서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을 한 것이다. 결혼식장까지는 당시 경인일보사에 다니던 둘째 형님이 관광차를 하나 대주어 모두 그것을 타고 갔다.

부인 유인정 씨는 열 살에 아버지가, 그리고 열세 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당시 오빠는 양복점을 하고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오빠 손에 올케 손에 자랐기에, 지금도 어려서 부모 돌아간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며 공부는 못 했지만, 남에게 지기 싫어 혼자 천자문을 배우고 이후에는 다시 한문 삼천 자를 공부했다. 그러다보니 한문 문장을 알아야겠기에 명심보감을 익혔다. 그래서 한문을 잘 알고 있으며, 명심보감에 나오는 문구는 지금도 거의 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내용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인창 씨는 부인에 대해 “학식두 그만 허든 되구. 한문두 나보담 더 알아요. 그리구 아주 생활력이 너무 강해. 그러니깐 내조가 좋아야 살지, 내가 암만 잘 해두 쓸 데 없어요.” 라면서 본인은 정말 결혼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

(3) 28살에 군대를 가고

군대는 좀 늦어서 28살에 갔다. 큰 아들이 세 살 때였다. 당시는 이인창 씨가 면에서 피난민들에게 구호양곡을 배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면사무소를 다녀야 가족이 먹고살 수가 있어 군입대를 조금 연기하고 있다가 간 것이다. 28살이면 당시로서는 상당히 노장이었는데, 당시 영어를 좀 알면 행정관으로 뽑혀갔기에 행정을 보면서 군생활을 했다. 1961년 제대할 당시는 하사였는데, 제대와 동시에 한 계급을 올려줘 중사가 되었다.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설 때였고, 국가에서는 화폐개혁을 시행했다.

(4) 35살에 처음으로 밭을 사고

결혼 후 면사무소에서 구호양곡을 나누어주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집 광이나 퇴에 벼섬이 쌓여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럭저럭 그것 좀 타 먹구 살다가, 남 이렇게, 광에 퇴에 벼섬을 보든 참 부럽드라고요. 아, 먹을게 저렇게 쌓여있는데, 우린 없구나 하구...”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소래염전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여 4년을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는 전매청에서 소래염전을 관리하고 있을 때였는데, 여기에서는 관리계에서 감시일을 보았다. 이곳에서 일하고부터는 ‘저축이 제일이지 다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잊지 않고’ 월급을 아껴 저축을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서른다섯 살에 어떻게 밭을 하나 살 수 있었다. 그런데 3년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땅을 팔라고 했다. 산소자리로 끌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을 팔고, 그 돈으로 대신 12,000여 평의 논밭을 샀다. 이때가 1970년경이었다.

“어떻게 허다가 서른다섯 살에 쪼끄만 밭을 하나 샀더니, 사구 나서 3년이 됐는데, 그걸 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천신만고 끝에 샀는데, 이걸 팔면 어떡허느냐? (몇 평이나 사셨는데요?) 600여 평. (아, 큰 걸 사셨네요.) 아, 그 당시는 땅값이 얼마 없었어요. 돈두 벌기 힘들지만. 그래서 아참, 그 뜻이 있어서 팔래니깐 그 노인네 아저씨보구, 그 왜 용도를 알아야 팔지, 안 팔우 그랬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내가 사서, 끌려구 샀는데 팔 리가 있습니까? 아저씨 생각을 해보시오. 그랬더니 돈 많은 부자가 산소자릴 쓸 거루다 살려구 한다 그거야. 그럼, 아저씨, 이 기회가 그 분은 돈이 많구 나는 읊는데, 필요하대며는 가외시세를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시셀 한대며는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래야, 그럼 얼마면 되겠나 그래서 여기 시세의 3배만 주슈. 현 시세의. 그 사람은 특이하게 쓰는 묘지니깐. 그랬더니, 가서 얘길했나 봐요. 아이, 그 천신만고 끝에 하날 샀는데, 파는 게 뭐냐고 펄쩍 뛰구, 돈이나 좀 많이 줘야 팔 모양이라구.

그래서 인제 계약을 했어요. (원하시는 가격으로요?) 고거 보담은 조금 알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고것이 배가 되두 천이백 평이 되는 게 아닙니까? 육백 평이. 그러며는 그제 빨르지. 농사를 지어먹겠다구만 우기면은 바보가 아닌가 해서. 그래 승낙을 해서 계약을

썼지요. 쓰는데, 단서를 달았어요. 한 달 안에 계약이 났다는 것이 누설되며는 이 계약은 파기다. 그래니깐 왜 그러냐 그래요. 내가 땅을 사야 하는데, 내가 비싸게 판 걸 알면 그 사람두 그걸 달랠 거 아니냐, 그래니깐 내가 이렇게 한 달 안에 다 살테니깐 그거를 약속해 준다면 내가 그걸 계약을 하겠다, 딱 한 달간만. 그래서 참, 서둘러서 이렇게 댕겼더니 한 달 안에 그거 곱쟁이를 샀어요. 그걸 다 해 놓구. 그러니까 동네에서 야단이에요. 저 사람이 어서 돈이 나서 저렇게 땅을 디려 산다구 말이야. 그냥 좀 색다르게두 보구. 결국은 그게 나중에 알게 되니까, 판 사람두 아유,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더 달랠걸. 그래서 아무 것도 없던 사람이 그럭저럭 만 한 이천 평을 맨들었어요, 내가.”

(5) 농사일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남보다 앞서 새로운 것을 실행에 옮기고

① 통일벼 농사와 새마을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당시 국가에서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1965년부터 1972년까지 여러 차례 실험재배를 거쳐 통일벼를 개량·성공시키고, 1972년부터 농민들에게 통일벼 심을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그리고 1971년 대선을 앞두고 시멘트부대를 35,000개의 마을에 무상으로 배포했는데, 이렇게 하여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인창 씨는 이제 넓은 땅을 갖고 있었기에 이러한 국가의 통일벼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녹색혁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항상 귀했을텐데, 통일벼라는 종자를 내가 보름을 들어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인제 촌에서는 참 갈비탕이라는 거두 모르고 살 땐데, 교육생에겐 그래두 아주 흐뭇하게 대접을 하면서 만약에 이 뽕씨를 한 움큼 그 마음이 흐려가지구 슬쩍 도둑질해 나가며는 총살이라구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주 통일벼에 기대를 무척 걸었어요. 그래서 종자를 여기 재만 씨네 논허구 우리 논허구 여기 인영씨네 논이지, 그래서 세 사람네 논에서 심어서 종자가 보급된 거예요. 아 휴, 육 무척 먹었어요 나. 안 허든 짓 한다구. 그 종자가 대한민국에 퍼진 거예요. 이 통일벼가. 그래서 내가 그 표창장 받은 것두 저기 있구. 그 당시에 인제, 여기 시흥군 시절이에요 그 당시는. 저기 함창 이씨라고 하는 분이 그걸 대단지를 해가지구 그걸 심어가지구 최우수상을 탔어요. 함창 이씨가. 그래서 이제 거기두 가서 참 맥주두 얻어먹어 보구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식량증산이 확 되니까 배가 불러진거 아니예요?

그래서 인제 1974년인가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양

회만 내줬어요. 그러면 자갈이나 모래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대야했는데, 그래두 뭐 협동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때가 정말 살맛났지. 여기가 다 초가집이었으랬어요. 45,000원씩인가 주고 그 지분을 헐어서 논에다 넣으라 했어요. 그때 뭘 게 없잖아요. 그때는 똑같이 스레트 지붕하구, 초가지분은 논에다 넣으라 했는데, 퇴비로 쓰게 한 거지요. 그래서 벼농사두, 곡식농사두 잘 돼구 해서 식량증산이 된 거야. 그때 초가집 벗겨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② 이앙기, 콤바인도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사용하고

이인창 씨는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이앙기를 이용하여 모를 심고, 콤바인을 사용해서 벼를 수확했다. 많은 땅을 농사지으려 했을 당시 농사는 전부 수작업이었다. 그런데 동네에서나 인근에서 일꾼을 얻으려 해도 할 수가 없었다. 모두 자기 동네에서 일을 돕지 이곳까지 와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인창 씨는 이전부터 농촌지도사업소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정보를 얻으며 농사에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그때도 지도사업소에 가니까 모내는 이앙기가 새로 나왔다고 말해 줘서 사용법을 배우기로 했는데, 교육을 받으러 가 보니 딱 세 시간 동안 동작법만 가르쳐 주었다. 모내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할 수 없이 마을에 이앙기를 들여와 놓긴 했는데 큰일이라 생각하고, 이앙기를 작동해보니 신기하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도소의 지도 아래 법씨를 부어 모를 낸 후, 논에다 물을 가득어 놓고 처음으로 이앙기를 이용하여 논에다 모를 심었다.

“그러니 뭐 요 바늘 걸은 거 처음에 요런 걸 쫓으니까, 동네에선 에이, 저건 못 먹어. 전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날 저녁에 비가 그냥 억수로 쏟아져가지구선, 모낸 게 하나도 안보이고 허허벌판이야 여기가. 게 저 인창이 저 사람네 모낸 거 다버렸으니, 모를 어디서 구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깐 나두 뭐 할 수 없이 지도소에 전화를 걸어서, 그 땐 전화두 집에서 돌리는 거밖엔 없었어요. 글썄요. 그냥 좀 견뎌보세요. 물만 빼버리구. 그렇게 연락을 의뢰해, 그냥 해, 저질러 논 거니깐. 물이 빠지니깐 고대루 서있어요. 고게. 하두 쪼꼬마니깐. 아, 그래서 모내는데 일조를 한 게 이앙기가 아닌가, 최초루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구선 인저는 모내는 게 해결이 됐잖아요?”

다행히도 모는 잘 살아서 수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또 타작을 하려니까 지도소장이 벼를 베는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나왔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걸 배우는 케

이스가 있다고 해서 1박 2일 동안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동작법만 잠시 가르쳐 주었다. 콤파인은 기종이 일제로 KC300이었다. 당시 국가에서는 콤파인을 국가보조사업으로 정부보조 70%, 자부담 30%로 하여 보급을 시켰는데, 이인창 씨는 동네사람 10명과 함께 조를 만들어 서류를 제출하고 농협에 돈을 입금시킨 후 이것을 마을에 들여왔다. 그리고 콤파인을 사용해보니 그 기능이 정말 신기했다. 짚은 짚대로 떨어지고 벼는 벼대로 수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3년만에 거출한 값을 상환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여 이 일대에서는 다른 마을에 앞서 모내기와 벼 베기가 해결되었다.

그는 또 이장을 볼 당시 마을에 항공방제도 처음으로 들여왔다. 마을에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공동체에서 한꺼번에 살포를 하면 충이 멸살하지만, 개인이 독자적으로 하면 벌레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니까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니까 항공방제를 하자고 설득하여 이를 밀고 나갔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런 거 다 간략하게 말씀해서 그렇죠, 그 새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③ 새로운 품종의 타크 포도나무와 슈퍼 은행나무도 심어보고

이인창 씨가 살고 있는 집 길 건너편에는 약 450평의 밭에 220여 그루의 새로운 품종의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리고 밭 옆쪽의 길가에는 슈퍼 은행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다.

“포도나무도 처음이에요. 시흥시에 그 종자가. 저거 포도가 지금 17년 됐습니다. 저게 17년 전에 조원호 소장이 이렇게 어떻게 허다가 교육청 있는데, 나두 이제 퇴직을 해요 그 말이야. 그래더니 연천으루 갔다가 인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이야. 사람은 뭐 명을 하나 넘겨야지. 그런 뭐 케이스 있으믄, 나 좀 늙어서 소일거리 할 거 하나 해 줘. 그랬드니 포도나무를 한 번 심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저거 보조사업으루 심은 거예요. 그게 철장 뭐 현거, 전부 보조받아서, 그리구 저 포도가 우리 정식 허가 난 포도가 아니예요. 개인이 개발을 해서 그 명의가, 저거가 황 선생님이 개발한 포도예요. 타크라구. 이름이 타크예요. 저것이 두 집 밖에 없어요. 시흥시에 저 것두. 그런데 한 집은 지금 다 캐버리구, 이거 하나 남았는데 (캠벨 같이 생겨서, 그게 캠벨인가 했는데요?) 그게 캠벨이 아닙니다. 근데 고걸 타크라고 집어 넣래면 인쇄하는데 다시 뭘 넣고 그래야 돼서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타크래는 건 시흥시에서 다 압니다. 그리구 이 포도가 뭐,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국회에도 300박스가 들어갔어요. 2키로짜리루. 몇 년 전에. 이름났다 그래가지구.”

이인창 씨는 체험농장을 위해 포도농장 뒤쪽으로 사과나무 등 여러 가지 과일나무도 많이 심어 놓았다. 그리고 올해는 포도밭을 남에게 맡겼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직접 포도 농사도 지었고 체험농장도 운영했다. 포도는 옛날에는 배고플 적이라 양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반대로 질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친환경으로 해서 팔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두 비싸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비싸도 잘 사가서 한 달이면 포도를 다 팔곤 했다. 포도를 딸 적에는 검사관이 와서 마음대로 여섯 송이를 골라 가져가 농약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아무 문제없이 잘 통과되었다. 단맛이 약 17부룩스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면 맛도 달고 좋은 편이었다. 그는 “생물은 얼른 팔수록 좋은 거거든. 생물을 농구서 돈 더 받겠다구 안 팔면 그건 바보예요. 그제 생물은 둘수록 손해가 나니깐 어떡허든지 손님을 놓치지 말구 팔아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해. 그거는 아주 장사하는데 비법이예요.”라고 말한다.

(6) 그동안 감사패, 공로패 받은 것만도 상당수 있어

이인창 씨는 살아오면서 마을 이장을 비롯하여 달월신협 부이사장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해당기관에서 감사패나 공로패 등을 받았다.

“인제 2003년도에 신협중앙회에서 감사패를 받았구. 게 그 새에 골고루 이거 지금 내가 상패 받아다 논 거 여기 무척 많은데, 그러니깐 신협에 감사패, 내가 여기 부이사장으로 있었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역회장을 했구, 농업생산소득증대 공로패도 받았구, 그 통일베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면에는 면의원이 있다가 그제 바껴져서 동정자문위원으로 바껴어요, 우리 헐 때는. 그래서 동정자문위원두 했구. 그 전에 면위원이나 같은 거지요. 지금 두 내 이걸 20년 때에 군자치역회 지도자연합회 감사를 안 한다 그랬더니 20년만 채구 그 만두시라 그래서 내년엔 그만둘 거예요. 지금두 그래서 감사를 허구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뭐. 아주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인창 씨 집에는 그가 받은 공로패와 감사패 같은 것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상패에 대해, 이걸 남이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뭘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기쁘다고 했다.

2009년, 마을에서 노인회장을 할 때도 그는 마을의 노인들을 위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해 놓은 것이 있어 기쁘다. 당시 마을에서는 노인회에 들어오려면 회비를 20만 원 내고



이인창 씨가 받은 공로패 및 감사패들. 이러한 상패는 이외에도 훨씬 많다.

들어와야 했는데 이것을 없앤 것이다. 월동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고속도로가 나면서 4리 하고 분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마을회관을 짓겠다 해서 예산 중 50%를 그쪽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 돈이 모자랐다. 마을회관은 지어야겠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은 거출해서 땅을 사기로 했다. 현재 월동 마을회관이 있는 땅은 당시에는 이인창 씨의 땅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때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110평을 팔고 100만 원을 희사했다. 결과로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는 마을사람 36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거출한 돈이 있기에 이후부터 노인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20만 원을 내야했다. 이인창 씨는 노인회 회장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돈 내고 들어오는 노인회는 없기에 이처럼 돈을 내고 노인회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주선하여 4년 만에 1,800만 원을 모았다. 그리고는 처음에 돈을 냈던 사람들에게 각각 20만 원씩을 나누어 주고, 다음부터는 가입비가 없도록 했다.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것이기에 그 사람들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했다.

(7) 이인창 씨의 집안 이야기

①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이인창 씨는 5형제 중 막내다. 지금은 형님들 중 세 분이나 고인이 되셔서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5형제가 모두 모여 의논을 한 후 결정했다. 이인창 씨는 2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수의 일체를 마음대로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기뻐다. 막내아들로서는 어머니 장례를 모시는 것이 권한이 없기에 형님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일을 부탁드려봤는데, 형님들이 모두 좋다고 허락을 해주어 어머니 수

의 일체와 장례 모시는 일을 맡아서 해드렸다. 마침 그때는 마을 이장을 보고 있을 때여서 일이 좀 더 수월하기도 했는데, 이제껏 살면서 본인 마음대로 한 것은 이 일밖에 없다.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동네에서 이름을 안 물어도, 하루에 똑같이 이사한 세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모두 바로 찾아올 수 있는 집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인창 씨 세 형제들의 집이었다.

“그게 원인이 어떻게 됐냐 허면은, 내가 동생이 어떻게 땅을 사구 그렇게 되니깐 이사두 여러 번 망기구 그렇게 되잖아요. 이사를 가게 되니까 내가 살던 집이 형님이 살던 집보다 조금 더 나아. 또 형님의 동생이 또 그 집보다 그게 조금 낫구. 게 나눈 이 큰 집으루 왔구. 그니깐 토를 허는 거지 형제지간에. 자, 내가 이걸 얼마에 드릴테니 이렇게 바꾸는 게 어때우. 나는 사가지구 가는 거니깐. 내가 내집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보담, 그리구 내가 등기난 문서는 다른 사람한테 간 게 없어. 우리 형님들을 드렸지. 딱 묶어놔 버렸어. 그래서 동네서 이살혈 적에 이렇게 한 바퀴를 뽕 돌았으니깐, 이거를 갖다가 이집 주구 나서, 이거를 또 이렇게 갖다주구 해서, 하루에 세 집이 이사한 집은 우리 삼형제밖에 없어. 이름 대지 않구 찾아와두 된다구. 그것두 참 이름날 일이죠? (그럼 형제분이 몇 분이세요?) 형제가 오 형제드렸어요. 아들만. 큰 형님은 재판소에 서기루 계셨구, 둘째 형님은 인천 경인일보사 총무국장으로 계셨구, 그러니깐 셋째 형님은 여기 전매청 감시계에 있었구, 넷째 형님은 여기서 농사 짓구. 나는 막내예요. 그래서 내가 땅을 사면은 이거 뭐 글씨 쓰는 거니까 대서비두 읍지 않느냐? 우리 감시 땡기는 형님이 내걸 쓰는 거야. 우리 형님이 가문 내가 또 써주는 거야. 계약서를. 그러니까 막걸리만 한 병 사다 먹구 헤어지면 그만이야.”

이인창 씨 오형제 중 인근에 살았던 형제는 셋째와 넷째 형님이다. 셋째 형님은 나이가 있어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현재는 넷째 형님만 살아계시다.

② 이인창 씨의 집 이야기

이인창 씨가 지금껏 사는 동안 가장 기뻐던 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고 있었던 이층 집으로 이사 올 때였다. 그는 살아오면서 세 번 이사를 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사를 할 때는 계획이 좀 있어 인천으로 가볼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 땅이 나와 여기에 이층집을 짓고 그냥 이 마을에서 살게 되었다. 이 땅은 전부 1,650평 정도 되는데 모두 대지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종소세다 종부세다 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했는데, 그래도 이 땅이 대

지였기에 일부를 임대 줄 수 있어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견딜 수 있었다.

이 땅을 사고 그 일부에 이층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돈이 아쉬워서 옆의 밭을 인천사람에게 팔았다. 그리고 땅을 판 돈으로 이왕이면 집이나 좀 짓고 살아보자 하고 이층집을 크게 지었다. 이인창 씨는 까치나 참새나 민물의 짐승도 다 제 집이 있기에 사람도 내 터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땅을 사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판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은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물을 여덟 개나 갖고 있다. 이 집에도 식수를 두 개나 팠는데, 하나가 고장 나면 다른 것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는 늘 이렇게 예비를 해 놓는 성격이다. 이층집을 짓고 난 후, 옆의 땅 주인이 7년 만에 그것을 판다고 하여, 이인창 씨가 도로 이 땅을 샀다. 그때는 처음 팔았을 때보다 세 배 이상 주었는데, 달라는 대로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층집을 지을 때는 인제는 여기서 살다가 고만 가겠지 생각하고 지었는데, 이번에 이 집 두 채가 모두 다 헐리게 되었다. 월동마을에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공동주택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환지조성만 하겠다고 하여 시와 주민들 사이에는 현재 갈등의 골이 깊다. 이인창 씨는 추석이 지나면 이층집을 비워주기로 해서 지금 고민이 많다. 그는 여기에 임대를 준 공장도 있고, 식당도 임대를 준 것이 있어 손해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석이 지나면 집을 비워주려고 한다. 그래서 농사지를 때 잠시 쉬려고 지어놓았던 창고에 임시로 짐을 옮겨놓고 있다.

③ 부인 유인정 씨에 대한 이야기

이인창 씨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남자는 특히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고 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아내 도움이 대단해요. 그걸 적실히 느껴요. 그래서 살아온 게 그렇게 뛰었으니, 내가, 남자가 이렇게 야단을 치면 여자는 죽을 맛입니다. 안의 일을 다 웬만하면 시중을 해야 하니깐. 이 내조가 없으면 암만 용빼는 사람두 일을 못해요. 그리구 판 주머니, 이중 주머니 차며는 그 집안이 안 됩니다. 한꺼번에 파서 그제 효력을 발생할 적에 그 집안이 되는 겁니다.”

아내 유인정 씨는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묵묵히 남편을 잘 내조해 왔다. 남편이 군에 가 있는 3년 동안, 그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세수

를 하고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은 후 일곱 번씩 절하면서 남편의 안전귀환을 기원했다. 시부모 밑에서 힘들게 살았어도 돌아가신 후에는 3년 상을 치를 때까지 흰옷을 입었다. 이 일은 인천으로 장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했다. 이런 일들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한 것이다. 남편은 바깥일에 바쁘다보니 모만 내 놓고 나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부인은 뜬모까지도 다 해내야 했다. 마을 이장으로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는 집으로 오는 수많은 손님들에게 직접 식사도 마련하여 대접했다.

유인정 씨는 현재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을 보면, 그간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고생하며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녀는 현재 밤에도 잠을 잘 못 잔다. 네 시 다섯 시까지 꼬박 새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드는데 이때도 꿈을 꺾어서 잠을 설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십 년째 병원에서 약으로 주는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 그녀는 잘 자는 사람이 부럽고 잠을 한 번 실컷 자봤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 원인은 우선 못 배워서 배우려고도 그렇게 안 자고, 시집살이할 때는 낮엔 일하고 밤엔 바느질하느라고 안 자고, 새벽이면 통근하는 조카를 위해 밥을 해주어야 하기에 잠들었다가 못 깨면 안 될까봐 그냥 깨 있다가 밥을 해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잠을 안 자게 되었다.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잘 안 자고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나는 아주 안 자는 사람이야. 잠 안 자는 사람 일등상 주는 거 없나? 내가 그런 소리 가끔 한다구.”라면서 웃는다. 이럴 때 남편 이인창 씨는 옆에서 “그게 다 일해서 부자 되라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한다.

부인 유인정 씨는 성질나는 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냥 다 내 팔자려니 하고 살고 있다고 했다. 주변에 보면 마음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남편이 죽을 뻔한 일을 대여섯 차례나 겪은 후여서, 돈 많고 잘 사는 것보다 옆에 있을 사람이 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해서, 그만하면 되지 뭘 더 바라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산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가 어질면 남편이 화가 적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라 하면서, ‘나라가 말라야 천심이 순하고, 벼슬아치가 청백해야 백성이 스스로 편안하고, 아내가 어질면 남편의 화가 적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④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가. 이인창 씨는 딸 둘 아들 넷을 두었다. 모두 다 출가시켰는데, 외손주 포함해서 손주가 12명이다. 6남매 모두 잘 키워서 고맙고, 또 결혼한 자식들이 모두 남매나 아들들을 두고 있어 좋다고 했다.

나. 이인창 씨는 평생을 정말 바쁘게 살아왔다. 당시엔 차가 없어 평생 오토바이만 탔는데, 지금 여섯 대째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동차 시대니까 아이들이나 며느리, 손주들한테 면허를 따게 하는데 비용의 반을 대준다. 대신 면허를 따면 면허증을 갖고와 절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모두 다 면허증을 땀다.

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일은 딸들은 고등학교만 졸업시켜준 것이다. 딸들은 고등학교 밖에 안 가르친다고 못을 박아놔기 때문에 딸 둘은 대학을 안 보냈는데, 그래서 시집갈 때 미안하다고 하며 땅을 일부 팔아서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사람은 출발선에 있을 때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잘 살 수 있기에 딸들은 지금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 그러나 딸들을 고등학교만 가르친 것은 지금 정말 후회가 된다.

라. 자식에게 돈을 많이 주면 자식이 바로 안 된다. 70%는 모두 빚나간다. 그전에 자식들에게 자갈밭 준 사람들은 다 성했고, 고래논 준 사람들은 다 망했다. 돈이 많으면 좋은 거 같아도 쓰길 잘 써야 한다. 이인창 씨는 이렇게 생각하여 자신의 사후에 잘 못하면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봐 ‘복일 때 복이다’라 생각하고 쪽지에 지번을 써서 투표함에 넣고, “너희 복대루 가져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큰아들부터 쪽지를 뽑게 하여 재산분배를 모두 끝냈다. 내 마음대로 나누어주면 좋으니 나쁘니 하여 자식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자기들이 뽑은 거니까 아무도 불만이 없다. 그래서 아직 명의는 넘기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하다.

마. 아마도 이런 마음은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가지고 있을 듯하지만,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자신보다는 낫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서 용 낫다는 소리만 나와라 난 그거야. 아, 그게 그러면 나쁜 거루 아는데, 그래두 나보답은 낫게 되야지, 그걸 바래구 사람이 사는 건데.”

(8) 이인창 씨가 세상을 사는 법

이인창 씨는 8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일을 한다.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부지런하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면도 있다. 그래서 그런 말 씬을 드렸더니 “내가 성격이 좋은 편이 못 돼요. 내 생각에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밀구 나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구 좀 독선적이라구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

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라고 한다. 그러면서 사람은 좀 돌아다니고 남의 말도 듣고 남이 죽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도 알아봐야 하며, 앞을 보고 달려야지 과거만 얘기하면 못쓰고, 희망을 보려면 전망을 보고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누구든지 다 잘 살고 싶은 건 기본이지만, 그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운이 따라 줘야 하는데, ‘여우가 돌아봐도 돌아봐야 험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신은 조상이 돌보았던지 운이 조금 좋아 지금 좀 넉넉히 살고 있을 뿐이라 했다. 이인창 씨가 세상을 살아온 과정은 앞에서 길게 소개했지만, 이 외에도 더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 있어 이를 적어보기로 한다.

“(1) 살아보니깐, 사람은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은 욕심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욕심이 아주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건 아주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욕심을 내야, 그런 생각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2) 남 하는 대로 쫓아만 다니면 맨날 남 하든 거 모방만 하는 것이다. 남 안 하는 짓을 선도적으로 하면 남보다 앞서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패도 있는 법이다. 어떻게 다 100%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추진할 적에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이걸 이렇게 해서 꼭 되겠다, 이걸 안 되겠다 하고, 남 안 하는 거를 해야지 모방을 하면 안 된다.”

“(3) 부자가 좋은 건 아니다. 맘 편안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그게 부자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따르게 만들어 놔야 돈이 따라온다. 이것은 마치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쳐 놓아야 하는 것과 같다.”

“(4) 땅이라는 것은 한 군데 묻어 놓으면 효력을 발생하기 힘들다. 여기 저기 나누어 놓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융이나 다른 모든 것도 몰박을 하면 안 된다. 망하면 한꺼번에 망하기 때문이다. 여기저기다 분산을 해 놓으면 훨씬 소득이나 이익이 많다. 예를 들면, 돈도 조금씩 나누어 여러 군데의 은행이나 마을금고 같은 곳에 넣어두면 벌써 여러 명의 지점장을 알게 되어 그만큼 정보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대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빨리 알 수 있게 되어 세상을 사는 데 이롭다.”

“(5) 사람은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좋다.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3) 상골마을의 남문현 씨가 살아온 내력

* 남, 90세, 1926년생, 벼띠, 의령 남씨



자신이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남문현 씨

남문현(南文鉉) 씨는 달월마을 열두 마을 중 상골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 마을은 현재 행정상으로는 월곶 2통에 속해 있다. 월곶 2통 조원열 통장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의원을 하신 적도 있으며, 아시는 것도 많다고 추천을 해주어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다. 2015년 7월 22일(수) 오후 자택인 산골식당 2층에서 처음 만났고, 6일 후인 28일(화) 오후 1시 경에 다시 만나 평생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었다. 부인과의 사이에 5남매를 두었는데, 모두 출가했고 현재는 부부만 살고 있다. 남문현 씨는 5·16 이전에 군자면 의원을 하기도 했는데, <시흥백년사>에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달월역을 수인선 협궤열차의 간

이역으로 만들기 위해 철도청 등 관계 기관을 찾아다니며 일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남일토건사라는 회사를 차려 시흥군내의 토목공사를 많이 했다.

본인은 그저 여기에 살았다는 것뿐이지 아무런 한 일이 없고, 앞에 나서기도 싫지만, 통장이 추천을 했다고 하니 그저 아는 것을 답할 뿐이라고 하면서 달월마을에 관한 이야기 및 자신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해 전 대장암 수술을 한 적이 있어 현재는 건강이 매우 나쁜 상황이며, 그래서인지 걷는 것이나 말하는 것도 힘들어 하였다. “이제 나이가 구십인데 뭐, 정신차려서 산다는 것이 용하지 뭘. 그런데 이렇게 병들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빨리 가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책임을 다하시려는 듯 끝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쾌차하심을 기원한다.

(1) 월곶에 정착한 배경, 내가 태어난 집은 고속도로 건설로 사라져 버려

남씨의 선조는 원래 중국 사람이었는데, 중국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갔다오다 풍파를 만나 영덕에 도착, 우리 땅에 살기 시작하여 현재 27대손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씨는 영양·

의령·고성 등 3계보로 나뉘었는데, 남문현 씨는 이 중 의령 남씨에 속한다. 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씨도 가까운 종친이다. 남문현 씨의 선조는 원래 경기도 성남에서 살았다. 그런데 윗대 조상님의 처가 순흥안씨였기에 처가가 있는 이곳 월곡으로, 그 중에서도 상골마을로 이주하였다. 부친은 장손이었으며, 남문현 씨는 이곳으로 이주한 조상님으로부터 따지면 7대 손이 된다. 부모님은 슬하에 8남매를 두었는데,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남문현 씨는 형제만 따지면 4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현재는 남동생과 누이만 살아있고, 위로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가 태어난 집은 고속도로가 나면서 헐리게 되어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어린 시절, 집에는 정말 식구가 많았다. 부친은 논농사를 조금 지었는데, 당시에는 마을에 저수지가 없어 비가 안 와 가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물면 아무 것도 심어 먹지를 못해 참으로 가난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좋은 세상이다.

(2) 어린 시절에 보고 들었던 몇 가지 사실들

① 9살에 군자보통학교에 입학, 이십 리나 되는 길을 걸어 다녀

왜정 때 군자면 소재지인 도일리에 있던 군자국민학교에 다녔다. 9살에 입학했는데, 학교에서는 가장 어렸다. 그때 교장선생님이 일본인이었는데, 토요일이면 늘 인천에 있는 자기집에 갔다가 오곤 했다. 이럴 때면 교장은 항상 “이따가 나랑 같이 가자.”고 하여 어린 그는 교장선생님을 기다렸다가 함께 논둑, 밭둑을 밟으며 이십 리나 되는 길을 걸어 마을까지 오곤 했다. 학교는 형과 같이 다녔고, 월동에 사는 최재열 씨는 나이는 두 살 더 많지만 학교 후배라서 지금도 만나 그때 이야기를 하며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고 있다.

② 이웃 마을인 궁골의 내시 집에 가 본 적 있어

이웃에 있는 궁골마을은 예전에 대궐에 살던 궁녀가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궁골이라 한다. 그 여자는 내시를 양자로 들여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 집이 다 없어졌다. 어린 시절에 그 집에 가 본 적이 있는데 벽에 그림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③ 어린 시절, 월곡 앞 바다와 섬산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먹어

마을 인근, 월곡 포구에서 마을 쪽으로 섬산이 있다. 이곳은 원래 섬이었지만 지금은 육지이다. 섬산에는 떠내려 온 섬이라는 ‘섬이동’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어린 시절에는 섬산

의 저수지나 월곶 갯벌 같은 곳에서 고기도 많이 잡아먹었다.

“여기 섬산이라구 저기 하나 있어. 동네가. 그 게 섬이었어. 근데 그제 인저 여기 염전 막느라구 왜놈들이 좀 그거해가지구 그제 인저 육지가 되었는데 (그제 원래는 섬이었단 말씀이 죠?) 그렇지. [중략] 그거 산 둘레에 논이 아니고 거길 저수지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기잡아 먹구 저걸 했지. 농사를, 우리가 어렸을 제 논 만들어서 하는 걸 봤으니까, 고기잡아 먹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고길 잡았는데 뭘. 붕어, 가물치 그런 거지 뭐.”

④ 소래염전 제방을 쌓을 때 보고 들은 이야기들

수인선 철길을 놓을 때는 동네 노인들이 구루마로 산에서 흙을 실어다 철길 양쪽 아래로 내려가 흙을 쌓으면서 놓았다. 소래염전 독을 쌓을 때는 일본인들이 중국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쌓았는데, 간혹 그 사람들이 죽게 되면 제방 쌓는 데 함께 쓸어 넣어버렸다.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염전 처음 제방 독을 막을 때는 우리가 어려서 그거를 참견을 못허구, 왜 저 중국 사람들 많이 끌어다가, 왜놈들이 중국사람들 끌어오구 한국사람들 섞어서 염전독을 막은 거야. 그 때 중국사람들 많이 죽었어. 여 와서. 중국사람들은, 이거 저 뭐야, 갯벌 막으면서 개먹이가 있어. 물이 들어오면, 뛰어 내렸다고. 그러면 그 늑들이 저걸허면 거기다 집어넣구 막구 설라니 매꿨다고 그런 거만 들었지. 그건 못봤지, 우리가 어렸으니까. 지금 조수물이 들어오구, 이걸 막아야 되니까 별짓 다했지. 그래서 오늘 중국사람 죽었다 그러구 그랬어. 그 땐 나는 어렸으니까는 거긴 못 가봤지만, 그 땐 그렇게 허구.

염전독을 막구, 그때에 중국사람들허구 한국사람들허구 삼이 나설라구니 저 중국 사람 다리부러지구 뭐 한 거를 소에 싣구 갔어. 저 지서루다가 갔다가 뭐 여기서, 그거까지는 내가 지금 생생이, 어려서 봤으니까는 그건 생각나. 구농뿌리라구 거기 가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빵 찢어서 먹구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거 빵까지 훔쳐서 먹구 오구 그랬으니까. 그래 여기 동네사람들은 동네 사람덜끼리 단결해지구, 그 중국 사람들허구 그러면, 그 몽둥이 가지구 막 때리구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구 허며는, 싸웠다고 그 소리만 들구 실어 가는 것두 보구 그랬어. 많이 죽은 거는 아니지만은 싸워서 허게 되면 중국, 파묻어? 거기다 썰어 넣는 거지. 중국 사람들 와서 고생허구, 그 불쌍한 사람들이야, 중국사람들. 한국사람 보다 더 불쌍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국 어디에서 왔대요?) 어디서 온 건지 모르지 뭐. 왜놈들이

다 끌어온 거지 뭐. 해안에다가 그냥 매립시켜서 저걸 허구. 그거 뭐, 기가 막힌 거지 뭐.”

(3) 19살에 장가 들고, 20살에는 해방을 맞아

보통학교 졸업 후에 잠시 서울에서 광산회사를 다녔다. 고척동에 있는 소림공업주식회사였다. 회사를 다녀보니 왜놈들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 몇 해 다니다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 왔다. 19살에 18살이던 처녀와 결혼을 했다. 혼인은 중매로 했는데, 아내 될 사람의 고모네가 상골에 살아서 그 분이 반월에 살고 있는 친정 조카딸을 중매한 것이다. 그 집에서는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반강제로 딸을 시집보낸 거나 마찬가지였다. 부인은 가난하고 식구 많은 집에 시집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때 식구는 15명이나 되었다.

“우리 형님은 일본으루다 가서 형님보다 내가 장가를 먼저 들었어. 그때는 뭐야, 징용으루다 끌려가서 일본 저 요코하마 가서 징용생활하다가 거기서 또 맹장을 걸려가지구 죽게 되니깐 보내서, 우리 형님은 그래서 인제 풀려 나왔지. 맹장이 사람 살린 거지.”

20살에 해방을 맞았다. 이때는 하도 좋아 매일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뒷동산에 올라 만세만 부르러 다녔다. 동네에 일본인들은 거의 살지 않았기에 일본사람들이 쫓겨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

(4) 23살 전후에 염전의 제방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

23살 때인 1948년경에는 우리나라 전매청이 소래염전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이때 그는 공사판에 뛰어들어서 하청을 맡아 일을 하여 돈을 좀 벌었다. 그런데 그때는 금융조합이 없어서 돈을 벌어도 쌀을 데가 없어 집으로 가져와 장밀에 집어넣고 살았다. 이때 했던 일은 흠어진 염전 제방을 흠을 파다가 메우는 일이었다.

(5) 6·25 때의 경험과 36개월간의 군대생활

예전부터 ‘안산 서곶은 피란 곳’이란 말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월곶마을에는 왜정 때 일본사람들도 별로 살지 않았고, 6·25때도 인민군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대신 인근

의 어떤 마을에는 바닷빨갱이들이 많았는데, 6·25가 발생하자 인민군과 함께 보도연맹을 조직하고 동네 사람들을 붙잡아 소래다리로 끌어가기도 했다. 남문현 씨는 끌려갔다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인민보도연맹장을 하고 있어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죽음만은 모면했는데, 대신 보리공출을 책임지라 하여 마을에서 보리를 거두어 여의도 비행장까지 갖다 놓아야 했다. 마을 사람들이 보리를 짊어지고 여의도까지 갖다 쌓아 놓으면, 그 숫자를 세서 할당량을 맞추어 놓으면 되는 일이었다. 새벽에 집을 떠나 여의도까지 걸어가면 대여섯 시간은 족히 걸렸는데, 남문현 씨는 다른 책임자 한 명과 함께 여의도로 가면서 길에 버려진 보리도 주워다 숫자를 맞추었다. 그러다 보면 늦게 오는 사람들 보리가 마는 받지 않아도 될 때가 있었는데, 이것을 도로 가져가도록 하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마워했다. 이런 와중에도 공중에선 비행기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다녔다. 마을로 돌아와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면 하루 일이 끝났다. 이런 일은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후에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즈음 폭격으로 소래다리가 끊겨 인천과는 단절이 되었는데, 그 후부터는 그쪽에서 월곶 쪽으로 피란오려면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만 했다.

후에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군자면에 본부를 두고 반공청년단을 만들어 활동을 했는데, 남문현 씨는 여기에서 치안과장을 맡았다. 인천에서 쌀 560여 가마를 찾아내어 이를 소개하느라 원곡역으로 옮겨 놓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인천시를 포함하여 여러 군부대 등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다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가 영장이 나와 군대를 가게 되었다.

“6·25 때는 내가 애를 둘 낳았을 때니까, 그때 군대 갔다왔지. 아, 내가 생각해도 참 우습지 뭐. 군인 나가서 제주도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다가, 거기서 훈련 메칠 받지도 못허구설라니 이 전장이 악화되니까는 그냥 갖다 추켜 싣는 거야. 그러구 그냥 삼척에 내려놓는데 뭐, 얘기해보든 뭐 기가 막히지 뭐. 아, 속초 갔다가 그냥 부대편성을 해가지구설라니, 그러니 훈련도 안 받은 놈, 훈련소에서 메칠두 안 된 걸 배에 태워설라니 일선에 갖다가 쿵쿵대는 데 갖다놔는데, 그거 뭐…. 나는 총 한방도 못 쏜봤어. 총두. 거기서 나와가지구설라니 인저 다시 부대편성해가지구, 내가 위생병으루다 편성이 되가지구설라니, 이제 위생병으로서 지원해서, 그것두 그러니까는 일선에 갖다놔야, 쿵쿵대는 데 갖다놔야 오합지졸이구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는, 거기서 다시 편성해가지구설라니 쥐 싣구 내려와서 지리산에 공비 토벌하는 데루다가 편입돼서 한 3년 6개월, 3년 한 7개월동안 군대생활허구. 인천 정신이

없어 얘기두 못해. 그렇게 해서 제대하구 나와서 온 거지.”

(6) 군자면 의원 시절, 별로 내세울 건 없지만 한 가지 제대로 한 일은 있어

① 나이 30살에 군자면 의원으로 당선

군을 제대한 지 한 두해 지났을 때인 1956년,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면의원을 뽑았다. 남문현 씨는 여기에 입후보 하여 시흥군 군자면 면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때가 30살이었다. 결혼하신 후에 돈도 많이 벌고, 군의원도 되고 하셨으니까 부인되시는 분이 복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고 했더니, “복이 있긴? 그걸 내가 다 까먹었지. 그거를 가지구 그냥 있어? 쫓았으니까는 까먹구 그냥 뭐, 술두 먹구 땡기면서 별짓 다 했지 뭐. 술도 정말 많이 먹으러 땡겼어. 그러니까는 면의원두 허구, 내가 그러구 다닌 사람이야.”라고 하였다. 군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오이도 이장이었던 박○○라는 사람이 도와줘 그곳에서 표가 많이 나온 덕분이라 했다.

② 면의원 시절, 별로 내세울 건 없지만 한 가지 제대로 한 일은 있어

면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해도 그때는 월급이 없었다. 회의하는 날에만 하루 일당으로 800원인가, 80원인가 받았다. 남문현 씨는 면의원 시절 별로 잘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는 잘 한 것이 있다고 했다. 군에서 곡식을 수매할 때, 검사 맡는 것까지는 농민의 책임이지만, 일단 그 후부터는 창고지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것이 관례가 되었고 법이 되었다.

언젠가 군에서 보리를 수매하는 날,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농사지은 보리를 가지고 와 검사를 맡고 수매를 끝낸 후 창고 앞에 쌓아 놓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보리가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보리를 창고 안으로 넣어야 한다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남문현 씨는 수매가 끝난 후인데 농민이 왜 이후까지 책임져야 하나며 창고지기를 불러 책임을 지라고 했다. 창고지기는 여지껏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였다. 남문현 씨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창고지기 책임이라는 것을 못박고, 보리가 비를 맞으면 썩어서 안 되니까 이번에만 함께 들여놓자고 하면서 막걸리를 사오게 하여 함께 나누어 마시고 일을 끝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맑은 바 책임이 분명하게 되었는데, 당시 농민들은 이것을 보며 박수를 쳐주며 기뻐했다.

(7)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60년대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나이 35세 전후였다. 남일토건사라는 회사를 차리고 수원세무소에서 허가를 얻었다. 그리고는 주로 시흥군 내의 일을 맡아 했는데, 관정을 파기도 하고, 군자중학교 짓는 데 관여하기도 했으며,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넓히는 등의 일을 했다. 돈을 많이 벌으셨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는 “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라도 나왔으면 아는 것이 좀 있어 사업을 크게 잘 만들었을 텐데, 당시는 집안이 가난하고 힘들 때라 그리고 자신이 가족을 벌어들여 살려야 해서, 보통학교 졸업 후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아는 것이 별로 없기에 남에게 당하기도 해서, 사업을 크게 키우지 못했다.”고 하면서 돈은 크게 벌지 못했고, 그저 먹고살 정도로만 벌었다고 했다. 사업은 병이 들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70살 이전에 접었다. 그가 한 마지막 사업은 조업, 즉 조상님들의 묘소를 성남에서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로 이전하는 일이었다. 의령 남씨 종중산이 종전의 성남시청 부지 인근에 있었는데, 1970년 성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할 수 없이 종중산을 국가에 내줘야 했기 때문이다.

① 관정, 즉 우물 파기 사업을 많이 하고 - 창고 소지 다했지 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 나서는 주로 시흥군 내의 관정사업, 즉 우물 파는 일을 많이 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식량이 부족할 때였고, 보릿고개도 있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일 먼저 벌인 것이 식량증산운동이었다. 그런데 많은 곳이 천수답이라 비가 오지 않으면 가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관정 파기, 즉 우물파기를 독려했다. 남문현 씨가 한 사업은 이러한 국가시책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그는 시흥군내에서 마흔 여덟 개의 관정을 파는 일을 맡아 반 이상을 완료했다. 당시 군에서는 돈이 없어 노임을 돈 대신 벼로 주었다. 그런데 노임으로 받은 벼 중에는 썩은 것도 있고, 가마 숫자가 부족할 때도 있었고, 받아다 놓으면 쥐가 먹어 줄기도 해서, 이때는 이익을 볼 때도 있었지만 손해 볼 때가 더 많았다. 까닭에 이때의 사업은 그저 먹고사는 정도였다. 관정 파는 일은 하다가 무너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 이때는 술도 마시지 못하고 지냈다.

② 도로공사도 많이 하고

다음에 한 일은 도로공사였다. 거의 토관을 묻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군자면 일대의 도로는 거의 맡아 했다. 그런데 이때는 노임을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군에 예산이 없어 돈

을 못 받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개인 돈으로 노임을 준 적도 많았다.

거모개에 지금은 한국부대가 있지만 당시에는 미군부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재료를 많이 얻어다 써 돈을 좀 벌기도 했다. 예를 들면 썩은 전신주 같은 것을 얻어다 염전 다리 놓는 데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럴 때면 원가가 좀 줄어 돈을 벌 수 있었다. 길을 만들 때는 동네의 돌고개에서 자갈을 가져다 길에다 깔고 만들었기에 원가가 절감될 수 있었다. 군자면 내에는 땅이 진 곳이 많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되기 전에는 우선 진흙에 자갈을 퍼서 길을 만들었다. 그런데 돌고개에 자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남문현 씨는 이곳에다 덤프트럭을 대고 자갈을 퍼 날라 길을 만들었다. 당시 시흥군 내에는 덤프트럭이 없어서 인천에서 이것을 끌어다 했다. 이렇게 자갈을 퍼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 차가 다니는 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현재의 아스팔트 길들은 거의 이렇게 만들어진 길 위에다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이다.

③ 내가 한 마지막 사업은 조업

남문현 씨는 의령남씨 충신공파의 다른 후손들과 함께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현 성남시청 주변)에 있던 조상님들의 묘소를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로 이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정리했다. 1970년 9월 당시 성남시청 인근이 개발되면서 부득이 조상님들의 묘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어 종중산에 있던 17대 조상님들의 묘소를 모두 화성시로 이장하고 묘역을 새롭게 단장했다. 조상님들 중에는 충효정려문을 받은 남정유와 그 아들 남철도 있는데, 이들 부자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분들이다. 묘역을 옮길 때 이들 정려문도 함께 옮겼다. 이들 조상에 관한 내용은 화성의 효충열(화성문화원, 2004) 118~125 쪽에도 실려 있다.



성남의 종중산에 있던 조상님들의 묘소를 화성시로 이장하고 묘역을 조성한 후 찍은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분이 남문현 씨인데, 작업 관계로 혼자 잠바를 입고 있다.

(8) 평생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

평생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큰아들 잃고, 작은 아들 공부 못 시킨 것이다. 남문

현 씨는 부인과의 사이에 원래 3남 3녀를 두었으나, 1960년대 중반에 큰 아들을 잃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탄강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솔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살림도 안 되고 하여 돈이 없어 작은 아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 다른 자식들은 그나마 나중에 정신차리고 사업을 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마쳐줬는데, 둘째 아들만은 그래서 고등학교도 마쳐주지 못했다. 그 아들만 생각하면 불쌍해서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그 아들은 벌써 칠십이 넘었는데, 지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9) 남문현 씨의 근황

① 남문현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래층은 음식점으로 세를 주었고, 윗층에서는 남문현 씨 부부가 살고 있다. 집 뒤편에는 넓은 마당이 있는데,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작은 아들이 매주 와서 가꾸어주고 있는 결과다.

그런데 남문현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불만이 많다. 이집은 80년대에 지어서 30년이 되었다. 그때는 돈도 좀 있고 하여 이층으로 멋있게 새 집을 지으려고 했다. 지금은 집을 지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시는 반강제적으로 반지하로 해야 허가를 내주었다. 그래서 이층집을 짓지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 같은 반지하집을 지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 하도 속이 상해, 누가 길을 가다가 집을 부서뜨리거나 하면 다시 짓겠다 생각하고 집을 도로 쪽으로 바짝 대어 지었다. 그런데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지층이 높아져 집의 반이 지층보다 아래에 있게 되었다. 게다가 여기는 또 도로부지로 묶여 있다. 지금 한창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새미마을로부터 이쪽까지 길을 넓히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도로부지로 묶여 있기에 지금은 집을 어떻게 해 볼 수도 없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그때 이층집으로 지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 그리고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집만 생각하면 속이 상한다.

② 남문현 씨는 몇 년 전 대장암 수술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기력이 없고 걸어 다니기도 어려워 매일 누워서 잠만 자고 있다. 부인은 몇 달 전 집의 계단에서 떨어져 척추가 부러져 장애 2급인가 3급인가를 받았다. 그래서 요양사가 매일 오전에 와 4시간 있으면서 가사를 도와주고 점심을 차려주고 간다.

③ 남문현 씨는 이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마을을 떠나 친구도 2명만 남고 아무

도 없다. 예전 소래염전이 번성했을 때 상골마을은 아주 번성했다. 집도 80~90호나 있었다. 마을 안에는 술집이 3군데나 있었고, 대장간, 푸줏간, 정미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은 집이 40호도 안 되는 데다가 개발이네 뭐네 해서 지형이 다 바뀌고, 토박이들도 거의 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마음은 늘 무언가 허전하고 옛날이 그리롭다.

2. 마을 할머니의 살아오신 이야기

1) 궁골에서 태어나 고잔마을로 시집온 조정열 씨가 살아온 내력

* 여, 77세, 1939년생, 토끼띠, 순천조씨 / 남편 안철옥 씨, 83세, 1934년생, 개띠, 순흥안씨

조정열 씨는 궁골에서 태어났다. 장곡국민 학교를 졸업하고, 22살에 고잔마을 순흥안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겨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조정열 씨를 조사대상으로 한 것은 이 분이 달월마을 열두 동네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결혼한 후 지금까지 살고 있어, 평생을 한결같이 이 지역에서 살아온 토박이이기 때문이다. 조정열 씨는 2015년 7월 9일과 7월 28일, 그리고 8월 18일 등에 걸쳐 3번 만났는데, 주로 월곶 3통 마을회관에서 만났다. 조사를 할 때는 항상 옆에 안오순(여, 79세) 씨가 있어 이야기를 거들었는데, 두 사람은 비슷한 연배일 뿐만 아니라 촌수로 올케와 시누 사이라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조정열 씨는 생애사 외에도 도깨비 이야기도 여러 편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조사자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9장에 실려 있다. 조정열 씨는 조분조분 이야기를 매우 잘 하는 편인데, 비교적 조리있게 말하고, 발음도 명확한 편이다. 사진 찍는 것을 한사코 사양했고, 여기 나왔다가 망신당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했다. 남편과의 사이



자신이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조정열 씨



조정열 씨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대화하고 있는 안오순 씨

에 2남 2녀를 두었는데 모두 출가했고, 지금은 부부만 살고 있다.

(1) 열 남매 중 다섯만 살아남은 중의 둘째딸

조정열 씨는 둘째 딸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친정이 군자면 동작리였는데, 11년 전에 94세로 돌아가셨다. 가난한 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와 시누이, 시동생들을 다 결혼시키며 고생을 많이 하셨다. 조정열 씨의 부모님은 자녀를 열 명 낳았는데, 그중 다섯 명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조정열 씨는 언니 하나, 남동생 둘, 그리고 여동생이 한 명 있다.

“우리 어머니가 열 낳어. 열 나서 다섯 길른 거야. 다섯 길렀는데…. 우리 오빠는 군인 나가서 죽구, 우리 동생 일곱 살 먹어서 죽구 나머지 셋은 진자리에서 또 죽었어. (진자리는 뭐예요?) 나아서 바로. 까꾸루 낳다든가 그러구. 그 전엔 그렇게, 산부인과 같은 거두 읍으니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백열 살 넘었으니깐, 그 전에는 병원이 있어 뭐? 그냥 집에서 낳다가 잘 못 되든 산모 안 다친 것만 다행으루 알구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열을 낳아가지구 다섯 기른 거야.”

(2)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

①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아버지 덕에 어린 시절 밥은 굶지 않아

부친은 농사지를 땅이 적어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구들장 놓는 기술, 미장 기술, 이엉 기술 등을 배웠는데, 기술이 뛰어나 인근 마을에 가서 일을 해주면 남보다 더 많은 일급을 받았다. 당시 일급은 쌀로는 한 되, 보리로는 두 되 정도 되었는데, 부친은 그보다 몇 배를 더 받아왔다. 그래서 한 열흘 모으면 한 가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장려쌀을 놓기도 했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옛날엔 어려우니까, 애들은 오물허구, 노인네, 어머니 계시구 그러니깐 인저 땅 파고 밥을 해서 애들 멕이구 그랬다구. 우리 친정 아버지가 방 뜯는 기술, 또 이런 벽 발르는 기술, 또 지붕 이는 기술 그런 토역쟁이, 지붕 잇는 쟁이, 하여간 (안요순 : 지푸라기로 엮은 지붕) 이엉 엮어서 지붕 이는 걸 저기 장곡동이라구 거긴 맡어 놓고 우리 아버지가 계속 다니셨어. 우리덜 요막큼씩 한 것 벌어 먹일려니깐. 그렇게 다니시며는 손톱

밭톱이 다 까지시는 거지. 무식허구 배지 못허구 옛날 노인네들이 그럭허믄서 정말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구. 그래가지구 인저 굶주리지는 았구 살았지마는 자식덜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돈은 잘 벌으셨어.”

훌륭한 기술을 가진 아버지 덕에 집안에는 항상 쌀이나 보리 등이 넉넉하여, 이웃 사람들이 끼니 걱정을 할 때도 가족들은 밥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다. 그때는 정말 삼시 세 때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고, 보리만 먹어도 잘 산다고 하던 때였다. 친정어머니도 당신의 친정이 아주 가난했었기에 배고픈 설움을 잘 알았다. 그래서 늘 자식들에게 “이 서름 저 서름 해도 배고픈 서름이 켈이란다” 하면서 먹을 것을 실컷 먹게 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옷을 잘 입은 것은 아니고, 호강을 한 것도 아니며, 또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배고픈 것은 모르고 살았다.

② 도깨비에 홀려 댓 되 쌀자루를 잃은 아버지⁵¹⁾

날이 궂은 어느 날, 아버지가 메골에 일을 나가셨다가 밤이 되어도 집에 오시지 않았다. 가족들은 밤새 많은 걱정을 했는데 아버지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오셨다. 도깨비에 홀려 밤새도록 댓 되 쌀자루를 지고 섬산으로, 소래다리로 막 다니다가 간신히 집으로 오신 것이었고, 쌀자루는 잃어버렸다. 어머니가 그날 쌀자루를 찾으러 여기저기 가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날 아침에 또 일을 하러 가셨다.

③ 장곡초등학교 지붕을 이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안오순 씨가 메골은 예전에는 도적이 나온다 해서 택시도 안 가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시내가 되었는지 모른다 하면서 장곡에서 초등학교를 지을 때 처음에는 학교가 초가였는데, 지붕을 이을 때 조정열 씨의 아버지가 이영을 얹어 지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곧바로 조정열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학교가 분교로 처음 났을 때, 학교를 장곡다 지었는데, 인저 내가 장곡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학부형들이, 학부형두 짚두 농사 하나두 없는 집은 짚이 얹어. 쌀 벧짚.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영, 지붕 이는 기술이 있으니까는 인저 학부형들이 이영을 한 마름씩,

51) 이 이야기는 9장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아주 젊은 사람은 못허구, 짚 농사지어서 있는 사람은 이영을 한 마름씩 엮어서 학교 지붕을 이는 거야. 처음에. 지붕을 이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붕 이는 기술자니깐, 돈은 받았는 지 안 받았는 지 그건 몰라두, 이영은 집에서 엮어서 갔으니깐, 엮어 가주 가른, 저 우리 아버지가 애덜이 가른, 인저 우리 아버지가 앞에 가니깐 든든해서 대통령 앞에 가는 것 모냐, 근데 왜 지금 말하자는 똥피헌 거 아니야? 아버지가 이영 엮어서 저걸 가져가는구나 하구 내가 철이 났으믄 똥피헌텐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영을 엮어 가주 가니깐 난 애들한테 으식대구 나한테 인제 애들이 까불지 못하게 인저, 우리 아버지가 이영을 엮어 가주 간다 어찌구 하면서 으식대면서 간 기억도 나.”

(3) 초등학교 다닐 때의 기억

① 비를 맞으며 다녔던 학교에 대한 추억

달월마을에 살았던 아이들은 국민학교를 도일, 군자, 장곡 등으로 다녔다. 조정열 씨보다 두 살 위였던 안오순 씨는 왜정시대에 도일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에 몇 십리나 되는 길을 걸어다녀야만 했던 데 반해, 조정열 씨는 군자를 다니다가 분교로 장곡이 생기면서 이곳으로 옮겼다. 이 학교는 처음엔 6학년 없이 시작하였다.

학교를 다닐 때는 걸어 다녔는데, 지금처럼 우산이나 비닐도 없어 비가 올 때는 부대조각을 머리에 쓰고 다녔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비를 맞고 다녔다. 그래서 몸으로 젖은 옷을 말리기 일쑤였고, 추울 때는 덜덜 떨며 다녔다. 예전에는 어린 몸들이라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정말 좋은 세상이다.

② 올방개 캐먹다가 수업시간에 늦어 선생님에게 혼나기도 하고

“(안오순 : 옛날에는 묵화 따먹구, 밀 잘라서 밀 씹어 먹구, 산에 가서 송진 따서 씹구, 밀 짓이겨서 먹구, 수수깁부기도 먹었지. 뽕기 따러 먹으러 땡기구 뭇 시영 꺾어 먹으러 땡기구 갯내이 파먹으러 바다에두 가구. 배가 고프니깐. 올방개 좇어 먹으러 가구. 여기 올방개 좇어 먹은 얘기 좀 해봐. 선생님한테 혼나구, 노는 시간에, 잠깐 쉬잖아요. 학교서.)

왜 종 치잖아? 학교서. 그러니깐 인저 시작종 땡땡땡, 그러는데 끝났다구 그래서 여긴 학교 건너서 논두렁, 논 가르는데 저기 뭐야, 올방개, 선생님은 모르시지? 요런 싹 캐먹는 게 있어. 끝나는 시간에 뗏어서 그걸 좇어 먹으러 갔어. 그랬다가 인저 시작종 치니깐 얼른 또

뛰어와야잖아. 그래가꾸 선생님 한테 걸려 벌을 되게 받은 기억도 나구.”

(4) 군인 간 이들을 위한 어머니의 정성과 국민병이었던 오빠의 죽음

조정열 씨의 오빠는 6·25때 제국민병으로 군대에 갔다가 사망했다. 그때 오빠는 19살이었고, 조정열 씨는 13살이었다.

“우리 오빠가 군인을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미신을 믿으니깐, 군인 나가는 날서부터 정한수를 움물에 가서 겨울에 추운데두 찬물에다 세수를 허구, 나가 어렸으니깐, 정한수를 떠다 장독간에다 놓구 인저 잘 땡겨오시라구, 아들 잘 땡겨오라구 인저 그래는 거야. 그래구 그걸 갖다 밥물을 뷔. 밥물을 붓구, 인저 또 우리 오빠 밥주발이 있어. 밥주발 있는 데다 꼭 그 밥주발을 비질 앓구 밥을 퍼 놓더라구. 그렇게 정성을 디렸어.

그랬는데, 한 일년 허구 나니깐, 내가 어려서 들은 얘기지. 그런데 하나두 내가 안 잊어버리구 생생하게 기억을 해. 어려서 들은 얘기지. 그런데 한번은 정한수를 뜨러 가는데 뭍이 앞길을 확 지나가드래.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섬짓 허드래. 아유 그래서, 왜 이런가 그러면섬 저기 미신을 믿는 저기루다가 그냥 또 그걸 열일을 쫓히구, 그 정한수를 떠서 또 장독간에다 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확 지나가드래. 뭍이가. 그래드니 그때는 우리 오빠가 죽었을 때야. 죽었을 때야. 우리 오빠가. (왜 돌아가신 거예요?) 병이, 그때 제국민병이라구,⁵²⁾ 군인 역할두 못해보구 그냥 한테 끌려다 놓구 굶은병이라구두 그러구 그랬어. 그래가지구 인저 싸움두 못해 보구, 군인생활두 못해보구 한테 끌려다 놔가지구 거기서 병이 들어서 죽은 거래. 근데 죽은 것두 그 땐 전화두 읍구, 연락두 읍구 그래니깐, 죽었는지 살았는지두 몰르는데, 그 혼백이 그러니깐, 혼백이지. 하얀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정한수를 뜨러가면 길을 확 막드래. 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성으루다가 근데 마음이 섬짓헌데, 그래두 그 정성을 고대루 갖다가 허는데, 그 이튿날 저녁에 또 움물을 가는데 또 역시 그런 일이 있드래. 아이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

52) 1950년 6·25가 나자 제국민병으로 50만 명을 징집했는데, 당시 김윤근 사령관이 수송비와 식비 등 50억 원을 횡령하는 바람에 1천여 명이 굶어죽거나 얼어 죽었다. 이 사건을 방위군 사건이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이 경질되고, 이기붕이 국방장관이 되어 방위군 사건의 주범인 김윤근 사령관을 비롯 관련자 9명을 전격 구속하고 군법회의를 거쳐 8월 31일 김윤근을 총살에 처했다. 김진송 저, 『장미와 씨날코』, 푸른역사, 2006, 63쪽. (여기에서는 인터넷 네이버, 『장미와 씨날코』 책에 관한 소개의 글을 참조했음.)

구 왔는데, 우리 오빠 동창덜이 인저 저 장곡동 그런데 살고 인저 국민병을 나갔으니깐 여러 군데서 다 이저 군жат면 그 또래덜은 다 나갔지. 그랬는데, 누가 우리 오빠 친구 동창이라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상열인데, 상열이가 죽었다구 그러드래. 그래서 죽은 거를 알은 거야. 죽은 것두 모르구 그냥 정한수만 떠다 올렸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혼백이겠지. 우리 어머니 눈에 희끗하구 지나가더래. 그러는데두 우리 어머니가 섬찔 헛데두 그냥 그거를 그냥 가서 했다. 근데 이틀을 그러드래 그게. 그랬는데두 그냥 허구, 그리구 인저 사흘 나흘째 그냥 허는데, 인저 며칠 되니깐 우리 오빠가 상열인데, 상열이가 죽었다 그런 소리가 인저 전지 전체루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알아볼랴구 알아볼랴구 하니깐, 우리 오빠 국민학교 동창이 같이 국민병을 나갔는데, 거기서 죽었다 그러드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락을 들은 거야. 죽은 것두. 그러니깐 시체두 못 찾구, 아무 것두 못 찾구 그냥 그렇허구 끝난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자랄 때.”

(5) 스무 살 때 겪었던 특별한 기억 : 사촌 오빠의 기막힌 죽음

조정열 씨가 스무 살인가 되었을 때 24살이었던 사촌오빠가 전화를 하다가 벼락을 맞아 죽는 일이 생겼다. 이 죽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 지금도 생각이 난다.

조정열 씨 고모가 중립 안골에 살았는데, 집안에 먼 조카뻘 되는 여성이 -조정열 씨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그 마을로 시집을 갔다. 조정열 씨 사촌 중 한 사람인 오빠가 군대 갔다 휴가를 나왔는데, 조정열 씨 보고 함께 고모네 집에 놀러가자고 했다. 걸어서 한참을 가야 했고, 또 오빠와 함께 먼 길을 가는 것이 싫어 조정열 씨는 안 간다고 했다. 그래서 오빠 혼자 고모네 집엘 가게 되었는데, 오빠는 고모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그 조카딸네 집에 들렀다. 당시는 텔레비전도 별로 없고, 전화기도 별로 없던 그럴 텐데, 그 집에는 전화가 있었다. 그 날은 날이 좀 궂었는데, 사촌 오빠가 수화기를 들면서, 어휴, 날 궂은날 이런 걸 들면 안 된다는데 하면서 수화기를 들었을 때 천둥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그 집을 때려 방고래도 빠졌고, 사촌 오빠도 벼락을 맞아 죽었다. 나중에 들으니 오빠는 얼굴의 살은 그냥 있었지만 오른쪽 귀에서 턱 있는데까지가 다 시퍼렇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전화가 있어 사고를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전화가 없어 이 일을 다음날 알게 되었다. 이 일은 사돈 총각이 사돈집에 가서 죽은 것이라 작은 아버지네는 아들이 죽어 가슴이 아팠고, 시집간 딸의 아버지는 자기딸 새로 시집간 곳에 가서 그렇게 총각이 죽으

니까 그것도 또 가슴이 아픈 일이었다. 그리고 조정열 씨는 또 자기가 안 가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여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한다.

(6) 결혼해서 지금까지 고잔마을에서 살아

조정열 씨는 22살 되던 해 정월에 혼인을 했다. 신랑은 고잔마을에 사는 27살의 안철옥 씨였는데, 국민학교 친구인 철옥이의 오라버니였다. 궁골에 안씨네 집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정열 씨를 보고 안씨네 집안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중매를 하여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맞선을 봤는데, 맞선 자리에서는 그저 부끄럽기만 해서 신랑감을 잘 보지도 못했다. 남편은 군자초등학교와 군자중학교를 졸업했다.

① 전통혼례로 혼인식을 하고

결혼식은 궁골의 여자네 집에서 전통혼례[구식결혼]로 했다. 대례상을 차리고 신부는 연지 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쓰고,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했다. 혼인 후에는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은 말을 타고 시집으로 왔다. 그리고 장롱 같은 것은 추력[트럭]으로 옮겼다.

② 시집살이는 별로 하지 않아

당시는 거의 모든 집이 가난할 때여서 밥이나 먹고 살 정도면 그래도 잘 산다고 할 때였는데, 시집와서 보니 다행히 시집은 밥은 먹고 살 정도였다. 봄이 되면 산에 가서 나물도 캐본 적이 있는데, 주로 돛나물, 취나물, 대나물, 질경이, 뚝갈나물 등을 캐서 반찬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즈음은 산에 가도 별로 이런 나물들을 볼 수 없다.

가족은 시어머니, 막내 시누 하나, 시동생 둘이 있었다. 시아주버니는 서울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당시 유명했던 조미령이라는 배우가 바로 큰 동서의 여동생이다. 큰집 식구들은 현재 전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시집 식구들 중에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조상님들의 제사는 큰집에서 지냈고, 조정열 씨 집에서는 시아버지 제사만 지냈다. 남편은 막내로 작은 집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제삿날과 정월 명일, 8월 명일에는 시아주머니와 큰 동서가 이곳으로 와 함께 제사나 차례를 지내다 나중에는 큰동서가 모셔갔다. 시동생 둘 중 막내 시동생은 몸이 약해 자라다가 세상을 떴다. 둘째였던 시동생은, 조정열 씨가 시집오니,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인천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에

새벽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는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3년간 온갖 정성을 다해 시동생을 위해 새벽밥을 해주고 저녁에는 밥을 차려 주었다. 시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을 다녔는데, 이때도 집에서 다녔기에 조정열 씨는 시동생을 정성껏 돌봤다. 그런데 그 시동생이 군대를 갔다가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착하던 시동생이었는데, 그리고 형수한테도 아주 잘 했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조정열 씨 역시 이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참 착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십오 년 전 백두 살에 돌아가셨다.

(7) 우환이 자꾸 생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조정열 씨는 시집 와서 집안에 자꾸 우환이 생겨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가 28살 인가 29살이었는데, 교회는 월곶 2통에 있는 달월교회였다. 교회를 다닌 지 현재 약 50여 년이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주 편하다. 남편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자녀들은 모두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딸은 결혼해서도 다니고 있고 사위는 장로이다.

옛날에는 친정어머니가 미신을 섬겨서, 남들이 점을 보면 점도 보았고, 누가 아프면 무당을 데려다 푸닥거리도 했었다. 그러나 돌아가실 무렵에는 자식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니까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다 돌아가셨다.

(8) 가정을 이끌려고 안 해본 일이 없어

조정열 씨는 어떻게 살아오셨느냐는 질문에 한 마디로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왔다고 했다. 처음 시집오니까 시집은 그저 먹고살 정도는 되었지만, 묵어 내려오는 빚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그저 갚아가면서 간신히 먹고살았다. 조정열 씨는 “인저, 아무리 살림을 알뜰히 한다고 해도 따라주질 않아. 우환이 끊든가 그러면 또 그렇구. 그래서 많이 모으고 살지는 못 한 거야. 그냥 그저 밥 안 굶고 그냥 사는 거야.”라고 했다.

① 남편의 경제활동

지금은 인근에 뒷방울 저수지, 마전 저수지, 물왕리 저수지 같은 것이 있어 모내기도 쉽다. 그러나 예전에는 저수지 같은 것이 없어 정말 농사짓기 힘들었다. 그냥 하늘에서 내리

는 비에만 의존했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힘들어 먹고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남편은 밭농사, 논농사를 조금씩 하고 염전에도 몇 해 다니고 통장 일도 10여 년간 했다. 논농사는 열 마지기 정도 했는데, 한 마지기는 200평이다.

“우리 영감이 염전에 조금 다녔었는데, 영감이 건강한 체질이 아니어서 조금 땡기구, 옛날엔 염전에 경비두 있어서 야간에 경비도 좀 땡기구, 염전에 가서 소금 걷는 거도 좀 했는데, 건강을 타고 나지 못해 오래 하지는 못했어.”

② 조정열 씨의 활동촌에 살면서 남편이 해다 주는 대로 받아서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조정열 씨도 먹고살기 위해 남 하는 것 같은 일은 다 했다. 열무를 심어 수인선을 타고 수인역에 가서 팔기도 했고, 밭일도 하고, 논 모내는 데 가서 일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파트 짓는 데 청소도 몇 해 다녔고, 복숭아 따는 일도 해보았다.

“열무니 뭐니 다 심거가지구 뭐, 팔러 이구 들구 요 넘어 저 역전으로 가서, 사람이 무척 많구 그걸 죄 이구, 그냥 가서 수인역, 수인선에 갖다 팔구, 팔어가지구 막차에 오구, 또 쌀이 읊으면 또 그거 팔은 거루 쌀두 한 뭇박 사다가 읊쌀을 쫄지. 애들 주느라구. 읊쌀두 꾸구. 그렇게 옛날에 살았지. 애들 젖떨어진 걸 밥을, 쌀밥을 줄래니까 그걸 팔아서 쌀을, 수인역에 쌀집이 있었어.”

(9) 자녀에 관한 이야기

조정열 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딸, 아들, 아들, 딸 순으로 2남 2녀를 두었다.

① 첫 딸은 친정에 가서 낳아

옛날에는 아이들을 집에서 낳고, 집에서 산 간호를 했다. 그런데 마침 첫 애를 가져서 아이를 낳을 달에 당시 열두 살인가 했던 막내 시동생이 죽었다. 조정열 씨가 시집을 오니 시동생은 간질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와 시동생 사이를 상당한 거리를 두게 했는데, 나중에 주위 사람들에게 들으니 이것은 며느리가 놀랄까 봐 그렇게 했던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배려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해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다. 그래서 첫 애는 친정

에 가서 낳고 산 간호도 여기에서 했다. 첫 딸은 잘 자라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했다. 그 딸이 지금 56살이다. 지금은 사위도 보고 해서 장모도 되었고, 시어머니도 되었다.

② 큰 아들 잃는 아픔을 겪고

조정열 씨는 큰 아들을 잃었다. 신혼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마을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그러구 인저 둘째는 아들을 낳는데, 나두 아들을 실패를 했어. 그것두 다 키워가지구 결혼 식까정 시켜가지고 실패를 했어.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그때 신문에도 났었어. 집에 거진 다 와가지고 (안오순 : 택시 잘못 아냐?) 그야 뭐 내 팔자겠지 뭐. 그 저 뭐야, 마전이라구 저 상골 내 친정동네 거기서 택시사고가 났어. 그러니깐 전화로 엄마 나 몇 시에 들어갈까 그러구 전화가 왔어. 그러구 인저 몇 시에 들어 오겠지 하구 기다리는데, 우리 딸두 사위 허구 인저 동생이 신혼여행 갔다 오는 길이니까 저희도 인저 여기 와서 같이들 만날려구 그러구 왔는데, 전화가 몇 시에 갈까 그러더니 몇 시에 전화가 와. 그래서 애가 들어오는구나 그러구 전화를 하니깐, 차 사고루 사망을 했다고 전화가 오더라구. 저 들어온다는 시간에. 그래서 그런 아픈 일이 있었구. 못 겪을 일을 내가 겪었지.

그냥 그렇허구 인저 사는 거지 뭐. 간 사람은 갔거니와 또 산대로 살지 쫓아갈 수는 없으니깐. 그렇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어요.”

③ 작은 아들이 낳은 아들들은 군대에 가 있어

작은 아들은 결혼해서 삼남매를 낳았는데, 아들 형제는 지금 군대에 있고, 딸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손주 둘은 둘 다 대학 다니다 지원해서 군인이 되었는데, 큰 손주는 9월에 제대할 예정이고, 작은 손주는 인제 군대 간 지 한 달 정도 되었다. 손주가 뜨거운데 훈련 받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지만, 잘 해낼 것으로 믿고 있다.

(10) 이제 남은 소망은

조정열 씨는 허리 디스크 뼈를 네 개나 박았다. 그래서 몸이 아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그저 간신히 남편을 위해 밥과 빨래만 해주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마을회관에 와서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면서 소일하고 있다. 눈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몸이 아파서 딸과 사위가 온다고 해도 이제는 집에서 음식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매번 나가서 먹는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논농사는 안 하고 미나리깡으로 세를 주었다.

조정열 씨는 이제는 늙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영감 마누라가 그냥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다 하면서, 이제 남은 소망은 ‘그저 애들만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랄 뿐’이라 했다.

2) 외발산동에서 구능뿌리로 시집 온 최연옥 씨의 살아온 내력

* 여, 79세, 1937년생, 소띠, 경주최씨/ 남편 순흥안씨, 84세.

최연옥 씨는 달월마을 열두 마을 중 구능뿌리에 살고 있다. 구능뿌리는 월곶 3통에 속해 있기에 그녀는 매일 고잔마을에 있는 월곶 3통 마을회관으로 놀러 온다. 2015년 7월 9일 생애사를 조사하기 위해 마을회관에 들렀더니, 이곳에는 마침 준호 할머니인 조정열 씨(여, 77세), 안오순 씨(여, 79세), 최연옥(여, 79세) 씨 등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마을회관이 있는 고잔마을은 원래 순흥안씨 집성촌이었다. 까닭에 이곳에 살고 있었거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친인척 관계로 얹혀 있다. 촌수로 따져 조정열 씨와 안오순 씨는 올케 시누 사이이고, 최연옥 씨는 이들의 조카며느리에 해당된다. 최연옥 씨의 남편 순흥안씨가 이들보다 항렬이 하나 아래이기 때문이다. 이들 세 사람은 거의 매일 회관에 모여 지낸다고 한다.

방문한 이유를 말하자 세 분은 모두 화투를 접었다. 그래서 세 분 중 누구를 대상으로 생애사를 조사하고 기록하면 좋겠는가를 물었더니, 두 분이 모두 최연옥 씨를 가리키며 ‘없는 집이고 또 시어머니도 서모고 해서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으니 질문을 하라’고 권해서, 여기에 그녀의 동의를 얻고 살아온 내력을 조사하고 기록하게 되었다. 최연옥 씨는 8월 18일에도 한 번 더 만났다. 최연옥 씨는 친정이 외발산동인데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 19살에 모친을 잃고, 21살에 구능뿌리의 순흥안씨와 결혼하였다. 자녀는 모두 혼인하여 출가하고 지금은 부부만 살고 있다. 그녀는 그야말로 1간



자신이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최연옥 씨

장도 된장도 없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 지금은 주위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생애시를 부탁하자 그녀는 첫 마디가 “나는 고생, 고생이래는 거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 봤어. 그저 오로지 자식들 먹여 살릴라고 허덕이기만 하고 살은 거지 내가 -”로 시작하며 지나온 삶의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이어서는 친정이야기, 성장과정, 결혼, 서모에게서 받은 학대, 남편 이야기, 농사짓고 기차 타고 장사를 다니며 재산을 일군 이야기, 자식 이야기, 말년에 아파서 수술한 이야기, 목수였던 사위가 다친 이야기 등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세상을 정말 너무 억울하게 살아왔고,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매면 몇 천 권은 될 것이며, 내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사실 그녀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보니 이 말도 공감이 되었는데,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 여기에 이들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가난했던 집으로 시집와 고생하며 부를 일구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최연옥 씨의 살아온 내력을 적어보기로 한다. 최연옥 씨가 남편 이름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여기에 그 이름은 소개하지 않는다.

(1) 태어난 곳과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최연옥 씨는 친정이 김포공항 근처의 외발산동이었는데, 동네는 경주최씨 집성촌이었다. 부모는 슬하에 5남매 두었는데, 최연옥 씨 위로 언니와 오빠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 두 명이 있다. 옛날에는 남자 동생을 보면 좋다고 해서 부모는 최연옥 씨를 아주 귀여워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엄청 받았어. 집에서. 그러니까 남동생을 둘을 봤으니까 사랑을 엄청 받았지, 내가. 내가 어딜 가면 우리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구 쫓아와서 데리구 오구 막 그랬어 그 전에. 내가 인제 외갓집 갔을 때도 그랬지만. 그래가꾸 시집와서 고생했지, 친정에서는 고생 요만큼도 안 했어요.”

부모는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밭에 심어 놓은 것으로 김치를 만들어 장사를 다니기도 했다. 집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최연옥 씨는 고추도 한 번 따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몰랐다. 돈도 귀한 줄 모르고 넉넉하게 썼다.

어린 시절에는 지금은 인천에 속해 있는 독재이 용현동에서 살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보국단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외가이기도 하고 또한 큰 형님이 살고 있는 이곳으로 이사

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마차를 갖고 시다찌 들어가면 보국단에는⁵³⁾ 가지 않아도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여 보국단 가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최연옥 씨는 이곳에 있는 학익국민학교를 졸업했다. 학교 다닐 때는 운동을 아주 잘 했는데, 그 중에서도 달리기, 뛰기를 잘 해서 릴레이 선수로 뽑히기도 했다.

(2) 625때의 특별한 기억

그러다가 6·25가 터졌다. 최연옥 씨의 나이가 14살 되었을 때였다. 아버지는 소마차에 짐을 가득 실은 후 가족을 데리고 소래다리를 건너 고잔마을로 피난을 왔다. 이곳에 내중사촌 형이 살았기 때문이다. 와서는 종실네 여기 살 적에 그 집 사랑방에서 피난생활을 했다. 아버지가 소를 외양간에 매놓았는데, 인민군들이 와서 소를 가져가려 했다. 소가 들이받자 뺏어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래도 뺏길 것 같다고 하면서 그날 밤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소를 잡아 동네에서 다 나누어 먹었다.

그런데 오빠가 잡혀갈 뻔했다. 집에서는 오빠가 잡혀갈까봐 뒤꼍에 감춰 놓았는데, 못 들어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빨갱이가 뒤란으로 들어가 오빠를 찾아내더니 “어, 너 오래 간만이다” 그러면서 마당으로 끌고 나왔다. 후에도 그 사람들은 종종 오빠를 잡으러 왔는데,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오빠를 숨기기에 바빴다.

“그랬는데, 우리 오빠가 컷잖아. 총각이잖아. 그래니까는 인민군들이 들쳐 오잖아. 명석에 말아가꾸 대문에다가 세워놔어요. 명석에 말아가꾸. 우리 오빠를. 인민군들이 끌어가니까. 그래서 인제 명석에다 말아가꾸 대문에다가 세워 놓구, 인제 그 놈들 가면 인제 클러주구. 또 오면 인제 그러구 맨날. 버리짚 이렇게 쌓잖아. 그 털구 보리짚 광 있잖아, 그 속에 갖다 묻구 그렇게 살았어. 우리 오빠가 여기서. 그랬는데, 저 쪽이 해방됐다 그러니깐 우리 오빠만 먼저 보냈지. 보냈는데, 다리 딱 건너면서 이쪽에 인민군들이 그냥 접전을 해버린 거야. 다릴 건너면서. 소래 요쪽 인천은 해방이 됐구, 여기는 아직 해방이 안 됐구. 근데 소래다리를, 바다를 건너간 거야 거기서 인제 우리 오빠가. 근데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쪽을 보니까 인민군들이 드글드글 현 거야. 그래가꾸 우리 오빠가 살았어.”

53) 보국단 :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41년 9월에 태평양 전쟁 지원을 위해 여러 단체들이 통합되어 조직된 연합 단체.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保國團)을 줄인 말로 임보단이라고도 했음.

6·25가 끝나자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다시 용현동으로 이사를 갔다.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아버지는 외지에서 아이들이 홀애비 자식이라고 무시당할까봐 다시 고향인 외발산동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일 년 후에 큰딸을 시집보내고, 다음 해에는 작은 딸을 시집보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최연옥 씨는 19살이었다.

(3) 우리 아버지가 술김에 나를 이곳에 시집보내

21살 때인 1958년경, 최연옥 씨는 달월마을 열두 마을 중 하나인 구능뿌리에 살고 있는 순흥안씨와 결혼을 했다. 남편은 다섯 살이 더 많았다. 가족 모두 6·25때 고잔마을에서 피란생활을 했던 터라 동네는 잘 알고 있었다. 최연옥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술김에 본인을 이곳으로 시집보낸 것이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언니를 야목에 데려다주고, 고잔마을에 살고 있는 내중사촌형에게 놀러왔다. 그래서 술상이 벌어졌는데, 그 형님이 둘째딸 시집보내라 하면서 어떤 휴가 나온 군인 한 사람을 데려와 인사를 시켰다. 그런데 그만 이때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허락했던 것이다. 스물한 살밖에 안 되었기에 그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꿈에도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갑자기 결혼을 했다. 남편과의 사이에는 여섯 명의 자녀가 있고, 36살에 단산을 했다.

(4) 너무나 가난했던 시집, 그리고 서모 시어머니 밑에서 온갖 고생을 많이 해

시집오기 전, 작은 어머니가 ‘시집을 가면 귀 먹어 삼 년, 병어리 삼 년, 눈 멀어 삼 년’을 살라고 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상을 놔야 한다고 해서 한 달간 무릎 꿇고 상을 놓았다.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고잔 같은 곳에 와서 우리 며느리는 지금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랬다 한다. 최연옥 씨가 구능뿌리로 시집을 왔을 때 식구는 시아버지, 서모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둘이 있었고 남편은 군인이었다.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 둘은 서모 시어머니가 데려온 딸들이라 했다. 마을에 있는 집들이 아주 작은 집들이었던 데 반해 시집의 집은 삼칸 툇마루도 있고 해서 비교적 큰 편이었고, 소도 있었다. 최연옥 씨는 지금도 시집 왔을 때 살았던 그 집터에서 살고 있는데, 집은 후일 이층으로 새로 잘 지었다.

“근데 우리집에 왜 소가 있었냐 허믄, 소는 마루버시, 노인네 십장 노릇허셨으니까 소마차루 그편 끝었잖아. 소루. 그래가꾸 소가 있었어. 염전에서 소금이 나잖아. 염전에서 소금이 나며는 거기

철길이 있어. 이렇게. 철길 모퉁 있어. 그러면 구루마가 있어. 구루마에 소금을 다 싣는 거야. 그러면 소루다 인제 끌구 가는 거야. 소래루. 소래역으루 간 거야. 그래가꾸 소가 우리가 있었지.”

그런데 시집은 그야말로 간장, 된장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농사지을 땅은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시아버지가 근처의 소래염전에서 일해 번 돈으로 먹고살았다. 당시는 마을 인근에 소래염전이 있을 때여서 동네사람들은 이곳에서 염부로 일하고 생활비를 벌어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도 염전에 심장으로 다녔는데, 식구는 많은 가운데 버는 사람은 하나이니, 그리고 염부의 월급이 넉넉한 것도 아니어서, 집안형편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먹을 것도 귀했다. 그래서 집에서는 늘 찐지죽, 고구마죽, 감자죽 같은 것을 먹고 살았다. 최연옥 씨는 첫아이를 가졌을 때도 먹을 것이 없어 늘 배를 곯았다. 그래서 시집 와서 알게 된 동네의 또래들과 같이 매일 수수깁부기 같은 것을 따 먹으러 다니기도 했다.

시집 와 처음에는 시부모를 모시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집안일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새벽으로 매일 같이 많은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청소를 하고, 소죽도 끓여야 했으며, 많은 빨래를 해야 했고, 홍두깨질을 해서 이불을 시쳐야만 되었다. 만일 진짜 시어머니였다면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좋아하면서 며느리를 위해 일을 거들어 줄 수도 있었련만, 서모 시어머니여서인지 그런 일은 결코 생기지 않았다. 아니, 일을 거들어 주기는커녕 아주 혹독하게 구박했다. 시아버지는 이런 며느리가 딱했던지 하루는 소래에 가서 빵장사를 불러 저쪽 소마차 있는 집에 가서 그걸 내려놓으라 하면서 빵을 사주신 적이 있는데, 최연옥 씨는 이것을 먹고 힘이 나 다시 빨래하러 나서기도 했다.

최연옥 씨는 누가 서모 시어머니 있는 곳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다고 한다. 본인이 서모 시어머니 밑에서 너무나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시어머니가 멀리 외부로 나가면서 이불을 빨아 놓으라 했다. 그런데 이불을 빨려고 보니 도저히 빨 수가 없었다. 이불이라면 원래 소창 같은 것으로 솜을 싸서 먼저 속을 만들고 그 위에 다른 겉감을 씌우기 마련이어서 이불 빨래를 할 때면 그냥 겉감만 벗겨서 빨면 되는데, 이 이불은 그냥 솜에다 겉감을 대서 꿰맨 것이어서 솜채로 빨아야 되기에 도저히 이불을 빨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빨지 못하고 그냥 두었는데, 서모 시어머니는 돌아와 이불을 안 빨아 놓았다고 야단야단하고 소리치면서 며느리 옷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가 머리를 아궁이 허당지 속으로 몇 번이고 쭈셔박았다 꺼냈다 했다. 최연옥 씨는 이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시어머니 때문에 찢어진 자신의 망사옷을 더 갈기갈기 찢어 담벼락에 걸쳐 놓았는데, 이웃 사람들이 보라고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시아버지는 이렇게 해서는 함께 살기 어렵겠다면서 부인과 딸을 데리고 따로 살림을 냈는데, 처음에는 고잔마을로 이사를 했다가 나중에는 영등포로 나갔다. 시아버지는 그곳에서 복덕방을 하면서 돈을 좀 벌기도 했는데, 서모는 남편이 돈을 벌 때는 잘 하다가 나중에 돈을 못 벌게 되자 아들네 집으로 내쫓아버렸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나중에 다시 구릉뿌리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올 때는 흰 옷가지들만 상자에 담아 사위가 지게에 짊어지고 왔다. 먼 후일 그쪽에서 서모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지만 시아버지는 내가 왜 거기를 가냐 하면서 가지 않았다.

(5) 6·25 때 군대 가서 죽은 시아주버님을 위해 영혼결혼식을 해 드리고

최연옥 씨가 시집을 오니, 시어머니 제사가 있었다. 시어머니를 본 적은 없었지만, 어린 아들들만 남겨 놓고 가시려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고 가여운 생각이 들어, 없는 살림이지만 인절미랑 떡이랑 해서 정성껏 제사를 지내 드렸다. 시어머니는 아들만 4명을 낳고 일찍 돌아가셨다. 막내를 낳은 후 얻은 후유증 때문이었다. 남편의 큰 형은 어머니가 없어서인지 6·25 때 지원해서 군대를 갔다가 사망했는데, 시신도 찾지 못했다. 국가에서 받는 연금은 시아버지가 받고 있었다. 막내 남동생은 엄마가 죽고 없었을 때인 서너 살 때, 설 익은 파란 참외를 먹고 배앓이를 하다가 죽었다. 까닭에 4형제 중에서는 남편과 바로 아래 남동생만 살아 있어서 최연옥 씨는 시동생이 하나 있다.

최연옥 씨는 결혼 후 처음에 자주 아파서 여러 번 곳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 번은 곳을 하니까, 6·25때 군인 나가 사망한 시아주버니가 무당의 입을 빌어 최연옥 씨한테는 “기수씨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부모를 맨겨 놔서, 기수씨한테 맨겨 놔서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아버지에게는 “왜 내 돈은 받아 잡수시면서 결혼은 안 시켜 주느냐”는 말을 했다. 최연옥 씨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 이리저리 주선하여 상골[상골마을]의 조씨 딸과 맺어[조정열 씨가 그제 우리 팔촌 언니라고 했다] 나중에 봉우재 절에서 시아주버니의 영혼결혼식을 해드렸다. 결혼식을 맡아 주관했던 스님은 계수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처음 보았다면서 고맙다고 했다. 그때는 워낙 없던 때여서 보따리를 여다가 팔아 마련한 돈으로 결혼식을 해드린 것이었는데, 돈이 좀 많이 들긴 했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그때 영혼결혼식을 해준 스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산소에 와서 염불을 해주었다.

“봉우재 가서 인제 결혼을 시키는데, 진짜 신발, 잠옷, 무신 뭐 하여튼 몽땅 속속들이 싹 다 현 거야. 근데 남들은 땀 거라구 땀 거루 하라 그러는데, 거기서두 땀 거루 하라 그러는데, 이왕 해주는 거 왜 땀 걸루 하나구 좋은 걸루 해드리라구 그래가꾸는 인제 그냥 입는 걸루, 비싼 거는 아니락두 조금 입는 걸루 해가꾸, 아주 속속들이 해서 절에 가서 진짜 결혼을 시켰어. 그랬더니 어떻게 결혼을 시키나했더니 짚으루다가 이렇게 사람을 맨들어. 여자 남자를 해가꾸 이렇게 해가꾸 또 절을 해서 결혼을 허구는 신방을 또 꾸며 주드라구 이렇게. 평풍 치구설랑 거기다 그러구는,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엮어 놓는 거야. 그렇게 한다. 그래가꾸설랑 결혼시켜가꾸 그랬는데, 내 맘이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야.”

(6) 가난을 벗어나고자 평생 안 해본 일이 없어

최연옥 씨가 처음 시집을 때는 시집이 집안에 된장도 간장도 없을 만큼 가난했다. 그러나 현재는 동네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을 했다. 남편은 군제대 후 한동안 소마차를 끌다가 후에는 부인을 도와 같이 장사도 다니고 했다. 그래서 함께 재산을 불리긴 했으나, 그녀는 한 번 집에서 편히 쉬어본 적 없이 평생을 밖에서 돌며 일해서 돈을 벌었다.

여름에는 채소를 심어 다발로 묶어 동차를 타고 소래나 인천, 송도 같은 곳에 갖다 팔기도 했다. 옛날, 수인선 동차가 하루에 세 번밖에 안 다녔을 때는 야채를 팔다가 막차를 놓칠 때도 많았다. 그러면 집까지 그냥 걸어오기도 했다. 겨울에는 농사일을 못 하니까 노가다나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아파트 공사장에 다니며 청소도 해주었다. 노가다판에서는 주로 나무 같은 곳에 박힌 못을 빼면서 돈을 벌기도 했다. 이런 날,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히면 걸어서 오봉산을 넘어 집에 오기도 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돈 벌었냐구?” 하면서 그녀는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옆에 있던 안오순 씨는 되려니까 그렇게 잘 붙어났지 하려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고생한 사람도 많다고 했다.

① 갯밭에서 캔 채소를 하루 두 번씩이나 내다 팔아

처음엔 농사지을 땅이 없어 개박, 갯둑, 염전땅 같은 곳에 시금치, 파, 콩, 호박 같은 농사를 지어 여기에서 난 것을 갖다 팔기 시작했다. 단호박은 찌서 네 쪽으로 쪼개 갖고 다니면서 팔았는데, 아주 잘 팔려서 돈이 많이 되었다. 처음에는 소래에 가서 팔기도 했지

만, 나중에는 수인선 기차를 타고 수인역에 내다 팔았다. 나중에 수인역이 없어졌을 때는 송도에 가서 팔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힘들었는데, 최연옥 씨는 힘이 좋아 하루에 두 번, 혹은 세 번 이런 일을 했다. 그것도 끼니를 굶어가며 등에는 아기를 업고, 머리에는 여든 단의 열무를 이고, 두 손에는 서른 단의 열무단을 들고 다니며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때는 너무나 없을 때라 아이들한테 옷도 못 사주고 얻어다 입히고, 자신은 굶는 것이 일수였다.

“쪼그만 기차 있을 때 기차를 타고 가야지. 걸어서 못가지. 그랬는데 그 기차에 사람이 엄청 많잖아. 저 수원서부터 오는 거니까는 딱 차버리니까는, 보따리는 디밀어놓는데, 사람은 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애를 업구 지붕꼭대기, 지붕꼭대기에 올라가서 탕기구, 그때 내가 좀 기운 췌어. 이 차 타는 것두 획- 타. 차를 잘 타. 진짜 아줌니 같은 사람들은 나 삼십 단 이는 거, 나는 80단을 묶으구 삼십 단은 들구가. 그래두 까딱 없이 가지.”

② 소래다리 건너다 중간에서 기차를 만나 죽을 뻔하기도

소래다리를 건너 물건을 팔러 갈 때, 한 번은 기차길 중간에서 기차를 만나 죽을 뻔했다. 이 일은 시집 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니까 서른 안쪽이었을 것 같다. 갯골을 건너 소래로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뱃값을 아끼려 철길로 건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다.

“뱃값 안 줄라구 이걸 건너가는 걸. 건너 가. 인제 갯바닥땅, 그 염전땅 뚝, 그거를 일러가꾸 거기다가 시금치, 파, 쪽파 뭐 이런 거를 심어가꾸, 지금은 역전이 여기 있지만, 옛날에는 소래다리가, 소래가 정거장이지, 여긴 정거장이 없었어. 그거를 구십 단, 팔십 단씩 해서 이구설랑 거기 다리를 건너가는 거야. 인제 그 전에 즈이 아버지[남편을 지칭]가 지구 오구 나는 이구 가는데, 차가 맞닥트린 거야. 가운데 가서. 가운데 가서 차가 맞닥트렸으니까 이리 가지두 못 허구 저리 가지두 못 허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악에 받치니까는 뭐 무서운 것두 읊어요. 그 무거운 보따리를 내가 내려놔. 내려놔어 그 철길에서. 그때는 송판두 안 깔았잖아. 그걸 내려 놓구는 어딜 내려갔냐면 그 똥그렇게 해 논데 있지? 똥그렇게 해 논데 (안오순 : 중간 중간에 기둥 췌네) 기둥 있잖아, 거길 내려갔어요. 거기. 사람이 죽게 되니까 겁나는 게 없어. 거기를 내려가꾸, 그러가꾸 그 보따릴 끄내서 거기루 내려는 거야, 그 보따리를. 끄내서 이러구[웅크림] 있었지 뭐. 이러구 있으니까는 차가 지나가는 거야. (안오순 : 세상에-) 저쪽에서 역수들이 그냥, 차는 오니까 이제 이쪽에서 즈이 아버지 악쓰

지, 인제 즈이 아버지는 소릴 질르구 난리가 났어 인제. 지게에다 지구 오면서. 그러면서 차가 지나가길래 이거를 위루 올릴래니까 못 올려. 내릴 때는 내렸는데. 내릴 때는 겁이 나서 내렸는데, 이걸 올릴래니까는 심든 거야. 근까 저기서 인제, 지게를 거기다 내려 놓구는 와가꾸는 올려주구는, 옛날에는 이렇게 철길에 송판을 안 깔아가꾸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야 돼. 이렇게. 그런 데를 그걸 되이구설랑 내가 건너간 거야, 거기를. 그랬더니 그냥 저쪽에 소래 그 다리턱에 많잖아 사람들이. 보구는 다 죽었다구 저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구 거기서 난리가 났었다. (안오순 : 맨 몸두 아니구.) 그래가꾸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그걸 이구는 팔러 가니까 소래 사람덜이 세상에 대단 - 허대.

그래가꾸설랑 나 한번 그렇게 죽다 살아났대니깐. 근데 악에 받치니까요. 심든 게 없어. 겁나는 게 없구.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덜이 날더러 억시대. 거길 어떻게 내려가? 아니, 그냥 있으면 죽으니깐 할 수 없는 거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그 기둥 신 데를 내려간 거지. 거기 가서 섰지두 못허구 인제 보파리 내려놓구, 보파리에다 엮드리구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인제 즈이 아버지가 저쪽에서 와가꾸 보파릴 올려놔 줘가꾸 이어줘가꾸 건너간 거야. 반 가가꾸 그랬으니깐. 그거 팔구 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식들 굶기지 않구 이때까지 맥여 살리구 집 사 주구 그랬잖아.”

③ 사기꾼 혼들이 오형제 잡은 이야기

시장에 물건을 팔러가면 시장에는 저울을 속여 물건을 조금 주거나, 저울눈을 속여 물건 값을 후려쳐 물건값을 싸게 사들이는 사기꾼들이 있었다. 이들은 친형제자매도 아니면서 무리를 지어 의형제를 맺고, 이 같은 나쁜 짓들을 하면서 폭리를 취했다. 당시 이런 사기꾼들 중에 ‘혼들이 오형제’라는 무리가 있었는데, 장사꾼 다섯 명이 서로 뭉쳐서 시골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후려 때려서 싸게 구입하고, 그것을 속여서 또 비싼 값에 팔아먹었다. 최연옥 씨는 집에 저울이 있어 물건을 달아 무게를 알고 가는데, 고추를 팔기 위해 이들의 저울에 달면 이상하게도 근수가 별로 안 나갔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저울 기둥에다가 뭐를 달아서 무게를 속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희들 뭐하는 거냐? 내가 그랬어. 너희들 뭐하는 거야? 아줌마들. 거기다 그런 걸 왜 대? 그러니까는 아니야 그래. 뭘 아니야. 그거 띠고 달아봐. 그랬더니 아닌데, 대봐. 대니까 안 나가는 거야. 이거 봐. (안오순 : 저울 다 속히고, 혼들이라구 일행이 있어. 다 때려잡는 거야.) 너 그렇게 해서 돈 벌어? 그럭하면 안 돼.”

그래서 다음부터 이들은 최연옥 씨 한테는 하나도 속이지 않았다. 소문나면 장사를 못 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물건을 팔러 다닐 때 키 작은 형님을 위해 대신 큰 짐을 지고 가기도 하고, 기차 안에서는 사람들이 기침을 할 때면 사탕도 까주면서 다녔다. 그런데 이처럼 남을 속이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웠다.

④ 어린 딸이 보리밥을 해놓아, 다음부터는 종종걸음을 멈추고

동차를 타고 다니며 야채장사를 할 때도 시아버지 식사를 해드려야 했기에, 최연옥 씨는 역에 내려도 걷지도 못하고 맨날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녀야만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맨날 뛰어다니냐고 묻기 일쑤였다. 그만큼 매일을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 하루는 인천을 갔다가 막차를 타고 집에 허겁지겁 돌아오니까 소학교에 갓 들어간 맏딸 인숙이가 보리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보리밥이 조금 설익어서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맛있게 잘했다. 이후부터는 딸이 매일 밥을 해줘서 막차를 타도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맏딸 덕분에 세상을 조금 편하게 살게 된 셈이다. 최연옥 씨는 생애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린 딸이 보리밥을 처음으로 해놓았던 날에 대해 세 번이나 이야기했다. 그만큼 이날의 감격이 컸던 것 같다.

⑤ 나같이 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연옥 씨는 스스로 나 같이 일 많이 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 했다. 후에 돈을 모아 땅을 샀어도 벼농사를 할 때 남을 사지 않고 스스로 다하느라 일은 끝이 없었다. 모내기나 김매기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확할 때는 마차에 벼단을 수없이 올려야 했고, 지게질도 끊임없이 해야 되었다. 그래서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 되도록 일을 했다.

(7) 내가 번 돈으로 땅을 다 사고

최연옥 씨는 언제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처음으로 땅을 산 적이 있다. 그날은 정말 이지 너무 기뻐서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기에 채소를 심어 팔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 후에는 이력저력 해서 땅을 사천 평까지 사게 되었다.

① 땅은 빚지고 사는 거야

어느 날 오촌 당숙이 와서 모래땅이지만 서마지기 났는데, 너 땅 살래 그래서, 개뿔도

없는데, 무신 땅을 사요. 난 돈이 한 개도 없는데 그랬더니, 땅은 빚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럼 한 번 해볼까요. 그럼 어디 한 번 해 보라. 그러면서 장리쌀 주드라구. 그래서 그걸로 인제 내가 번 돈으로 해서 땅을 서마지길 샀다. 사니까는 내가 인천, 그때는 막 땡기구 그랬으니깐, 그게 시간도 안 돼서 돈을 갚아버리는 거야 내가. 돈을, 장리쌀을. 그래니깐 노 인네는 또 재미있잖아. 반 가마씩 받는데. 그러니깐 연실 대주는 거지. 그래서 처음으로 땅을 사봤지.

② 친정에서 종중산을 팔아 준 돈과 금반지를 팔아 다시 또 땅을 사

그러다가 후일 또 땅을 사게 되었는데, 이때는 친정에서 종중산을 팔아서 나누어준 돈과 본인이 가졌던 금반지를 팔아 보태서 이것을 샀다. 최연옥 씨는 결혼 후, 친정 쪽에서 종중산을 팔아 돈을 준다고 해서 몇 번 친정을 다녀온 적이 있다. 가보니 여자들은 남자들의 반만 주었고, 남자들은 아들, 손자까지 다 주었지만 여자들은 당사자 하나만 주었다. 그래도 그때 칠십오만 원씩 세 번 준 돈이 당시로는 매우 큰 돈이어서, 이것으로 땅을 많이 살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돈이 되는 대로 조금씩 땅을 사 모았더니 결국 개땅이긴 하지만 사천 몇 평까지 사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서부터는 돈이 많이 들어 더 이상 땅을 살 수 없었다.

③ 쌀을 농사 지어 장리쌀로 나눠 주고

구능뿌리는 예전에 정말 살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은 먹을거리가 없어 동네의 어떤 집에서 쌀이라도 한 가마를 사면 그 집에 가서 쌀을 빌어다 저녁을 해먹을 정도였다. 쌀은 나중에 염전에서 일을 해 임금을 받으면 갚았다. 최연옥 씨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부터는 겨울에 사람들에게 쌀을 외상으로 주었다가 삼월이 되어 염전이 시작되면 받았다.

④ 개땅 사천 평이 기지창에 들어가 보상을 받고

달월역 주변에 기지창이 들어설 때, 최연옥 씨의 개땅 사천 평이 수용되었다. 그래서 보상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식들에게 터도 사 주었다.

(8) 내가 자식 교육은 엄하게 시켜

최연옥 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6남매를 두었는데, 지금은 모두 성장하여 혼인을 하고 가

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다. 또한 손주 15명과 진손주 5명을 두었다. 지금은 살림도 넉넉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자식들은 모두 마을 근처에 있는 장곡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런데 막내아들만은 교육을 잘 시키보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천으로 보냈는데, 초등학교는 학익국민학교를 졸업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최연옥 씨가 졸업한 학교와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모자는 동창생이 되었다. 막내아들은 인천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다 마쳤다.

최연옥 씨는 남편과는 별로 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아이들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을 무섭게, 그리고 엄하게 교육시켰다.

“내가 애들은 엄청 무섭게 길렀어요. 왜냐면 아무 것도 없는 집에 자식들이니까, 진짜 나 참 엄하게 길렀어 애들. 진짜 내가 눈 한번만 크게 뜨면은 얼씨구 어디가 꿈쩍들두 못 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우리 막내아들더러 그랬어. 엄마는 그전에 너희들을 너무 무섭게 길렀다. 없는 살림 하면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꾸, 그래서 잔정이 없다. 내가 인제 그랬더니 우리 막내아들이, 그래두 고맙잖아. 엄마, 엄마가 애들 무섭게 길렀으니까 애들, 딴 자리 앵구 제 자리 다 잡았잖아. 우리 막내가 딱 그러드라구.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아줘서 고맙다. 그랬지. 고맙잖아, 그 어린 게. 엄마 진짜 그래 그러지두 앵구, 엄마가 무섭게 길렀으니까는 형들이구 누나들이구 제자리 다 잡았잖아. 딱 그러는 거야.”

(9) 나이 칠십에 코암 수술을 하고

최연옥 씨는 70살 되었을 때 코에 암이 생겨 수술을 했는데, 2년 후 재발하여 다시 또 코 수술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15시간 이상에 걸쳐 얼굴과 코 등을 성형수술하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방광에 혹이 생겨 세 번이나 수술을 했다. 그래서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픈데도 현재는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밖으로 나와 매일 마을회관에 들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화투도 치고 화통하게 웃고 지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연옥 씨에게 그렇게 활달하게 사니까 산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울증에 걸렸고 죽었을 것이라 말한다. 그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조상님에게 소원을 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친 큰 수술을 하고도 아직 살아 있는 것은 시아주버님이나 시아버님, 시어머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살게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다.

최연옥 씨는 인생 살아오면서 애들 기르는 것과 애들 결혼시킬 때가 제일 기뻐다. 그리

고 저희들끼리 별어서 잘 사니까 그게 항상 기특하고 고맙다. 가장 슬펐던 것은 내 몸이 아픈 것이다. 이제는 몸이 많이 아프니까 돈도 필요 없고, 살림도 하기 싫다. 그래서 지금은 집안일은 둘째 치고 그냥 허허로이 다니고 있다. 요즈음은 사람은 돈도 필요 없고 그저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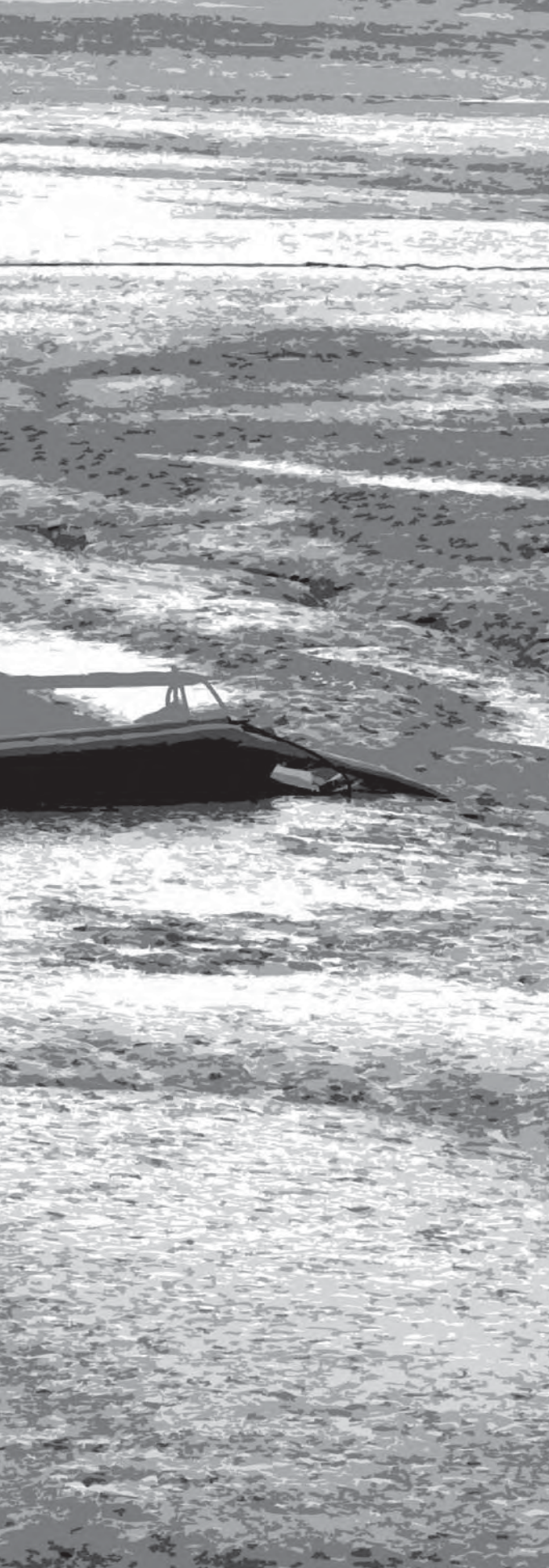
*** 부록 : 구능뿌리 마을에 대한 기억**

“예전엔 구능뿌리까지도 물이 들어와 이곳은 늘 질었다. 그래서 기집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었다. 마을입구에는 큰 서낭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나무가 아주 커서 사람들은 여름이면 나무 밑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더위를 피하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엄청 위했는데, 그래서 함부로 만지지도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떡을 해갖고 와 빌기도 하고 절도 했으며, 동정을 매놓기도 하고, 옷을 걸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돈도 놓고 갔다. 무당들도 와서 절하고 빌고 굿을 하거나 그랬는데, 동네에 살던 순영이 엄마라는 무당이나 안씨 무당도 그렇게 했지만, 지나가던 무당들도 그렇게 했다. 순영이 엄마는 나중에 사래이라는 곳으로 이사 갔는데, 지금은 죽고 없다.”

“한번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러졌다. 당시엔 나무가 귀했어도 아무도 이것을 가져다 때지 못했다. 그런데 교회 다니던 ○○이 아버지가 아유, 이까짓 걸 못 갖다 때 그러면서 갖다가 땀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파서 죽다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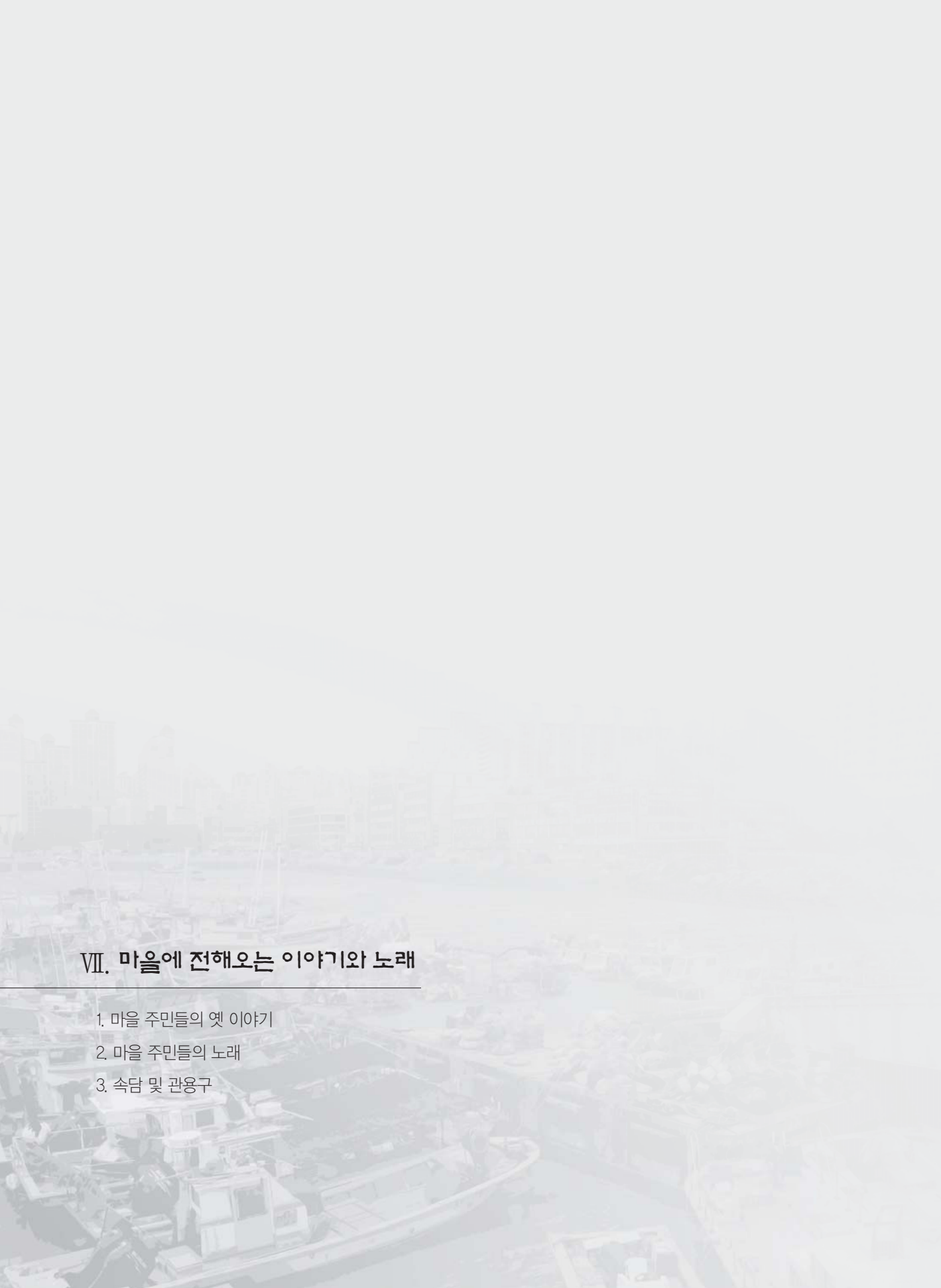
“약 50년 전인 1960년대 중반에 구능뿌리 마을에 불이 났다. 불은 현재 마을이 있는 곳의 건너편 쪽에서 났는데 이때 초가집 다섯 채가 다 타버렸다. 당시는 119 같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물론 고잔마을 사람들까지 양동이랑 바께스 같은 것을 들고와 불을 꺼주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고속도로로 길이 막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잔마을에서 보면 구능뿌리에 불나는 것이 다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때는 구능뿌리에서 고잔마을로 걸어오는 사람도 다 보였다. 마을에 불이 났을 때는 최연옥 씨네가 반장을 할 때라서 구호물품 같은 것을 이 집에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조정열 씨는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에서 다 해주지만, 그때는 전부 다 동네에서 도와주었는데, 어려운 시절이라 고잔마을에서는 쌀은 못 도와주고 고추장 된장 같은 것을 모아서 갖다 주었다고 했다.”





VII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와 노래

A faint, stylized background illustration of a harbor scene. In the foreground, several boats are docked at a pier. In the background, a city skyline with various buildings is visible under a hazy sky.

Ⅶ.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와 노래

1. 마을 주민들의 옛 이야기
2. 마을 주민들의 노래
3. 속담 및 관용구

VII.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와 노래

1. 마을 주민들의 옛이야기

여기에서는 마을별로 나누어 설화를 적어보기로 한다. () 속은 조사자의 말이다. 조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경우 () 속에 별도로 그 이름을 밝히기로 한다.

1) 월곶 1통·4통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2015년 8월 18일 오후 2시경 월동마을에 있는 월곶 1·4통 마을회관에서 박홍열(남, 80세, 마전 거주) 씨, 이인창(남, 84세, 월동 거주) 씨, 최승일(남, 74세, 마전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주) 씨와 월곶 1통장 최수환 씨, 그리고 월곶 4통장 강용석 씨 등이 있는 가운데 들려준 이야기다. 원래는 월곶 1통과 4통이 분리되어 있어 마을회관도 따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구가 줄어 마을회관을 하나로 합쳐 사용하고 있다.

박홍열 씨는 현재 마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 토박이이다. 군 제대 후 잠시 소래염전에서 일한 적이 있다. 1968년도에 마전·월동 마을의 이장을 하면서 고잔의 안영옥, 월동의 최재영, 마전의 최주진 씨 등과 함께 힘을 합쳐 1972년에 월동과 마전에 전기를 놓았다. 호롱불과 촛불로 지내던 마을이 전기불로 환해지자 이날 마을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징을 치며 놀았다. 1974년에는 새마을 지도자로 있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초가집을 없애고 지붕개량을 하였으며 하천 작업도 하고, 자발적으로 땅을 내놓아 마을길을 넓히기도 해서 마을이 아주 잘 사는 마을이 되었다. 그는 이때가 정말 살만했

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일로 시장·도지사·국무총리 등이 수여하는 새마을 훈장도 받은 적이 있다. 마전마을은 이제 개발의 바람에 밀려 토박이들은 거의 다 떠나고 혼자 남아 있다. 이장 13년, 통장 13년, 새마을지도자 13년을 지냈고 지금은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마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여러 편 들려주었다.

이인창 씨는 6.25 직후 부친과 함께 외가인 월동마을에 정착한 분이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옛날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옛날이야기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처음에 지관·명당·효자·호랑이·귀신·도깨비 이야기 같은 것을 들으러 왔다고 했더니 “이 동네에선 그런 거 이야기해 줄 사람 없어요.” 하시며, “저기 있는 웃음보따리 책이나 가서 가시라” 했다. 이 마을에서 전해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해서 모두 웃었다. 이인창 씨는 옛날이야기는 몰라도 살아온 이야기는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따로 이를 조사하여 마을 사람들 이야기(Ⅶ장)에 그 내용을 실었다.



왼쪽으로부터 최승일 씨 · 최수환 통장 · 이인창 씨 · 강용석 통장

최승일 씨는 이야기관을 도와주시느라 일부러 인천에서 이곳 마을 회관까지 와주신 분이다. 월동에 있는 경주최씨 종친회장을 지낸 적도 있다. 경주최씨의 먼 조상은 원래 월동마을에 터를 잡았었는데, 후손들은 차츰 인근 마을에 나뉘어 살았다. 최승일 씨는 월동 인근에 있는

마전마을에서 살았는데,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다 졸업 후 바로 대한제분에 취직이 되어 줄곧 인천에서 살았다. 그러나 농토를 비롯 생활의 기반이 이곳에 있어, 계속 이곳으로 다니며 농사를 짓고 있다. 새마을운동 시에는 달월에 있으면서 반장 및 이장 역할을 하며 마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최승일 씨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거의 매일 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마을 역사의 산증인이라 할 만큼 마을에 관한 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최씨 문중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여러 편 들려주었다.

최수환, 강용석 두 분 통장은 이야기관을 돕느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곳에 와 주셨다. 이 날 날씨가 매우 무더웠는데, 이런 더위를 무릅쓰고 이야기관을 마련해 주신 두 분 통장님과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제보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1) 수리미산의 명칭 유래

* 월동·통심·마전 마을은 수리미산을 뒤로하여 앞쪽과 그 옆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다. 수리미산은 보기에는 별로 높을 것 같지 않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인천과 서울이 다 보인다고 한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 산꼭대기에 올라 밤새도록 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수리미산, 그 내력이 수리의 눈썹같이 생겨갓구 수리미산이라구 그 내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미산이예요. 수리야, 수리. 수리-미-산. 수리의 눈썹 곁이 생긴 산이다 해가지구, 그 내력이 하여튼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최수환 : 수리의 날개를 폈다 그러드라구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응. 날개를 펴가지구. 날개 펴서 그래서 그 눈썹 곁이 생겨서 수리미산 -.” (박홍열)

(2) 도깨비와 싸워 이긴 상수네 형님

* 박홍열 씨가 1972년에 월동과 마전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여, 조사자가 그 이전에는 도깨비도 있었을 것 같다고 하며 도깨비 이야기를 부탁하자 들려주었다.

“(그 이전에는 도깨비두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없어졌지요. 인저 도깨비가 다 없어졌어요. 도깨비불이래는 건 지금 없어. 아니 그때부텀. 옛날에는 도깨비에 홀린 사람들두 많어요. 도깨비 저, 상수네 형님 그 양반 얘기를 허면, 그 양반이 인저 꼽추린 분이에요. 저 좀 이런 분인데, 상굴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에 가 가지구 낮을 버려가지구 밤에 오는데, 통심 이래는 데를 오다가, 통심이가 요기 있잖아요 인저. 아, 누가 불을 가지구 마중을 나오더래, 날은 흐렸는데. 그래 불이 왔는데, 이쁜 여자가 불을 켜가지구 와가지구 길을 안 비켜주드라 이겨야 서루. 그래 비켜라 그랬드니 안 비켜준다 그래갓구 거기에서 씹을 한 거야 인저. 그 여자허구. 근데 이 양반이 이겨가지구 그 여자를 붙잡아가지구 집이를 온 거예요. 집이를 와가지구 대문을 열구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 하나 잡아갓구 왔다 그래서, 인제 쥘들이 문을 열구 내다보니깐 어디서 빗자루 하나를 들구 왔드래. 그게 그런 도깨비루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빗자루 이런 걸 내빌구 그러믄, 그게 도깨비루 되가지구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내가 아주 바루 우리 옆에 집이기 땀에 그건 알구 있어요. 거 어서 빗자루 하날 들구 와가지구 그걸 도깨비허구 싸워서 이기구 도깨비 잡아갓구 왔다 그러구 (이인창 : 옛날에는 많았지. 그런일이.)” (박홍열)

(3) 도깨비에 홀려 자전거를 버리고 온 우체부

* 앞의 이야기에 이어 바로 들려준 것이다.

“옛날에는 우리네두요, 내가 이장을 볼 때요, 그 미륵고개라는 데를 넘어와야 돼요. 저, 군자면에서 인 저 회의 허구 뭐 어떻게 술 한잔 먹구 그러든가 친구들 허구 어울리다 보면. 그러며는 거기가 치부가 있었어요. 저 배달부 치부두 거기서 자전거체 내빌구, 목언산에서 도깨비한테 홀려서 갓다 내빌구 그냥, 밤새두룩 해매다 오구 그런 데가 있는데, 나두 거기를 와야 되잖아요. 인저 집엘 올래믄. 그러며는 그냥 뭐 앞에서 벨 일이 다 벌어지는 거야. 불두 왔다갔다 그래구, 사람두 왔다갔다 그래구. 그냥 땅바닥만 디려다 보구 그냥 어힘-어힘-대면서 그냥 오는데, 전지는 있었어요. 그걸 하나라도 들어야지 그거 없으면 그나마 못오잖우. 그걸루 그냥 길만 비치구 그냥 오는 거예요. (혼자서요?) 그럼요. 혼자서 인저 이장회의 끝나구. 그러는게 있는데 인저 삼밭이에서는 마전에서는 인저 도깨비에 대한 게 있어갓구, 그 배달부 이름이 뭐죠? 그 양반이 그렇게 도깨비에 많이 홀려서 자전거두 내빌구 오구 (지금 살아계세요? 그 분요.) 돌아갔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청중 : 주유소 옆에 있는 곳이에요.)” (박홍열)

(4) 미륵고개와 대추마루 지명 유래

* 앞의 이야기에 이어 들려준 것이다. 미륵고개와 대추나무 이야기는 상곡에 사는 남문현 씨도 해 주었는데, 내용이 비슷하여 따로 적지 않는다. 남문현 씨는 대추를 실은 배가 중국배라고 했다.

“미륵고개는 옛날예요, 바닷물이 여길 와 가지고, 미륵고개를 요렇게 미래질루 밀구 넘어 오구 대춧마루 있죠? 대춧마루는 그때 그 물들어 올 때 대춧배가 거기 와 가지구 거기서 까 퍼가지구 대춧씨가 떨어져서, 대춧마루에는 대추나무만 짝 있어요. (지금두 대추나무가 있

어요?) 지금두 대추나무두 있지요. 그래서 인저 그런 내력으루다가 인저 마전이 있지요.
(최승일 : 요쪽 월곶리가 다 바닷물이 들어오던데 아니예요? 여기가. 여기가 다 바닷물이 들어오구, 그 미륵고개 너머 쪽에도 바닷물이 들어오던 데라 그러드라고요. 그게 인제 옛날 사람들이 미륵고개를 넘어갈래면 배를 밀구 넘어갔대. 배를. 배를 밀구 넘어가서 미륵고개라구 이름이 지어졌다라구 그러드라고요.)”(박홍열·최승일)

(5) 수리미산 명당

* 동네에 명당이 있는지를 물어보니 들려주었다.

“수리미산 명당? 그런 얘기는 있어요. 우리가 여기 최씨네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 한 250년 내지 300년 전에 그 한양에서 인제 정승이 죽었는데, 그 지관을 풀어서 명당을 찾으라 그래서, 이쪽으로 지관이 온대는 얘기를 듣구, 우리 집안네들이 요기가 명당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어른신들이 우리 종산 있는 데가 명당 있다 해서 찾아오니까는 가묘를 써놔어요. 가묘.

그래서 저쪽에 저 뭐야 포리, 포동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는 명당은 명당인데, 그 묘를 써서 인저 도루 갔대는 전설은 있습니다.”(최승일)

(6) 여자들을 바람나게 하는 수리미산의 부엉이 바위

* 앞의 이야기에 이어 바로 들려주었다.

“또 하나 전설을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수리미산에 부엉이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엉이 바위를, 제가 이장을 볼 당시에 함마 소리가 나구 와서 깨트리는데, 저 새오개에, 저 건너 새오개라구 배를 부리는 사람덜이 많아요. 거긴 뱃사람덜이 살아요. 거기서 여길 건너다 보면 뻥히 보여요. 여기 수리미산 여기 꼭대기가 있는 거. 근데 왜 와서 그 사람덜이 와서 밤에 징이루 이걸 깨트리구 하느냐, 인저 그제 뭐냐? 거기 인저 배를 가지구 나가면 여자들 혼자 있는데, 그 여자들이 죄 바람이 난다 이거야.

바람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서 여길 건너다보면 여기 부엉이바위가 뻥히 보인데. 해가 뜨면서 여기가. 그래서 그 바위가 없어야 되구,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거기서

인저 말이 돌아서, 그 사람덜이 와서 이걸 징으로 깨뜨렸어요. (진짜로 깨뜨렸어요?) 아, 진짜로 깨뜨렸지요. 와서덜. 그래가지구 지금 저 거기가 정수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수장에 의해갖구 지금 그게 아마 없어졌는지... 근데 무척 큰 바위예요. 엄청 크게. 왜 그런 얘기는 여기 우리 마전 월동, 옛날에는 월곳 1·2리지. 전설이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 뱃사람덜 그래가지구요, 이거 와서 그 사람덜이 징으루다가 이걸 깨트리는데 또 마을에선 그걸 왜 깨트리냐 못 깨틀게 허구 그랬어요. 옛날에.” (박홍열)

(7) 달빛에 광이 비치면 여자들이 바람나는 비

* 앞의 이야기에 이어 바로 들려주었다.

“그 내용[(6)의 이야기]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종산에, 한 150년 전 애길 꺼야. 150년 전에 영자 규자 래는, 그 우리 선조가 훈련원 판관 벼슬을 지내셨는데, 그 묘 앞에 비를 세웠어요, 비.

그 앞에 비를 세운 후에, 인제 달밤에 저쪽 그 새오개라고 그러는데, 그 쪽에서 여길 보며는 달빛에 그 광이 비치는 거야. 그런 연유루 해서 뭐 동네사람덜이 바람이 나네 뭐 어찌네 여자덜이, 그런 얘기는 우리 선조들한테 구전으로 내려온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를 씨러트리고 갔어 그 사람덜이. 그래서 그거를 그 옆에다 묻었거든. 제가 2012년도에 그걸 발굴했어요. 비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할라구. 그런데 끄내서 보니깐 있어. 그래서 다시 그걸 세웠습니다. 깨튼 자리두 있어. 깨튼 자리두. 그래 그대루 다시 복원시켜 났어요 제가.” (최승일)

(8) 후손이 번성할 명당에 묻힌 조상님

* 앞의 이야기가 끝난 후 잠시 쉬게 되어, 유명한 지관 이야기는 없는지 물었더니 곧이어 들려준 것이다.

“우리 문중에, 이젠 한 450년 역산데, 우리 최씨 문중이 한 450년 가까이 됩니다. 여기 정착한 지가. 당시에 인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언을 하면서, 나는 이곳에 묻고, 너는 죽으면 요기다 물어라 이렇게 자리를 정해 줬어요. 그, 니가, 너가 죽어서 묻힐 자리는 상당히 오

랜 동안에 그 제사를 받아먹을 자리다. 그리고 본인이 묻힌 자리는 후손이 많이 번창할 자리다 래는 말을 남겼대는 그런 전설은 있습니다. 그게 전설이죠.

그래서 우리 최씨가 상당히 많이 번성을 했지요. (그럼 몇 대까지 되었는데요?) 16대 정도 됐습니다. 16대. (그럼 경주최씨세요?) 예. (그럼 처음 여기에 입도하신 선조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만 자 령 자 할아버지라구. (이 분이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오시게 됐대요?) 그 양반이 오시게 된 동기는 임진왜란 당시에 피란온 것으로 사료가 돼요.” (최승일)

(9) 월곶 경주최씨 파보를 작성한 진사 최성휴

“최근에 한 100년, 120년, 그때 정도에 진사를 지내신 분이 계시죠. 성휴 씨라구.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최성휴. 그 양반이 유일하게 이 월곶을 주축으로 하는 파보래는 것이 있어요. 파보. 1897년 당시에 인제 만든 자손록이죠. 자손록. 고런 건 있습니다. (이인창 : 그 분이 절손을 허셔서, 아들을 못 나가지구서 절손을 하셨어요. 그 분이 바로 우리 외할아버지지 뭐야.) (아, 그 연고로 이쪽으로 오시게 되었군요?) (이인창 : 그렇다구두 봐두 되지요.)” (최승일)

(10) 마전의 찬우물에 관한 이야기

* 새마을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것으로, 설화는 아니나 마전 마을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이야기라 생각되어 기록하기로 한다.

“그러구 인저, 여기는 수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새마을사업으로 월동에서는 수리미 산 요기 중턱에다가, 여긴 통장이 관리허구 땀지만, 해서 그걸 마을로 끌어내려서 집집이 수도루다가 다 음료수루 먹구, 우리 마전은 찬우물이라는데가 있어요. 찬우물. 너무 차서 찬우물이야. 사람이 들어가며는 오래 있질 못해요. 찬우물에서 낚시터 마전 글루 해서 끌어내려서 또 집집이 대가지구 먹구, 또 저쪽 건너두 또 역시 고 악골에서 대서 먹구 이래서, 그렇게 해서 수도루 먹구, 지금두 먹구 있어요. 그런데 인저 우리 마전은 지금 현재 수도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구 수도루 돼서 지금은 사용 안 하지만 월동은 아직두 통장이 관리허구 먹구 있어요 여긴. [중략]

(그럼 여기 찬우물이 있었다는데, 그 우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뭐 좀 있을까요?) 그 우물은

왜 찬우물이라 그러냐면요. 그 우리가 인저 여름에 어려서두 목욕을 가요. 그러면 빨가벗고 들어가면 얼마 있지두 못허구(최승일 : 꼬추가 뺨데기가 된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꼬추가 요만해지구, 그래서 꼬추가 삼분의 일로 줄어붙는 찬우물이라구덜 그랬어요. 들어가며는 이만허끔헌 사람들두 들어가면 요만해져가지구 나와요.[모두 웃음](그럼 그 우물은 돌로 쌓은 조그만 우물이 아닌가보죠?) (이인창 : 사방으루, 이렇게 약간의 수영 조끄맏게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런데 거기서 나는 샘물루다 그 아래 농사를 또다 베풀었어요. 물이 엄청나게 잘 나요. (그럼 찬우물이 지금 마전저수지 같은 게 된거예요?) 마전저수지는 월곶동 논을 개량을 하면서요, 그 저수지를 거기 막았어요. 나부텨두 땅을 뺏겼지만. 그래가지구 거기다 맨들어서 이 알로 농업용수루다가 마전뉘시터, 마전저수지에서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저 거기는 농지계가 조직돼 있어서 그 농지계장이 최수환 통장이 보구 있구, 그래서 거긴 마전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여긴 농사를 다 짓구 있어요.”(박홍열)

(11) 삼발이의 지명 유래

* 마전, 통심, 별감[별가메]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들려준 것이다.

“삼발이는 원래 삼발이가 샘발이야. 샘이 많이 나서 샘발이...
(그럼 여기가 베짜는 삼[麻]을 많이 농사지어서 삼발이라 그런 게 아니예요?) 삼발이 있긴 있었어요. 베 하는 삼, 삼발이 많았어요. 여기가. 이 동네에. 그래서 삼발이라 그랬는지 하 여간 유래는 그렇고, 원래 샘두 많이 나. 물이 많이 나서, 샘이 많이 나서 샘발이라 그러지 않았나....”(최승일)

(12) 통심과 별가메의 지명 유래

* 마을 이야기가 나와 통심과 별가메는 왜 그렇게 부르게 되었나를 물으니, 박홍열 씨가 시흥문화원의 민병섭 이사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며 전화를 해서 물어봐 준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들려준 것이다.

“지금 전화해 봤더니 내가 살면서두, 내가 통심에 사는데, 통심이는 월동하구 삼발이허구

중간에 있어가꾸 통해서 서루 왔다갔다 그래서 통한다 해서 통심이라 그래구, 별가메는 마전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어 별도로다가 있기 땀에, 옛날부터 그렇게 돼가꾸 별가메라 그런 대요. 옛날에 별도로, 여긴 아주 외지긴 외지거든요.” (박홍열)

2) 월곶 2통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월곶 2통에서는 옛날이야기를 채록하기가 어려웠다. 마을회관을 네다섯 번 이상 들었는데 매번 문이 닫혀 있어 마을 주민들을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름에는 밭일을 하시느라 마을회관에 거의 모이지 않고 겨울에나 모이기에 여름에는 거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월곶 2통의 조원열 통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해주실만한 분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자 상곡마을에 사시는 남문현 씨를 추천해 주었다. 그래서 이 분을 만나 전해져 오는 이야기와 생애사를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 기록하는 이야기는 모두 남문현(남, 90세) 씨가 들려준 것이다. 남문현 씨는 2015년 7월 22일(수)과 7월 28일(화) 두 번 만났다.

(1) 안산 서곶은 피란 곳

“안산 서곶은 일본놈두 못들어 오구 공산당두 못들어 오구 그런 데야 여기는. 인민군도 못봤구. 여긴 그런 데야. ‘안산 서곶은 피란 곳’이라구 그랬어 여기가. 소래다리를 끊구 나면 인민군이 들어오지를 못 허는 데야. 여기는 그래서 인민군들두 구경 못헌 데가 여기야. 월곶이야. (그럼 아주 좋은 곳이네요?) 옛날에는 좋은 곳이었지 그럼. 저쪽으로 가면 배 타야 인천 가구, 이쪽으로는 걸어나가야 헐텐데, 어디 뭐 걸어나갈 데가 어딴어? 그러니까는 갠혀 살다시피 현 거지.”

(2) 달월마을, 월곶의 지명유래

* 달월마을은 한자어로 하면 월곶동인데, 월곶이란 말은 육지에서 바다로 내민 모습이 마치 반달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여기는 바닷가가 돼서, 밤이믄 그래서 달월 열두 동네에서 월곶은 밤에 일들을 많이 했어.

밤에. 왜 그러냐 하면 해가 어둡고 물때가 들어오면 배가 들어오고 뭐 곡식을 실어가도 밤에도 일 허구 그러니깐 늦도록 일들을 허구 그랬지요. 그래서 달월마을이야.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고생했지. 그런데 우리두 왜정놈들 적에 고생했지. 저녁이든 가마 짜야허구, 가마 짜서 왜놈들이 저 원곡역이라구 해서 기차 생긴데 저다가 쫓지. 그래서 거기서 팔았지. 팔아야 뭐 돈 뭇폰 받어? 강제루다가, 좌우간 왜정 때는 왜놈들한테 고생당한 거지 뭐. 어려서 그랬구.”

(3) 구능뿌리의 지명유래

* 달월 마을 열두 마을에 관한 이야기 도중 들려준 것이다.

“뭐야, 구능뿌리라구 하는 곳이 요 아래 가면 있어. 구능뿌리가. 거기 서낭당이 있어가지구 뭐 해서 매달고 그랬는데, 그때 인제 거기 배터이 있구 그랬거든. 배터. 나룻배 그제 거기 지 땡기면서 저걸 한 거야.

구능뿌리라는 것이, 구능이 옛날에 능이 있었대는데,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쪼끄만 능이, 애 무덤이라두 임금님 저거하면 능 아니야? 그래서 구능뿌리라 그런 거야 거기. 구능뿌리. 괜히 동네 이름이 그냥 생긴 게 아니야. 구능뿌리야. 거기에 쪼끄만 능이 있었대는데, 우리는 모르겠어. 그래서 동네가 구능뿌리야.”

(4) 궁골의 지명 유래

“여기 궁골이라구 있어. 궁골이라는 동네는 궁에서 살다가 인제 뭐야, 내시가 오구, 궁에서 살던 여자들이 와서 집을 지어가지구 살다가 내시 양자해서 살다가 그런 데가 있어. 궁골이라구. (아, 궁골이요?) 그래 궁골이야 거기가. 그 여자가 와서 살아서. 그런 게 특별하지. 그래 여기는 내시 산소가 지금두 있어. (어디예요?) 요기. 궁골은 얼마 안 돼. 여기서.

(그럼 내시가 계속 많이 와서 산 거예요?) 아니, 궁에서 살던 여자가 내시를 양자해서 살구 그랬지. (그럼, 여기 궁골이 아주 내시촌이네요?) 내시촌이 아니라 궁녀가 와서 살았어. 궁녀가. 그래서 동네 이름이 궁골이야. (아, 내시가 산 게 아니라 궁에 있던 여자들이 와서 살아서 궁골이예요?) 궁에 있던 여자들이 와서 살아서, 그래서 내시를 양자해다가 살구 그랬어. 얼마 안 돼. 내시를 양자해서 산 지가.

궁에서 온 여자가, 궁에서 저, 쓰질 못하니까 늙은이들을 내쫓잖어? 그래서 여기 와서 살았어. 그래서 내시를 양자해서, 그래서 여길 궁골이라 그런 거야. 요 동네를 궁골이라 그래. 조 통장 사는 동네 고기 앞에, 조 통장네 지금 묘막 지어논데, 2층인가 지었지? 고 앞에 그게 궁녀들이 살던 데야. 내시가 살던 집. (그런데 궁골 거기가 내시가 와서 살았다고 다들 그러시던데요.) 그럼. 내시가 살은 지가 얼마 안 돼. 지금 거기가 내시 아들이, 내시가 양자해가지고 살다가, 삼촌이 내시구, 와서 살다가 그 집 가지구 그저 있다가 판 지가 얼마 안 돼. 그래 통장이, 조씨네가 거기다가 묘막 진 거야. (그런데 다른 데서는 궁녀가 나와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내시가 와서 살았다는 이야기만 해서요.) 그래가지구 호를, 거기 를 궁골이라구, 마을이름이 궁골이야. 궁에서 나온 여자가 산 건데 내시를 양자해서 (부인 : 사람이 여태 살어. 지금 다 없어졌어. 집두 다 헐어가구. 거긴 그래도 오בות해.) 뭘 오בות해? 그걸 지금 조씨네가 묘막 지었대니깐. (부인 : 그래도 궁골은 집이 없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궁골이야. 동네가 뭐 괜히 궁골인 줄 알어?”

(5) 마전의 지명 유래

* 예전에 마전마을의 두레패가 유명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마전마을 지명 유래가 설명되었다. 이야기를 마칠 즈음, 옛날에 마전 마을의 두레패가 경복궁에 가서 3등인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그 똥땅패 만들어서 서울루다가 가서 일 하구, 그 노역시킬려구 데려간 거야. 똥땅패 맨들 어가지구. 그 전에 노인들이. (아, 농악대 같은 거요?) 농악대 맨들어서. 그래서 천하지대 본이란 대 해서 서울루 가서 일 허구 오구 그랬지. (서울 어디까지 가서 일 허구 와요?) 그 궁에 일 허루 간 거지 뭐. (궁에요? 경복궁요?) 그럼. 경복궁 일 허러 가는데... (여기서 경복궁까지 일 하러 갔어요?) 그럼. 그 얘기만 들었지. 난 갔다 온 건 모르지. (어느 마을에서 갔다왔을까요?) 마전이라구 있어. 마전. 거기 사람들이 제일 먼점 시작을 해가지구 갔다왔다구. 난 얘기만 들은 거지 뭐 다른 건 몰라. (거기는 분명히 삼을 많이 농사를 많이 지었을 거 같은데요.) 삼밭이야. 삼밭. 왜 마전이나 하면 삼 마자 밭 전자 마전(麻田)이야. 그래 거긴 삼을 심었던 데야. 마전이야. 그래서 마전이야.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농악 같은 걸 많이 해서 경복궁 짓는 데까지 갔다 왔단 말이죠?) 이 넘어서 몇이서 갔다 왔지. 뭐 저거 받구오구 그랬지. (뭘 받아왔대요?) 그거 똥땅

하는 거, 천하지대본 하는 거 받아가지구 왔구. 그런 게 역사에 남는 거야 그게. (그럼 삼 농사 지으면서 노래도 많이 하고 그랬겠어요?) 그럼, 노래두 많이 하고 그랬지. 삼베도 짜구 그랬지.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구경두 못했지. 노래두 모르구.”

(6) 별말의 지명 유래

* 염전과 관련해서 여기 바다가 있었으니 도깨비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다고 하자 들려준 이야기다. 벼말을 말할 때 벼의 받침이 ‘ㅅ’ 인지 아니면 ‘ㅈ’인지를 여쭙어 보았더니, 본인은 그냥 왜정 때 배워서, 국문을 못 배워서, 받침은 잘 모른다고 하셨다. 그런데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저, 민중서림, 1981, 1478~9쪽 참조] 을 참조하면 ‘ㅅ’받침이 맞다. 여기에 보면, ‘벼’은 염밭에 걸어 놓고 소금을 굽는 가마를 말하며, 염밭에서 벼를 걸어놓고 소금 시설을 하여 놓은 집을 ‘벼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문현 씨의 벼 발음은 ‘벼’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옛날엔 염전을, 지금은 이렇게 맨들지만 옛날에는 벼를 맨들어서 소 가지구 갈어. 갈어가 지구 소금물을 퍼다가 이 물을 퍼다가, 갯벌물을 퍼서 놔두며는 자꾸 졸잖아. 그러면 간이 생겨서 물이 짜지지. 그래서 간을 맨들어서 그걸 끌어 모아서 가마에다 놓구서 불을 때서 하는 건데, 염전에 저 뭐야. 염벚이 있어가지구, 그 전엔 염전에 소루다가 땅을 갈아서 물을 대서 그 소금물을 받아가지고 불을 때서 쫓아. 그게 염벚이라는 게 있어. 그래 저 동네를 벼말이라고 그러지. 벼말. 그 벼말이 괜히 벼말이야? (그럼, 왜 벼말이에요?) 벼를 맨들어서. 그게 벼이야. 벼. (벼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벼이 뭔가 모르면 교육비를 내. (네, 교육비로 다음에 막걸리 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벼이 뭐예요?)

아니, 염벚은, 소금을 지금은 태양열 받아서 했지만은, 옛날에는 그걸 밭을 소루다 갈어. 갈어가 지구서니 거기다 물을 이렇게 끼얹어서 그걸 태양열에 졸여가지구, 그걸 받아가지구, 인저 받아가지구설라니 소금을 고는 거야. 그게 벼이야 벼. 그런 거두 있었어. 그게 시작이야. 이게 염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벼를 했었어. (그러면 여기서 소래염전을 크게 하기 전에 벼말에서 소금을 만들었네요.) 그럼. 그걸 왜놈들이 들어와 그걸 다 뺏구 그렇게 해서 저거 헐 거지. 그러니까 저기 동네는 별말은 그거 허던 사람들이 살아서 벼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별말이 왜 별말이야? 그런 게 역사에 남는 거야. 소금마을이야. 별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걸 갈아 놓구 나서 비가 오며는 “남양놈 메로 일 한다.”구 그래. 남양에서는 그렇

게 소금을 땀는데, 남양놈이란 헛일 한다는 거야. 남양놈이 왜 남양놈이야? 남양은 그렇게 해가지구 한 열흘이구 스무날이구 그렇게 해서 갈아서 허다가 비가 오면, 쏘나기가 오면 그냥 두니까 그게 맹물이 되구 말잖아. 거기는 가마에 불 때서 벗을 안 맨들어.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맹물이 되고 마니깐 고생만 많이 하고, 헛일 헛 거지. 그래서 비가 오면 남양놈 메로 일 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남양놈의 일이야 그게. 헛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받아서 한데다 땀 놓았다가 그걸루다가 끓여서 (아, 그러니까 가마에 끓여서 만든 소금이 벗이란 말이죠?) 별말에서 소금을 맨들어서 인제, 그런 소금을 팔러 다닐 제 또 그걸 여기서 지구 땀기구 이 저 뭐야, 그래서 팔러땀기구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속담 같은 게 있네요. 남양놈들 일 한다는 거요.) 남양놈이 일했다 그러잖아. 헛일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 허며는, 내가 어디서 저 보름이구 며칠이구 날 가물 때 일해 났다가 그것 두 뭐 걷어 들이기 전에 비가 쏘나기가 쏟아져서 이게 다 맹물이 돼버리구 하니까는, 쏘나 비 오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양놈이 일했다는 거는 헛일했다는 거지. 헛일. 그거 뭐 하기 전에, 그걸 모아서 가뒀 놓아야 할 거 아니야? (그걸을 모았다가 인제 불을 때 가지고 소금을 만든 것이 벗이란 말이죠?) 게 그러던 동네가 있어. 벗말이라고. 그래 벗말이야. 달월 열두 동네가 그래서 열두 동네가 생겼어. (아, 요 동네 별말요? 그게 그래서 별말인 거예요?) 그럼. 길 건너 저쪽으로 가면은 별말이라구 있어. 몇 집 살어 지금두. 그게 벗말이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살아서 그게 별말이야 그 동네가. 그쪽 건너가 염전이었구. 그래서 동네가 생기는 거지. 동네가 왜 생겨?”

* 달월 열두 마을 이름 중에 별말이라는 이름이 있어, 마을주민 설명회에 즈음하여 마을 분들에게 별말의 뜻, 혹은 유래를 물어보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런데 남문현 씨로부터 앞서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되었다. 8월 18일 월곶 1·4통 마을회관에서 설화를 조사할 때, 이곳에 있던 박홍열·이인창·최승일·최수환·강용석 씨 등에게 별말의 유래를 물었더니 모두 모르겠다고 하여 남문현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모두 신기해했다. 이런 이야기 끝에 이인창 씨와 최수환 씨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① 이인창 씨 제보

“그래서 여기서, 마포 제염소가 이건 성유씨 따님이지, 외할아버지, 우리루 말하면 이모님이, 그 제염소를 했잖아. 거기선 가마를 끌구서, 거기서 때서 제염소를 맨들어. 그러니까

그 유래가 인제 생각이 나네. 내가 여기서 끓였대는 소리 들었어…. 그건 거긴[별말을 의미함] 지는 몰라두, 소금을 처음에는 염전이 아니고 가마에다 졸여서 만들었다는 거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② 최수환 씨 제보

“이 동네 사람치고, 염전에 안 다닌 사람은 거의 없다. 옛날에는 근로자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소래염전에서는 근로자날 보다 단오 때 행사를 최대로 크게 했다. 이 날은 모두 하루 실컷 먹고 놀게 했다. 소래염전은 처음에는 갯벌 흙에다 그대로 바닷물을 부어서 만드는데 토판으로 생산하다가 후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 즉 껌파리를 바닥에 깔고 소금을 만들었고, 맨 나중에는 타일을 바닥에 깔고 만들었다. 그런데 타일을 깔고 만든 소금은 단맛이 없고 아주 썼다.”

3) 월곶 3통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월곶 3통 설화는 고잔마을에 살고 있는 안종륜(남, 73세)·조정열(여, 77세)·안오순(여, 79세) 씨로부터 들은 것인데, 모두 월곶 3통 마을회관에서 들었다. 고잔마을은 원래 순흥안씨 집성촌이었고 경관이 뛰어났었는데, 1996년 소래염전이 문을 닫은 후 영동고속도로 및 제3 경인고속도로 건설, 월곶 배곶신도시 건설 등으로 마을이 도로로 둘러싸이는 등 급격한 변화를 맞아 원주민들은 거의 고향을 떠나고, 현재는 순흥안씨 20여 호, 타성이 15호 정도 살고 있는데, 공장도 많이 들어와 있다. 마을 산마루 너머로 원래는 서해가 훤히 보여 낙조가 아름다웠었는데, 현재는 배곶신도시에 지어진 수많은 아파트에 가로막혀 바다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1) 안종륜 씨의 설화 자료

월곶 3통의 이용민 통장님에게 마을에 이야기를 잘 하는 분이 계신가를 물어보니 안종륜 씨를 추천해 주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2015년 7월 7일 오후에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안종륜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안종륜 씨는 고잔 태생이지만, 군자중학교를 졸업한 후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제대 후에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93년도에 귀향해서 현재까지 20여년 간 고향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으며

가까운 안산에서 경비일도 하고 있다.

역사적인 이야기는 주로 둘째 큰아버지, 즉 중부인 고(故) 안궁옥 씨로부터 들은 것이라 한다. 중부는 한학에 밝고 명필이었으며 두뇌가 명석하고 못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을 지낸 이제형 씨와 친구지간이었고, 군자면 금융조합에 다니기도 했다. 중부의 큰 아들, 즉 안중륜 씨의 사촌은 동양화가인데, 이당의 수제자로 향산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다. 중부는 6~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워낙 아시는 것이 많아서 만약 살아 계셨으면 아주 많은 옛날이야기를 해주셨을 것이라 했다. 안중륜 씨는 「君子·秀岩의 鄉土史」·「達月 이야기」(2010년)라는 소책자를 엮기도 했다. 내용은 주로 중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억해서 적거나 족보를 참조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고잔마을을 포함한 달월 마을 내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아는 분으로 통하고 있었다.

① 군야미산의 명칭 유래

“우리 마을에 뭐 특색은 없고, 특징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인제 옛날에 여기가 서해바닷물이 들어왔잖아요. 요 산 너머루.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글루 그 도적, 해적이라 그러나, 해적은 아니구, 도적들이 들어와가지구, 쪼끄만 배를 타가지구 들어와가지구 배를 대구서 여기서 도적질해가구, 많이 그래서 인제 여기서 우리 부락에서 무관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관. 문관이 아니구. 그래서 인제 무관벼슬을 한 사람들이 좀 몇 분 있어요.

그 이게 산 자체가 군사 군자를 써가지구 군야미산이라 그래요. 군야미. 그러니까 군사 군(軍) 자 하구 밤 야(夜) 자. 군야미산. 그런데 지도에 보든 둔배미라구 나와요 여기가. 둔배미산이라구 나오는데, 고것두 잘못 된 거야. 이게 산이 군야미산이에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족보를 보면, 족보에 이제 군야미산이라구 나온단 말야. [족보를 보며] 산이 여기 우리 동네가 본향산, 알름산, 군야미산 요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 묘, 군야미산 등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를 테면 ○○이란 사람이 생부가 요렇고, 이게 인제 요 때 죽었는데, 묘는 군야미산등에 있다. 그래서 인제 군야미, 군자 군 자를 써가지구. (그러면 둔배미가 아니라 군야미산이라구 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군야미산이 맞는다. 둔배미라구 나와요. 지도에 보든.

(그럼 군야미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군인들이 야경을 봤던 동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진지, 진지를 군사적으루 진지를 쳐놓고 저쪽에 바다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의, 그 뭐 해적이라구까지는 할 수 없는데, 아주 그 도적들, 그 사람들을 막았던 곳이 아닌가, 그게 무슨 뭐 역사적인 기록은 없어요.”

② 군자봉의 명칭 유래

* 앞의 이야기에 이어 계속해서 들려주었다. 그런데 이야기의 성격이 조금 달라 내용을 따로 나누어 적었다.

“그런데 인제 여기[족보 중 일부분] 보며는, 여기가 시흥군 군자면 월곶리가 아니고 마유면 월서리, 여기 보면 마유면 월서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인제, 이 사람이 주로(柱老)라는 사람이 장사랑행 사헌부 감찰, 사헌부 감찰이라는 벼슬을 했어요. 그런데 인제 현종 경자 시월[칠월?] 십육 일 날 돌아갔어. 그런데 묘는 어디냐? 마유면 월서리 고잔 남등 소본향산, 이렇게 돼 있던 말이에요. 그래니깐 여기가 시흥군 군자면 월곶리가 아니고 마유면 월서리, 여기 고잔이 인제 마유면, 근데 이때가 현종 때란 말이에요. 현종 때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유면이라구 불렀느냐 이걸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단종, 내가 듣기로는 단종임금이 어머니가 현덕왕후거든. 현덕왕후가 여기 군자면 사람이에요. 출생지가. 그래서 외갓집에 어머니 산소에 단종이 어린 나이에 뭐, 단종이 열일곱 살에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가지구, 그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허러 오다가 보니까 말을 타고 왔는데,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그 군자봉, 군자봉이라는 산을 옆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그 산세가 아름다워서, 저게 무슨 산이냐? 그런데 그게 군자봉이라는 산이 아니었어. 그 전에는. 그래서 무슨 산이다, 그 산 이름을 대니까 단종이, 아 그 산이 참 아름답다, 그래니깐 군자와 같다, 임금 군(君)자에 아들 자(子)자를 써서 군자봉이라구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군자봉이 됐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군자봉까지 가는 길이 말을 타고, 말을 타고 다니기가 매우 좋은 길이었다. 그래서 여기가 마유면……. 인제 옛날에는 사복시라구 있었어요. 그게 인제 지금의 교통부와 같은 건데, 사복시정이라는 벼슬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복시. 사복시라는 게 지금의 (말 키우는 거 아니예요?) 말을 키우는 곳이에요. 근데 사복시, 그게 인제 절 사(寺)자를 쓰는데, 그걸 시라고 읽어요. 사복시, 사복시정. 정은 최우두머리예요. 여기 보면 마유면 월서리 소본향산 많이 나와요.”

③ 구한말 마지막 무관벼슬을 한 안상묵과 그 아들 안병옥

* 앞의 이야기에 이어 계속해서 들려준 것이다. 안상묵 씨는 -묵자 항렬인데, 순흥안씨 첨추공파 23세 손이고, 안병옥 씨는 -옥자 항렬로 24세 손이다. 옥자 항렬 아래가 -종-자 돌림으로 25세 손이다.

“최근에 구한말에 나한테 인제 종조부가 되는데, 내 할아버지의 형님, 인제 그분이 무관벼슬을 했어요. 근데 인제 육군참의, 그 무관벼슬을 했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큰 아드님이 전매청 군자지청장을 했어요. 그래서 군자지청장하고, 소래지청장, 남동지청장 이 염전이죠. 그 일본 사람들이 염전을 만들었지만, 그 지청장을 이십사 년간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인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무관벼슬, 마지막 무관벼슬을 했다, 구한말에.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 데요?) 그 무관벼슬을 한 분은 안자 상자 묵자. 안상묵. 그 양반이 인제 구한말에 육군참의 무관벼슬을 했어요.

(이 분과 관련하여 뭐 특별한 이야기가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의 아들이 염전의 전매지청장을 했대니까. 군자, 소래, 남동. 24년간 했어요. 돌아가면서. 한 군데서 허는 게 아니니까. 그 분은 지청장을 한 분은 안병옥. (이 분과 관련된 뭐 재미난 일화나 그런 거 있을까요?) 그 분은 돌아가셨지요. 여기는 없구. 군서초등학교. 지금 인제 군서초등학교, 옛날 군서국민학교. 내가 인제 그 학포 다녔는데, 내가 4학년 때 그 학교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구 학교를 그 분이 지어줬어요. 그때는 인제 학교가 두 동이었는데, 전소된 게 아니고 한 동이 불타버렸어. 군서초등학교. (근데 이 분이 지어주셨어요? 무상으로요?) 근데 인제 무상으로 지어준 거가 아니구, 그 인제 전매청 지청에 돈으로 지어줬겠지요. 무슨 사비로 지어줬겠어요? 그런데 그 분이 인제 그거 이외에는 우리 부락을 위해서 하신 게 없어서. 그것두 군서초등학교는 인제 정왕동이란 말이에요. 정왕동이니까 우리 부락하고는 좀 떨어졌지요.”

④ 군자중학교의 전신인 고잔의 야학당

* 앞의 이야기 도중에 들려준 것인데, 성격이 다른 것이라 따로 독립해서 적었다.

“인제 우리 월곶리에는 여기 그 야학당이 있었어요. 야학당. 옛날에 그 학교 못 가구 공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부락에서 야학당이라구 하는 집을 하나 지어가지구, 거기서 낮에는 길쌈을 하구, 그러구 인제 밤에는 거기 모여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야학당에, 나중에 그 야학당이 발전해가지구 군자중학교가 됐어요. 최금렬 선생님이 우리 동네 살았어요. 그건 저 문화원 원장님도 잘 아시지. 최금렬 선생님은.

(지난번 길을 지나다가 기념비 있는 거 봤어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게 인제 원래 그 분이 우리 동네 들어와서 시작을 했어. 우리 마을 야학당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설 두 미비허구, 그러니까 그 저 지금 시청 앞에, 장현동 그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구 거기서

3년인가 있다가 군자중학교로 도루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군자중학교의 전신이지. 그러니까 야학당의 시초는 우리 동네서부터 시작됐다, 야학당이. 근데 지금은 그게 헛구 없 어졌어요.”

* 최궁렬 선생 소개 : 최궁렬(1901~1963) 선생은 민족교육자, 시흥의 교육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울 세종로에서 태어나 경성제일고등학교(현 경기고)를 다니던 중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여 투옥되었다가 퇴학을 당하고, 교육만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1933년 안양시에 안양일동학원을 설립했고, 1940년에는 수암면 논곡동에 논곡학원을 설립했다. 1947년 이 학원이 폐쇄되자 안산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무지리의 소성고 등공민학교 교감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1950년에는 월곶리에서 사랑방을 빌려 군자고등공민학교를 열었는데, 학생들이 넘쳐 1952년 현재의 군자중학교 자리로 옮겼다. 이때 학교를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느라 종로에 있던 땅을 팔기도 했고, 부인은 아들을 업고 사발과 대접을 팔러 다녔으며, 학교를 지을 나무를 동냥하러 다니기도 했고, 미군부대에서 얻은 깡통을 펴서 지붕을 올려 교실 4개를 만든 이야기는 유명하다. 1953년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했고, 2회에는 여학생을 비롯 3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1954년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고 떠났는데, 이것은 학교를 공립학교로 인가 받도록 하여, 한 명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문교부에서는 농촌 읍면 단위에도 중학교를 한 곳씩 인가해 준다는 지침을 내렸는데, 시흥은 가난한 농촌이라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으면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비를 내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선생은 공립으로 인가를 받고자 학교를 헌납한 것이다. 결과로 오늘날의 군자중학교가 마련되었는데, 이 학교는 시흥에서 첫 번째로 인가를 받은 중등교육기관이다.

월곶동 섬산에 선생의 묘소가 있다. 1989년 군자중학교 교정에 그의 공적비가 세워졌고, 시흥문화원은 2011년 ‘시흥의 인물’로 선정하고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섬산에 있는 묘소 앞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네이버 블로그, [시흥史랑] 군자중학교와 최궁렬 선생 글 참조} (참고 : 시흥문화원, 2014 『시흥의 교육자 최궁렬 선생의 정신 유산 고찰』, 『2014 제2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⑤ 본향산과 성주물산, 그리고 감투매

* 고잔마을에서 동남쪽으로 맞은 편에 우뚝 서 있는 산이 본향산인데, 해발 98미터이

다. 그리고 이 산에서 서쪽 능선, 즉 달월역 쪽 방향으로 옆에 있는 작은 산이 작은 본향산이다. 본향산 남서쪽으로는 성주물산이 있고, 성주물산 뒤편이 감투매다. 작은 본향산과 성주물산 사이에는 차가 한 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길인 대리골[다리골]이 있다. 궁골에서 달월역을 향해 길을 가자면 야트막한 산을 넘어 대리골로 들어서서 달월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오른편에 있는 것이 작은 본향산이고, 왼편에 우뚝 보이는 곳이 성주물산이다. 만약 달월역에서 마을을 쪽을 보면, 오른편에는 성주물산이 그리고 왼편으로는 작은 본향산이 보인다. 안종륜 씨는 고잔마을 인근의 산들을 그림으로 그리며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약술해 보기로 한다. 이들 내용은 설화라 하기는 어렵지만, 마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 생각되어 여기에 기록하기로 한다.

－ 본향산은 정상에서 보면, 사방이 다 훤히 보인다. 이 산의 정상에는 옛날부터 어떤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다. 지금 이 나무는 사라지고 없다. 사람들은 가을 햇곡식이 날 때가 되면 나무 밑에 터줏가리를 해놓기도 했다. 본향산 정상에서는 옛날부터 무당들이 상을 차리고 똥땅거리고 뒤편이 같은 짓을 하기도 했는데, 만약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무당과 같이 산에 올라 뒤편이를 하는 것이다. 굿은 특히 해질 무렵이나 새벽 같은 때 많이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

－ 성주물산은 달월역에서 마을을 바라볼 때 오른편에 있는 산인데, 이호정으로부터 약 400여 미터 떨어져 있다. 이곳은 예전에 집을 새로 짓거나 이 고장에 새로 이사를 오면, 무속인들이 성주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성주물산 골짜기에 가서 치성을 드렸다. 이곳에서는 서해바다 낙조가 아주 볼만했는데, 이때가 되면 무속인들이 떡을 해 가지고 골짜기에 가서 치성을 드린다. 성주물산 산등성이 너머 골짜기 너머에 감투매산, 혹은 감투미산으로도 불리는 산이 있다. 그런데 감투매는 한자를 보면 단 거를 던진다는 뜻이어서 무당들이 치성을 드린 후 사과, 배, 귤감 등 단 것을 산 너머로 던졌기에 그곳을 감투매라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⑥ 물 명당에 묻힌 고조할아버지

* 앞의 이야기가 끝나고 동네에 산이 많으니 혹시 명당 이야기도 있는지 물었더니 들려준 것이다. 본향산 위쪽에서 하마터 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중간에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다. 이곳이 물명당이다.

“장수못골은 이제 장수못골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내 고조할아버지가 물 명당에 묻혔어요. 그래서 고조할아버지 산소가 너무 오래 돼서, 내가 이거를 없애버릴라구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구 봉분을 파어. 이게 없어진 거예요 시신이. 물 명당에서 떠내려갔어. 얼루 떠내려 갔는지. 그래서 못 찾구 시신이 없어서 그냥 도루 메웠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기 물이 많았어요. 그레가지구 빨래터도 있었어. 온 동네 사람들이 빨래감, 이런 바구니에다 빨래감허구 거 나무로 맨든 빨래 망치 있어. 두들기는 거. 비누질 쳐가지구..., 그 비누두 옛날에 시골에는 양젖물루 이렇게 비누를 맨들어가지구 쓰는 거 있었어요. 그 비누루 몽겐 다음에 그걸 뒤집어가면서 빨래 망치로 두들겼어. 그레야 때가 빠져. 이 동네 아녀자들이 빨래감들을 모두 쪽가지구 와서 그걸 빨아오구 그랬어요. 그 빨래터가, 우리 부락에서 만들어졌어. 거기다가 이렇게 돌을 갖다가, 큰 돌을 한 열 댓개 이렇게 웅덩이가상자리에 놓구서 빨래를 할 수 있게끔 빨랫돌을 만들어놴었다구. 그레 그 정도루 물이 많았고, 또 우리가 거가서 목욕도 하구 저녁에. 쪼끄만 애들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장수못골이에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그게 인제 본향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향산에다가 그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 부락 원주민들이 먹구 있어요. 상수도라 그래요 여기서. 시에서 지금 집을 쳐서 일 년에 몇 번씩 소독도 해주구 집두 지었어. 건수가 들어가지 않게. 그게 오십 년이 넘었던 말이에요. 오십 년이 넘었는데, 지금두 물 맛이 좋아요.

(그런데 왜 물명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 속에 있어요? 명당이.) 글썄, 그거는 왜 물명당이라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그 물명당이라구 그러드라구요. 그러니까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딴어요? 사람이 사는데. 그러니까 물이 이거 거든. 그 답에 쌀이거든. 물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구, 사람이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그 물이 나는 곳은 명당이라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이 나오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에 일단 물이 나오는 곳은 제일 좋구, 제일 좋은 곳으루 보는데, 지금은 물명당이 나쁘다구 그러잖아요 지금은.”

⑦ 궁골의 명칭 유래

(궁골에 내시들이 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내시들이 많이 온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내려와서 살았는데, 내시들도 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예요. 근데 몇 급짜리가 내려와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시가 내려와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골이다 그

랬다는데, 그럼 내시들이 내려오기 전에는 그 동네 이름이 뭐였나 그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내시에 관해서 전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건 몰라요. 그 쪽에 대해서는.

⑧ 하마터의 유래

* 앞의 이야기에 이어 들려준 것이다.

“우리 동네두 그런 얘기는 있어요. 하마터, 하마터라구 여기 하마터가 있었어요. 근데 설이 두 가지 설이야.

우리 동네두 내시가, 궁에 있던 내시가 여길 와 가지구 언덕에 집을 짓구 살았는데, 옛날에는 내시가 인제 권력을 좀 흔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에서 또 있었구 그러니까, 아, 동네를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 이게 건방지게 말에서 안 내리구 말을 타구 오거든요. 그러니까 호통을 치는 거야. “아, 저 고얀 놈말야. 저게 누군지 가서 하인을 시켜가지구 말에서 내려가지구 걸어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서 하마, 그 설 하나 하구.

하나는 말이 징을 박았잖아요. 징이 쇠란 말이에요. 말을 타구 들어오면, 거길 오면 징이 돌에 붙어서, 광석에 붙어가지구 말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 거기에는 자석이 있는 광산이 있었다. 그래서 말이 움직이지 않아서 내려서 걸려가지구 들어왔다 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나는 내시가 뭐 걸려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보다는 광석이 있었다라구 하는 거를 믿구 싶어요. 왜냐 하믄 최근에 우리 동네에 한 오십 년 전에 내가 학포 다닐 때 서울할아버지라구 하는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 분이 광석을 캐는 광이야. 그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구 거기를, 하마터 그 근처를 흠 허구 돌을 해가지구 그 체에다가 해가지구 쇠붙이를 걸러서, 그 사람이 돌을 고를라고 했던 늙은이가 있어. 그 낭반이 서울 할아버진데 그거를 들어보면 과연 거기가 광석이 흘렀구나, 그래서 말발굽이 붙어서 못 들어왔구나 이걸 나는 믿구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믄 옛날부터 광석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발굽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쇠붙이니까 이게 붙어가지구. 그러니까 말이 울기만 하는 거야. 거기만 오면.

(그럼 하마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마터는 그 우묵골 나가는데. 거기 지금 포도밭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두 돈은 못 벌구 그냥 고생만 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그냥 여기서 돌아갔는데, 한 이십 년 살았지요 여기서. 근데 돈은 못 벌었어요. 광물이 뭐가 나와가지구 뭘 했다, 돈을 벌었다 그 소리는 내가 못 들었어요. 근데 왜 누구 얘기를 듣고 무슨 근거로 해서 여길 와서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어딜 가

면 분향산이라는 데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 내려오는 그 집결지가 하마터, 하마터래는 데가 있는데, 거길 가면은 그것이 모여 있을 것이다. 광물이. 그러니까 그걸 걸르면은 돈 벌이가 될 것이라구 얘길 듣구서 온 거야. 서울 할아버지가. 늙은이가 왔어요. 그래서 한 이십 년 살다가 여기서 돌아갔어요.”

⑨ 단종의 모후 현덕왕후가 능안마을에 묻히게 된 사연

* 오이도 및 옥귀섬과 관련하여 마고할미 이야기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그런 건 못 들었다고 하며 들려준 것이다.

“그런 얘기는 못 듣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현덕왕후, 그러니까 단종의 모후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서 그 어떤 서울 근교에다가 묻은 게 아니구, 친정 동네에다가 묻게끔, 그 수양대군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단종이, 단종 누나허구 단종허구 남매만 낳구, 엄마가 돌아갔단 말야. 중전마마가. 그러구 인제 문종의 정비지.

그런데 그 현덕왕후 친정이 여기 원곡, 지금 안산역 앞에. 거기 그 동네이름이 거기가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능안인가 하여튼 뭐 무슨 동네데 거기다가 묻었던 말예요. 단종의 어머니를. 그런데 세조 수양대군이 그거를 부관참시해라. 부관참시는 이제 그, 시신을 묻었는데, 다시 파분을 해가지구 끄내서 다시 작두루다가 목을 찢르는 게 부관참시란 말야. 근데 그 끄내가지구 보니까 옷나무관이 썩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관을 바다에다, 서해에다가 버렸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다 걸렸냐, 떠내려 가다가 거기 가서 걸렸대는 거야. 조용필이 고향이 어디죠? 그 포도가 많이 나는데? 화성, 화성에 무슨 포도가 있는데, 거길 가서 걸린 거야. 그래가지구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단종의 모후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양대군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걸 발설을 하면 다 죽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걸 쉬쉬 해가지구 다시 갖다가 물었다. 그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다시 제 자리에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친정 동네. 그 능안에다가. 이게 누구 시신이다 하는 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아는 거지. 그 저기 평민들 사이에서 알구 다시 갖다가 물었다. 그 소리는 들었는데, 그거는 무슨 뭐 내가 배운 게 아니고 들은 이야기야. (그럼 원래는 현덕왕후 능이 지금 안산역 앞에 있는 마을에 있던 것이었는데, 그게 부관참시를 해갖고 바다에다 던져버리니까 이제 빙빙 돌아가지고 지금 화성 어디인가 조용필 고향 있는데 닿으니깐 그거를 다시 친정고향 있는데 모셔다 묻었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아, 화성에 그게 무슨 포도, 거기 휴게소도 있는데…. 그 동네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관을. 바다에 떠 들어온 관을. [옆방

에 가서 장소를 물어왔음] 송산. 송산리. 화성군 송산면 송산리 그럴 꺼야. 그 얘긴 내가 들은 얘기구.

그러구 단종의 누이, 단종의 누이가 여기에 인제, 지금 저 안산 역 앞에 풍전이라구 있어요. 풍전 사람이야. 정 종. 그 양반이 양양위지. 그 인제 부마가 되는 거지. 단종의 누이, 그러니까 매형이지. 그 양반이 풍전 사람이예요. 정씨야. 풍전정씨. 그러니까 해주 정간데, 풍전이란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정종은 나중에 수양대군이 세조가 된 다음에 능지처참 당하잖아요. 사지를 다 찢겨서 죽은 거 같은데요.)”

⑩ 수양대군 때문에 망한 순흥안씨

* 앞의 이야기에 이어 들려준 것이다.

“그렇지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구…. 수양대군 때문에 우리 순흥안씨두 망했어요. 우리 그 순흥안씨들이 이제, 수양대군이 자기 동생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가 인제 금성대군이라구 있죠. 금성대군이 인제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안평대군허구 금성대군허구 죽였잖아요? 안평대군은 바로 밑에 동생인데, 그래가지구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보내구, 금성대군은 순흥으로 귀양을 보냈어요. 경상북도 순흥, 영주. 그래가지구 순흥으로 귀양을 갔다가 거기서 들켰어. 그 복위를 그 안가들 허구 작당이 돼서 하다가 들켰는데, 이거를 엄씨래는 사람이 밀고를 했어. 말을 타구 한양을 가가지구 지금 금성대군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는 모사를 꾸미구 있다 그래가지구 금성을, 금성대군을 안동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때 그 모사에, 금성대군이 하고자 하는 모사에 가담했던 안가들을 사그리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전라도루 도망가구 어디루 도망가구 해서 그래서 전라도에 안가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씨를 퍼트렸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안씨들이 많이 죽어서 지금두 순흥 가문 핏끈마을이라구 허는 마을이 있어요. 계곡으루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나, 계곡으루 피가 새넷물처럼 흘렀다 그래서 지금두 핏끈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씨들은 수양대군을 매우 좋지 않게 생각하지요.”

⑪ 마을에 하나 있는 송덕비[새마을 지도자 안용옥의 송덕비]

* 마을에 효자나 정려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지금 정려문 이야기 하나까 생각났다고 하면서 시작했다.

“우리 아버님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지도자를 20년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구 그 당시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상당히 기세가 굉장했어. 그런데 인제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인제 우리 종중에서 송덕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송덕비가 있어요. 우리 마을에. 송덕비가 있는데 (아버님 존함은 어떻게 되세요?) 안용옥. 우리 부락에 송덕비가 하나니까. (여기 달월 열두 동네 중에 또 어디에 송덕비가 있을까요?) 아마 여기 우리 달월 열두 동네에 송덕비가 우리 아버님밖에 없을 걸 아마. 딴 데는 송덕비가 없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⑫ 전깃불에 담뱃불 붙이려고 한 사람

* 동네에 산이 많아 도깨비 이야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다고 하니 도깨비 나왔다 하는 소리는 듣기는 했는데, 내가 실감을 못했으니 모르겠다고 했다. 그것은 그냥 허깨비이고, 들어서 웃고 마는 것이며, 기록하거나 뭐 전할 말은 없고, 또 그건 뭐 홀린 사람 자체가 병약하거나 나약하니까 그런 거지 누가 그걸 믿냐고 했다. 그래서 조사자가 옛날에 전깃불 같은 것이 없었을 때는 너무나 캄캄해서 도깨비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다고 했더니 들려준 것이다.

“저런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전기가 우리 동네가 일찍 들어왔어요. 저기 염전 때문에, 이 저 일본 사람덜이 철도를 건설하지 않았어요? 이게 구한말에 했던 말이죠. 이씨 조선 때 했던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고종, 마지막이 순종이죠? 그 순종임금 때 아마 이뤄진 것 같은데, 그 철도를 노면서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 저 철도를 따라서 전기가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요 우리 부락 뒷산 군야미산으루 글루 철도가 지나가게 되니까 전기가 우리 부락에는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니깐 이 저, 장죽이라 그러죠? 옛날 할아버지들이 담배 피는 거. 이렇게 길어 가지구 대나무루 해가지구. 고 가루담배를 고기다가 요렇게 부벼 너서 꺾꺾 눌러가지구 부싷돌루다가, 그때는 성냥두 없었어요. 요렇게 생긴 부싷돌을 두 개를 착 부딪치면 불이 번쩍 난단 말이지. 고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구 담배를 피우던 그 시절에, 전기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배를 요렇게 딱 해가지구 그 전기다마에다가 대구서 빼는 거야. 이게 불을 붙이라구. 그러니까 미련한 거지, 전기다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두 모르구. 거기다 대구 담뱃불을 붙일라구, 허다가 이게 안 붙으니까 그 누므거를 담배 그걸, 쇠란 말이야. 놋쇠루 뒀잖아요? 그 끝트머리루 그걸 때린 거야.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다마가 깨지

죠. 깜깜 절벽이 되지요. 그 다마를 무슨 여분으로 미리 사다는 것두 아니구. 불이 나가니깐 또 촛불을 키구 쫄쫄맸다는 얘기. (너무 재미있네요. 그 당시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정말 재미있는 옛날이야기가 될 거 같아요.) 아주 옛날 얘기지만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얼마나 미련하든 그 다마에다가 불을 붙였겠습니까? 아니, 부시나 성냥으로 붙여야지.

여기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 게 1930년대 초예요. 그때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빨리 들어 온 거죠. 우리 동네만 들어왔어요. 달월 열두 마을 중에 우리 동네만 들어온 거야. [중략] 지금 우리 동네가 인제 기독교가 빨리 들어온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댕기기 전서부터, 그러니까 1930년도 후반에 여기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구 기독교 신자들이 많다보니까, 제사 지내는 거는 유교 아니야? 그래서 제사지내는 것두 형식적으루 해요.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처럼 제사지내는 걸 인제 철저하게 지내지 않아요. 시제는 지내죠.”

⑬ 애충이 많았던 불땡겨산

* 고잔마을 산마루에서 서해 쪽을 바라보면 앞쪽으로 야트막하게 보이는 야산이 있는데, 그 이름이 불땡겨산이다. 불땡겨산이란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그 이름의 유래를 물었더니 들려준 것이다. 불땡겨산은 원래 자갈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갈은 보이지 않고 나무가 많다.

“아니,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란 말이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불땡겨산엔 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무가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벌써 60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자갈산이었어요. 그게 돌만 있고, 그래서 황무지, 그런 산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나 그게. 그냥 바윗덩어리나 있구 그래서 불땡겨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예요.

그러구 저기 애덜이 죽으려는, 애덜이나 갖다가 애충으루 그냥 애덜이나 묻구 그러는 산이었지 거기 (아, 애들 죽으면 불땡겨산에 갖다 묻어요? 우묵골 같은 데다 안 해요? 거기 행상이 있었다면서요.) 우묵골두 그런 거 했었지만, 우묵골에는 또 행상도 있었잖아요. 행상독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질병관계루다가 병원에 못 가구 그러니깐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죽으면 그냥 가마때기에다 둘둘 말아서 갖다가 그냥 묻는 장소가, 제대로 생긴 산, 이 저 나무가 우거지고 이런 산에는 안 갖다 묻었던 말이죠. 그래서 빨간 산이기 때문에, 황무지,

그래서 불평겨가 아니었나 (불평겨산이 여기서 보여요?) 불평겨산 보이죠. 지금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가, 제3경인고속도로가 글루 지나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기가 바다 아니예요? 그런데 거가 배곧신도시가 됐지요. 근데 불평겨는 인제 이쪽인데, 요기가 이호정이에요. 요 고개 너머가. 바다가 보이니까 옛날에는 도적놈들이 들어와 가지구 저기 저 바다에다가 배를 대구서 이 동네에 들어와 가지구 도적질을 해가니까. 그러구 이 옆에 있는 게 군야미산이거든요. 불평겨산은 저긴데 지금은 나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나무가 없었어요. 그냥 자갈산이에요. 나무도 안 되구.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게 자갈산이었다구. 근데 자갈이 없어요 지금은. 자갈이 다 어디루 갔는지 몰라.”

(2) 조정열 씨의 설화 자료

2015. 7. 28 오후에 들었다. 방에는 조정열(여, 77세)·안오순(여, 79세)·6·25때 황해도 연백에서 피란 왔다고 하시는 할머니 등 3인이 있었다. 옛날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였더니 아는 게 없다고들 하셔서 그럼 도깨비나 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냐고 하며 조정열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정열 씨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들은 이야기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시작했다. 그리고 도깨비 이야기를 전부 끝낸 후에는, 예전에는 도깨비가 정말 많았는데, 6·25때 폭격을 맞아 전부 죽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또 “도깨비가 귀신이지 뭐 별거냐고, 나는 도깨비가 귀신인 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오순 씨는 조정열 씨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내용에 대해 자주 질문을 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① 죽을 동생 이름을 불러 데려간 도깨비[1]

“그전에 내 자랄 때 얘기가. 그전에 그러니까 내 동생이 일곱 살이고 내가 아홉 살 때야. 아홉 살 땐데 우리 할머니 계시지, 아버지 엄마 오빠 언니 동생덜 그렇게 사는데 우리 내 바로 밑 동생이 일곱 살에 죽었어.

그런데 죽기 전에 아팠는데, 그때 인제 저녁을 먹는데, 우리 동생이 이름이 재열이야. 그랬는데 바깥에서 재열아, 재열아 그래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우리네 목소리는 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도깨비야. 그랬는데 우리 오빠가 그때 나보다 여섯 살 더 먹으니까, 내가 아홉 살 이니까 열다섯이지. 여섯 살 차이니까. 우리 오빠가 창문으로 내다보더니 으응, 분홍치마에 노란 저고릴 입구 하얀 앞치말 쳤네 그래. (안오순 : 그게 헛깨비지?) 그러니까 우리 아

부지가 누가 부르나 나가봐라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안 나가. 무섭다구. 열다섯 살인데. 안 나가니깐 우리 할머니가 아, 나가보지 왜 안 나가 보냐구 그러니깐 우리 오빠가 뛰어나갔어. 그러니까 죽을 사람만 헛깨비가 눈에 뵈는 게 맞아. 우리 오빠가 나가보더니 아유, 아무두 읊다구. 여 울타리 있는데 가두 그렇구 아무두 읊다구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메칠 있다가 우리 일곱 살 먹은 재열이라는 사람이 죽더라구. (안오순 : 말짱 했는데?) 아퍼서 드러눕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와 불러간 거야. 그러니까 난 아홉 살이구, 귀신이 와 불러간 거지. 그때는 도깨비도 많구, 그 헝구굴이라구 거기가 애청굴에 도깨비들 있구 그랬었어. 그랬는데 우리 인저 동생이 죽었어. 그래니깐 죽으면 그냥 밤에 뭘 몽쳐다가 묻으러 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는 소리가 “어휴, 아니 도깨비두 이상하지. 우리집이서부텀 쫓아와서 산에까정 쫓아 왔드래. 불이 번쩍번쩍 도깨비불이. 쫓아왔다고 그러드라구. (안오순 : 밤에 그걸 묻으러 갔는데?) 응. 그래니깐 집안내 우리 작은 아버지 모두, 인저 일곱 살 먹은게 죽었으니깐 당숙, 원열이 아버지 그런 사람덜, 당숙모들이 와서 인저 그걸 묶어 가주 나가는데 집이서부터 도깨비불이 쫓아오더라. 그래서 인저 그걸 파묻고 오셨어. 그래구 했는데 인저 우리 오빠가 열다섯 살이니까 열아홉 살에 제국민병을 나갔어. 육이오 전에. (안오순 : 죽었대며?) 나가더니 죽었어. 그래니깐 죽을 사람만 그 헛깨비가 뵈었나보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그전엔 또 그랬어. 죽을 사람만 헛깨비가 눈에 뵈는다고 그랬어. 목소리는 다 들었어 우리 식구덜이. 다 들었어. 그랬는데, 사람은 못 봤는데 우리 오빠가 에이, 저 분홍 치마에 노랑저고릴 입었네 그래서 (안오순 : 들어봤는데?) 우리 오빠두, 식구들은 밥 먹다가 그냥 동생은 드러눕구, 우리 동생은 옛날에 뭐 병원이 있어 뭐 있어 그냥, 그때는 열 마흔 다섯은 죽는 거니깐. 그냥 죽으면 파묻구, 그러니깐 출생신고도 전에는 늦게 했어. 죽으면 그런다구. 그래구 했는데 글썄 그렇게 해서 우리 오빠가 열아홉에 죽었는데, 죽을 사람이니깐 도깨비가 눈에 뵈는 거다 인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옛날 노인네 들두 그래구. 그렇게 생각을 허구.

그 죽기 전에는 집이서두 도깨비가 노는데, 맷돌을, 그전에는 맷돌질을 뭐든지 다 허니깐 맷돌을 대문 있는데 요기다 났는데, 밤에 맷돌질 소리가 또 나 한 번은. 그것두 우리네 귀에 다 들렸어. 맷돌질 소리가. 그랬는데 맷돌은 고대로 있는데두 맷돌질 소리가 그렇게 나더라구.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런 경험도 했다니까 살면서.”

①-1 죽을 동생 이름을 불러 데려간 도깨비[2]

* 조정열 씨는 녹음을 하려면 말도 똑똑하고 조리있게 해야 한다면서 앞서의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들려주었다. 그러므로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두 번 해준 셈인데, 두 번째 이야기 속에는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처리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 여기에 두 번째 이야기도 싣기로 한다.

“도깨비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얘이야. 아홉 살이니까 일곱 살 먹은 동생이 아파서 드러눴는데,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구 딱딱딱 들어오는 소리두 났구. 근데 다 우리는 문구녕으로 봐두 안 봐는데 우리 오빠가 으응, 분홍치마에 노란 저고릴 입었네. 나 아홉 살이니까 열다섯 살이야. 그러니깐 오빠가 봤지. 제일 만아들이니깐 우리 오빠가. (안오순 : 열다섯 살이니까 제대루 봤을 꺼야) 그러니까 왜 불렀나 나가 봐라 식구덜이. 헛깨비가 불르는 것 두 모르구. 왜 불렀나 나가 봐라. 그러니까 안 나가. 춤춤하구 무섭다구. 그러는 걸 우리 할머니가 아, 남자 녀석이 뭐이 무섭냐구? 얼른 나가보지 못허냐구 누가 불렀나 나가 보지 못허냐구 그랬어. 우리 할머니가 들오라 그래지 그래믄섬. 그래 나가보니깐 이리 가두 없구 저리가도 없구 없더라. 그랬다구 우리 오빠가 아무두 읊다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 금방 불른 사람이 어디루 도망을 가구 읊냐? 이랬어. 헛깨빈걸 몰르구. 그랬는데 그게 헛깨비라는 걸, 헛깨비야 그제.

그래구 인제 며칠 있다가 사망을 했어. 사망을 했는데, 그건 인제 사망을 하니까, 집안내가 인제 집안들이 많이 사니깐 작은 아버지 인제 모두다 와서 그 저기 뭐야. 시체를 뭐 그 전에는 아버지 저고리에다 싸 담는대튼가 그랬어. (안오순 : 뭐 쌀 거나 있어? 아무거나 하지.) 아니, 그 방법이 또 아버지 저고리에다 싸 담는대나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러니깐 아버지 저구리 껌데기래나 저고리 안이래나 거기예다 싸다 이렇게 묻으려, 싸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들구 갔겠지. 누가 들구 간 건 나두 아직 어리니까, 작은 아버지덜두 둘이나 있구 당숙들두 있구 그래니깐. 아버지가 내자식을 들구 나갔겠어? 작은 아버지가 들구 나갔겠지. 그래니깐 우리 아버지가 삼을 가지구 가는데 도깨비들이 대문 안에서부터 쫓아오더라. 산에까지. 그 형구굴 산에까지 쫓아오더라. (형구굴요?) 산 이름이 형구굴이야. 거기까지 쫓아오더라. 그래가지군 거기서 인제 없어지더라 불이. 그랬다구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오셔서 우리 어머니더러 얘기가 “어휴, 참 그 희한도 하지. 아니 사탄이, 도깨불이 집이서부터 쫓아나와서 산에까지 쫓아왔어.” 그래는 얘길 들은 거야. 그걸. 그러는 얘길 들었어.

그랬는데 인제 그 몇 해 있다가, 그러니까 열다섯 살이니까 4년 있다가 우리 오빠가 세상을 뒀구나. 군인 가서.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그 전에 노인네들이 그래드라구 또. 죽을 사람은 헛깨비가 빈대. 그래 노인네덜이. 그래서 인제 우리 오빠가 죽을 사람이니까 헛깨비가

보였구나 그렇게 인제 인정을 허는 거지. 아니 뭇 식구가 밥을 먹다 이름 부르는 소리는 다 듣구 따각따각 겨다를 신었어. 그 전엔 겨다 소리두 들었어. 나막신. 나무루 신발 맨들은 거. 그 소리두 듣구 그랬는데, 창문은 다 보이는데 아무도 못보구 우리 오빠만 봤으니깐. 그랬는데, 우리 오빠는 또 그러니까 열다섯이니까 열아홉에 군인 나가서 죽었으니깐 사 년 만에 또 세상을 뗏지. 그래서 세상 뜨는 사람들 눈이니까 헛깨비가 보인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허는 거지.”

② 시집에서 들은 도깨비 소리

* 앞의 이야기와 이어진 것인데, 성격이 조금 달라 나누어 정리한다.

“그 전에는 내가 시집와서두 그 전에두 도깨비가 있었어. 시집을 왔는데두 집안이 안 좋을 래면 그런 게 나타나더라구. 시집을 와서 나 저 애 하나 낳았나, 하나 낳기 전인가, 뚜벅뚜 벅 신발소리가 나구 바깥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 그랬는데 인제 우리 신랑이 나가보니까 아무 것두 읊는 거야. 그러면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드라구. 우리 시동상이 또 죽구 그래드 라구. 그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래면 그런 저기가 식구들 귀에 들리더라구.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읊지. 그래 친정에서두 도깨비 그런 사연이, 머리에 젖구 무섭구 그 랐는데, 시집에 와서두 역시 식구가 줄을래니까 그런 낄새가 보이더라구. 그래서 그런 경 험도 했구.”

③ 서낭대에서 조구나루로 가다가 본 도깨비불

* 앞의 이야기가 끝난 후 잠시 쉬었다가 들려주었다.

“서낭대 있는데 조구나루루 가는데두 밤에 그 우리 고모네 언니 데릴러 창기 삼춘허구 거 길 가는데, 서낭대 있는 데서 조구나루루 가면서 도깨비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뭐라구 재깁 재깁 하더니 그냥 또, 썩 또 없어졌어. (안오순 : 장호 아버지두 그런 소릴 해.) 구능뿌리 서낭대라고 알잖아? 거기 그리 조구나루루 가는데 도깨비불을 봤어.”

④ 소래다리에서 보고 들은 도깨비불과 소리

* 앞의 이야기에 이어 들려준 것이다.

“난 도깨비 소리두 들어봤어. 소래다리 갈 때. 그때 우리 집안네 오빠허구, 우리 고모네가 인천 사는데, 그때는 동인천 여기 와서 내리지만, 그때는 소래에서 내려. 소래 다리 건너서. 그랬는데 우리 팔촌 오빠허구 우리 고모네 언니를 데릴러 마중을 나가는 거야. 고모네 언니를 데릴러. 그랬는데 그 조구나리 거길 가다가두 도깨비가 뭐 재깅재깅 허다가두 불빛 으루 허더니 그냥 없어지구.

그러군 인저 소래다릴 갔는데두 거기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소래다리에서 불르는 소리가 나드라구. 그래서 저기두 누구 마중을 갔나 저기두 사람이 있네. 가보니까 아무 것두 없어. 그게 도깨비래. (안오순 : 밤에 어두운데 거긴 왜 갔어?) 아유, 그러니까 우리 창기 삼촌 동열이 그 오빠가 팔촌 오빠야. 우리 고모네 언니가 막차루 오는데, 소래다리루 데릴러 와라, 마중을 나와라 그래서 갔었대니까. 그래서 갔었어. (안오순 : 그럼 차 마중을 가구 그랬다구?) 응. 우리 고모네 언니가 밤에 왜 왔냐 허든 저기 머리 미용기술이 있어가지구 여기 머리덜 하루 오는데 불파마 허구 그랬어. 머리덜 하루 오는데 그 데릴러 가구 그랬어. (안오순 : 그거 하러 오구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랬는데 거 가서 도깨비를 소리두 듣구 도깨비불두 보구 그랬어. (안오순 : 나는 막내가 되서 그런지 어딜 데려가지두 앓구 밤에. 어딜 가지두 앓구.) 내발로 땡기지 뭘 데리구 가? 뭘 그런 걸 엄니 아버지가 알기나 하나? 우덜 (안오순 : 뽀뽀거리구 잘 돌아다녀.) 몰래두 아니지. 언니 데릴러 가는데 뭘. 사촌언닐 데릴러 가는데 뭘 몰래가 그걸?

우린 도깨비불도 그렇게 해서 봤어. 경험했는데, 근데 봤는데 바싹 가보면 없어져. (도깨비 이야기는 많이 있드라구요. 마을에 가면요, 이렇게 솔뚜껍두 꺼내 봤다구요.) (안오순 : 그런 소리두 있어요. 솔뚜껍이, 그 안으로 뚜껍이 들어간대잖아요.) 그런 소리두 있긴 있는데. (안오순 : 나도 남의 소릴 들은 거니까. 보진 못허구.)”

⑤ 도깨비에 홀려 땃 되 쌀자루를 잃어버린 아버지

* 앞의 이야기에 이어 들려준 것이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옛날엔 어려우니까, 애들은 오물허구 노인네, 어머니 계시구 그러니까 인저 땅 파고 인저 밥을 해서 애들 뽕이구 그랬다구. 우리 친정 아버지가 방 뜯는 기술, 또 이런 벽 발르는 기술, 또 지붕 이는 기술 그런 토역쟁이, 지붕 잇는 쟁이, 하여간 (안오순 : 지푸라기로 엮은 지붕.) 이엿 엮어서 지붕 이는 걸 저기 장곡동이라구 거긴 맡여 놓구 우리 아버지가 계속 다니셨어. 우리덜 요만큼씩 한 걸 벌어들일려니까. 그러면 다니시며는 손

툽 발툽이 다 까지시는 거지. 무식허구 배지 못허구 옛날 노인네들이 그럭허믄서 정말 자식들 먹여살리느라구. 그래가지구 인저 굶주리지는 았구 살았지마는, 자식덜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돈은 잘 벌으셨어.

벌으시는데 매꿀⁵⁴⁾ 가서 여기서 그러니깐 십리는 좀 못되는 거리를 그때는 뭐 차가 있어? 자동차가 있어? (안오순 : 그 전엔 십 리가 넘지. 지금은 산을 깎아서 가까워졌지.) 걸어서 넘어 오는 거니깐. 그랬는데, 지붕을 이구 날이 구중중하는데 오는데, 인저 거기서 쌀을 현찰로 닷 되씩, 품을 팔러 가든 한 되 두 되 버는 건데, 닷 되씩 그렇게 벌어드는 거니깐 남들 보다 두 배 세 배 받아오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니까는 인저 그걸 맨날 가시는 거야. 그 기술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초대를 허구. 그래니깐 받아오시든 또 한 말 갖다 붓구, 또 한 말 갖다 붓구 그러면 열흘이면 한 가마가 넘어. 고봉으루, 되박으루 고봉이니깐. 그래믄 고걸 또 인저 장려쌀을 놓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든 또 출량이 말하자든 자식덜 배를 곱르게 느는 거지 말하자든.

근데 한 번은 날이 궂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오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허는 거야. 날이 궂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그래는데, 그걸 미구 오다가 도깨비를 흘려서 저 갯바닥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눈을 떠 보니까 섬산이더라. 독가메로 이렇게 와야 하는 건데 섬산이더라. 그래서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왜 여기를 이걸 지구 왔나? 그리곤 또 정신을 차려서 또 집으로 온다구 오다 보니까 소래다리더라. 그렇게 도깨비가 흘려서 도깨비가 끌고 다닌 거야. 소래다리더라. 그래서 또 이거 정신을 차리구, 젊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덜 길을 때니까 잘 해야 한 사십 되셨겠지. 그렇게 젊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정신을 차려서 오다 보니까 쌀자루는 엇다 뛴는지두 몰르구 그냥 몸만 오신 거야. 그래서 인저 그 이튿날 도깨비 흘려서 땡겼다 그러시드라구. 인저 들은 얘가지.

그랬는데 그 이튿날 우리 엄니가 아휴, 그러면 쌀자루는, 어디 섬산으로 땡겼냐 소래로 땡겼냐 물으니까 (안오순 : 찾으러 갈려구.) 섬산으루 해서 소래다리루 해서 왔다 그래니까, 우리 엄니가 인저 또 그걸 찾으러 쌀자루를 다른 데루 엇다 뛴으니까, 옛날에는 쌀 닷 되면 컸어. (안오순 : 일 허면 한 되씩이야 쌀은.) 쌀 요만큼씩 죽을 쑤서 그저 간난애나 주구 어른이나 대접허구 그럴 때니까. 그래니까 우리 엄니가 섬산에두 가보구 소래다리두 가보구 그래두 없드래. 쌀자루가. (안오순 : 못 찾았어?) 응. 그니까 엇다 팽겔렸는지 갯바닥에

54) 매꿀이 어디인가를 물으니 지금은 연성지구(장곡동)로 바뀐 곳이라 한다. 안오순 씨는 그곳이 예전엔 아주 촌이었고, 가는 도중에는 도적(산적) 같은 것도 나와서 택시도 안 갔던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시내가 되었다고 했다.

다 팽겔렸는지 우리 아버지가 몰르지. 그러구 집에를 들어오셨는데 여까정 깃바닥으루 어디루 돌아댕겨두 (안오순 : 빠지구 땡겼어?) 그럼. 그러니까 도깨비에 흘려서 빠지구 땡긴 것두 몰르구, 정신을 차려보니깐 섬산이구, 또 거기서 왜 내가 여క్క정 왔나 잘못 왔구나 길을 바로 가야지 그러구 바루 잡아서 찾아간다는 게 소래다리를 가신거래 또. 거길 가서 정신이 들더라. 그래니깐 도깨비두 아주 죽이진 았구 가다가다 정신을 쥐가면서 끝구다닌 거야. 말하자든. 게서 거기 가서 보니깐 또 소래다리더라. 그래서 아휴, 내가 왜 여기를 왔나 정신을 차려서 집에를 가야지 그러구 인저 거기서는 집을 찾아, 거기서 집을 올래면 또 얼마나 멀어? (안오순 : 멀지.) 그래니깐 땡 십리 걸음을 깃바닥으루 헤매구 여까정 빠져가면서 그렇게 해서 집을 찾아오셨다구. (안오순 : 아침에 오셨어 그래?) 아침인지 저녁인지 그건, 그러니까 새벽이것지. 그래군 났은 또 지붕을 이러 가야헐텐데, (연백할머니 : 쌀 자루는 어딜 가 찾아?) 그러니깐 쌀 자루는 못 찾았지. 그래니깐 우리 어머니가 그걸 쌀자루를 어디가 잊어버렸나 그러구 인저 그걸 찾으러, 우리 아버지는 또 아침 잡숫구 일 허러 가시니까, 젊었으니깐 그렇게 밤을 새구두 아침에 정신을 차려 일어나서 또 일을 가시는 거지. 아침두 안 잡숫구 또 새벽같이 가. 그럼 거기서 아침 대접까지 허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일을 가든 아침도 안 먹구 가는 것을 이 집에서는 벌이루 생각을 해. 밥 한 사발 식구들이 먹으니깐. 옛날엔 그랬어. 그래서 아침도 안 잡숫고 가니깐, 우리 어머니는 인저 우리 할머니허구 애들허구만 밥을 해서 멕이는 거지 인저. 쌀밥이구 보리밥이구 하여간 그렇게 해서 멕이는 거야. 그러구 우리 아버지는 일을 가야 하니깐, 우리 어머니가 인저 그 쌀자루를 찾으러 인저 섬산으루 소래다리루 땡겨서 그냥 오셨어. 그래니깐 우리 아버지가 일 갔다와서 그래 쌀자루 찾아왔나 그래니깐, 쌀자루 아무 것두 았다구 못 찾아왔다고. 그래서 하루 일한 거는 도깨비가 먹었나봐. 못 찾아왔어.

(안오순 : 누구든지 도깨비에 흘리면 죽었댄 소릴 안 허구,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돌아온디야. 밤새도록 그렇게 돌아다니다.) 우리 아버지두 그렇게 새벽에 돌아오셨대나 봐. 새벽에 돌아오구두 그 이튿날 일을 가야 하니깐 눈을 좀 붙이구 가셨는지 안 부치구 갔는지 하여간 젊었을 때니깐 그냥 그 이튿날 또 일 맡은 걸 가느라고 또 일을 가셨것지. 또 가서 아침은 그 일 허는 집에서 잡숴졌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밥두 안 잡숫구 가서 돈만 벌어오는 우리 아버지야. [모두 웃음]

⑥ 빗자루가 변해서 된 도깨비

* 앞의 이야기가 끝난 후 잠시 쉬었다가 들려주었다.

“그 전엔 도깨비는 빗자루를 내 빌면[머리면] 그게 도깨비가 된다 그런 소릴 들었어. (안오순 : 빗자루에 피가 묻으면 그런대잖아.) 이젠 들은 얘기지. 옛날에 누가 그냥 도깨비허구 막 씨름을 허구 그랬대. 그래서 이 늙은 도깨비를 죽인다 그래구 막 씨름을 허구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대나 그러구 도깨비를 이렇게 집으로 끌구와서 기둥에 묶어놔대. 기둥에 묶어놔더니 아침에 보니 빗자루더라. 그런 소리두 들었어 내가. (안오순 : 글썄 나도 그런 소릴 듣긴 했어.) 나도 들은 얘기야 그게. 경험한 게 아니구. 우리 아버지 얘기는 내가 경험 허구 본 고대루구.

그 도깨비허구 막 씨름을 허구 싸을 허구 도깨비가 이 사람을 이길, 장정이래 근데. 이길려구 그러다가 그 도깨비를 이겨가지구 집으로 질질 끌어다가 나무 토막에다 그냥 그걸 매놔대. 그래서 아침에 그 밝은 후에 보니깐 그게 빗자루더라. 그 소리두 들었어. (그런데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대요?) 그렇게 빗자루가 도깨비 노릇을 헌 거야. (안오순 : 그러기에 옛날에 빗자루에다 피가 묻으면 그게 도깨비로 환생한다구 듣기만했지 나두. 난 도깨비 구경두 못허구 들어보지도 못했어.)”

(3) 안오순 씨의 설화 자료 : 구척 같은 놈을 만난 장호 아버지

* 앞의 이야기판에서 조정열 씨의 도깨비이야기를 들던 안오순 씨도 한 가지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었다.

“옛날에는 밤에 오강덜이 없는 집이서, 밤에 오줌 누러 화장실 갔다가 도깨비에 흘려서 밤새도록 돌아다녔다구 그랬어, 그때두.

근데 장호 아버지도 그 소릴 하잖아. (조정열 : 근데 육이오 때 도깨비가 읊어줬다구 그러드라구. 육이오 때 난리통에 폭격을 맞아 도깨비도 뒤흔었는데...) 그 전에 장호아버지도 장호어머니허구 연애 걸을 때, 왜 그 길 안 닦았었잖아? 그 전에는 고개구. 거기 가문 구척 같은 놈이 나타난대. 하얗게 옷을 입구. 그래서 와서, 거기서 행길을 건너 가문 무섭기도 헌데, 이렇게 바짝 가서 불래면 없어졌대 그게. 그래서 정말 도깨비가 있나 그랬대. 도깨비가 정말 있었나봐. 그 색시 집이서, 장호 엄마가 맹골 살았을 때, 밤에두 가구 그랬나봐. 색시가 있으니까. 그런 소릴 하드라구. 장호 아버지가. 그 전엔 도깨비가 있긴 있나봐. 죄다 그런 소릴 해.”

2. 마을 주민들의 노래

여기에서 노래란 전통적으로 구전되어 온 노래들, 즉 민요를 뜻한다. 달월마을의 자연 환경은 산과 농지 외에 특별히 바다와 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마을에서 전해 오는 민요를 찾으려면 우선은 생업과 관련하여 들노래 및 뱃노래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의식(儀式)과 관련해서는 상여소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마전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박홍열(남, 80세) 씨의 증언에 의하면, 예전에는 월동마을, 마전마을, 상곡마을, 고잔마을 등 4개 마을에 각각 두레패가 있었다고 한다. 본인은 군 제대 후인 20대 초반에 마전마을 두레패의 막내로 들어갔는데, 각각의 두레패는 농사일을 끝내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길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농기를 앞세우고 기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달월 마을 열두 마을 중 4개의 마을에 두레패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논농사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이 마을에서는 들노래 즉, 모내기 소리, 모심기 소리, 김매기 소리 같은 민요가 많이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대부분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기에 이런 노래는 부를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들 일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와 같은 노래를 많이 불렀을 가능성이 있기에, 마을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를 알아보았더니 아무도 없었다. 당시 두레패에 참여했던 윤갑영 씨는 고인이 되었고, 최승규(남, 87세 전후) 씨는 현재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예전에 농사지를 때 노래를 불렀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 그것을 불러 줄 수 없다고 했다.

달월마을 서쪽은 갯벌과 바다에 면해 있다. 이곳은 현재 배곧신도시로 개발되어 월곶어시장 및 횃집, 그리고 아파트 등이 많고, 갯벌은 보기 어렵다. 그러나 바다에 면해 있는 만큼 이 마을에서는 어업과 관련하여 배치기 소리나 그물 후리는 소리, 바디소리 같은 것이 불렸을 가능성이 있기에, 혹시 이런 소리를 아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서해안 전역에서 배치기 소리가 발견된다고 하는 만큼, 달월마을에서도 이런 소리가 발견되기를 기대했는데 허사가 되었다. 마을 주민 몇 분에게 소래염전에서 일할 때 노래가 불렀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마을에 상여소리 같은 것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신가를 알아보니, 월곶 1통 최수환 통장님이 예전에 별말에 상여소리를 잘 하시는 방연근 옹이 살았었는데, 마을이 개발됨에 따라 지금은 군자 쪽으로 이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별말은 달월 열두 마을 중 하나에 속하는 마을이므로, 이 분의 자료는 곧 달월마을의 노래가 된다. 그래서 방연근 씨

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현재 병환 중이어서 병원에 입퇴원을 거듭하고 계시다고 했다. 이런 분께 상여소리를 부탁하는 것은 실로 죄송스러운 일이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시흥문화원 이병권 사무국장이 예전에 국악인 박일엽(시흥향토민요보존회장) 씨가 이 분의 자료를 채록했는데, 그 가사가 『시흥 향토민요 가사집』(시흥문화원, 2012)에 실려 있다고 알려 주었다. 국악인 박병일 씨는 현 시흥문화원 정원철 원장님의 부인이 되시기에, 앞서와 같은 상황을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출전을 꼭 밝힐 것을 약속하고, 방연근 옹의 자료를 달월마을 지에 옮겨 실을 수 있는지 의논 드렸다. 정 원장님은 “그런 자료를 채록한 것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보려고 한 것이니까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

방연근(方連根, 남, 1925년생, 91세) 옹은 시흥시 월곶동 별말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시흥 상여소리꾼으로 활동하던 아버지 방명석으로부터 소리를 배워 월곶의 유명한 상여소리꾼으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다. 그리고 별말이 소래염전과 가깝기에 소래염전에서 일하는 황해도와 평안도 출신의 소리꾼들에게서 난봉가, 초한가 등을 배우기도 했다.[양종승 글, 시흥 상여소리 고증 자료, 『시흥 향토민요 가사집』, 161쪽 참조] 『시흥 향토민요 가사집』의 해설(정원철 글, 151쪽, 154~155쪽)을 참조하면, 방연근 옹에 대해서는 들노래도 채록했고, 평소 밭일을 하면서 온종일 범벅타령을 흥얼거리셨다고도 한다. 그런 만큼 방연근 옹은 상여소리, 회방아소리, 달고소리 외에도 들노래, 난봉가, 초한가, 범벅타령 등을 부를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시흥 향토민요 가사집』에 의거, 방연근 옹의 노래를 전부 여기에 옮겨보기로 한다. 그런데 자료집에는 방연근 옹의 들노래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고, 또한 범벅타령은 거모동에 거주하는 김창문(金昌文, 1928~) 옹의 자료가 채록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들노래와 범벅타령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 소개하기로 하겠다.

자료의 순서는 먼저 상여소리·회방아소리·달고소리를 적고, 이어서 난봉가, 초한가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들 자료는 모두 『시흥 향토민요 가사집』에 실린 것으로, 박일엽 씨가 채록·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소중한 자료를 채록·정리해 놓으신 박일엽 님과 전사(轉寫)를 허락해 주신 정원철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박일엽의 시흥시 구전민요 발표회(2009. 12. 4. 시흥시 여성회관에서 난봉가를 부르고 있는 방연근 옹, 옆에는 국악인 박일엽 씨. 출처: 『시흥 향토민요 가사집』

1) 방연근 옹의 상여소리(자료집, 67쪽~74쪽)

자료집에는 1. 달고소리 2. 회방아소리 3. 상여소리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순서를 바꾸어 1. 상여소리 2. 회방아소리 3. 달고소리의 순서로 적어보기로 한다.

(1) 상여소리

영결중천(永訣終天)

간다간다 나는간다
천금같은 자손두고
구사당에 하직하고
한번가면 영못올길
앞마당에 살구나무
대청마루 건넌방에
외양간에 소죽냄새
일가친척 친구님네
오늘내게 당해보니
황천길은 몇만린가
이제가면 언제오나
다시못을 황천길로
청춘홍안 백발노인
어릴적엔 철없어서
자식낳고 살다보니
어이없고 애달프다
인간백년 다살아도
단사십도 못살인생

북망산천 나는 간다
금쪽같은 가족두고
신사당에 허배하고
다시한번 돌아보네
뒷마당에 대추나무
손주녀석 웅알이소리
새벽닭이 해치는소리
이내말좀 들어보소
대문밖이 저승이라
집떠나서 어딜 가나
돌아올날 일러주오
동무없이 떠나가니
불쌍허다 이내일신
부모은공 몰라보고
부모은공 또잊었네
애닭고도 설은지고
걱정근심 다제하면
허송세월 절통하다

간다간다 나는간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명년삼월 봄이온들

북망산천 나는 간다
너는 다시 피건마는
이내일신 다시올까

칠성판에 붙들려서
 슬프구나 인생하직
 황천길은 한번가면
 북망이라 먼먼길에
 일직사자 손을끌고
 풍우같이 재촉하야
 높은데는 낮아지고
 친구벗님 많다해도
 일가친척 많다해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낮도설고 물도설은
 서산너머 낙조지고
 동시선달 설한풍에
 부귀공명 호의호식
 형제간에 우애있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들사오 잘들사오
 복사꽃에 꽃피는
 가는나는 가거니와
 재난없고 우환없이

꽃상여로 떠나간다
 눈물가려 못가겠네
 다시올줄 왜모르나
 노자돈을 얹어주오
 월직사자 등을밀어
 천방지방 몰아갈제
 낮은데는 높아진다
 어느누가 동행하며
 어느일가 대신갈까
 순서대로 갈뿐이네
 북망산에 홀로남아
 뗏장이불 차가워라
 북망산도 얼음일세
 모두놓고 떠날인생
 콩한쪽도 나누시고
 이웃간에 인사하게
 부귀공명 수명장수
 내고향땅 일가친척
 고향산천 정자나무
 모두모두 잘사시오

(2) 회방아소리

* 에이여라 다알고

이산저산 꽃이 피니
 개울가엔 올챙이때
 사월이라 한식날에
 회를 섞어 다져다오
 사시하관에 오시발복

온 산이 붉을 홍자
 내 자리에도 꽃피거라
 자자손손 떼입히네
 방아짚어 다지게라
 저 앞에 기름진 평야

창공에는 뭉게구름
사절유택 만년유택
꽝꽝다져 밟아라

회방아를 짙어라
등맞추고 배맞추어
에이어라 달고

온 산이 청록 비단
맘편하니 아방궁일세
황학루가 여기일세
광한전이 여기일세
신선되어 만년유택
지경다져 주추놓고
꽝꽝 밟아 회다지고
봉황을 불러주제

바람불면 우수수수
황학타고 찾아들던
봉황타고 찾아가던
성실근면 사회봉사
벗님네들 노래하게
주추위로 기둥놓세
배맞추고 등맞추어
에이어라 달고

가을이라 소슬바람
창고에는 추수나락
낫갈아들고 사초하네
팔월이라 한가위에
손자손녀 강강술레
바람타고 하늘솟고
아미타불 합장위로
만년 유택 다져주게

황국단풍 호시절에
갓끈 위로 황금물결
땀방울이 탐스럽네
둥근 달이 비치는데
나도 한 번 뛰어보자
구름타고 극락가네
극락노을 한가하네
에이어라 달고

부러진 삭정이 위로
온 세상이 은세계일세
하얀 토끼 깡충깡충
금이득지 편자유택
북서풍에 바람들까
에헤여라 다알고
아버님전 뼈를 빌어
자식농아 손자보니

흰 능이 퍼어얼 펴
노루새끼 경중경중
다람쥐는 먹이 찾네
자자손손 발복번영
꽝꽝다져 회다질세
어머님전 살을 빌고
한평생을 살다가네
내 할 일을 다하였네

벗님네들 잘있으소
에이어라 달고

사절유타크 만년유타크

(3) 달고소리

* 에헤 여라 달고

그 때가 어느 때나
만인과거 보인다는 말을
노비 노속을 바빠 불려
노비놈의 거동봐라
서산락에 술질하여
주목 상목 터럭 달고
호피도덕 맵새란다
삼단같은 고운 머리
사리살살 빗겨내려
갑사댕기 서구양 달아
안주 명주 바지 저고리
몸짓자 삼겹 버선을
청사도포 은사띠는
나귀 등에 사뿐 올라
송동월에다 말을 메고
글제가 걸렸는데
그 글자로 채운하고
간지삼창 펼쳐 놓고
반중등 무심풀어
삼시간에 바쳤더니
어허 그 글 매우 좋다
잘잘이 구절이요
어전귀사 한 연후에

국가는 태평하야
부편에 넉넉듣고
행장기구를 차릴 적에
마고산간 들어가서
청홍사 좋은 굴레
말안장 지은 후에
도련님 치장을 불작시면
반달같은 월영사(빛)로
전반같이 널리 땅고
끝만 물려 드렸구나
고향 낙회 속버선
날출자로 지어신고
소복 통에 졸라매고
한양으로 올라올 제
과장을 바라보니
〈봄춘자, 바람풍자〉
지락벼락(쥐락펴락)
청황모 무심풀을
일필휘지 하였다가
상시관이 받아 보시고
그저 두지는 못하리라
구구이 관주로다
설명 삼자 불러내어

원갓 벼슬 시키실 제
 서으로는 평양감사
 그럭저럭 연만하야
 고향으로 내려와서
 농사 한철이 제일이라
 물이 없는 건답이라
 건답수답에 심을 적에
 산으로 가면 산따라기
 만리타국에 신역배
 여주이천 자채배(벼)
 다 먹었다 등타래기
 찰베도 한번 심어보자
 콩콩 푸드덕 장끼찰
 한 발 두 발 베암 찰(긴것)
 팔월에먹는 가웨찰(한가위찰)을
 콩도 한번 심어보자
 올콜졸콩 쥐눈이 콩
 독수공방에
 참깨들깨 드들깨는
 가을철이 당도하야
 윗동네 선머슴
 우명낫을 쓱쓱 갈아
 네귀 번듯 큰논에 가서
 드렁드렁 걸었으니
 또아리 바쳐 여드리고(이고)
 지게 등으로 저들일 적에
 예라 그것 못쓰것다
 어떤 소로 실었든가
 별베기나, 노거걸이나
 불알이 없구나 고재소로

동으로는 함경감사
 북으로는 경기감사
 벼슬을 하직하고
 신농씨가 내신법을
 농사기구 차릴 적에
 물이 있는 수답이라
 어떤 베(벼)를 심었더니
 들로 가서는 들충벼
 김포 통진은 멀따래기
 혼자 먹었다 돼지배
 여기저기 심어놓고
 어떤 차를 심었던가
 어전 앞에 상모찰
 시내 개울에 자개 찰
 여기저기 심어 놓고
 어떤 콩을 심었더니
 이팔청춘 푸르대콩
 흠애비콩을 심어놓고
 이산저산 화전놓고
 아랫동네 선머슴
 술과 밥을 많이 먹여
 콩무니에다 둘러차고
 이논 베고 저논 베어
 앵무같은 여하이는(여자아이)
 장독같은 저 영감은
 여주군사 하시는 말씀이
 쇠등으로 실어보자
 우곡뿔이나 작박뿔(소뿔)이나
 콩지가 없구나 땡경소
 우격지격 실어다가

앞에 노적 뒤에 노적
이 세상을 버렸구나

담불담불 쌓아 놓고

2) 방연근 옹의 애창 민요

(1) 난봉가(자료집, 109쪽~118쪽)

* 방연근 옹은 난봉가 중 특히 (2) 자진 난봉가를 즐겨불렀다 함.

— 긴 난봉가

* 아헤야 에헤 에헤 어허야 어림마 둥둥 내사랑아

① 정방산성(定方山城) 초목이 무성(茂盛)헌데

밤에나 올 닭이 대낮에 운다

* 에헤 에헤이야 어림마 둥둥 내사랑아

② 만경창파(萬頃蒼波)에 거게 둥둥 뜬 배야

게 잠깐 닻 주어라 말 물어보자

* 에헤 에헤이야 어림마 둥둥 내사랑아

③ 굽이치는 거센 물결에 갈매기 둥둥 떠 놓고

돛단배 두서넛 포구로 떠들어온다

* 에헤 에헤로구나 덩기덩기여라

닐니리 그만 두잖구나 어림마 둥둥 내사랑아

④ 오금이 오실오실 춥고 골머리 사지통 나는 건

임으로 연하여 난 병이로구나

* 에헤 에헤이야 어림마 둥둥 내사랑아

⑤ 슬슬 동풍에 꽃은 비 오고 풍

시화(時和)나 연풍(年豐)에 임 섞여 노자

* 에헤 에헤이야 어럽마 둥둥 내사랑아

⑥ 백일창천(白日蒼天)에 떠나가는 기력아

북방의 소식을 전하여 주렴

— 자진 난봉가

* 에헤에 에헤야 어야터야 어허야

어러힘마 디여라 내 사랑아

① 넘어간다 넘어넘어 간다

자주하는 난봉가 훨훨 넘어간다

② 물 속에 잠긴 달은 잠힐 듯 말 듯 허구요

정든 님의 심중은 알 듯 말 듯 하외다

③ 실죽 밀죽 잡아당길 줄만 알았지

생사람 죽는 줄 왜 몰라주나

④ 사랑사랑 사랑아 내가 놀던 사랑아

한 아름 덥씩 안구서 단둘이 놀던 사랑

⑤ 이 몸이 둥둥 떠 저 백운(白雲) 타면은

님 상봉(相逢) 하기가 비난지사(非難之事)로다

⑥ 남산 위에 뱀나비는 쪽지만 펼 펼 나는데

연당 안에 금잉어는 꼬리만 살살 두른다

- ⑦ 한잔을 들고 또 한잔을 드니
아니 나던 심정이 절로 난다
- ⑧ 요놈의 종자야 네 치마 폭을 놓아라
외볼로 창창 감친 것 기물에 콩 튀듯 한다
- ⑨ 감실감실 사라지는 정든 님의 뒷모습
하염없이 님을 잃고 바라보는 이 심정
가려면 가려마 잊으라면 잊어주마
이 세상 미련을 남김없이 가련다
- ⑩ 무정방초(無情芳草)는 연연이 오건만
한번 간 우리 님은 가고 영절(永絶)이라
- ⑪ 사랑이 가구요 임이 마저 가면은
이 세상 백년을 누굴 믿고 사나
- ⑫ 가는 님의 허리를 우죽~ 안고
왔다 가지 말라고 생야단만 하드라
- ⑬ 무정한 세월 오구가드니
아까운 청춘 다 늙어진다
- ⑭ 여울의 차들은 물에 부대겨 허여지고
이내 몸은 부대겨 머리털만 하다
- ⑮ 쓸쓸한 세상 맘불일 곳 없고
누구를 위하여 사드란 말인가
- ⑯ 밍쌀 곱쌀 정들어도 정이라도

임쌀 없어서 난 못 살겠다

— 병신 난봉가

* 에헤 에헤 에헤 어허야
어야어야 디야 내 사랑아

① 능라도 수양(垂楊)버들 네가 후여 잡구서
가지를 말라고 생야단이라

② 님이 저리 다정타 속의 속정을 주지마라
일후에 남이 되면 후회막급(後悔莫及)이라

③ 가는 님의 허리를 더두덤씩 안구서
가지를 말라고 생야단 현다

④ 하늘 중천(中天)에 뜬 달이 거울과도 같다면
임에나 가삼을 비추어나 주렴

⑤ 병신(病身)의 종자(種子)가 어디 또 따로 있나요
돈쓰다 돈 못쓰면 병신이로다

⑥ 십오야 뜬 달이 왜 이다지도 밝은지
우리 님 계신 곳 비쳐나 주렴

— 사설 난봉가

* 에헤~ 에헿 어야 어야어야 디야
내 사랑아~ 에헤~

①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무쇠풍구 돌풍구 사람의 간장을 다 녹여 나누나

* 에헤엥 어야 어야더야 내 사랑아~ 에헤~

② 앞집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의 총각이 목메러 간다
앞집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이 목메러 간다
사람 죽는 건 아깝지 않으나
새끼 서발이 또 난봉 나누나

* 에헤엥 어야 어야더야 내 사랑아~ 에헤~

③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나고
이십리 못가서 불한당(不汗黨) 만나고
삼십리 못가서 되돌아 오누나

* 에헤엥 어야 어야더야 내 사랑아~ 에헤~

④ 물길러 간다고 강짜를 말고

부뚜막 우에다 우물을 파렴
물길러 간다고 강짜를 말고
부뚜막 위에서 우물을 파렴아

* 에헤엥 어야 어야더야 내 사랑아~ 에헤~

⑤ 영감을 다리고 술장사를 할까

총각을 다리고 뽕소니를 칠까
영감을 다리고 술장사를 하자니
밤잠을 못자서 내 고생이요
총각을 다리고 뽕소니를 치자니
나만이 사람이 실없어 지누나

* 에헤엥 어야 어야더야 내 사랑아~ 에헤~

⑥ 달도 밝소 달도 밝아

월명 사창에 저 달이 밝아
달도 밝소 별도 밝소
월명사창(月明紗窓)에 저 달이 밝아
치녀총각이 단들이 만나 죽을동 살동
살동 죽을 동 아무도 모르게 막놀아 나누나

* 에헤엥 어야 어야더야 내 사랑아~ 에헤~

3) 초한가(자료집, 121쪽~122쪽)

만고영웅	호걸들아	초한승부	들어보소
절인지용絶人之勇	부질없고	순민심順民心이	으뜸이라
한패공漢霸公의	백만대병	구리산하九里山下	십면매복十面埋伏
대진을	둘러치고	초패왕을	잡으랄제
천하병마天下兵馬	도원수는	표모걸식漂母乞食	한신이라
장대將臺에	높이 앉어	천병만마	호령할 제
오강은	일천리요	팽성은	오백리라
거리거리	복병이요	두루두루	매복이라
간계 많은	이좌거는	패왕을	유인하고
산 잘 놓는	장자방은	계명산	추야월에

옥통소를	슬피 불어	팔천 제자	해산할 제
때는 마춤	어느 때뇨	구추삼경	깊은 밤에
하날이 높고	달 밝은데	외기러기	슬피 울어
객의 수심愁心을	도와주고	변방만리	사지 중에
잠 못드는	저 군사야	너의 패왕	역진力盡하여
장중에	죽을테라		

호생오사好生惡死	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건마는
너희는	어이하여	죽기를	저리 즐기느냐
철갑鐵甲을	고쳐 입고	날랜 칼을	빼어드니
천금千金같이	중한 몸이	전장검혼戰場劍魂이	되겠구나

오음嗚泣하여	나오면서	신세자탄身世自歎	하는 말이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金鼓를	울리면서
강동으로	가겠더니	불행히	패망하니
어이	낮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뵈며
초강백성	어이 보리	전전반측輾轉反側	생각하니
팔년 풍진風塵	다 지나고	적막사창寂寞紗窓	빈 방안에
너의 부모	장탄수심長歎愁心	어느 누구라	알아주리

은하수	오작교는	일년 일차一次	보건마는
너희는	어이하여	좋은 연분을	못보느냐
초진중	장졸 將卒 돌아	고향소식	들어보소
남곡녹초南谷綠草	몇 번이며	고당명경 高堂明鏡	부모님은
의문倚門하여	바라보며	독수공방獨守空房	처자들은
한산낙목寒山落木	찬바람에	새 옷지어	넣어두고
날마다	기다릴제	허구헌	긴긴날에
이마 우에다	손을 얹고	뒤편 올라	바라다가
망부석望夫石이	되겠구나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	철없이
젓 달라	짓어 올고	철난 자식	에비 불러
밤낮없이	슬피 우니	어미 간장이	다 썩는구나
남산하에	장長 찬 밭은	어느 장부	갈아주며
이웃집에	빛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할 손가
침전고후瞻前顧後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賊兵이라

한왕이 관후寬厚하사 불살항군不殺降軍 하오리라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데로만 갈거나

3. 속담 및 관용구

1) 상곡마을의 남문헌 씨가 사용한 속담

(1) 남양놈 메로 한다. 혹은 남양놈 일하듯 한다.

남양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양을 말한다. 남양놈 메로 한다, 혹은 남양놈 일하듯 한다는 말은 헛일을 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애써 일 하고도 허사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다.

옛날에는 소금을 만들 때 소(牛)를 가지고 갯벌을 갈아 편편하게 만든 후 여기에 갯물을 퍼서 놔두었다가 그것이 줄아서 짜지면 그 물을 가마에 끌어 담고 불을 때서 소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만든 소금을 ‘벗’이라고 한다. 달월 열두 마을 중 하나인 별말은 소래염전이 생기기 이전에 이런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어 팔던 동네여서 마을 이름이 벗말→범말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소금을 만들 때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 갯벌의 짙물이 싱거워져서 소금을 만들 수 없다. 시흥의 벗말 사람들은 소나기가 쏟아지려고 하면 얼른 갯벌에 있는 짙물을 가마에 끌어 모아 줄여서 소금을 만들어 손해를 보지 않았다. 반면에 남양에 사는 사람들은 짙물을 가마에 줄여 만드는 방법을 몰라, 소나기가 와도 그것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짙물이 싱거워져서 그간의 고생이 모두 허사가 되

었다. 남양늪 메로 한다. 또는 남양늪 일하듯 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누가 어떤 일에 온갖 정성을 들였지만 결국에는 헛고생으로 끝났을 때 사용한다.

(2) 정왕리 이장이 남면 면장보다 낫다.

정왕리는 좁은 곳이지만 군자염전 때문에 돈과 먹을 것, 술집 등이 흔해서 이장을 하면 잇속이 있었다. 반면에 시흥군에 속해 있는 남면은 정왕리보다는 면적도 넓고 면서기도 셋이나 두고 있지만 면장은 별로 실속이 없었다. 그래서 정왕리 이장을 하겠느냐 아니면 남면 면장을 하겠느냐 하면 모두 정왕리 이장을 하겠다고 했다. 좁고 작아도 잇속이 있을 때, 혹은 넓고 커도 실속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 속담을 적절히 사용한다.

2) 월동마을의 이인창 씨가 사용한 속담 및 관용구

(1) 개천에서 용 났다 : 보잘 것 없는 집안이나 가문에서 큰 인물이 태어남을 뜻하는 속담

(2) 나는 다담 풍을 해두 너는 바람 풍을 해라 : 나는 잘못해도 너는 바르게 해야 한다는 뜻의 말

(3) 문전 나그네 흔전 대접 : 집에 오는 나그네에게 후하게 잘 대접하라는 뜻의 말. 지금 당장은 거지일지라도 그가 언젠가 상당한 신분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에,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모든 사람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 좋다는 뜻의 속담

(4) 소복은 주먹에 있고, 대복은 타고나야 한다 : 작은 복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지만, 큰 복은 하늘이 주어야 한다는 뜻의 말

(5) 시루에 물 붓기 : 구멍 난 시루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다는 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속담. 기초나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소용이 없다는 뜻의 말

(6) 안악 군수 :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뜻의 속담

(7) 여우가 돌아봐도 봐줘야 한다 :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 하늘이 도와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의 속담

경기마을기록사업 5. 시흥 월곶마을지

• 진행

정춘옥(경기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협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시흥문화원(이병권 사무국장, 최경애 팀장)

• 조사 · 집필(가나다 순)

노현식(중앙대학교 대학원 비교민속학과 석사 / 주민의 일생의례, 민간의료, 지명유래, 놀이)

민병섭(시흥문화원 이사 / 마을의 세시풍속, 마을 주민의 생업)

이수자(전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겸임교수 / 마을주민 생애사, 구비전승)

이승훈(한국문화원연합회 / 생활용구, 민간신앙)

이지은(국립무형유산원 연구원 / 마을의 주생활)

이헌재(경기도박물관 수석연구관 / 마을의 역사, 인문환경)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 마을 주민들의 주요생업)

달월 열두 마을 이야기

발 행 일 : 2015. 12.

발행기관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인 쇄 : 경인일보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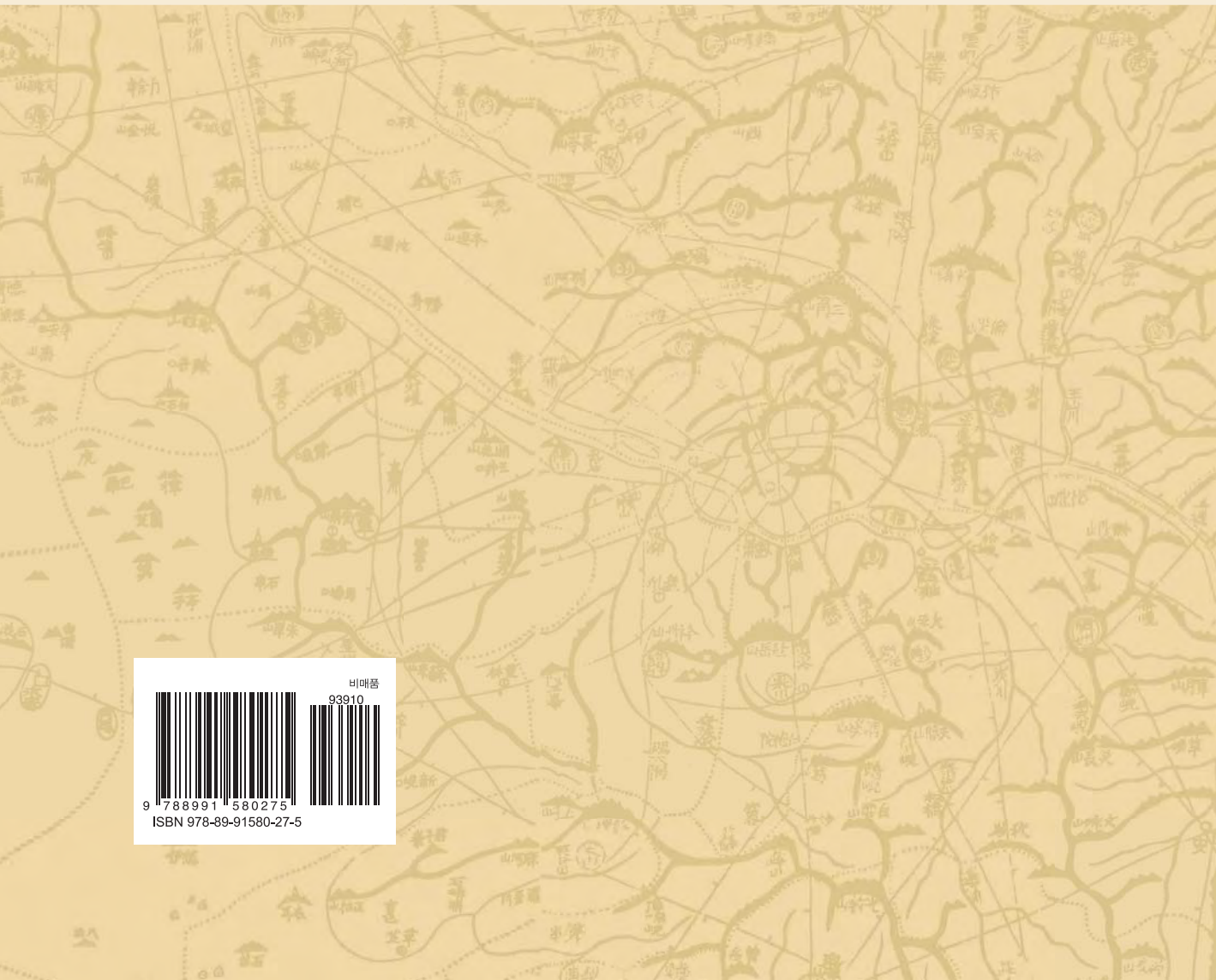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ISBN 978-89-91580-27-5 (93910)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인용을 금하며 필요시 경기학연구센터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월 열두 마을 이야기



9 788991 580275
ISBN 978-89-91580-27-5



비매품
93910